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미 진

2015년 2월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연구

지도교수 강 영 봉

김 미 진

이 논문을 문학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미진의 문학 박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목 차

I.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사 검토	3
1.3. 연구 대상과 방법	7
II. 여성 발화 해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7
2.1. 여성어의 개념	17
2.2. 여성어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론	18
2.3. 여성 발화의 특징	26
III.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특징	32
3.1. 지역성이 반영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32
3.1.1. 정감 있는 담화표지	32
3.1.2. 의문문을 통한 의사 표현	52
3.1.3. 단언적 명사 종결문	66
3.1.4. 전달력을 높이는 음운 강화	69
3.2. 보수성을 유지하는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74
3.2.1. 방언형 부사 선호	75
3.2.2. 보수적 음운 선호	86
3.3. 여성성이 강조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103
3.3.1. 여성 특유의 종결법	103
3.3.2. 접속부사와 감탄사의 사용	111
3.3.3. 기층생활 관련 어휘 선호	116

IV. 결론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33
<부록> -구술 자료	137



〈표 차례〉

<표 1> 남성 피조사자 집단표.....	11
<표 2> 여성 피조사자 집단표.....	11
<표 3> 담화표지 사용 비율.....	34
<표 4> 종류별 담화표지 사용.....	35
<표 5> 부사성 담화표지 종류와 빈도.....	36
<표 6> 접속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	39
<표 7> 지시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	41
<표 8> 의문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	44
<표 9> 조사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	46
<표 10> 감탄사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	49
<표 11> 의문문의 종류와 빈도.....	54
<표 12> 확인의문문의 사용 빈도.....	56
<표 13> 수사의문문의 사용 빈도.....	61
<표 14> 반복의문문의 사용 빈도.....	65
<표 15> 명사 종결문과 도치형 문장의 실현 빈도.....	67
<표 16> 거센소리화 실현 빈도.....	70
<표 17> 예사소리의 거센소리화 실현 빈도.....	71
<표 18> 성상 부사 사용 빈도 수.....	75
<표 19> 성상 부사의 종류별 사용 빈도.....	76
<표 20>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사용.....	77
<표 21> 등급을 높이는 정도 부사의 사용.....	79
<표 22> 등급을 낮추는 정도 부사의 사용.....	80
<표 23> ‘다, 모두’를 뜻하는 부사의 사용.....	83
<표 24> ‘그냥’을 뜻하는 부사의 사용.....	84
<표 25> 예사소리 유지 실현 빈도.....	86
<표 26> ㄷ-계 구개음화 실현 빈도.....	88
<표 27> ㄱ-구개음화 실현 빈도.....	89

<표 28> ㅎ-구개음화 실현 빈도.....	91
<표 29> ‘ㄹ’첨가 형 실현 빈도.....	92
<표 30> 모음조화 파괴 형 실현 빈도.....	93
<표 31> 음절 축약 이전 형의 용언 발화 빈도.....	96
<표 32> 명사부사의 움라우트 실현 빈도.....	97
<표 33> 동사의 움라우트 실현 빈도.....	98
<표 34> ‘ㅏ>ㅓ’ 음운 변화 실현 빈도.....	99
<표 35> ‘ㅓ>ㅕ’ 단모음화 실현 빈도.....	100
<표 36> 평서문의 종결 형태.....	110
<표 37> 접속부사의 사용 빈도.....	111
<표 38> 접속부사의 종류별 사용 빈도.....	112
<표 39> 감탄사의 사용 빈도.....	114
<표 40> 남성 피조사자의 어절 수.....	117
<표 41> 여성 피조사자의 어절 수.....	117
<표 42> 남녀 고빈도 어휘.....	118
<표 43> 결혼 이야기에 대한 여성 화자의 핵심어.....	120

I. 서론

1.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방언을 구사하는 여성 화자의 발화 특징을 찾고 그 원인을 알아보는 데 있다. 사회언어학의 연구 주제나 시각은 언어의 이질성을 전제로 출발한다. 이 이질성을 유발하는 변수로 성별, 계층, 나이, 학력, 직업, 인종, 종교,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언어에서 성(gender)¹⁾ 문제는 20세기 들어 인종, 성별 등에 관심을 둔 인류언어학과 사회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성별 언어에 대한 관심의 폭도 넓어져 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성에 따른 언어 특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에서 친족어가 화자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것 이외에 단어나 문법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많지 않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형태적인 특징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상대적 빈도수의 차이에 따라 선호하는 어휘가 달라진다. 이는 성별 언어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성 선호적 차이(구현정·전영옥, 2005: 344)라고 한다. 언어 사용에서 성 선호적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이 생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가 남성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어휘나 발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여성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 조난사고가 많았으며, 6·25전쟁, 4·3사건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여성 인구 비율은 남성의 경제활동 영역에 여성의 참여를 가능케 했고 제주도 여성은 강인한 생활력과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생활태도를 갖는 것으로

1) 사회언어학사전(한국사회언어학회, 2012)에 따르면 성은 생물학적 성(sex)와 사회문화적 성(gender)으로 구분되며 생물학적 성은 선천적이고, 사회문화적 성은 후천적이다. 생물학적 성은 여성 또는 남성으로 이분화 되지만, 사회문화적 성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우는 사회적 구성물로 상황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좀 더 남성적(more masculine)' 또는 '좀 더 여성적(more feminine)' 등으로 범주화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로 인식되어 왔다. 제주도 여성이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제주도의 특수한 자연환경 때문이다. 제주도는 화산토와 잣은 태풍 등의 이유로 밭농사가 발전하였는데 밭농사는 남성보다 여성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다. 또한 일찍이 잠수업을 발달하여 제주의 해녀는 육지부의 여성과 구별되는 제주도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이러한 제주도 여성의 역할은 여성 중심의 설화, 민요, 노동요 등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생존적 기반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력과 경제활동이 갖는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상이 제주도 여성들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는 시작됐다. 제주도라는 지역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또한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 여성만의 갖는 언어의 특징이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이나 성차별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방언을 구사하는 여성 화자들의 발화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여성의 언어가 남성의 언어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므로 발화되는 언어에 한정하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녀의 언어 차이가 생기는 요인은 사회적 여건이 여성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과, 가부장제도에서 비롯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이 여성으로 하여금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 되어온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남녀에게 부여하는 역할이 다르고 관심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과 남성들의 세계 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남성어와 여성어라는 구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음운·문법적으로도 보이지만 대화에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여성 화자의 실제 발화를 분석하여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우선 2장에서 여성어의 개념을 살펴보고 여성 발화 해석을 위한 다양한 이론과 여성 발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제주도의 여성 발화를 지역성이 반영된 것, 보수성을 유지하는 것, 여성성이 강조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3.1 지역성이 반영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에서는 담화표지, 의문문의 사

용, 명사 종결문, 음운 강화에 대해 분석하여 제주도 여성의 발화에 사회와 자연적인 특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3.2. 보수성을 유지하는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에서는 제주도 여성이 표준어와 표준 발음보다는 고어형과 방언형을 선호하는 발화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찾아 볼 것이다. ‘3.3. 여성성이 강조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에서는 여성 특유의 종결어미 사용, 감탄사의 사용, 기층생활 어휘 선호를 통해 여성적 특징이 반영된 발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사 검토

우리나라의 여성어 연구는 크게 여성을 지칭하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대상어 연구와 여성이 발화하는 언어의 특징을 살피는 여성 발화어 연구 두 가지로 나뉜다. 여성 대상어란 ‘여성을 지칭하거나 표현하는 언어’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여성어 연구는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를 연구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여성 지칭어가 남성 지칭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즉 여성 지칭어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관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 대상어에 대한 연구는 어휘의 존재 양상 자체가 성에 따라 차별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 어휘가 지칭하거나 표현하는 대상에 차별적인 의미가 부가되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발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므로 대상어에 대한 연구사는 생략하기로 한다.

여성 발화어 연구는 여성 발화 자체가 남성 발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서 시작하여 여성 발화 속에 담긴 성차별적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 1980년대 이후 여성 발화어 연구는 음운적 특성이나 어휘 사용의 차이, 어법의 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 이어졌다. 발화상의 특성으로 접속문과 평서문에서 남성이 주로 하강조를 쓰지만 여성은 상승조를 더 쓴다거나 남성은 함쇼체를 여성은 해요체를 더 쓴다는 것이다. 특히 해요체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간의 서법이 애매하고 억양 변화를 통한 서법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여성 어법에서

발달하였다. 남녀는 관심 어휘도 다른데 여성은 독특한 형용사, 부사, 감탄사 사용이 많아 감성 어휘가 발달했고 욕설이나 금기어 사용이 적다. 화용상에서도 남녀 대화 태도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은 정보적, 경쟁적 대화를 추구하고 여성은 친교적, 협동적 대화를 추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여성 발화어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말 장태진(1969)이 여성 은어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성어의 음성학적 특징을 정리하고, 문법적 범주에서 특히 여성 존속 또는 가족에 대한 남성 가족들의 경어법 사용에서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이후 이능우(1971)가 여성 발화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광수, 김동인 등의 소설 작품에 나타나는 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여성은 ‘-요’, ‘-우?’ 등을 많이 사용하고 특정한 감탄사, 예를 들어 ‘애, 어머니, 아이……’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언어 자료가 아닌 문학 작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격적인 여성 발화어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발화 상에서 계량적 실증적 방법으로 여성 발화의 특징을 찾으려고 하였다.

강정희(1987)는 여성어의 한 유형으로서 ‘-는 거 있지(죠)’의 사용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는 거 있지(죠)’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여성어법이라는 것을 통계 조사로서 보여주었는데 이 연구는 이 시기의 남. 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한 연구로서, ‘-는 거 있지(죠)’의 사용 장면과 이 어법의 발생과 근원 집단, 이 어법을 들었을 때의 느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어법은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화자만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자의 호응을 유도하는 대화 전략임을 밝히고 있다.

김선희(1991)는 여성어의 특징을 간접적 표현, 감정이입을 위한 표현, 강조법과 상승 어조법을 사용하는 유표적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가의문문, 모호한 표현, 공손 표지의 사용은 간접적 표현으로 분류하였고, 확인과 동의 요청이나 담화시 긍정적 반응 등을 감정이입을 위한 표현으로 보았다.

이석규·김선희(1992)도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여성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여성 발화의 음운적 특징으로 여성이 새로운 부사를 많이 만들어 내거나, 한정된 부사만을 자주 사용하거나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듣는 이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며 감탄사나 부사의 사용은 방송 대화라든가 일상 남녀의 대화를 분석해도 거의 예외 없이 여성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했다.

임홍빈(1997)은 청자대우법, 어휘사용 등에 대해 살펴 보면서 여성어의 특징을 살폈다. 종결어미 사용에 있어 여성은 ‘-습니다’ 보다 ‘-요’형을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대우를 한다고 했다. 또 평서문의 경우 남성의 말은 짧고 급한 하강조로 끝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말은 다소 길고 완만하고 부드러운 억양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 하강조로 끝나는 것이 전형적인 유형인데 여성어에 있어서는 끝이 다소 올라가는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민현식(1995)은 여성 대상어와 여성 발화어로 구분하고 여성 발화어의 특징을 음운, 문법, 어휘, 화용적 특징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음운적으로 평서법, 접속법의 종결 억양을 의문법의 상승억양처럼 끝을 올려 발음한다고 했다. 또한 표준발음을 선호하는 것을 설문지를 통해 증명하였다. 문법적으로는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여성이 의문문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 특유의 종결 어법으로 해요체의 ‘-요’와 하우체의 ‘-우’의 사용을 들 수 있다고 했다. 남성은 사태의 서술 표현을 단언적 표현인 평서법으로 하는 편이지만 여성은 단언하지 못하고 동의확인적인 의문법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어휘적 특징으로는 부사, 감탄사를 사용하는 감성 어법을 여성이 선호하고 일반적으로 금기어가 많고 욕설의 사용이 드물지만 남성은 속어를 잘 만들고 여성보다 욕설을 잘 쓴다고 했다. 화용적 특징으로 여성이 협동적 대화, 맞장구치기, 애매어법, 찬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민현식(1997)에서는 TV프로를 대상으로 해요체와 합쇼체 사용과 아울러 상승조, 하강조에 대한 조사를 하여 남녀의 언어를 비교하였다. 여성어는 ‘-요, -죠’ 따위의 해요체 어미를 주로 쓰는데 평서법과 의문법에서 모두 상승억양을 쓰므로 평서법과 의문법의 변별은 말을 다 듣고 나서, 즉 상황의 의미에 의해 변별된다. 상승억양이 쓰이는 문제는 단언 표현이 억제되고 청자에게 동의 확인성 부가 의문문 어법을 사용하다 보니 여성이 평서문에서도 부가 의문문식 억양을 수반하

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임지룡·배문경(2003)에서는 라디오 방송 대화와 소설, 시나리오, 일일 드라마 대본에서 의문문, 감탄발화, ‘-요’ 부가형 종결발화, 비단정 발화를 각 자료별로 등장인물 수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은 담화표지, 맞장구치기, 감탄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기술하였다.

임규홍(2004)에서는 중·고등학교 이야기 대회를 녹화하여 여학생 42명, 남학생 27명의 발화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여성이 담화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남성이 더 권위적이어서 여성보다 끼어들기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소라(2004)는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에 제작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를 통해 남녀의 대화를 비교하였는데 여성어의 특징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흡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박은하(2005)는 텔레비전 광고 자료를 대상으로 성차이어와 성차별어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화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여성어의 특징이라고 했던 성차이어 표현들을 남녀 모두가 많이 사용하며 이는 남성들이 여성어의 특징을 남녀 모두의 특징 또는 남성어의 특징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남성들의 언어가 점차 여성화 또는 중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성차별어 보다는 간접적인 성차별어가 늘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혜영(2011)은 문어와 구어, 남성과 여성,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에서 정도 부사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하였다.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정도 부사가 더 빈번히 나타나고, 특히 구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공적인 상황보다는 사적인 상황에서 정도 부사를 약 2배 정도 더 빈번하게 사용함을 입증하였다. 말뭉치를 활용했다는 점, 성별·사용 영역 별로 구분한 텍스트 목록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주도방언에서 여성어와 관련된 연구로는 문순덕(2005, 2012) 제주지역 신문 광고에서 나타난 여성 대상어 연구, 여성과 관련된 제주도 속담을 통과의례 별로 정리한 연구가 있다. 또 줄고(2008, 2010) 제주도 여성속담에 나타난 이중성에 대한 연구, 제주도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살펴본 친족어 연구가 있다.

이상에서 국내 여성어와 관련된 연구 검토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국어의 여성 발화 연구는 표준어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고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한 성별어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뿐 성별의 특징만을 비교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연구 대상에 있어서 초기의 연구는 여성이 많이 쓸 것 같은 발화를 추측하여 작성되었고 그 후 통계적 연구도 이뤄졌는데 소설, 극본, 드라마, 영화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과 세종계획에 따른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자료는 주로 머리 속 언어이거나 문자 언어이고, 실제 자연 발화를 통하여 수치화하여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은 지역성과 실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제주도의 방언을 대상으로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의 실제 발화를 비교하여 여성 특유의 발화 특징을 찾아볼 것이다.



1.3. 연구 대상과 방법

1.3.1. 피조사 집단의 사회적 배경

제주도는 예로부터 삼다의 고장으로 여성이 많은 곳이라고 하였고 여성들이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는 본토와의 바닷길이 험하여 표류하거나 배가 침몰되는 경우가 많았다. 뱃일은 주로 남성들의 역할이었으므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많은 남성들이 죽고 주로 여성들이 남게 되었다. 임진왜란 직후 제주에 어사로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제주에서 견문한 바를 기록한 《남사록(南槎錄)》²⁾에 제주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2)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1976, 53~54쪽의 김상헌의 남사록(1628년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지》에 의하면 바닷길이 멀고 험하여 표류하거나 침몰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딸 낳기를 중히 여기며, 여자의 수가 남자의 세 곱이나 되어 비록 거지라 할지라도 처첩을 거느렸다. … 《남명소승》에서도 역시 말하기를 질병이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여자 얻기를 많게는 8~9인에 이른다. … 《표해록》에 의하면 제주 사람 손효지가 말하기를 “우리 제주는 멀리 대해 가운데 있어서 파도가 어느

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떠도는 이야기를 적은 것으로 과장이 가미되었겠지만 조선시대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토질이 척박하고 기후 변화가 심하여 흉년이 잦고 왜구의 침입이 많고 각종 공납의 부담이 심하여 섬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조선 인조 7년(1629)부터 제주도에는 출륙금지령이 내려졌다. 흉년과 기근 등으로 인하여 육지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제주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인질로 잡았던 것이다. 그 후 200여 년 간 제주도의 여성은 섬 밖을 나갈 수 없었다. 제주도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찾아서 제주도를 떠난 남성들을 대신해 제주를 지켰다. 해난 사고로 인해 남성들이 죽거나 경제적 이유로 남성들이 도외로 떠난 것이 성비 불균형을 극대화시켰다. 남성이 집을 떠나자 남겨진 여성들은 남성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까지 해내야 했다. 제주도 여성은 모든 노동에 참여하였고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농업에서 남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위해 물질을 하기도 했다.

19세기 이후 정부에서 파견된 제주목사와 유배인들을 통해 유교적 이념이 전파되었고 유교에 근거한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인 경제생활 속에서 제주도의 여성은 모든 노동에 참여해야 했다. 남성중심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통제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들은 내재적으로 남성중심의 사회제도에 많은 불만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제주 여성의 강인한 생활력이나 높은 농업 참여율은 남성 노동력의 부족과 자연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줄곧 제주의 사회와 문화에서 제주 여성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왔다. 제주의 신화, 전설, 민담 등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신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제주 여성은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제주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다. 이러한 편견이 생겨나게 된 것은 섬 밖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성들과 섬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바다보다도 사납고, 진상 다니는 배나 상선이 표류하거나 침몰하는 예가 끊이지 않아, 열에 다섯 여섯은 표류해 죽지 않으면 침몰해 죽기 때문에 제주 경내에는 남자 무덤이 극히 적고, 여염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세 곱이 된다.”

여성들의 상황이 만들어 낸 것이다. 생업을 책임져야 했던 여성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모든 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제주의 환경은 다른 지역보다 여성어의 특색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1.3.2. 피조사 집단 선정 기준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 지방과 산남 지방으로 구분하는데 2006년 7월 1일부터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여 두 개의 행정시로 행정 구역이 개편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 구역은 2개의 시와 11개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인 우도면을 제외한 제주도내 12개 행정구역에서 남녀 각 1명씩 총 24명의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여 녹음하고 음성파일을 전사하였다. 한라산 북쪽의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한라산 남쪽의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안덕면, 대정읍 등 총 12개 지역(우도면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제주도방언을 사용하는 남녀 간의 발화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제주도내 제주도방언 구사가 가능한 7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마을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1960년대 이후 제주도는 지역 개발이 수립되고 진행됨에 따라 이전의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남성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제주도 여성 노동력은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³⁾도 급격히 낮아졌다. 이 연구의 대상은 1940년대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로 1960년대 개발 이전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표준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제주도방언의 원형을 상당부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표준어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제주도방언의 원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은 노년층의 언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 밖에 없다.

전통 방언학에서 피조사자는 나이가 많고, 그 지역의 토박이이면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요구한다. 본 연구를 위한 피조사자는 모두 그 마을 출신이거나 여성의 경우 주변 마을이 고향이며 그 마을로 시집을 와서 해당 마을에

3) 강성의(1994)는 전체적인 제주도 인구는 늘어나는데 여성 인구는 감소하였다면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남성들이 소유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감귤 산업, 목축업 등 남성 중심 분야의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5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군대나 일본에서의 생활, 출가 물질 등의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더라도 십년 이상 외지에 나가 살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했다. 피조사자의 나이는 75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여성이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나이도 여성 피조사자의 나이가 많은 경향이 있다. 또한 여성은 무학력자가 대다수인 반면 남성 피조사자는 무학력자를 찾기 어려워 몇 명의 학력자를 포함하였다. 남성은 교육을 시키고 여성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회적 배경이 원인이다. 남성 피조사자가 여성 피조사자보다 평균 연령이 어리고 교육 정도도 높다는 것은 성별에 따른 발화특징을 비교하기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이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회언어학적 변인 가운데 하나만을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통계적인 수치로 계산하기에는 피조사자 수가 적지만 제주도의 행정구역 단위별로 1명씩 선정하였고 피조사자의 발화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피조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남성은 M1~M12로 여성은 F1~F12로 나타냈다. 조사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였으나 자료로 선정한 부분은 20분 전후로 이야기가 계속되거나 말의 속도가 느린 피조사자의 경우는 최대 26분까지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로 사용된 총 발화시간은 남성이 286분 34초이며 여성 피조사자는 284분 22초다. 남성 피조사자의 시간이 2분 정도 더 많은 것은 남성이 말의 속도가 더 느린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아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의 발화만으로 한정하면 말의 흐름이 끊기므로 시작된 발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다.

1.3.3. 연구 자료

1) 주 자료

위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선정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음성파일을 전사하여 한글파일로 만들었다⁴⁾. 피조사자 집단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4) 이 논문의 부록에 24명의 피조사자 음성파일을 전사한 자료를 신고 있다.

<표 1> 남성 피조사자 집단표

이름	나이	주소지	학력	시간(분:초)	비고
M1	79세	구좌읍 송당리	무학	25:45	
M2	81세	남원읍 태흥리	무학	24:10	
M3	77세	대정읍 동일리	무학	21:32	
M4	84세	서귀포시 상호동	중졸	26:40	
M5	80세	성산읍 삼달리	무학	24:32	
M6	75세	안덕면 사계리	초졸	25:02	
M7	75세	애월읍 신업리	초졸	24:59	
M8	84세	제주시 건입동	무학	22:10	
M9	82세	조천읍 신촌리	무학	21:10	
M10	75세	표선면 하천리	중졸	26:10	
M11	81세	한경면 금등리	초졸	21:21	
M12	75세	한림읍 귀덕리	중졸	23:03	

<표 2> 여성 피조사자 집단표

이름	나이	주소지	학력	시간(분:초)	비고
F1	78세	구좌읍 송당리	무학	23:56	
F2	87세	남원읍 태흥리	무학	26:41	
F3	75세	대정읍 인성리	무학	22:35	
F4	90세	서귀포시 회수동	무학	22:10	
F5	87세	성산읍 수산리	무학	22:09	
F6	92세	안덕면 감산리	무학	22:57	
F7	85세	애월읍 신업리	무학	22:13	
F8	76세	제주시 건입동	무학	24:45	
F9	82세	조천읍 조천리	무학	24:13	
F10	80세	표선면 하천리	무학	25:10	
F11	84세	한경면 산양리	무학	24:31	
F12	76세	한림읍 귀덕리	무학	23:12	

2) 보조 자료

이 연구의 피조사자 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은 필자가 채록 전사한 두 권의 책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기본 자료가 한정된 주제에 대해 짧은 시간 녹음한 자료인데 반해 보조 자료는 생애사를 다룬 것으로 남녀 개인의 이야기를 10시간 이상 녹음한 것이다.

- (1) 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2, 제주시 용강동 권상수 할아버지 생애 구술 《각신 이끄 곡 서방은 갈곡》,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9. <M13>
- (2) 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4,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김기생 할머니 생애 구술 《술벤

절벤 귀곶창 고장떡 톱 더끄곡»,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1. <F13>

(1)의 피조사자 권상수 할아버지는 1933년생으로 조사 당시(2008년) 76세였다. 음성파일은 총 12시간 5분 14초이고 그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전사하였다.

(2)의 피조사자 김기생 할머니는 1927년생으로 2010년 조사 당시 84세였다. 총 10시간 10분 43초의 음성 자료를 전사하고 내용별로 편집한 것으로 출판 과정을 거치며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

1.3.4. 조사 내용과 기간

피조사자들이 일 대 일 단어 대응식 응답이나, 한 문장의 발화를 한다 하더라도 낯선 사람과 함께 녹음기를 앞에 놓고 하는 면담은 어느 정도 주의력을 갖게 된다. 화자가 말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발화는 격식적이고 조심스러워진다. 그래서 많은 분량의 말을 하도록 질문을 하고 피조사자들로부터 나온 준대화적인 발화를 녹음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다. 언어학자들은 관찰자가 없을 때 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얻고자 한다. 관찰자의 관찰 과정이 피조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상적인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자로부터 관찰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피조사자는 자기의 언어 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이를 ‘관찰자의 모순 (Observer's Paradox)’이라고 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조사자 모르게 녹음기를 설치한다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피조사자가 주의력을 잃게 하여 보다 일상적인 발화의 말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런 질문은 모든 피조사자에게 통하지는 않았다. ‘그런 적 없다’는 대답이 나오면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수가 없었다.

1) 조사 내용(주제) : 결혼

모든 피조사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결혼’을 소재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 주제는 남녀의 공통된 화제로 피조사자 모두가 의례의 주인공으로 결혼식 날을 보냈을 것이며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경

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피조사자가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화제 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옛날 결혼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② 옷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 ③ 잔치음식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 ④ 잔치 전날, 당일, 다음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 ⑤ 예단이나 이바지 등 결혼과 관련된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⑥ 중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결혼과 관련된 질문과 더불어 ‘-심’, ‘-순’, ‘-크메’의 사용 여부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 종결어미들은 제주도방언에서 여성 화자들이 사용하는 어미로 알려진 것으로 실제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다.

2) 조사 기간

(1) 1차 기간 : 2008년 6월, 2010년 6월

두 차례에 이루어진 보조 자료로 사용된 구술자료 조사 기간인 2008년 6월과 2010년 6월이다. 남녀의 발화 특징을 살피기 위하여 성별이 다른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두 명의 피조사자를 통한 깊이 있는 연구는 개인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피조사자를 통한 검증 작업이 필요했다.

(2) 2차 조사 기간 : 2014년 6월

본격적으로 성별에 따른 발화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을 제주도의 12개 지역으로 선정하고 마을 별로 남녀 각각 1인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차 조사기간에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남녀 모두에게서 비슷한 발화량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결혼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고 인터뷰를 통한 자연발화를 녹음하였다.

(3) 3차 조사 기간 : 2014년 8월

이 기간에는 2차 조사 기간에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간이 짧아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내용과 이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는 자료를 빼고 추가로 조사하였다.

1.3.5. 연구 방법

사회언어학적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이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언어 사용 사례들을 대상으로 쓰임의 실태와 의미 기능을 깊이 있게 살피는 방법으로 사회적 요인 또는 언어 기능에 초점을 둔다. 양적 연구 방법은 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언어 형식의 쓰임이나 그것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어 양적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나온 통계 결과는 선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요인을 살피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 방법론 또한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양적 분석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언어 사용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현상을 질적 분석으로 검증, 보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제주도방언에서 나타나는 양적 분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어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실제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아직 제주도방언에서 시도된 적이 없다. 제주도방언의 특수성 때문에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가 없으므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1) 현장 조사 방법

현장 조사 방법은 조사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피조사자를 찾아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방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제주도방언을 구사하는 데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녹음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옛날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0분 가량의 녹음을 하고 이중 20분의 내용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지식적 면접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확실적인 정보가 되지 않고 폭넓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면접 조사 방법은 지시적 면접과 비지시적 면접 방법을 혼용하였다. 개별면접법 중에서 지시적 면접은 일정한 질문 항목에 대해 면접하는 일반적인 면접인데 반해 비지시적 면접은 자유로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항목을 선정하였으므로 딱딱하게 질문 읽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방언을 사용하여 피조사자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피조사자의 발화 상황에 따라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결혼과 관련된 내용으로 더 이상 대화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의 발화 중에서 관심사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였다.

2) 조사에 사용한 기기

녹음기는 삼성 보이스트레코더 YV-120이다. 조사한 음성파일을 전사하고 그 자료를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 버전 1.5.5(일명 감작새)를 통해 어절 빈도와 음절 빈도를 산출하였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텍스트 문서(*.txt)만을 분석할 수 있어 제주도방언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한글 파일을 2바이트문서(*.2b)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 ‘아래아’ 등 제주도방언의 독특한 형태를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자료 처리 방법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로 부족한 부분은 와세다 대학에서 개발한 말뭉치 활용도구인 Antconc 3.2.4.를 사용하여 핵심어를 추출하고 종류별 어절 수(token)를 분석하였다. Antconc는 텍스트(.txt) 파일만을 인식하므로 제주도방언의 특징적인 아래아(·)가 들어있는 것이나 제주도방언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음절의 경우는 따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ㄱ’는 ‘고a’처럼 ‘·’가 ‘a’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고 ‘웨’는 ‘되e’처럼 ‘ㄱ’ 발음이 수정되었음을 표시하였다. 표준어의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표준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절형태는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형태소 분석은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제주도방언은 방언형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엑셀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이상의 연구 진행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남녀 각 1명의 개인 생애사에 대한 제주어 구술자료 조사 및 정리
- ② 남녀 각 1명의 성별에 따른 발화의 특징 분석
- ③ 조사 지역을 제주도 12개 지역으로 선정하고 남녀 24명의 발화 조사
- ④ 조사 대상을 75세 이상의 그 지역 토박이 남녀 화자로 섭외
- ⑤ 조사 취지와 녹음 사실을 알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 발화로 녹취
- ⑥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조사
- ⑦ 조사한 음성파일을 전사
- ⑧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를 통해 어절 빈도와 음절 빈도를 산출
- ⑨ ‘Antconc 3.2.4.’를 사용하여 핵심어를 추출하고 종류별 어절 수(token)를 분석
- ⑩ 엑셀에서 수작업을 통해 선별적 형태소 분석



II. 여성 발화 해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2.1. 여성어의 개념

성별 언어는 성별 방언 또는 성별어(sex dialect, genderlect)라고 부르는데 여성 화자 또는 남성 화자에게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학적 특징(한국사회언어학회: 2012)을 가리킨다. 성별 언어 연구는 남녀 차별적 사회 구조를 다루는 여성 해방 운동이나 여성주의(페미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성차별적인 언어 현상, 즉 성차별어 연구로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성차이어로서의 성별 언어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떤 어휘가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서 특유하게 쓰이는 어휘인 ‘대상어’(objective genderlect)의 측면과 남성과 여성이 특유하게 발화하는 ‘발화어’(utterable genderlect)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성별 언어를 정의할 수 있다. 남성어는 남성에 대해서 주로 쓰이는 남성 대상어와 남성들이 특유하게 발화하는 남성 발화어로 나뉘며 여성어는 여성에 대해서 주로 쓰는 여성 대상어와 여성들이 특유하게 발화하는 여성 발화어로 나눌 수 있다.

여성어를 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지칭어와 여성 묘사어 ②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 속담 ③ 여성이 직접 발화하는 말 ④ 여성만 사용하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말 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지에 따라서 나누거나 선호하는 정도, 성차별적 특징에 따라 여성어를 정의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여성어는 여성에 대한 말, 여성이 발화하는 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말도 여성에게만 쓰는 것, 여성과 남성이 같이 쓰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성이 발화하는 말도 여성만이 발화하는 것, 여성이 주로 발화하는 것, 여성과 남성이 같이 발화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어는 성별 언어에 속하므로 가장 일차적인 변이 요소로서 성별을 기준으로 삼는다. 발화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이 발화하는 언어가 여성어고 남성이

발화하는 언어가 남성어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적인 발화를 할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처럼 말할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남성이 여성어를 여성이 남성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여성이 발화하는 모든 언어를 여성어로 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말하도록 사회화되어 학습되고 교육되어 왔다. 또한 표현 대상의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에 대해서 쓰는 말이 여성어고 남성에 대해서 쓰는 말이 남성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말은 여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표현들이다. 따라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 차별적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성 대상어에 대한 고찰은 대부분 성 차별과 관련하여 논의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2. 여성어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론



여성어와 남성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방향에서 시도되었다. 그 큰 흐름은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와 ‘여성주의-사회언어학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는 지역, 계층, 성별에 따른 변이 현상을 계량화하여 여성어의 특징을 남성어와 대비하여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성주의-사회언어학적 연구’는 남녀 차별적 언어 현상을 사회언어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이다.⁵⁾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언어가 남성의 언어와 다른 이유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려 하였다.

2.2.1. 결손 접근법

결손 접근법(Deficit Approach)은 여성의 언어가 남성의 언어에 비해 부족하고

5) 민현식(1997: 532)에서 성별언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방법을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었다.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로는 Labov, Trudgil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여성주의-사회언어학적 연구는 다시 결핍이론, 지배이론, 문화차이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는 그 외의 코드 전환이론, 사회연결망이론 등 여성 언어를 설명하는 가설들을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불완전하며 열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특정 인종이나 성별 및 사회 계층의 언어가 그 대가 되는 언어 사용 집단의 언어와 달리 특정 사고나 언어 사용이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17)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여성이 즐겨 쓰는 어휘가 피상적이라고 남성 우월적 편견을 서술한 Jespersen(1922)이 초기 결손 접근법의 대표자이다. Jespersen(1922)은 여자들은 불완전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낸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남자들은 복합문을 사용하지만 여자들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주로 사용한다. 여성 언어는 독자적인 언어가 아니라 남성언어의 열등한 변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Key(1975)는 언어체계와 언어 사용에 의한 여성차별 및 의사소통에서 여성의 말하기에 관심을 가졌다. 여성의 언어를 ‘사과의 언어(language of apology)’라고 부르고 남성이 사용하는 언어를 ‘설명의 언어(language explanation)’이라고 했다. 남자들은 가끔씩 사과하는 반면, 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방식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태도를 모방할 경우 자신들의 억압에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의 언어를 모방하려고 하거나 남자들처럼 생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Key(1975)는 여성들이 표준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을 평소에 여성이 갖기 어려운 사회적 지위를 언어 면에서라도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은 낮은 사회적 위치에 수긍하려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 남녀평등을 향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해석(박창원, 1994: 51, 재인용)한다.

Lakoff(1975, 강주현 역(1991))⁶⁾는 여성 언어라는 개념을 여성들만이 사용하

6) Lakoff(1975, 강주현 역, 《여자는 왜 여자답게 말해야 하는가》, 고려원, 1991.)는 여성어의 특징(Female Register)을 다음의 10개의 항목으로 목록화하여 제시했다.

- ① 여성 특유한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 ② ‘내용없는’ 형용사를 많이 사용한다.
- ③ 꼬리 질문(tag question)을 많이 한다.
- ④ 자기의 발언 내용을 약화시킨다.
- ⑤ 강의어(intensive)를 많이 사용한다.
- ⑥ 과도한 문법 사용(hypercorrect grammar)이 있다.
- ⑦ 지나친 친절 어법(superpolite forms)을 사용한다.
- ⑧ 농담을 않는다.
- ⑨ 강조어를 많이 사용한다.
- ⑩ 다양한 억양(intonation)을 사용한다.

는 언어와 남자들에 의해 여성들이 기술되는 언어로 이해한다. 여성 언어는 여성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통속성과 불확실을 시사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된다고 했다. 또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다루지 않고 힘없는 집단 그 자체로 다뤄진다고 했다.

이 이론에서는 여성의 불리한 사회적 상황이 여성이 결핍된 언어를 사용하는 출발점이라고 전제한다. 사회적 관계가 여성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강요되어 왔고 종속적이고 힘이 없는 발화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여성의 언어는 독자적인 언어가 아니라 남성 언어의 열등한 변형이라고 본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을 강자인 남성 대화 파트너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관심사를 대표하거나 주장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들은 우유부단하며 감정에 치우친 발화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들이 무기력한 것은 사회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언어는 억압과 자신감 부족의 표시로 결핍된 것으로 취급된다. 여성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며 여성의 처한 사회적 상황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저항의식이나 보상심리가 여성의 표준어 선호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남성들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여성들은 가정에 머무르고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여성은 겉으로 내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이익섭(2000: 116~119)에서 남성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지만 여성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것과 같은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언어 사용에도 신경을 쓴다고 설명한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언어 형태인 표준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은 평소에 갖기 어려운 사회적 지위를 언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사회적 지위나 성취도에 의해 평가 받을 수 없으므로 언어를 통해 자기들의 사회적 위치를 확실하게 표시하려고 한다고 본다. 표준어 사용자는 더 나은 지위를 갖고 있고 유능한 존재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성은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남성 보다 낮은 사회적 지

위를 보상 받으려 한다고 보는 것이다.

2.2.2. 지배 접근법

지배 접근법(Dominance Approach)은 남녀의 대화 스타일 차이가 남성 우위의 힘의 구조에서 비롯된다⁷⁾고 보는 관점이다. 여성이 발화 양이 더 많지만 상대방의 주의를 얻고 응답해주는 것은 여성의 몫이 되고 남성은 침묵이나 말 중단시키기 등으로 대화에서 통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성별 위계가 언어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은 통제력과 특권을 주장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구사하고 여성은 공손하고 순응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남녀의 불평등 구조를 통한 남성의 대화 지배력에 주목하며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무력한 언어 생활을 한다고 설명한다.

Ardener(1975)는 어느 사회든지 지배집단에 속한 언어 표현 양식이 있으며 지배집단에 종속된 침묵집단이 자기를 표현하려면 지배집단의 표현 양식으로 표현하도록 구조화되었다고 했다. 언어생활에 있어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은 지배집단이 되며 여성은 침묵집단이 된다. 여성은 남성의 언어에 예속된 언어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언어 표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남성이 여성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 남녀 간 의사소통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Zimmerman & West(1975)는 남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기하는 횟수를 측정하였는데 동성 사이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가로채기 현상이 이성 사이에서는 급증하는데 이것은 여성이 계속 이야기하도록 남성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화의 주제와 소재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 방해로 통해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행위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책략의 하나이다. 남성은 정상적인 말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끼어들어 여성의 말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여 여성이 말하고 있는 화제에 지지를 보내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7) 사회언어학사전(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203) 발화의 양이나 화제의 도입 및 유지, 대화 유지 및 통제 양식 그리고 화자 및 청자가 사용하는 협조적 혹은 비협조적 언어 기제의 차이 등은 사회구조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갖는 남성의 힘, 이를 전승해온 문화적 정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한다.

2.2.3. 차이 접근법

차이 접근법(Difference Approach)은 남성과 여성의 대화 양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성역할의 구분이 언어 차이를 나타낸다는 견해이다. 대화 스타일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언어에 깊이 뿌리박힌 대화상의 규범 차이에서 비롯된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207)남녀의 언어 차이는 남녀가 유·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다른 문화를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남녀 문화 차이로 인해 언어가 달라진다고 본다. 성에 따른 변이형이 생겨나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이론에서는 여성어의 특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언어적 능력이 사회적으로 폄하되더라도 하찮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여성들의 대화 특징인 겸손하고 공손한 말투를 장점으로 설명한다. 여성과 남성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Johnson(1983)은 평등한 입장을 대변하는 여성 저자들은 성별에 따른 역할을 남성과 여성의 언어 차이를 결정하는 조건임을 거부한다. 또한 여성언어가 남성언어의 변이형이 아니며 변화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이 남성의 언어를 모방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을 부정한다(권영수·김중수, 2003: 45, 재인용). Tannen(1990)은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지배적, 독립적, 경쟁적이고 여성은 협력적, 의존적, 친화적이라고 성별에 따른 대화스타일을 분석하고 있다. 남녀의 대화 스타일은 둘 다 타당하고 단순히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문화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여성과 남성들은 성별이 구분되는 특정한 연령 단계 집단에서 상호작용의 규칙을 습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세계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대화에서 남성들과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2.2.4. 코드 전환 가설

코드 전환(Code-Switching) 가설로 여성어를 설명하는 학자들은 여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한 언어 변종(코드)에서 다른 언어 변종으로 즉, 남성언어에서 여성언어로 혹은 그 반대로 교체하여 사용한다는 고 말한다. 코드 전환은 이중 언어

사회에서 대화시 언어를 교체하는 현상을 일컫는 것인데 남성이나 여성의 언어를 성별 방언이라고 볼 때 상황에 따라 바뀌서 발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 가설은 여성의 표현능력 부족이나 결핍,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언어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언어태도에 대한 상이성을 전제로 여성의 언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상황에 따라 한 언어변종에서 다른 언어 변종으로 교체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다.

Eakins/ Eakins(1978)은 여성 언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을 때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언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여성언어가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 되었을 경우에 나타난다(권영수·김종수 역, 2003: 46, 재인용).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언어 태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며 말하게 된다. 이때의 여성어는 남성어에 대한 결손 양상으로 평가되거나 지배 관계로 설명하지 않는다.

2.2.5. 사회적 연결망 이론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은 사회적 연계 혹은 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신분 지표에 따라 화자를 계층 분류하는 작업은 필요 없고 화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교류망만 고려하면 된다.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서로 간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련의 사람들로 구성되며 관계를 맺는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상호작용도 포함한다.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결망은 의사소통, 권력,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는 더 큰 사회구조와 연계되어 있다. 밀도는 연결망의 응집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일반적으로 연결망의 규모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한다. 언어 사회의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닫히거나 열려있는 사회적 연결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개인이 그와 연관되어 있는 모두를 알 경우 폐쇄 연결망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관계되는 사람과 잘 알지 못할 때 개방 연결망에 속한다고 한다. 폐쇄 연결망은 고밀도이며 개방 연결망은 저밀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될 때 그 연결망의 관계는 다중적이라고 한다.

Milroy & Milroy(1978)가 벨페스트 지역어에 있는 세 마을을 조사한 결과 남녀의 언어 차이가 한 마을에서 특이하게 나타났다. 이 마을 남성들은 거의 그 지

역 조선소에서 일하고 반면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여가도 지역 내 주점이나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다. 남성은 고고장 방언을 많이 쓰고 여성들은 표준형을 많이 사용했다. 사회적 상위 계층에서 유지되는 언어 규범과 달리 이 지역의 언어 규범은 남성들에게 강한 지역 참여 의식을 심어주어 방언을 사용하게 하고 외지인과 접촉을 계속 해야 하는 여성은 필요에 의해 표준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사회망의 유형과 밀도가 남녀의 역할 구분을 야기하고 이것이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박창원, 1994: 52 재인용)이다. 즉 사회망을 적용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관계망이 고밀도망이면서 방언을 선호하며 여성은 반대로 저밀도망이므로 표준어를 선호한다. 계층보다도 집단의 연대감 개념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남성은 집단의 연대감 강화를 위해 방언 사용을 선호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유동적이고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견되는 연결망은 낮은 밀도의 단선적이지만 시골 마을의 전형적인 연결망은 고밀도이고 다중적이다. 밀도가 높은 연결망은 폐쇄 집단의 언어적 규범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집단 속에서 개인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 연결망 개념은 언어에서 ‘성’ 차이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고밀도의 연결망 구조가 언어 유지의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언어 집단에서 남성은 여성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러한 방언에 대한 규범은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속해온 폐쇄된 사회적 연결망 때문으로 본다. 여성은 의도적으로 표준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속한 덜 치밀한 연결망이 방언 규범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기존의 많은 여성어 연구에서는 결손 접근법의 관점에서 여성어를 바라본다. 전통적인 사회 구조는 남성 우위인 사회이며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나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는 발화를 주로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성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되었다. 여성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사회적 지위를 언어 생활을 통해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여성어가 부정적이며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손, 지배, 차이가 설은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차이 접근법이 우세를 보이는 반면 결손 접근법과 지배 접근법은 그 기반을 잃고 있다. 지배 접근법

은 불평등을 남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문제의 근본으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차이 접근법은 남성과 여성은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언어 문화에 대칭적으로 놓여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차이 접근법’의 관점에서 남녀의 차이를 기본 전제로 하여 제주도 여성들의 발화를 살펴볼 것이다.

2.3. 여성 발화의 특징

남성과 다른 여성의 발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 연구 결과를 특징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 여성 발화가 가지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 연구는 앞(1.2. 연구사 검토)에서 언급되었으나 특징별로 다시 분류하였다.

2.3.1. 국외 연구의 여성어 특징

여성어와 남성어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하는 연구는 Jespersen(1922)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인류언어학에서 성별 언어차를 보이는 종족들을 보고하면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어 1960년대부터는 사회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언어 변화의 요인으로 성별을 중시하게 되었다.

Jespersen(1922)은 여성어는 어휘 선택에 있어 직접적인 환경, 개인적인 것, 구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과장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강조 부사 사용을 즐기고 불완전하게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어는 사교가 형성되자마자 즉시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강세나 억양과 같은 것으로 표현한다고 했다(민현식, 1997: 532, 재인용). 여성어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많은 부분이 후대 연구자의

연구에서 수용되기도 했다. Labov(1966)은 여성의 표준어와 표준발음을 지향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Lakoff(1975)는 여성의 억압 구조와 여성어의 상관성을 사회언어학적으로 해석하려 하였다. Cameron(1985)은 여성어 연구가 Jespersen식 해석이 정형화되었고 여성 발화가 남성에서 벗어난다는 관점에서만 연구되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국외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여성 발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운적 특징

① 여성들은 평서문에서도 상승 억양을 쓴다.

여성이 평서법의 종결 억양을 의문법의 상승 억양처럼 끝을 올리는 현상은 Lakoff(1975)가 지적한 바 있다. 사회적 억압에서 오는 여성의 언어적 불안정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주목을 끄는 수단으로 상승 억양을 이용한다는 후속 연구도 있었다.

② 여성이 표준발음과 표준어를 선호한다.

Fisher(1985)는 뉴잉글랜드 지방의 학교에 다니는 소녀와 소년들의 말을 관찰하고 접미사 '-ing'의 변이음 중 남성이 비표준형인 [in]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발표한(박창원, 1991: 50, 재인용) 바 있다. 또한 Trudgill(1983)은 여성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표준 발음을 지향하게 되었다(강소영, 2013: 27~28, 재인용)고 했다.

2) 어휘적 특징

① 여성들이 사용하는 어휘는 주로 그들의 특수한 작업영역과 관심영역, 이를테면 육아, 가사, 유행 등과 관련 있는 낱말들을 포함하고 있다.

② 여성은 욕설 따위의 비속어를 꺼리며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다.

③ 여성들은 과장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강조 부사를 많이 사용한다.

④ 여성은 색깔을 나타내는 용어 등에서 섬세한 표현을 사용한다.

⑤ 감탄사나 찬사를 많이 사용한다. 여성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며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⑥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가 남성보다 제한적이다. Jespersen(1922)은 여성이 직접적인 환경, 완성된 제품, 개인적인 것 구체적인 것에 관심을 더 나타내고 남성은 직접적인 관계에서 먼 것, 구성적인 것, 유용한 것, 일반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나타낸다(박창원, 1999: 47, 재인용)고 했다.

3) 문법 담화적 특징

① 여성들은 공손한 형태나 완곡어법을 사용한다. 자신들의 발언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련되고 진술의 강도를 완화하여 사용한다. 명령문 사용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정중하고 화자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명령문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았다(Lakoff 1975, 박창원 1999: 55, 재인용).

② 여성이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 청자와의 대화 지속을 위한 전략으로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부가의문문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부가의문문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으로 여성은 간접적이며 불확실한 발화문체를 사용한다. 여성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 여성상을 강화시키고, 공격적이거나 건방지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③ 여성언어는 불특정하고 간접적이며 불확실한 발화문체를 사용한다. ‘제가 추측컨대’, ‘제 생각에는’, ‘~같은데요.’와 같은 불명료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④ 여성들은 불완전하게 끝내는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언적 화법을 금기시해 온 사회적 억압 때문에 애매 어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공손법의 일환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⑤ 여성들은 남성보다 빨리 읽을 수 있고 말도 빨리 할 수 있다.

⑥ 여성은 맞장구치기의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여성은 상호 교감이나 상대 화자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으로 맞장구치는 말을 사용한다.

2.3.2. 국내 연구의 여성어 특징

국어에 대한 여성어 연구 중에서 여성 발화에 대해 논의된 특징을 음운, 어휘, 문법·담화적 특징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운적 특성

① 여성은 남성보다 경음을 더 많이 사용한다.

‘다른 거-따른 거, 작다-작다, 조금-조금/조끔’ 등의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보다 경음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이석규·김선희(1992: 40)는 지적하였다. 이것은 유아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귀엽게 보이려고 하는 심리의 반영으로 판단하였다.

② 여성어에서 ‘ㄹ’첨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ㄹ’을 첨가시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요걸로 쓰실려구요?, 안 올래다가 뭘 좀 알아볼라구 왔어.’ 처럼 여성 발화에서 ‘ㄹ첨가’가 많이 나타난다. 이석규·김선희(1992: 41)는 여성이 사용하는 말에는 정확한 발음과 품위 있는 어조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위를 말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와 귀엽고 어린 표현을 통해 상대방과의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말하는 상황과 말 듣는 이와 관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다.

③ 여성은 평서문에서 상승 억양을 사용한다.

임홍빈(1997: 71)은 평서문의 경우 남성의 말은 짧고 급한 하강조로 끝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말은 다소 길고 완만하고 부드러운 억양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 하강조로 끝나는 것이 전형적인 유형인데 여성어에 있어서는 끝이 다소 올라가는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여성어는 ‘-요, -죠’ 따위의 해요체 어미를 주로 쓰는데 평서법과 의문법에 모두 상승억양을 쓰므로 평서법과 의문법의 변별은 말을 다 듣고 나서, 즉 상황의미에 의해 변별된다.

④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 발음을 선호한다.

사회언어학에서 여성은 신분 상승 의식과 교양 과시를 위해 표준어를 지향하는 개신성을 띠고 남성은 지역사회에의 유대감을 위해 방언형을 지향하여 보수성을 띠는 견해는 일반화되어 있다. 국어에서는 방언을 쓰는 남녀 화자들이 자기 방언에 대한 호감의 정도가 어떤가를 조사한 연구(이정민, 1981)가 시도되었는데 모든 지역 방언 여성 화자는 남성 화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자기 방언을 좋지 않게 보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의 표준어 선호 경향을 언어심리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2) 어휘적 특성

① 여성은 부사와 감탄사를 빈번히 사용한다. 여성의 감성적 심성이 어휘로 표출된 것으로 감성적 효과는 높이지만 논리적 대화에서는 과장이나 감성적 느낌을 주어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 부사의 사용에 있어 여성은 새로운 부사를 많이 만들어 내기도 하며, 한정된 부사만을 자주 사용하거나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석규·김선희, 1992: 44~45)이 있다. 또한 듣는 이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② 여성들은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하며 다양한 색채어를 구사한다.

③ 여성은 일반적으로 금기어가 많고 욕설의 사용이 드물지만 남성은 속어를 잘 만들고 여성보다 욕설을 잘 쓴다. 비유와 완곡어법은 남성보다 여성어에서 더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④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축약된 형태의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여성만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다. 그치?(그렇지), 근데(그런데), 어쩜(어쩌면), -죠(지요), -잖아요(지 않아요) 와 같이 축약해서 사용한다. 또한 삼인칭 대용 표현인 ‘그이’는 특히 여성어에서 남편이나 애인을 가리킨다.

⑤ 여성의 친족에 대한 호칭어도 여성어의 성격을 가진다. 발화하는 사람이 여성임을 전제로 하는 ‘오빠, 오라버니/오라버님, 오라비; 언니, 새언니; 서방/서방님, 도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율케, 아주버니/아주버님, 시숙’과 같은 친족 명칭은 다른 친족 명칭과 달리, 여성 중심의 친족명칭이다. 이들을 지칭어로 사용할 때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여성어적인 편향성(임홍빈, 1997: 73)을 띤다.

⑥ 남성이 접속부사를 많이 사용하고 여성은 적게 사용한다. 장영희(2000)는 드라마 대사 어휘 계량을 통하여 20대 남녀 어휘 사용을 비교하였는데 남자가 접속부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⑦ 여성은 찬사를 남성보다 많이 하며 주로 외모, 장식, 옷 등에 대한 직설적인 찬사가 많다.

3) 문법·담화적 특성

① 여성 화자는 발화시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고 상대의 생각을 묻는 부가의문

문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단순의문문을 비롯하여 상대에게 동의 확인을 요청하는 ‘그렇죠?, 안그래요?, 그렇잖아요?, 알았죠?’와 같은 다양한 부가의문문이 쓰인 것이 많다. 의문문은 청자의 응답문을 요구하는 발화 행위이므로 상대방을 대화에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 대화 친화를 위한 반응 유도적 목적 때문에 여성이 질문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자와의 대화 지속을 위한 전략으로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② 종결어미 사용에 있어 여성은 ‘-습니다’ 보다 ‘-요’형을 선호하고 주로 사용하여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하고 특히 여성취향의 가요 가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는/나)가요’, ‘-나요’형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종결어미(임흥빈, 1997: 69~70)이다.

한편 민현식(1995)은 이와 비슷한 논의로 여성 특유의 종결 어법으로는 해요체의 ‘-요’와 하우체의 ‘-우’의 사용을 들 수 있다고 했다. 해요체는 근대 국어에서 여성, 아동을 중심으로 친근, 공손 어법으로 쓰이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 방송, 만화, 소설 어법에서 여성어법으로 정형화되었다. 젊은 세대의 남성에게서도 이런 해요체 대화가 일반화 되어 여성어법의 세력 확장으로 해석된다.

③ 남성은 직접 명령문을 선호하지만 여성은 공손 책략 상 간접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선호한다. 직접 명령보다 ‘~해 주시지 않겠어요?’와 같은 간접명령을 많이 사용한다. ‘~해 주세요, ~하시죠’와 같은 공손한 청유 표현도 여성 특유의 공손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④ 애매 화법을 많이 사용한다. 여성은 망설이고 자신없는 듯한 말투를 많이 사용한다. 민현식(1995: 55)은 ‘-하더라도, -거 같아요, 글썬요’ 등을 예로 들면서 여성은 단언적 화법보다 공손어법의 일환으로 애매어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⑤ 상대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뜻의 ‘응, 그래, 맞아요’와 같은 맞장구치기, 상대의 말 끝나기까지 기다리며 말 가로채기를 삼가는 것 등은 종합적으로 여성의 공손 화법에 기여한다.

⑥ 여성이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 임지룡·배문경(2003: 173~176)에서는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의 발화를 비교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대화 상황에서 담화표지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이상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여성어 발화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제주도방언에서 국외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가 제시한 여성 발화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Ⅲ.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특징

3.1. 지역성이 반영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여기서 말하는 지역성이란 제주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말한다. 여성의 발화에 지역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는 곧 제주도의 사회, 자연 환경이 여성들의 언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는 일로 이어질 것이다. 제주도 지역성으로 먼저 친족관계로 형성된 사회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세 번만 거치면 친인척 관계라고 말할 정도로 제주도는 좁은 지역사회이므로 친근감의 표현을 사용하여 발화한 것을 지역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 제주도 여성들의 생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 생활력이 강하고 자립심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여성들의 성격이 언어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았다. 세 번째로 여성 발화 중에서 제주도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언어에 반영된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특성이므로 지역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3.1.1. 정감 있는 담화표지

담화표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화자가 습관적으로 혹은 시간을 벌기위해 첨가하는 형태의 것을 의미한다.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구어 담화 상황에서 사용된다. 말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구어체 발화를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통사적으로 독립적이고 특별한 문법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화의 본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화표지⁸⁾는 통사적 단위는 아니지만 발화를 구분하는 하나의 표지어로 다른 정보 또는 다른 발화를 제시하고자 할 때 화자가 전략적으로 쓰는 언어적 장치다.

8) 황정민(2008: 353~356)은 △화자가 전략적으로 쓰는 언어장치로 사용하거나 △의미를 보충 설명하는 어휘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형태의 어구를 담화표지로 보고 있다.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⁹⁾에서 ‘감탄사’, ‘접속부사’ 등 다양한 품사로 불리어 온 것들 중 일부는 문장 층위의 문법적 규칙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담화 층위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감탄사, 부사, 구절 등 여러 형식이 담화표지로 사용되며, 축약 및 변이가 일어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담화표지는 문장의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나며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 부사의 경우에는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반해 담화표지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다른 성분과도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고 생략 가능성이 높아 독립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원래의 어휘 의미를 상실하였거나 원래 의미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방언 화자들은 어떤 형태로 담화표지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어휘가 다르므로 담화표지에서도 성별에 따라 그 선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1) 가. 겨곡 저 새서방 아방허곡, 어명은 안 가고. <M5: 151>¹⁰⁾

(그리고 저 새서방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안 가고.)

나. (신부) 안 데령 와가니까 이제 그 다시 막 그 친족들이 잡아가 가지고 데리고 가고 해난 일도 있고. <M10: 167> (-(신부) 안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 다시 막 그 친척들이 잡아가서 데리고 가고 했던 일도 있고.)

다. (군대) 갓다와 보니까 뭘 가난허고 뭘 더 험 건 엇고. <M11: 169>

((군대) 갓다와서 보니까 뭘 가난하고 뭘 더 할 것은 없고.)

라. 무신 옛날은 그냥 저 메역이라도 흥뎌 놓나, 늑물 놓나 헝 장국이라도 헝 주 주. <F11: 211> (무슨 옛날은 그냥 저 미역이라도 조금 놓거나, 나물 놓거나 해서 장국이라도 해서 주지.)

마. 족두리 쓰곡 가마 타곡 헝 시집갓주 무신. <F1: 175>

(족두리 쓰고 가마 타고 해서 시집갓지 무슨.)

담화표지는 (1 가)처럼 문장의 제일 앞에 쓰이거나 (1 마)처럼 문말에서 사용

9) 담화표지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담화표지 전반에 걸쳐 개념·특징 및 기능에 대해 논의한 연구와, △개별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외국인 화자에게 담화표지를 교육하기 위한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표현이 담화표지로 기능한다는 것을 증명한 후 담화표지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밝히고 실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려 하였다. 또 담화표지와 단어의 원래 의미와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등의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10) <M5>에서 M5는 피조사자를 뜻하며, 151은 예문이 수록된 페이지를 표시한 것이다. 부록에 첨부된 구술 발화 자료에 예문 번호를 표시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되는 등 다양한 위치에서 출현한다. (1 다)와 같이 한 문장에서 동일한 담화표지 형태가 두 개 이상의 담화표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1 가, 나, 라)의 ‘그냥 저’, ‘이제 그’와 같이 다른 형태의 것이 연속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1 나)의 ‘이제’는 명사로 쓰여 문장에서 ‘이제까지, 이제도’처럼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조사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1)의 예문에서 ‘그냥, 무신, 뭐, 이, 저, 이제’와 같은 담화표지를 생략해도 문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본래 문장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약화시키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인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담화 상에서 실현되었다면 그 담화표지는 반드시 어떤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말을 시작할 때, 얼버무릴 때, 대답할 때,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이나 상대방의 말을 수정할 때, 머뭇거릴 때,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을 때 등 대화에서 특별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문에서 (1 가)에서는 말을 시작할 때 담화표지가 쓰였고 (1 나, 다, 라)는 머뭇거릴 때, (1 마)는 결혼 할 때 별다른 것이 없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담화표지는 문장 안의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제주도방언 남녀 화자들의 담화표지 사용 비율을 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담화표지 사용 비율

	여성	남성
담화표지수	863	914
전체어절수	16,081	15,735
담화표지 비율	5.37%	5.80%

제주도방언 화자의 담화표지 사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담화의 유창성 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담화표지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 사용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창하다는 근거가 된다. 담화 표지는 뒤이어 나오는 정보를 떠올리지 못하여 시간을 버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여성이 담화 진행에서 다소 유창하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은 담화 진행에 있어 더 많이 머뭇거리고 그 머뭇거림을 채우기 위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담화표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담화의 적극성과도 관련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발언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책략으로 담화표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성이 담화표지를 남성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은 담화 주도권에 대한 의지가 남성보다 덜하다고 볼 수 있다.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남성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인터뷰라는 한정적인 상황이었지만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담화표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담화표지는 본래의 어휘적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화 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어휘적 의미를 기준으로 다시 분류가 가능하다. 담화표지를 그 기원을 고려하여 다시 분류하였다.

<표 4> 종류별 담화표지 사용

	부사성	접속성	지시성	의문성	조사성	감탄성	합계
남성	136	45	368	109	195	61	914
여성	184	42	247	86	268	36	863
	320	87	615	195	463	97	1,777

담화표지 자체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적 분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기원형의 품사를 중심으로 분류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주도방언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를 감탄사, 부사, 대명사, 관형사에서 변화한 담화표지로 차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부사성 담화표지

여성은 남성보다 많은 부사를 사용한다. 용언을 설명하기 위하여 더 많은 부사를 사용하여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특징이 여성 발화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부사성 담화표지 또한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발화 자료에서도 차이는 많지 않으나 여성이 부사성 담화표지 사용 수치가 높았다. 특히 ‘막, 그냥’은 여성이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고

‘이제, 조금’은 근소하지만 남성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사성 담화표지 종류와 빈도

	남성		여성	
	1	이제	59	이제
2	기자/기자	24	그냥/기냥	46
3	이젠	22	막	45
4	막	14	기자/기자	26
5	그냥/기냥	11	이젠	11
6	조금/좀	4	아주	3
7	아주	2	조금/좀	1
합계		136		184

‘막’은 여성 화자의 사용이 두드러진 담화표지 중 하나로 구술 내용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담화표지다. 표준어에서는 ‘바로 그때, 마구’의 의미로 사용되는 부사이고 제주도방언에서는 표준어의 의미에 ‘아주, 매우’의 의미가 추가되어 사용된다.

(2) 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구승도 헐 때라. <M4:149>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흥도 볼 때야.)

나. 스물만 넘으면 열아홉이든 스물 넘으면 이거 막 늙은 새각시엔 헤낫어. <F2:179> (스물만 넘으면 열아홉이든 스물 넘으면 이거 막 늙은 새각시라고 했었어.)

다. 독새기 농곡 허민 거 먹쟁 허민 막 거 아이덜 그거 영 문트멍에 상 베리당. <M5: 150>(달걀 놓고 하면 그거 먹으려고 하면 막 그거 아이들 그거 이렇게 문틈에 서서 보다가.)

라. 이불 멘드는 날은 막 집이 식구덜이 다 왕덜 이불 멘들야. <F1: 178>

(이불 만드는 날은 막 집의 식구들이 다 와서들 이불 만들어.)

(2 가, 나)에서 ‘막’은 ‘아주, 마구’의 의미의 부사로 사용된 것이며 (2 다, 라)는 담화표지로 쓰인 예다. (2 가)는 잘사는 집이라고 했는데 먹을 게 없다고 흥을 본다는 내용으로 ‘마구’의 뜻으로 쓰였다. (2 나)는 ‘늙은’을 수식해 주는 부사로 쓰였다. (2 다, 라)의 ‘막’은 뒤에 나오는 ‘거’나 ‘집’을 수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뒤의 말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막’ 다음에 휴지를 두어 말한다. 부사로 사용된 ‘막’의 경우는 그 앞에 휴지를 두어 뒤에 오는 ‘흥보다, 늙

다’를 수식해주는 반면 담화표지로 사용될 경우는 ‘막’ 다음에 휴지를 두며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지 않는다.

(3) 가. 얼굴 아이 반 그냥 갖주 뭐. <M11: 170>

(얼굴 안 보고 그냥 갖지 뭐.)

나. 그냥 이불 잘허민 이불 두 개, 요 두 개 해실 거라. <F1: 178>

(그냥 이불 잘하면 이불 두 개, 요 두 개 했을 거야.)

다. 그냥 그 저 그때만 해도 보리쌀도 가정 가는 사름도 있고, 부주허고 했주.

<M10: 166>(그냥 그 저 그때만 해도 보리쌀도 가져가는 사름도 있고, 부조하고 했지.)

‘그냥’은 표준어에서 ‘그 상태 그대로, 조건 없이’의 의미를 갖는 부사다. 남녀 피조사자의 발화에서 나타난 ‘그냥/기냥’은 이러한 부사 본래 의미로 쓰이는 (3가)와 같은 예도 있지만 (3나, 다)처럼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담화표지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냥’을 생략하여도 문장의 의미상 변화가 없으며 ‘그냥’이 문장 안의 어떤 성분도 수식하지 않는다. (3나)는 시집갈 때 가져 간 것이 ‘잘하면 이불 두 개, 요 두 개 했을 것이다’에서 ‘그냥’은 문장 안의 어떤 성분과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 (3다) 역시 ‘그냥 그 저’는 세 개의 담화표지가 연속으로 사용된 것이며 말이 잘 생각나지 않아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4) 가. 오래 돼어부난 이제 잊어부렀주만은 사모관대헤근에 남즈덜도 영 씨는 거 잊

어. <F1: 175>(오래 돼버려서 이제 잊어버렸지만은 사모관대해서 남자들도 이렇게 쓰는 거 있어.)

나. 예전에는 돈 그쁜 건 잊었는데 근간에 와서 돈 담는 식이 이제 나온 거라.

<M9: 164>(예전에는 돈 같은 것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돈 담는 식이 이제 나온 거야.)

다. 느람지 죽허게 폐와근에 이제 도고리 저디 강 그디 놓민 그디 툅허게 시리 느

려근에. <F6: 191>(이영 쪽하게 퍼놓고 이제 함지박 저기 가서 거기 놓으면 거기 툅하게 내려서.)

라. 뒷날 친족집에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신랑 신부 오랜 헤근엔에 접대도 허고.

<M10: 168>(뒷날 친척집에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신랑신부 오라고 해서 접대도 하

고.)

마. 일가 사름덜 모여 맞이민 이젠 그디서 서로 인사덜 허고. <M5: 152>

(일가 사람들 모여 앉으면 이젠 거기서 서로 인사들 하고.)

(4 가)와 (4 나)의 ‘이제’는 ‘바로 이때에’의 의미로 쓰이는 부사로써 ‘지금’과 바꿔 쓸 수 있는 예이며 (4 다)와 (4 라)는 ‘이제’가 담화표지로 사용된 예다. (4 가)의 ‘이제’는 ‘잊어부러주만은’을 (4 나)의 ‘이제’는 ‘나온’을 수식하는 부사로 후행하는 말과의 상관관계가 긴밀하다. 뒤따르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부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4 다, 라)는 ‘폐와근에 이제’, ‘친족집에서 이제’와 같이 선행하는 말과 관계를 맺고 후행하는 ‘도고리’나 ‘밥’을 수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4 가, 나)에서는 문장의 휴지가 ‘이제’ 앞에 나타나는 데 비해 (4 라)에서는 ‘이제’ 뒤에 휴지가 나타난다. 통사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기능이 담화표지에서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4 가, 나)의 ‘이제’는 문장 안에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지만 (4 라)에서는 ‘이제’를 생략하여도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화표지는 문장에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생략하여도 아무런 의미상 변화를 주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보통 담화표지로 쓰일 때는 조사가 결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담화표지에 조사가 붙을 수 없는 것은 담화표지로서의 형태가 더 이상 격조사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사가 담화표지로 굳어져서 재구조화¹¹⁾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4 마)에서 ‘이제’는 보조사 ‘는’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4 마)의 경우처럼 보조사가 결합된 경우는 보조사가 결합된 상태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이제는, 이젠’처럼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굳어져서 담화표지로 사용되기도 한다.

남성은 전체 담화표지 중 부사성 담화표지를 15%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21% 사용하고 있다. 전체 담화표지의 사용은 남성이 많은데 여성 화자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 중 하나가 부사성 담화표지이다. 여성 발화에서 부사의 사용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부사성 담화표지의 사용에 있어서도 여성 화자의 사용이

11) 이기갑(1995: 267)에서는 담화표지에 조사가 붙을 수 없는 것은 담화표지로 쓰일 경우 ‘이제’로 형태가 굳어져 더이상의 굴곡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은 곧 문법화로 인해 형태적으로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화자들이 망설이거나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부사를 담화표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접속성 담화표지

접속부사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문장에서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말을 할 시간 벌기 등의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담화표지를 접속성 담화표지라고 한다. 다음의 <표 6>는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접속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사용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접속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

	남성		여성	
1	계난	27	계난	15
2	거난	5	경행	11
3	겨난	3	겨난	4
4	게니까	3	겐디	4
5	겐디	2	게니까	3
6	겨곡	2	거난	3
7	게고	1	경	1
8	경행	1	경혜근에	1
9	겨고	1	겨고	0
10	경혜근에	0	겨곡	0
11	경	0	게고	0
		45		42

(5) 가. 물이 들러키면은 문제거든. 계난 물을 딱 잡으민 깬딱 못힐 사름이라야. <M4: 148> (말이 날뛰면은 문제거든. 그러니까 말을 딱 잡으면 까딱 못힐 사람이라야.)

나. 난 그게 먹고프난 먹엇단 말이여. 계난 날보고 시건방진 메뉴리 해왔젠. <F8: 203> (난 그게 먹고 싶어서 먹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시건방진 며느리 해왔고.)

다. 순다리 행 놔뒀다근에 보리쌀 가루로 빵 만들어. 경행 먹어. <F3: 185>

(순다리(발효음료) 해서 놔 두었다가 보리쌀 가루로 빵 만들어. 그렇게 해서 먹어.)

(5 가)는 가마를 끌고 가는 말이 날뛰면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딱 잡으면 말이 꼼짝 못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 말의 고삐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5 나)는 새각시 상에 나온 달같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으니깐 건방진 며느

리라고 욱했다는 것이며 (5 다)는 ‘순다리’에 보리쌀 가루를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밑줄 친 ‘게난’이나 ‘경행’은 모두 본연의 접속부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게난’과 ‘경행’은 ‘그러니까’와 ‘그렇게 해서’의 의미로 인과관계와 순서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이다.

(6) 가. 뚝국물이라고 해근에 가문잔치날은 그자 장국, 메리치 농곡 해서. 게난 사라에 고기 석 점혀고 순대 한 점. <M10: 167>(돼지고기 국물이라고 해서 가문잔치날은 그냥 장국, 멸치 놓고 해서. 그러니까 접시에 고기 석 점하고 순대 한 점.)

나. 지금은 양념행 영영 허지만은 옛날 경 안헛잖아. 게난 그 김치가 경 맛좋아났어. <F7: 197>(지금은 양념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옛날은 그렇게 안헛잖아. 그러니까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었어.)

다. 잔칫날은 그 미역국은 새서방상엔 아니 주거든. 경행 도새기 솥양 제기 흐썰 썰어 농곡게 아이고 그것도 얼마나 맛이 좋다고. <F1: 176>(잔칫날은 그 미역국은 새서방상에는 안 주거든. 그래서 돼지 삶아서 고기 조금 썰어 놓고 아이고 그것도 얼마나 맛이 좋다고.)

라. (밥 혜영) 잔치 먹으러 간 사름덜신디 주고. 겨곡 또 가문잔칫날은 지금은 도새기 잡으면 그 배설덜 누게 먹읍니까? <M5: 150>((밥 해서) 잔치 먹으러 간 사름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 가문잔칫날은 지금은 돼지 잡으면 그 창자들 누가 먹읍니까?)

위 예문 (6)의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되풀이 되거나 생략하여도 문장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게난’은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부사로 ‘그러니까’의 의미이다. (6 가, 나)에서 사용되는 ‘게난’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가 아니라 앞 문장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 화제를 전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게난’의 본래 기능과 달리 화자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담화표지이다. 또 (6 다, 라)의 ‘경행’과 ‘겨곡’은 접속 부사인 본래의 기능이 아니라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 앞의 내용을 하고 난 후 뒤의 내용이 진행되는 순서의 의미를 갖는 ‘그렇게 해서’와 병렬적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그리고’의 의미를 각각 갖는 ‘경행’과 ‘겨곡’은 (6 다, 라)의 문장에서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두 문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접속부사로 해석할 수도 없고 의미

상 상관 관계를 설명할 수도 없다. 발화자의 습관이나 시간 별기를 위한 발화로 볼 수 있다.

접속성 담화표지의 사용은 남녀 간의 차이가 많지 않다. 남성 화자의 접속부사 사용 빈도¹²⁾가 높은 데 반해 접속성 담화표지 사용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남성 화자들은 논리적인 문장 구성을 위해 문장의 접속 기능을 하는 접속부사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접속사에서 비롯된 접속성 담화표지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시간 별기나 습관적인 사용인 담화표지는 남성 화자에게 있어 논리적 추론을 위한 접속부사로서의 기능이 없으므로 그 사용에 있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 화자가 접속성 담화표지의 기원을 고려하지 않고 담화표지 자체로서만 인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녀 모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속성 담화표지는 ‘게난/겨난/거난’, ‘게니까’와 같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3) 지시성 담화표지

지시 대명사에서 기원한 담화표지로 ‘이, 그, 저, 그 저, 이 저, 저 그’가 있다. 말을 할 때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거나 말하기 힘든 대상을 가리키는 ‘거시기’도 여기에 포함하여 지시성 담화표지로 분류하였다.

<표 7> 지시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

	남성		여성	
	1	그	212	저
2	저	111	그	102
3	이	23	이	23
4	그 저	17	거시기/거세기	12
5	이 저	3	그 저	4
5	거시기/거세기	2	저 그	2
7	저 그	0	이 저	1
합계		368		247

지시대명사는 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와 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화자와 가까이 있으면 ‘이’, 청자에게 가까이 있으면 ‘그’, 화자와 청자 둘

12) 3.3.2.1.의 접속부사에서 남성 화자가 여성 화자에 비해 더 많은 접속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를 사용한다. 이런 지시대명사가 담화표지로 사용 되면 지시대명사 본래의 기능과 뜻을 잃고 망설이거나 머뭇거리는 의미로 혹은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지시성 담화표지의 사용은 남성 화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특히 ‘그’의 사용은 여성 화자의 발화의 두 배나 나타났다. 또한 담화표지로 사용된 지시대명사는 두 개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남성 화자가 많이 사용했다.

(7) 가. 용인이엔 헌 건 이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M3: 143>

(용인이라고 한 것은 이 심부름 하는 사람이지)

나. 대반은 저 아주 그 일가에 복 잇다 허는 사람, 가깝고 아 이 사람은 복잇는 사람이다 허민 그런 사람을 앓져. <M4: 148>(대반은 저 아주 그 일가에 복이 있는 사람, 가깝고 아 이 사람은 복잇는 사람이다 하면 그런 사람을 앓혀.)

다. 다른 이불 포들을 실령 그 저 하인들이 지고 신랑집으로 오고 <M9: 163>

(다른 이불 보따리들을 실어서 그 저 하인들이 지고 신랑집으로 오고.)

라. 또 그 막 어루운 사람은 그대로 즈끄디 걸어아정, 걸영 오는 사람도 짓고.<F5: 189> (또 그 막 어려운 사람은 그대로 가까운데 걸어서, 걸어 오는 사람도 있고.)

마. 게도 저 멍지 짧은 거 뵈산디 헤연 입언 갓수다. <F11: 212>

(그래도 저 명주 같은 거 무엇인지 해서 입어서 갔습니다.)

(7 가)의 ‘이’는 뒤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수식하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다. 또한 앞의 ‘건’과 결합하여 첨사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앞 뒤 휴지를 두어 길게 ‘이~’라고 발화하는 것인데 ‘용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버는 기능을 한다. (7 나)의 ‘저’는 담화표지로 사용된 것이며 ‘이 사람은’의 ‘이’는 지시대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7 다)는 ‘그’와 ‘저’ 두 개의 지시성 담화표지가 중복되어 사용된 예이다. 중복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하나의 담화표지가 발화되는 동안에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아 또 하나의 담화표지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7 라, 마)는 접속조사 다음에 온 지시성 담화표지로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망설임이나 시간 벌기의 기능을 한다.

‘거시기/거세기’는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이러한 ‘거시기’가 점점 문법화 되어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거북할 때 쓰는 담화표지로 사용된다. ‘거시기/거세기’는 여성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8) 가. (대반은) 저 신랑집에선 저 거시기 여자가 앓곡. <M5: 150>

((대반은) 저 신랑집에서는 저 거시기 여자가 앓고.)

나. 난 저 거시기 일본서 성님이 시난에 멩지 치메저고리 입곡, <F6: 192>

(난 저 거시기 일본에 형님이 있으니까 명주 치마저고리 입고.)

다. 저 거세기 그냥 무신거 멩지 닳은 거 헤연 치메허고 저고리 하나 입언. <F11:

211> (저 거시기 그냥 명주 같은 거 해서 치마하고 저고리 하나 입었어.)

(8 가)는 신랑이나 신부 옆에서 접대하는 일을 맡은 사람인 대반은 신랑집에서 여자가 앓는다는 말을 하면서 담화표지인 ‘저’와 함께 ‘거시기’를 발화하고 있다. 이 ‘거시기’는 말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사용한 담화표지이다. (8 나, 다)의 ‘거시기/ 거세기’도 담화표지 ‘저’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시성 담화표지는 남성 화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그’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남성 화자가 말을 더듬거나 시간을 벌기위한 방법으로 담화표지 ‘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부사를 중복하여 ‘너무너무, 아주아주’처럼 표현하는 언어습관은 일반적인 여성어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시성 담화표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 화자가 지시성 담화표지 두 개를 중복하여 쓴 ‘그 저’ 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4) 의문성 담화표지

의문사의 본래의 기능은 잘 모르는 것을 청자에게 질문하기 위한 것이다. 의문사 중 ‘뭐’는 ‘무엇’의 준말로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의문대명사다. 또 ‘무신거’는 ‘무엇’의 제주방언으로 ‘무시거, 미시거’와 같은 이형태가 등장한다. ‘무슨’은 ‘무엇’에서 파생된 관형사로 체언 앞에 쓰여서 체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의문대명사나 의문관형사가 문법화 되면서 원래의 기능이 아닌 담화표지로 변하여 말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시간 벌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의문대명사나 의문관형사에서 변한 담화표지를 의문성 담화표지라고 한다. 제주도방언에서 쓰이는 의문성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8> 의문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

1	남성		여성	
	뒤	94	뒤	41
2	무신/무슨/ 미신	13	무신/무슨/ 미신	41
3	무신거/무시거/ 미시거	2	무신거/무시거/ 미시거	4
합계		109		86

(9) 가. 반찬은게 김치에, 텀뿌라에, 돼지고기에, 뒤 계란 삶아놓고 그거.<F8: 198>

(반찬은 김치에, 텀김에, 돼지고기에, 뒤 계란 삶아놓고 그거.)

나. 지금 ㄴ치 무신 반찬이 무신거 이거 저거 시냐?<F9: 202>

(지금 같이 무슨 반찬이 무엇 이거 저거 있니?)

다. 태와 가지고 신부 타는 무신거 가교라는 게 잊어요. <M1: 138>

(태워 가지고 신부 타는 무엇 가교라는 것이 있어요.)

라. 독계 탕 오랏자 무신거 밥 혼 빨 행 주는 체뿐. <F11: 211>

(독교 타서 와도 무엇 밥 조금 해 주는 체뿐.)

(9 가)는 여러 가지 잔치 음식을 설명하면서 ‘뒤’을 사용하며 다음 말할 음식을 생각하고 있다. (9 나)는 ‘무슨’이 ‘반찬’을 수식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화는 ‘무슨, 무엇’ 다음에 휴지를 두고 있고 ‘지금처럼 무슨/ 반찬이 무엇/ 이거저거 있니’ 처럼 세 개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 쓰인 ‘무슨’이나 ‘무엇’은 의문사가 아니라 담화표지로 사용된 예이다. (9 다, 라)는 ‘무신거’가 사용된 것인데 (9 다)에서는 ‘신부가 타는 무엇’처럼 대명사로 쓰인 반면에 (9 라)에서는 가마를 타고 온 것이나 밥 조금 주는 체하는 것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

담화표지는 한 문장 안에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말의 진행이 끊기고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혹은 심리 상태에 따라서 사용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

(10) 가. 남자도 기냥 바지저고리도 입곡 기냥 뭐 엇이민 뭐 아무 헨 양복 저고리라도.

<F1:75> (남자도 그냥 바지저고리 입고 그냥 뭐 없으면 뭐 아무 헨 양복 저고리라도.)

나. 저 생활이 죤 조금 무시거 헨 사름덜은 궤 하나는 다 헿 와실 거라. <M10:

169> (저 생활이 좀 조금 무엇 한 사람들은 궤 하나는 다 해서 왔을 거야.)

다.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우리 장가갈 때는 예단이나 이런 거 엇엇어. <M10:

168>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우리 장가갈 때는 예단이나 이런 거 없었어.)

(10 가)는 한 문장 안에서 ‘기냥’이 두 번씩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 사용된 것은 부사나 의문사로 사용된 것이고 두 번째 사용된 것은 담화표지로 사용된 것이다. ‘남자도 그냥 바지저고리 입고, 뭐 없으면 아무 헨 양복 저고리라도’라는 말에 ‘기냥’과 ‘뭐’가 추가되었고 의미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 구어 담화 상황에서 의미없이 사용된 것이다. (10 나)는 ‘죤’과 ‘조금’이 중복 사용되었는데 앞의 ‘죤’은 담화표지로 뒤의 ‘조금’은 ‘무엇 한 사람’을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된 예이다. (10 다)에서는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뭐’와 ‘무슨’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문성 담화표지 사용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담화 진행에서 유창하기 때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담화 진행에서 더 많이 머뭇거리고 그 머뭇거림을 채우기 위해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 화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담화표지는 ‘뭐’이며 여성 화자는 ‘뭐’와 ‘무슨’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였다.

5) 조사성 담화표지

제주도방언에서 문장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서 확인이나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는 형태소를 첨사라고 한다. 이 중에 존칭형으로 ‘-양, -마썸, -예’가 있고 비존칭형으로 ‘-게, -이, -기’가 있다. 현평효(1991)과 문순덕 (2005)에서는 이들이 주로 문장종결형에 첨가되어 청자를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아 상대높임법으로 보았다. 제주도방언에서 해요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양, -마썸, -예’가 두루 높임인 해요체에 대응될 수 있고 ‘-게, -이, -기’는 두루낮춤인 해

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문장의 맨 뒤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조사 뒤에도 결합이 가능하고 어떠한 문장성분 뒤에도 결합될 수 있으며 한 문장 안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담화표지로 구분하여 조사성 담화표지로 분류하였다. 제주도방언에서 쓰이는 조사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9> 조사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

		여성	남성
비존칭	-게	243	140
	-이	10	4
	-기	2	2
존칭	-양	12	27
	-마썸/마씨	1	19
	-예	0	3
합계		268	195

비존칭의 ‘-게’는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에 비해 100회 이상 더 사용하고 있다. 또 존칭의 조사성 담화표지는 남성이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화자가 존칭형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른 결과이다. 이 조사가 인터뷰라는 한정된 상황이고 조사자가 여성이므로 여성 화자들은 비교적 비격식 상황으로 이해하고 발화한 반면 남성 화자는 조사 과정을 격식 상황으로 인식한 결과 존칭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이다.

(11) 가. 옛날에사 곤밥 오죽 어루와수과게? <M5: 150>

(옛날에야 쌀밥 오죽 어려웠습니까?)

나. 경허당 실프민게 앓양 쉬당 오곡. <M6: 153>

(그러다가 하기 싫으면 앉아서 쉬다가 오고.)

다. 새각시 모셔 간 하님이 잇어인. <F9: 202>

(새각시 모셔 간 하인이 있어.)

라. 잔치할 때도 사당 허는 것도 잇주기에. <M11: 170>

(잔치할 때도 사다가 하는 것도 있지.)

마. 가메허고 장웃허고 부락에서 딱 만들어 낳 …… 부락에서 삭 받았주기. <F7:

195> (가마하고 장웃하고 부락에서 딱 만들어 놓고 …… 부락에서 샷을 받았지.)

(11 가)는 의문형 종결어미 ‘-수과’에 ‘-게’가 결합하여 확인의 의미를 첨가하고 있으며 (11 나)는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문장 중간에 나타나고 있다. (11 다)는 종결어미 다음에 ‘-이’가 첨가되어 확인과 친근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1 라)는 담화표지 ‘-기’와 ‘-게’가 결합한 형태이며 (11 마)는 ‘-기’가 종결어미와 결합한 형태다. 담화표지 ‘-게, -이, -기’는 비존칭의 종결을 나타내는 동시에 화자의 확신, 의지, 단정, 강조 등 화자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여성이 ‘-게’의 사용이 높은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면서 자신의 발화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말체 담화표지인 ‘-이, -기, -게’는 화자의 확신적인 발화에서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발화된다.

(12) 가. 새서방 저 물 이경 간 하인이 이불을 정 와 마썸. <M5: 152>

(새서방 저 말 끌고 간 하인이 이불을 저서 와요.)

나. 옛날에 시집올 때 마썸? <F11: 210>

(옛날 시집올 때 말이에요?)

다. 결혼 약속 문서 써 가는 거주엔. <M1: 137>

(결혼 약속 문서 써 가는 거죠.)

라. 옛날 장군들 신는 거 잊지 안허짜예? <M5: 149>

(옛날 장군들 신는 거 잊지 않아요?)

마. 하인이 케난 그디 가민 저 방안에 앉지도 않고 그 신랑이 들어 가민은얏 구 들문에 앉아. <M4: 148>(하인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저 방안에 앉지도 않고 그 신랑이 들어 가면은 방문에 앉아.)

바. 터럭 기술룬 다음엔, 터럭, 터럭이엔 현 거 알지얏? <M5: 151>

(털 그을린 다음엔, 털, 털이라고 한 거 알지요?)

‘마썸’은 원래 ‘말썸’이란 말이 주로 서술어 어말에 첨부되어서 상대방에게 존대를 표시(현평효, 1991: 89)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마썸’의 변이형으로는 ‘마썸, 마쓰, 마씨’ 등이 나타난다. ‘마썸’은 표준어의 ‘말입니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표준어의 ‘말입니다’가 조사나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는 것처럼

제주도방언의 ‘마썸’도 문장의 끝에서만이 아니라 문장의 중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 (12 가)는 평서문 뒤에 ‘마씨’가 결합된 것으로 ‘하인이 이불을 저서 와’라는 문장에 ‘마씨’가 결합하여 존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12 나)의 ‘마썸’은 의문문에 결합된 형태로 질문을 하고 나서 되묻는 의미가 가미된 것이다. (12 다)의 ‘-예’는 평서문에 (12 라)는 의문문에 첨가된 형태이다. (12 마)는 ‘-양’이 보조사 ‘-은’ 다음에 쓰인 예이며 (12 바)는 의문문에 ‘-양’이 결합한 것이다.

‘-예’는 원래부터 제주도방언의 상대 존대 형태로 존재하던 것은 아닌데 젊은 여성들의 말씨에서 많이 사용된다. 존대의 자리에서 되묻는 형태로 쓰이는 담화표지는 ‘-양, -야’였다. 그런데 ‘-예’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양’과 ‘-야’의 발화는 점차 줄어들고 ‘-예’가 존칭형 담화표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발화 자료에서 ‘-야’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 -양’은 표준어의 ‘-요’와 마찬가지로 조사, 부사 등에 첨가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 높임체 담화표지 ‘양, 예, 마썸’ 단정적인 발화나 확인을 요구할 때 혹은 친밀감의 표현으로 사용한다. ‘마썸’은 성별에 관계없이 두루 사용되고 ‘-양’은 남성 화자가 발화 빈도가 높은 편이며 ‘예’는 주로 여성이 사용(문순덕, 2005: 15)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고를 위한 자료에서는 성별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자가 노년층 화자이므로 아직 ‘예’의 세력이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예’의 사용보다 ‘양’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 화자에게서 ‘양’의 더 많은 출현을 보인다.

조사성 담화표지는 높임법 종결어미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조사와 결합되지 않으며 위치가 자유로운 것을 고려하여 담화표지에서 다루었다. 반말체 담화표지 ‘-게’, ‘-이’, ‘기’와 높임체 담화표지 ‘-양, -마썸’, ‘-예’는 제주도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유형의 담화표지이다. 표준어에서 ‘-요’, ‘말입니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예’는 경상 지역의 방언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도방언에서처럼 다양한 형태의 담화표지가 나타나는 것은 제주도방언의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화자는 반말체 ‘-게’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높임체의 경우는 ‘-양’의 쓰임이 남성 화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예’의 사용 보다 보수적인 ‘-양’의 사용이 남녀 화자 모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예’의 세력 확장이 이뤄지지 않은 노

년층 발화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6) 감탄사성 담화표지

감탄사에서 기원한 담화표지의 사용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아’다. 감탄사 ‘아’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내는 소리다. 소리를 흉내 내는 말로서가 아니라 화제의 전환을 위해 사용하거나 머뭇거릴 때 사용하는 ‘아’는 담화 표지로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감탄사에서 기원한 담화표지의 종류와 사용 빈도를 보이면 <표 10>과 같다.

<표 10> 감탄사성 담화표지의 종류와 빈도

	남성		여성	
	1	아	32	첨/참
2	첨/참	13	아니/아이	12
3	아니/아이	6	아	3
4	에/에에	6	게메	1
5	게메	2	원	1
6	원	2	에/에에	0
합계		61		36

- (13) 가. 안, 이거 뭐 밥 한 사발은 먹어야 할 판인데 수까락으로 영 혀쓸 먹는 척 행상을 물리거든. <M4: 148> (아, 이거 뭐 밥 한 그릇은 먹어야 할 상황인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 먹는 척해서 상을 물리거든.)
- 나. 신랑은 가고 싶어도 안, 이놈의 중방이 ‘어서오십시오’를 안 하니 갈 수가 없지. <M6: 154> (신랑은 가고 싶어도 아, 이놈의 중방이 ‘어서오십시오’를 안 하니 갈 수가 없지.)
- 다. 안, 지방 김치 아니라도 김치도 낫주게. <F2: 180>
(아, 지금 김치는 아니라도 김치도 낫았지.)
- 라. ‘아, 이거 이렇게 못 살았구나’ 혜신디 <F7: 194>
(‘아, 이거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아’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남성의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담화 태도의 성향이 반영되어 양성모음 ‘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여성은 겸손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음성모음인 ‘어’의 사용을 선호한다(임규홍, 2003:

108)고 한다. 그러나 다른 감탄사의 사용에서도 여성이 음성모음을 선호한 것을 볼 수 없다.

또 다른 감탄사성 담화표지인 ‘게메’는 표준어 ‘글썸’과 비슷한 뜻을 갖는데 표준어 ‘글썸’은 ①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혹은 ②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는 감탄사다. 표준어 ‘글썸’은 부정문과 결합할 때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내고 긍정문과 호응할 때는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나타낸다(문순덕·김원보, 2012: 30)고 한다.

제주도방언 ‘게메’는 주로 문장의 앞에서 확신이 없을 때, 앞 화자의 주장을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동의하기 싫은 경우에 쓰인다. 뒤에 오는 문장과 문법상 상관관계가 없으며, 자기의 감정을 숨기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선택되는 담화표지다. 문두에서 화자의 확고한 의지를 숨기려는 의도로 쓰인다. 또한 발화자는 상대방의 질문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사실에 확신이 없을 때,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지 않을 때,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반신반의의 감정상태가 포함(문순덕·김원보, 2012: 41)되었다. ‘게메’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함, 정보 부재 등의 담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화자의 발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담화 의미로 나타난다.

(14) 가. 웨지도 혼 마리 잡앙 보내고, 잡아근에 보내고, 게메, 보내랏주.<M11: 170>

(돼지도 한 마리 잡아서 보내고, 잡아서 보내고, 글썸, 보냈었지.)

나. 게메 난 경을 못 헛어.<M12: 174>

(글썸 난 그렇게 못 헛어.)

다. 일본말 게메, 일본말 배우단 보난 오꼳 해방 되언. <F8: 200>

(일본말 글썸, 일본말 배우다 보니 그만 해방 되었어.)

(14 가, 나)는 남성 화자가 발화한 예문이며 (14 다)는 여성 화자가 발화한 예문이다. 긍정의 의미의 문장에서 사용된 예는 (14 가, 다)이며 부정적인 의미의 문장에서 ‘게메’가 사용된 예는 (14 나)다. (14 가)는 잔칫날 신부집에 돼지 한 마리를 보냈었다는 이야기를 화자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긴 했었다고 하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발화다. (14 나)는 다른 사람은 했었

지만 화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다. (14 다)는 일본말도 잘하시느냐는 질문에 배우다가 해방이 되어서 더 못 배웠기 때문에 잘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표준어 ‘글썸’과 완전히 일치하는 담화표지라면 긍정적인 문장에 쓰인 경우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부정에서 쓰이면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내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일 뿐 긍정과 부정의 문장에 따른 차이로 분류할 수 없다.

여성 화자의 사용이 두드러진 ‘아니/아이’는 부정적인 대답에 사용되는 감탄사다. 예문에 나타난 ‘아니’는 부정의 대답이 아니라 화제의 전환이나 시간 별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15) 가. 아니, 시집이서 시어머 시아방네 집이서가 옷 흔 불은 해줘. <F1: 179>
 (아니, 시집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집에서 옷 한 벌은 해줘.)
- 나. 거난 아니, 저 비양도엔 현 디 강 물질을 헤오주게, 금릉은. <F8: 200>
 (그러니까 아니, 저 비양도라고 한 데 가서 물질을 해 오지, 금릉은.)
- 다. 부주는 아니, 그때 돈으로 아니고 광목 석 자 주는 사람, 또 저고리 ㄹ슴 주는 사람. <F12: 214> (부주는 아니, 그때 돈으로 아니고 광목 석 자 주는 사람, 또 저고리감 주는 사람.)
- 라. 아니, 그 저 이디 할머니들 그 옛날 말론 닷 웨엔 허주. <M10: 166>
 (아니, 그 저 여기 할머니들 그 옛날 말로는 닷 되라고 하지.)

(15)의 감탄사성 담화표지는 주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감탄사로 사용되던 것이 문장 안에서 화제의 전환이나 시간 별기, 불확실함, 머뭇거림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여성 화자의 경우 ‘참/참’과 ‘아니/아이’의 사용이 남성 화자보다 많이 쓰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감탄사성 담화표지의 사용은 남성이 우세하다. 감정표현을 위해 감탄사로 사용되었다면 감정의 표현에 적극적인 여성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어야 한다. 감정 표현보다는 담화표지로서 사용되었기에 남성 화자의 사용 빈도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이다.

기존의 여성어 연구에 의하면 감탄사나 부사는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방언의 여성 화자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담화표

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감탄사와 담화표지의 기능이 다름을 의미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성적이고 섬세하기 때문에 감탄의 표현을 많이 쓰지만 감탄성 담화표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많은 사용을 보이고 있다.

담화표지 사용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담화 진행에서 유창하기 때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담화진행에서 더 많이 머뭇거리고 그 머뭇거림을 채우기 위해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며 남성은 머리 속에서 정리하여 말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 화자들이 망설이거나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부사를 담화표지로 사용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여성 사용 빈도가 높은 조사성 담화표지 ‘-게’의 사용은 여성의 발화가 친근감을 나타내고 자신의 발화에 대한 확신이나 의지를 보여 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3.1.2. 의문문을 통한 의사 표현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기능을 갖는 문장이다. 의문문의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의문사나 의문형 어미, 상승적 억양 등을 들 수 있다. 의문사는 화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대부분 의문문이 된다. 그러나 의문사와 동일한 형태가 부정대명사로 쓰인 경우도 있다. 의문사는 의문문에서만 나타나는 데 반해 부정대명사는 평서문에서도 두루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16) 가. 문: 어디 감수과?↘ (어디 가세요?)

답: 맞되 감저. (밭에 간다.)

나. 문: 어디 감수과?↗ (어디 가세요?)

답: 어디 안 감저. (어디 안 간다.)

(16 가)는 가는 장소가 궁금하여 묻는 일반의문문이나 (16 나)는 ‘어디’라는 미지의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다. (16 나)는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는 동작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때의 ‘어디’는 부정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의문형 어미가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 피조사자들의 발화에서 나타난 의문형 어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여성>

흐라체- 나, 나, 느냐, 니, 디, 샤, 라,

흐여체- 가, 고, 르까, 수과, 이파, 아/어/여, 지, 카, 코

홉서체- ㅂ네까, ㅂ니까, 쿠과

<남성>

흐라체-나, 느냐, 라, 이냐, 이여, 좃아

흐여체-가, 까, 수과, 거과, 아/어/여, 허과, 우과, 이파, 지, 카, 크라

홉서체-ㅂ니까, 어요

제주도방언에서 나타나는 의문형 종결어미는 이외에도 많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된 한정된 자료 안에서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를 추출하였다. 제주도방언 자료이지만 방언화자가 전적으로 방언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준어 형태도 나타났다.

(17) 가. 혼 말로 족을까? 케나저나 혼 말, <F3: 184>

(한 말로 짝을까? 그러나 저러나 한 말.)

나. 사돈집이 강 가문잔치라 헤 가지고 새각시집이 강 허잖아? <M12: 174>

(사돈집에 가서 가문잔치라고 해서 새각시집에 가서 하잖아?)

다. 아니, 쌀이 어디 잇어요? <M1: 139>

(아니, 쌀이 어디 있어요?)

(17 가)의 ‘-르까’는 여성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난 표준어 형태의 것으로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고 있다. 남성 발화에서 관찰되는 표준어형으로는 ‘-잖아, -어요’가 있다. (17 나)는 사돈집에 가서 가문잔치를 한다는 것을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확인하는 의문문이다. (17 다)는 화자가 결혼할 당시에는 쌀이 없었다는 강한 긍정의 내용을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표준어형 종결어미 ‘있어요’가 사용된 것이다. 이 때 문장 종결형의 억양이 상승조로 실현된다.

일반의문문과는 달리 답을 요하지 않는 특수의문문의 형태도 있다. 의문사나 의문형 어미와 같은 형태적 표지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억양으로 의문문을 만들기도 한다. 특수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의 인식에 대한 불확실성, 즉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이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함을 갖는다. 따라서 청자에게 굳이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의문발화를 함으로써 화자가 자기의 생각이 청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문의 종류로는 확인의문문, 수사의문문, 반복의문문이 있다. 제주도방언 피조사자들은 어떤 형태로 의문문을 발화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일반의문문

의문문은 청자의 응답문을 요구하는 발화 행위이므로 정말 궁금한 것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대화에서 상대방을 계속 끌어들이려 반응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대화에서 특히 대화 지속 목적의 질문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대화 주도에서 열세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것을 만회하고자 여성이 질문 방식을 대화 책략으로 도입한다. 남성은 사태의 서술 표현을 단언적 표현인 평서법으로 하는 편이지만 여성은 단언하지 못하고 동의확인 의문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주도방언의 여성 화자의 발화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드러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표 11> 의문문의 종류와 빈도

	남성	여성
전체 의문문	88 (100%)	121 (100%)
일반 의문문	44 (50%)	44 (37%)
특수 의문문	44 (50%)	77 (63%)

제주도방언 화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일반의문문보다 특수의문문의 형태가 많이 관찰된다. 인터뷰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은 조사자가 하게 되며 피조사자는 주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반의문문은 인용문이나

조사자에게 물어보는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면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문장 중에서 의문문의 사용은 여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방언에서도 여성이 청자를 대화에 끌어들이는 담화 책략이나 주의 집중을 위해 남성 화자 보다 의문문 형식의 발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확인의문문

화자가 자기의 발화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나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사용하는 의문문의 발화 형식을 부가의문문이라고 한다. 영어 문법의 ‘tag question’을 한국어 문법에서 부가의문문이라고 불러 왔다. 문장의 끝에 의문 발화를 제시하여 화자 자기가 직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때 ‘안 그래요?, 그렇죠?’ 등의 꼬리 의문문을 부가의문문이라고 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부가의문문을 달리 확인의문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화자가 부가의문문의 발화 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부가의문문의 기능으로 의문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부정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발화 내용이 옳음을 화자가 믿고 있고 이를 청자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도 한다. 부가의문문의 형식을 온전하게 갖추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의미 기능에 있어서는 부가의문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의문문이 있다. 이를 통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정의문문 형태의 확인의문문과 부가의문문을 통합하여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화자의 발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문문의 형태를 확인의문문으로 분류하였다.

확인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답을 요하거나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 받고자 하는 의미의 의문문이다. 화자가 주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청자가 확인 또는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청자가 동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부가의문문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여 우회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대화 행위이다. 부가의문문은 ‘밥 먹었지예, 아니 파?’ ‘밥 먹었지, 기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앞의 문장이 완벽하게 끝난 후 뒤에 부가의문문이 결합되는 형식이나 조사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확인의문문의 사용 빈도

	남성	여성
전체 의문문	88	121
확인 의문문	26	15
확인 의문문의 사용 비율	30%	12%

(18) 가. 처음에 밥 먹을 때 친척들 오지 안허여? <M3: 144>

(처음에 밥 먹을 때 친척들 오지 않니?)

나. 저 텔레비에 보면은 물감 들여근에 막 널지 안허여? <F2: 180>

(저 텔레비전에 보면은 물감 들어서 막 널지 않니?)

(18 가)는 결혼식 전날 처음에 밥 먹을 때 친척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화자가 청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문장이다. (18 나)는 옷감에 물을 들여서 입는다는 화자의 생각을 의문문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청자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다음의 (19)와 (20)의 예문은 명사 다음에 ‘아니다’나 ‘알다’, ‘있다’ 등을 써서 앞에 나온 명사를 확인하고 있다. 명사가 직접 오거나 의존명사 ‘거’를 사용하여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든 후 그것을 청자에게 확인하고자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명사나 의존명사 뒤에 ‘아닙니까, 아니파게, 아니, 아냐, 아니가/아이가, 아니라/아니라게, 안허여, 알지/알지양, 잇잖아게’ 등을 덧붙여서 확인의문문을 만들었다.

(19) 가. 소를 몇 백 두 모여다가 여기서 하루 종일 산에 강 뱉일 거 아닙니까? <M1 : 140> (소를 몇 백 두 모아다가 여기서 하루 종일 산에 가서 먹일 거 아닙니까?)

나. 불 부져 불민 기슬 거 아니파게? <M5: 151>

(불 붙여 버리면 그을 거 아닙니까?)

다. 경허명 혼 삼억 쥐알 거 아니? <M6:154>

(그렇게 하면서 한 삼억은 쥐야할 거 아니?)

라. 뱉영 살려알 거 아니가? <M12:175>

(먹여서 살려야 할 거 아니냐?)

마. 사돈이 우리집을 올 거 아니라? <M3: 145>

(사돈이 우리집에 올 거 아니냐?)

바. 터럭이엔 현 거 알지양? <M5: 151>

(털이라고 한 거 알지요?)

(19)는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 확인의문문으로 쓰인 것이다. (19 가)의 ‘떡일 것이다’, (19 나)의 ‘그을 것이다’, (19 다)의 ‘취야할 것이다’, (19 라)의 ‘살려야 할 것이다’, (19 마)의 ‘올 것이다’ 등에 ‘아니다’가 결합하여 앞에 나온 의존명사 ‘거’ 앞에 있는 동작을 ‘꼭 해야 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청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 가. 베리지 못허민 나 죽나 헐 거 아니? <F3: 183>

(보지 못하면 나 죽는다 할 거 아니?)

나. 이제는 키로에 이만 원 아냐? <F8:201>

(이제는 킬로에 이만 원 아냐?)

다. 시집갈 땐 이 좀 막 그거게 젊을 때 아니라게? <F1: 177>

(시집갈 땐 이 좀 막 그거 젊을 때 아니냐?)

라. 요강단지 알지? <F3: 183>

(요강단지 알지?)

바. 시집갈 첫 번으로 설맞이 그때 잇잖여게? <F1: 179>

(시집가서 첫 번째로 설맞이 그때 잇잖아?)

사. 요새 돈 부주 안허여? 그추록 돈 부주 허듯 허는 거주게. <F2: 182>

(요새 돈 부주 안 해? 그렇게 돈 부조하듯 하는 거지.)

여성의 경우 (20 가)의 명사형 어미 ‘거’와 결합하기도 하지만 (20 나)와 (20 라)에서 처럼 명사 다음에 바로 ‘아냐, 아이가’ 등이 결합한 의문문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20 나)는 ‘kg에 이만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외에 (20 마)의 ‘알지’나 (20 바)의 ‘잇잖여게’ 등도 의문문으로 쓰이고 있다. (20 마)와 (20 바)는 표준어 형태이며 (20 사)는 ‘돈 부주 허지 안허여?’에서 ‘허지’를 생략한 형태로 볼 수 있다.

(21) 가. 요새 돈 부주 허여? (요새 돈 부조 해?)-일반의문문

나. 요새 돈 부주 안 허여? (요새 돈 부조 안 해?)-부정의문문

다. 요새 돈 부주 (하지) 안허여? (요새 돈 부조하잖아?)-확인신문문

(21 가)의 일반신문문을 부정신문문과 확인신문문을 바꿔 보았다. 표면적으로 보면 (21 나, 다)는 똑같은 표면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21 나)는 ‘돈 부조를 안하느냐?’는 뜻이고 (21 다)는 ‘요새 돈 부조 하지?’ 뜻의 확인신문문 형태로 쓰인 것이다.

다음의 (22)에서와 같이 부정문에 용언이 오는 경우 동사 다음에는 긴부정문의 ‘-지 안허다’ 형태가 온다. ‘용언+ 지 안허파, 안허파예, 안해서, 안허여, 안허여이, 안허여게, 안헤,잖아’의 형태로 나타난다.

(22) 가. 짐 잊지 안허파? <M5: 153>

(짐 있잖아요?)

나. 옛날 장군들 신는 거 잊지 안허파예? <M5: 149>

(옛날 장군들 신는 거 있잖아요?)

다. 예를 들어서 영장이 나지 안해서? <M3: 145>

(예를 들어서 상이 났잖아?)

라. 인사하고 그디서 출려는 거 잊지 안허여게? <M3: 146>

(인사하고 거기서 차려놓은 거 있잖아?)

마. 소나 말이나 그 옛날 짐을 지지 안헤? <M11: 171>

(소나 말이나 그 옛날 짐을 지잖아?)

바. 사둔집이 강 가문잔치라 헤 가지고 새각시집이 강 허잖아? <M12: 174>

(사둔집에 가서 가문잔치라고 해 가지고 새각시집에 가서 하잖아?)

(22 가, 나)는 ‘있다’를 확인신문문으로 만든 것으로 존칭의 의문형 종결어미가 결합된 형태이다. (22 나)는 여기에 다시 첨사 ‘-예’를 추가하여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22 다)는 과거시제가 결합된 형태이며 (22 마)는 ‘안허여’에 첨사 ‘-게’가 추가되어 동의를 구하고 다시 확인하고 있다. (22 바)는 ‘안허여’가 ‘안헤’로 줄어든 형태이며 (22 사)의 ‘-잖아’는 표준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형태다. 확인부정문은 ‘명사+ 아니다’나 ‘동사+ 지 안허다’의 형태를 표준형으로 잡을 수 있다. 확인신문문에 쓰인 ‘아니’, ‘안’ 등은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의미인

‘아니’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위의 예문은 부정의 ‘안, 아니, 아이’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표준어에서는 ‘-지 않니’를 줄여서 ‘-잖니’와 같은 형태로 쓰이지만 제주도방언에서는 ‘경허지’만 생략되고 ‘-지 안허’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은 형태로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3) 가. 소나 물이나 그 옛날 짐을 지지? 경허지 안헤? (두 개의 의문문)

(소나 말이나 그 옛날 짐을 지지? 그렇지 않니?)

나. 소나 물이나 그 옛날 짐을 지지, 경허지 안헤? (부가의문문 형태)

(소나 말이나 그 옛날 짐을 지지, 그렇지 않니?)

다. 소나 물이나 그 옛날 짐을 지지 안헤? (‘경허지’ 탈락, 확인의문문)

(소나 말이나 그 옛날 짐을 지지 않니?)

라. *소나 물이나 그 옛날 짐을 지잔헤? (진행되지 않음)

(소나 말이나 그 옛날 짐을 지잖니?)

(24) 가. 두 장이민 열흘이지? 아이가?

(두 장이면 열흘이지? 아니냐?)

나. 두 장이민 열흘이지, 아이가?

(두 장이면 열흘이지, 아니냐?)

다. 두 장이민 열흘 아이가?

(두 장이면 열흘 아니냐?)

(23)은 ‘경허지 안헤?’가 결합되었고 (24)는 ‘아이가?’가 추가되어 확인의문문을 만들고 있다. (23 가)와 (24 가)는 처음에 두 문장이었는데 (23 나), (24 나)처럼 한 문장으로 합쳐지고 (23 다)의 ‘그렇지’와 (24 다)의 ‘-이지’는 두 문장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생략된다. (23 다)에서 (23 라)로의 축약은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며 (24 다)도 더이상 축약되지 않는다. 표준어에서는 (23 라)처럼 ‘-지 않니’의 축약형의 ‘-잖니’를 사용하는 반면 제주도방언에서는 ‘-지 아니허여’로만 쓰이고 축약형은 쓰지 않는다. 축약형이 쓰이기 위해서는 ‘아니하다’가 준말의 형태로 쓰여야 가능하다. 표준어 ‘아니하다’에 대응하는 형태가 제주도방언에서는 ‘아니허다/아이허다/안허다’처럼 축약되지 않은 형태로만 존재한다. 따

라서 ‘-지 안허다’와 같은 형태만 쓰이고 ‘-지 아니허다> *자니허다>*잔허다>*잖다’처럼 축약되지 않는다. ‘안허다> 앓다’의 축약이 먼저 이뤄져야 ‘잖다’의 축약이 진행될 수 있는데 제주도방언에서는 ‘앓다’로 축약이 진행되지 않는다.

(25) 가. 영장이 나지 ∨ 안헤서? (상이 나지 앓았어?)

나. 영장이 ∨나지 안헤서? <M3: 145> (상이 닳잖아?)

(25 가)는 긴 부정문의 형태로 ‘나지 앓았느냐?’의 뜻으로 청자에게 상이 나지 앓았는지 묻는 의문문이다. (25 나)는 ‘닳다. 안 그러냐?’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부정의 뜻은 전혀 없고 긍정의 내용을 청자에게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25 가)는 문말 억양이 상승조인 반면 (25 나)는 상승조의 억양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상승 억양인지 아닌지, 휴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일반 부정문인지 확인 부정문인지 결정된다. 이와 같이 초분절적 요소에 의해서 부정문의 형태를 분류할 수도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단순의문문이나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주장은 김선희(1991)¹³⁾, 민현식(1995)¹⁴⁾, 구현정(1997)¹⁵⁾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여성은 청자와의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의문문을 사용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남녀 발화의 차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며 확인의문문 또한 여성이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방언 구술자료에서는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에 비해 의문문 사용 비율은 높으나 확인의문문은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라는 한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피조사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설명하는 형식의 동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남녀의 확인의문문 사용의 차이가 남녀 언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여성 화자가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청자에게 끊임없이 동의를 구하며 확인하려 한다는 기존의 연구가 설득력을 잃는다. 이는 제주도방

13) 김선희(1991)에서는 여성은 대화에서 뒷부분에 “응?, 안 그래?, 그렇지 않니?, 그렇지요?” 등을 덧붙인 방식의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14) 민현식(1995)에서는 여성들이 청자와의 대화 지속을 위한 전략으로 의문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여성들이 쓰는 의문문에는 단순의문문을 비롯하여 상대에게 동의 확인을 요청하는 다양한 부가의문구가 불거나 생략된 부가의문문이 쓰인 것이 많다고 하였다.

15) 구현정(1997)에서는 여성들은 주장을 할 경우에도 직접적인 단정보다는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간접 대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언의 여성 화자가 보여주는 언어습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른 지방의 방언이나 다른 나라의 언어에서 여성이 소극적이고 확인받고자 하는 반면 제주도방언 화자의 언어에서는 확인의문문의 발화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적게 나타나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다.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여성 화자의 발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제주도 여성 화자의 언어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¹⁶⁾은 반어의문문이라고도 하는데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진술의 문장을 가리킨다. 표현되는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전달되는 의미는 진술문이 된다. 화자가 서술문을 사용하지 않고 의문문 형태로 발화하는 것은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길 기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사의문문은 정상적인 응답을 할 수 없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반응이 필요 없어진다. 이렇게 문장형식을 달리하여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진술을 강조하여 전달하려는 담화 전략이다. 강한 긍정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의문문이라는 형식을 빌리는 것이다. 수사의문문은 일반의문문과 억양이나 강세도 다르게 나타난다. 수사의문문에서는 의문사에 강한 강세가 있으며 어말 억양도 더 높아진다. 그러나 억양이나 강세가 수사의문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수사의문문의 사용이 제주도방언 화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겠다.

<표 13> 수사의문문의 사용 빈도

	남성	여성
전체 의문문	88	121
수사의문문	17	52
수사의문문의 사용 비율	19%	43%

16) 형식적으로 보이는 의미 그대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수사의문문의 해석은 대화 과정에서 발화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전체 의문문 중에서 수사의문문의 사용 비율은 여성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사용한 의문문 중 43%가 수사의문문이라는 것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사자에게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26) 가. 잔치 먹으레 간 사름덜 곤밥이 어디 실 말이파?<M5: 150>

(잔치 먹으러 간 사람들 쌀밥이 어디 있겠어요?)-곤밥이 없다

나. 그 아기덜 경 나노난양 줄바로 뭇 먹어젓수가? <F11: 209>

(그 아기들 그렇게 낳았으니 제대로 무엇을 먹을수 있었겠어요?)-아무 것도 못먹었다

다. 아덜 다섯 성제 풀아난 풀젠 허난 뭇 셔?<F12: 214>

(아들 다섯 형제 팔고나서 팔려고 하니까 뭇 있겠어?)- 아무 것도 없었다

가'. 곤밥이 어디 셔니? 살레에 십디다.

(쌀밥 어디 있더냐? 찬장에 있던데요.)

나'. 뭇 먹엇수과? 밥이영 떡이영 하영 먹엇수다.

(뭇 먹엇어요? 밥이랑 떡이랑 많이 먹엇어요.)

다'. 그디 뭇 셔? 옷덜 신게.

(거기 뭇 있어? 옷들 있던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대답 역시 의문사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 (26)의 예문은 모두 의문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6 가)는 ‘곤밥이 어디에도 없다’는 서술문이 되고 (26 가')는 ‘곤밥’이 있는 장소를 묻는 의문문이 된다. 수사의문문에서 의문사는 의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26 가, 나, 다)에서는 어디 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문장 전체에 대한 강조 진술이 된다. 즉 (26 가')의 초점은 ‘곤밥’이 있는 장소지만 (26 가)에서는 의문사 ‘어디’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26 나')는 무엇을 먹었느냐는 질문에 밥과 떡을 먹었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26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서술문을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설명의문문으로 보이나 담화상에서는 의문문 형식이 나타내는 전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 서술문이 된다.

- (27) 가. 어신 놈ㄹ라 허렌 허민 헤 지느냐? <M11: 171>
 (없는 사람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니?) -할 수 없다
 나. 옛날에 돛궤기 먹어졌나? <F7: 196>
 (옛날에 돼지고기 먹을 수 있었니?) -먹지 못 했다
 다. 야학 간게 하도 오래 노난 알아지느냐? <F4: 188>
 (야학 가서 아주 오래 되어서 알 수 있니?) -알지 못 한다
 라. 도감암궤는 돈을 줘서게? <M3: 145>
 ('도감'에게는 돈을 줬니?)-돈을 안 줬다.

위의 예문 (27)에서 보듯이 의문사가 없는 긍정의 수사어문문은 마지막 단어인 서술어를 부정하는 문장이 된다. '헤 지느냐? (할 수 없다)'와 '먹어졌나? (먹지 못했다)' 그리고 '알아지느냐? (모른다)'와 '돈을 줘서게? (안 줬다)'의 표면형식은 긍정의 의문문이나 내면적으로는 부정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8) 가. 고무줄, 공기, 그런 거 무사 안 해? <F9: 200>
 (고무줄, 공기, 그런 거 왜 안 해?) - 한다
 나. 이불 흔 채사 도궤에 뉘근에 못 가? <F6: 193>
 (이불 한 채야 가마에 뉘서 못 가?) -갈 수 있다
 다. 쉼 걸궤 흐는디 안 토라지느냐게? <M13>
 (소 걸고 하는데 안 비틀어지니?)-비틀어진다

예문 (27)과 달리 예문 (28)에서와 같이 의문사가 없는 부정의 수사어문문은 긍정의 의미를 갖는다. (28 가)에서와 같이 '무사 안 해?'라고 하면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의문문과 '왜 안하겠느냐, 당연히 한다'의 의미를 갖는 수사어문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뒤의 문맥과 발화 상황을 고려하여야만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28 나)는 이불 한 채는 가마에 놓고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강한 긍정의 의미로 의문문 형식의 발화를 사용하였고 (28 다)는 소가 걷는데 소 등에 얹힌 짐이 당연히 비틀어진다는 뜻의 발화를 부정의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사어문문은 남성 화자에 비해 여성 화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사용하였다. 수사어문문의 의미는 발화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담화의존성

이 강하다. 이 때문에 담화상황에서 화자가 말하는 명제를 강하게 진술하는 의미를 갖는다.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청자에게는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나, 화자에게는 참인 명제가 청자에게는 참이 아닌 상황에서 수사의를문문을 사용한다.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청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화자는 수사의를문문을 사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나타내고자 한다. 여성의 발화에서 수사 의문문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불확실성이나 자신 없음의 표현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없다. 수사의를문문은 강한 긍정의 뜻을 가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화자는 자기의 생각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며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는 대화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제주도방언에서 여성 화자들이 남성 화자에 비해 수사의를문문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진술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4) 반복의문문

선행 발화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반복하여 되묻는 의문문을 반복의문문 또는 메아리 의문문¹⁷⁾이라고 한다. 단순히 질문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선행 발화의 내용 중에서 화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나 이야기의 화제가 되는 부분만을 질문하고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반복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은 선행 발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확인의문문의 확인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여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의문문인데 반해 반복의문문의 확인은 선행발화를 반복하면서 특히 화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거나 청자가 질문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의문문이다. 반복의문문과 확인의문문 간에 의문문의 형식에 따른 변별성은 거의 없다. 화자가 선행 발화의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한 확인이나 선행 발화에 대한 단순한 반응 또는 단순히 불확실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할 발화에 대한 전제로서 반복의문문이 등장할 수 있다. 앞에 나온 말을 다시 확인하는 반복의문문의 경우는 일반의문문의 억양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구술자료에서 여성 화자 10번, 남성 1번의 반복의문문이 관찰되었다.

17) 표면적으로는 억양에 의해 의문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 억양형 의문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표 14> 반복의문문의 사용 빈도

	남성	여성
전체 의문문	88	121
반복 의문문	1	10
전체 의문문 중 반복 의문문의 비율	1%	8%

다음의 예문 (29)에서 보듯이 반복의문문은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불확실한 정보를 확인하고자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반응이나 앞으로 발화할 내용에 대한 전제임을 알 수 있다.

(29) 가. 질: 옛날 결혼할 때 뭐 행 와난마씨?

(옛날 결혼할 때 뭐 해서 왔었어요?)

답: 옛날에 결혼할 때? …… 요 하나하고 위에 이불 하나하고 <F9: 201>

(옛날에 결혼할 때? …… 요 하나하고 위에 이불 하나하고)

나. 질: 잔칫날 무슨 국 행 먹어난마씨?

(잔칫날 무슨 국 해서 먹었어요?)

답: 국? 묵국, 아니 건듯 잡는 날. 생성에 무 썰어 냈. <F12: 212>

(국? 모자반국, 아니 그것은 돼지 잡는 날. 옥돔에 무 썰어 놓고.)

다. 질: 할아버진 육지도 나간 살국 해납디가?

(할아버지는 육지도 나가서 살고 했었어요?)

답: 나? 난 군대생활 헨 완, 군대생활 8년. <M7: 159>

(나? 난 군대생활 해서 왔어, 군대생활 8년.)

(29 가)는 결혼할 때 혼수로 무엇을 준비하고 왔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다시 한번 ‘옛날에 결혼할 때’를 따라하면서 문말 역양을 올려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29 나)에서는 잔칫날 무슨 국을 끓여 먹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국?’이라고 질문 내용을 반복하고 바로 이어서 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9 다)는 육지에서 생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라고 반문하고 바로 대답이 이어지고 있다. 피조사자와 조사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조사자가 하는 질문은 피조사자에게 하는 것인데 자기의 과거를 말하라는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예문 (29)와 같은 반복의문문의 출현은 여성 화자에게서 두드러진다. 질문 내

용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 전개할 대화의 내용을 확실히 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단어를 반복하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의문문의 사용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방언을 구사하는 여성 화자들은 남성 화자에 비해 의문문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여성이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발화에 자신이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화자에게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의 여성 화자가 일반적인 의문문 사용 비율은 37%로 남성 화자의 50%보다 낮고 수사의문문과 반복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이 없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수사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말하려는 바를 강하게 진술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이며 반복의문문은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전개할 대화 내용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방언의 여성 화자의 발화에서 수사의문문과 반복의문문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여성은 강해야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도록 사회화되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이 여성의 발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1.3. 단언적 명사 종결문

명사 종결문¹⁸⁾은 문장을 명사로 끝맺거나 용언의 명사형으로 끝내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로 공고문이나 지시문, 명령 등에서 사용한다. 명사 종결문은 확신에 찬 종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 종결문은 여성 화자에게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5>는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명사 종결문과 도치형 문장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18) 명사종결문은 명사나 명사형으로 문장을 종결하는 것으로 문장을 완벽하게 종결하지 않는 생략형 종결 구분된다. 명사종결문도 완벽한 문장형이 아니므로 생략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명사로 문장을 끝맺는 형태는 단정적이고 확신의 말투를 보이므로 생략형 문장과 반대적 성격을 띤다.

<표 15> 명사 종결문과 도치형 문장의 실현 빈도

	남성	여성
전체 문장 수	1583	1786
명사종결문	205	256
도치형	57	48

(30) 가. 우선 그 짜투리 고기, 그거하고 안침 썰어놓고, 창자, 창자. <M1 :137>

(우선 그 자투리 고기, 그거하고 창자 썰어놓고, 창자, 창자.)

나. 사둔침이 갑니까, 뒤맛이엔 행양, 뒤맛이. <M5: 151>

(사둔집에 갑니다, 뒤맛이라고 해서, 뒤맛이.)

다. 경하고 떡 하나씩 테우고, 멧떡, 새각시떡. <F10: 206>

(그리고 떡 하나씩 나눠주고, 메밀떡, 새각시떡.)

라. 청동화리엔 해근에 발 영 세 개 달린 화로가 있어, 불 피는 화로. <F1: 178>

(청동화로라고 해서 발 이렇게 세 개 달린 화로가 있어, 불 피우는 화로.)

예문 (30)은 모두 명사로 문장을 끝맺는 명사종결문의 예이다. (30 가)는 덩어리 고기에서 떨어져 나온 자투리 고기와 창자를 썰어놓고 잔치 전날 친척들이 모여앉아 먹었다는 말을 하면서 나온 문장이다. (30 나)는 결혼식 다음날 사둔집에 가는 것을 뒤맛이¹⁹⁾라고 한다고 설명하면서 강조,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다. (30 다)는 ‘새각시떡²⁰⁾’이라고 해서 메밀로 만든 떡을 하나씩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떡의 재료를 강조하여 메밀떡이라고 덧붙인 후 떡의 이름을 ‘새각시떡’ 강조하고 있다. (30 라)는 결혼할 때 잘사는 사람은 청동화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화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불 피는 화로’라고 추가로 발화하고 있다. 피조사자는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잘 살라는 의미 같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위와 같이 명사로 끝나는 문장은 앞 문장에서 빠진 문장성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반복하면서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발화한다. 제주도방언 화자의 명사 종결문에서 의존명사 ‘거’로 문장을 끝맺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의존명사 ‘것’의 생략형인 ‘거’가 문말에서 쓰

19) 제주도의 결혼 풍습 중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다음날 신랑과 신랑아버지를 비롯한 신랑 친척들이 신부와 함께 신부집에 찾아간다. 그 다음날은 다시 신부집 친척들이 신랑집을 방문하여 신랑 친척들과 인사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이것을 ‘사둔 잔치’라고 하는데 M5 피조사자는 이를 ‘뒤맛이’라고 설명했다.

20) ‘새각시떡’은 신부가 시집갈 때 준비하고 가는 떡으로 재료는 메밀이며 반달모양으로 만든다. 결혼식 날 신랑집 친척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다.

여 문장의 앞에서 설명한 명사를 대신하거나 행위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남성 화자(32회)에 비해 여성 화자(73회)가 훨씬 많이 사용하는 문장 형식으로 드러났다. 남성 화자에 비해 여성 화자가 더 많이 쓰는 것은 구어체로서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1) 가. 요강 그자 그때는 사기 요강, 하얀 거. <M5: 152>

(요강 그냥 그때는 사기 요강, 하얀 거.)

나. 플레이볼이라고 여름에 더플 거. <M4: 149>

(‘플레이볼’이라고 여름에 덮을 거.)

다. 뒷날 잔치 넘으면은 돛다리 하나 앓곡 행 사돈침이 갖다 왔다 허는 거. <F2: 181> (뒷날 잔치 끝나면 돼지다리 하나 갖고 사돈집에 갔다 왔다 하는 거.)

라. 수웨는게 돛배설에게 담은 거. <F7: 196>

(순대는 돼지 창자에 담은 거.)

(31 가)는 ‘사기 요강’으로 문장이 끝나는 듯 했으나 그 ‘사기 요강’의 색깔을 설명하기 위해 ‘하얀 거’라는 말이 덧붙여진다. (31 나)는 혼수품 중에서 ‘플레이볼’이라고 얇게 누벼진 이불을 설명하면서 여름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1 다)는 잔치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사돈집에 찾아가는 풍습인 사돈잔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31 라)는 순대를 설명하는 것으로 모두 ‘~을/는/은 거’라는 형태로 문장을 끝맺고 있다. (31 가)는 ‘형용사+거’의 형태이며 그 외는 ‘동사+거’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31 나)의 ‘-을 거’는 미래 시제를 (31 라)의 ‘-은 거’는 과거시제와 연결된 모습이다.

(32) 가. 신랑을 받아들이겠다고 허락하면은 이제 들어갑니다, 신부집에.<M1: 137>

(신랑을 받아들이겠다고 허락하면 이제 들어갑니다, 신부집에)

나. 몰 와들랑와들랑 들러켜가민 막 무섭지게, 떨어지카부덴.<F11: 210>

(말이 와들랑와들랑 날뛰어 가면 막 무섭지, 떨어질까봐.)

(32 가)는 ‘신부집에 들어갑니다’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신부집에’로 도치된 형태이고 (32 나)는 ‘떨어질까봐 무섭지’를 ‘무섭지, 떨어질까봐’의 형태로 바꿔 놓

은 것이다. (32 가, 나)와 같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성분을 이동시킨 도치의 문장을 사용한 예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조금 많이 나타난다. 문장에서 도치의 수사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 문장에서 빠진 문장성분을 보충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종결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로 문장을 종결한 형식은 여성 화자가 조금 많이 사용하였고 강조나 추가의 의도로 사용하는 도치형 문장은 남성 화자가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확신형의 종결형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애매하게 문장을 끝내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근소한 차이지만 제주도방언에서도 남성 화자들에 비해 여성 화자들이 명사형 종결문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명사 종결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성 화자가 당당함과 확신에 찬 발화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3.1.4. 전달력을 높이는 음운 강화

자기를 과시하거나 사회적으로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선택할 때 강한 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이때 된소리나 거센소리화된 발음을 사용한다. ‘다시’를 ‘따시’로 발음한 경우는 여성 화자가 11회로 남성 화자 1회보다 많았다. 그 이외에는 초성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²¹⁾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된소리는 후두 근육을 긴장하거나 성문을 폐쇄하여 내는 음이다. 된소리는 성대의 긴장성 면에서 예사소리보다 강하고 거센소리는 공기를 내뿜는 강도, 즉 ‘기’에 있어서 예사소리보다 세다. 공기를 내뿜는 강도는 거센소리>예사소리>된소리 순이 된다.

바람이 센 제주도에서는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강도가 센 파열음을 많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여성의 발화에서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화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어형에서 변화를 거치며 표준어에서는 된소리로 변화한 것이 제주도방언에서 거센소리로 바뀐 경우를 찾아보았다.

21) 이석규김선희(1992: 40)는 여성이 귀엽게 보이하고자 하는 심리의 반영으로 남성보다 된소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표 16> 거센소리화 실현 빈도

방언형 (표준어형)	착(쪽)	츄다 (짜다[鹹])	치다 (찌다[蒸])	차다 (짜다[織])	클르다 (끄르다)	털어지다 (떨어지다)	합계
남성	1					1	2
여성	12	1	1	9	4	15	42

(33) 가. 양착에 사람이 딱 붙잡아. <F10: 205>

(양쪽에 사람이 딱 붙잡아.)

나. 바다에 물 길어다가 츄물, 옛날 할망덜 ‘츄물 길어오라 두부허게.’ <F12: 212> (바다에 물 길어다가 짠물, 옛날 할머니들 ‘짠물 길어와라 두부허게.’)

다. 술췌 뽑아당 츄아근에 영 츄앙 츄영 츄당 거 부뜨카부덴 영 영 츄앙……기추
룩 허멍 츄난. <F12: 214> (술췌 뽑아다가 츄아서 이렇게 츄아서 츄어 놀았다가
붙을까봐 이렇게 츄아서 ……그렇게 하면서 츄었어.)

라. 이츄으로 부지런이 그츄 뜸 츄근에 돈 버츄젠. <F5: 190>

(자기대로 부지런히 그츄는 뜸 츄서 돈 벌려고.)

마. 머리 여츄난 게 머리 여츄는 거 츄러지지 못허게. <F3: 183>

(머리 츄렸으니까 머리 츄린 것 츄러지지 않게.)

바. 츄어지지 말게 딱 무츄근에. <F3: 183>

(츄어지지 않게 딱 츄어서.)

(33 가, 나)에서 ‘츄’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두자음군 ‘ㅉ’ 형태를 가지고 있던 단어들로 제주도방언에서 ‘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준어에서 ‘ㅉ’으로 변화한 것이 제주도방언에서 ‘츄’으로 나타나는 것은 ‘ㅉ’이 변화하면서 제주도에 특이하게 거센소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화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33 다)는 술췌를 츄아서 떡을 찌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짜다’가 ‘치다’로 발화된다. (33 라)는 비바람 등을 막는데 쓰는 띠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띠를 츄서 돈을 벌었다는 피조사자의 발화에서 ‘짜다’가 제주도방언에서 ‘차다’로 발화되는 것이다. (33 마)는 ‘풀다’는 의미의 ‘끄르다’가 방언형 ‘클르다’로, (33 바)에서는 ‘떨어지다’가 ‘털어지다’처럼 된소리가 거센소리로 나타난다.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발화되는 예도 보인다. 주로 ‘병’이 ‘뺑’으로 발음되는 것과 첫음절이 아닌 2음절에서 ‘ㅆ’이 ‘ㅉ’으로 변화한 예를 볼 수 있다.

<표 17> 예사소리의 거센소리화 실현 빈도

	병풍→뽕풍	병→뽕	고방→고팡, 궤팡	합계
남성	3	1		4
여성			5	5

(34) 가. 신부집에서는 이 입구에다가 뽕풍을 쳐 가지고 <M9: 163>

(신부집에서는 이 입구에다가 병풍을 쳐 가지고.)

나. 그때는 뽕이 아니고 추니 있잖아? <M12: 174>

(그때는 병이 아니고 준이 있잖아?)

다. 옛날은 방 두 개베끼 엮이난 궤팡에 쌀 놓고 향덜 놓곡 현 디 신부 거기서 출려,
대부분은. <F12: 213>(옛날은 방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고방(괘)에 쌀 놓고 향아리들
놓고 한 데 신부 거기서 차려, 대부분은.)

(34)의 예에서 보여주는 것은 남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주제에 따른 단어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병풍’이라는 단어는 남성 화자만 사용하였고 ‘고팡’이라는 단어는 여성 화자만 사용하였다. 결혼식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이지만 남성의 관심사와 여성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음의 강화를 위해 거센소리 쓰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센소리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도 보인다.

(35) 가. 잔치야 거 뭐 도새기 혼 마리 잡앙 그뻐 뭐 사름덜토 하영 아니 오고 <M11: 170> (잔치야 거 뭐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그뻐 뭐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나. 모똥궤루 물에 칼 그다음에 그 배설 해근에 영행 이레 질어근에게 시방 순대 담듯 담는 거라. <F2: 180> (메밀가루 물에 타서 그다음에 그 찡자 해서 이렇게 이리로 길어서 지금 순대 담듯 담는 거야.)

다. 검질 매당 보민 아긴 이디 별경케 칼 낀 가죽 벗곡. <F11: 209>

(김 매다 보면 아기는 여기 별결게 타서 모두 가죽 벗겨지고.)

(35 가)는 복수접미사 ‘-덜’이 ‘ㅎ’ 발음을 갖는 단어로서 현재 ‘ㅎ’이 사라지긴 하였으나 조사 ‘-도’와 결합²²⁾하면서 거센소리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덜+ 도’

22) ‘-들’ 이외에 ‘ㅎ’ 발음 체언인 ‘하나’가 조사 ‘-도’가 결합하여 ‘하나+도>하나토’와 같이 ‘-토’로 변한 형태는 여성 화자의 발화에서만 1회 나타났다.

의 환경에서 ‘-덜도’로 나타나는 것은 남성 7회, 여성 8회이며, ‘-덜토’로 실현되는 것은 남성 3회, 여성 2회다. (35 나, 다)는 표면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뜻이 다르다. (35 나)는 액체에 가루 따위를 넣어 섞는다는 의미인 ‘타다’의 방언형이고 (35 다)는 피부가 햇볕을 쬐어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타다’의 방언이다. 이는 음의 강화를 위해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변환 형태는 아니지만 제주도 방언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센소리 발화다. 거센소리로 발화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발화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밭이나 바다에서 일을 해야 하는 제주도 여성들이 언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강도가 높은 음운을 선택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에서 지역성이 반영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성과 남성은 어느 한 쪽이 우월하거나 완벽하고 어느 한 쪽이 약하고 부족하지 않다.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하며 언어 속에 그 문화가 드러나게 된다. 제주도 여성도 남성보다 약하고 부족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환경이 다르므로 다른 언어 형태를 선호하게 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환경이 여성의 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담화표지에 있어서 전체적인 빈도수는 남성 화자가 높는데 이것은 남성 화자가 말을 할 때 더 많이 망설이고 머뭇거린다는 뜻으로 표준어의 경우와 같다. 남성 화자는 지시성, 의문성 담화표지를 많이 사용하였고 여성은 부사성 담화표지와 조사성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소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사와 같은 형태의 부사성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단순한 망설임이나 시간 벌기에 사용하고 있다. 조사성 담화표지 중에서도 ‘-게’의 사용이 두드러졌는데 ‘-게’의 사용을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의문문의 사용 빈도는 여성 화자가 높게 나타났지만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의문문의 발화는 적고 특수 의문문이 많이 나타났다. 특수 의문문 중에서도 여성 화자가 수사의문문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사의문문은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갖는다. 명사로 문장을 끝맺는 형태의 명사 종결문을 통한 단

언적인 문장의 사용에서도 여성 화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확신을 가진 발화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자신 없고 망설이는 발화를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셋째, 자연적 환경의 극복을 위해 된소리와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강화하여 발음하려는 경향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여성은 경음을 많이 사용한다는 표준어의 여성 발화 특징과 달리 음운을 강화하여 거센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언어가 가진 특징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제주도방언에서 나타나는 것은 제주도방언 여성 화자들의 심리가 다른 지역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여성은 남성의 부재 속에서 농업 및 어업에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활동으로 여성만의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중한 노동과 책임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심리가 언어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은 한정된 섬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 단계만 거치면 아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좁은 지역 사회이다. 고령의 여성 화자들은 조사자가 딸이나 며느리 정도의 나이이므로 친밀감의 표현으로 정감있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였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도맡아 해야 했던 특징은 자신감과 확신의 형태로 언어에 투영되었다. 또한 야외활동이 주가 되는 제주 여성의 생활의 반영으로 전달력을 높이는 음운 강화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3.2. 보수성을 유지하는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새로운 것이나 진보적인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따르고 지키려는 성향을 보수성이라고 말한다. 전통적인 것은 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고어형과 방언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수적이라고 보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 어느 쪽이 표준어를 선호하고, 표준어를 잘 구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방언학에서 방언 조사 시에 순수한 방언 피조사자로 남녀 중 어느 쪽이 좋은지도 단언할 수 없다. 여성은 거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가사 중심 대화를 하며 이방인과 대화할 기회가 적고 방언이 뒤섞이는 군대를 안 가므로 순수한 보수적 방언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는 여성이 피조사자로 적합하게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여성은 남성보다는 표준어에 민감하고 표준어를 선호하며 언어변화를 주도한다고 보아 남성을 보수적으로 본다. 이것을 여성들이 자기 언어에 대해 과도 교정을 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여성은 신분 상승 의식과 교양 과시를 위해 표준어를 지향하고 남성은 지역사회에의 유대감을 위해 방언형을 지향하여 보수성을 띠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다. 남성은 비표준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중시하는 남성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어에서도 여성은 표준 발음과 표준어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²³⁾가 많다. 여성은 문화와 교육의 전승자로서 보수성을 지니는 반면 언어 교양의 과시를 위해 표준형에 민감한 진보성도 보여 모순된 양면을 지닌다. 제주도방언에서는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이 표준어를 선호하고 어느 쪽이 방언형을 선호할까? 제주도방언형과 고어형을 선호하는 경우를 보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보수성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3) 이정민(1981)은 방언을 쓰는 남녀 화자들이 자기 방언에 대한 호감의 정도가 어떤가를 조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모든 지역 방언 여성 화자는 남성 화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자기 방언을 좋지 않게 보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의 표준어 선호 경향을 언어 심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3.2.1. 방언형 부사 선호

김선희(1991)²⁴⁾, 민현식(1995)²⁵⁾이 언급한 것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사²⁶⁾를 많이 사용한다. 뒤에 오는 용언 등의 뜻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를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여성이 동작이나 상태를 섬세하고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성·의태 부사는 한 번씩만 사용된 예가 많아 그 특징을 살피기 어렵고, 지시 부사의 경우 명사로 쓰인 예도 많고 구분이 모호하여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에서는 성상부사에 대하여 남녀 간의 사용 특징을 찾아보려고 한다. 제주도방언 전사 자료에서 성상부사를 찾아서 빈도수 별로 정리하고 엑셀에서 수작업을 통하여 부사를 종류별로 추출하였다.

<표 18> 성상 부사 사용 빈도 수

	남성 화자		여성 화자	
	전체 어절 개수 (token)	어절 종류 수 (type)	전체 어절 개수 (token)	어절 종류 수 (type)
전체 어절 수	15,735	6122	16,081	6402
성상부사	615	44	713	40

성상부사 사용 빈도수는 남성이 615개 여성이 713개로 나타났다. 여성이 100개 정도 더 많은 성상부사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 빈도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성상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상부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여 꾸미는 부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상부사를 자주 사용하지만 그 종류의 차이는 많지 않다. 전체 비율로 보면 여성이 조금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4) 김선희(1991: 121)는 여성이 강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도부사를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강도 높은 부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25) 민현식(1995: 48)은 여성은 ‘좀, 아마, 너무, 정말, 사실, 굉장히, 아주, 무지무지, 막, 참’ 등감정을 나타내는 부사나 감탄사를 빈번히 사용한다.

26) 부사는 문장 내에서 일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부사와 문장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로 나뉜다. 성분 부사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로 나뉜다. 성상부사는 주로 용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다. ‘어떻게’의 의미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를 말한다.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말한다. 문장부사는 중 접속부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로 문장 안에서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표 19> 성상 부사의 종류별 사용 빈도

남성				여성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다	84	오죽	5	다	100	요새	10
또/또로	78	오래	5	막	74	더	7
딱	70	하영	5	또/또로	60	바로	7
조금/좀	55	그대로	5	잘	51	보통	6
막	44	요새	4	그냥/기냥	50	탁	5
잘	39	아까	4	이제	29	아주	5
그자	23	똑	4	딱	28	서로	2
많이	17	거의	4	그자/기자	27	전부	2
지금	17	문	3	흐쓸	25	자꾸	2
그냥/기냥	16	바로	3	하영	24	요만큼	2
보통	15	이제	3	다시/따시/뜨시	22	먼저	2
서로	12	가끔	3	문	19	요만이	2
아주	11	자꾸	2	따로/뜨로	18	그대로	2
우선	11	대개	2	문딱	18	오죽	1
다시/따시	10	요만이	1	조금/좀	18	우선	1
ㄹ치/ㄹ찌	10	고만	1	하간	16	가끔	1
탁	9	요만큼	1	흐끔	15	같이	1
흐쓸	8	흐끔	1	오래	14	거자	1
더	7	끝내	1	지금	13		
전부	7	뜨로	1	많이	12		
같이	6	먼저	1	ㄹ치/ㄹ찌	11		
문딱	6	흐끔씩	1	제일/젤	11		
합계			615	합계			713

성상부사의 사용에 있어 여성은 ‘다, 막, 또, 잘, 그냥, 이제’와 같은 부사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남성은 ‘다, 또, 딱, 조금, 막, 잘’ 순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 빈도만으로 그 특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끼리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남녀 화자 모두 표준어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시’를 경음화해서 ‘따시’라고 하거나 ‘아래아(·)’를 사용해서 ‘뜨시’로 발음하는 것과 ‘또’ 대신에 ‘또로’를 사용하는 것 외에 방언형 부사를 사용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사는 대부분 표준어형이다.

<표 20>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사용

1	남성		여성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2	또/또로	78	또/또로	60
3	지금	17	이제	29
4	우선	11	다시/따시/뜨시	22
5	다시/따시	10	오래	14
6	오래	5	지금	13
7	요새	4	요새	10
8	아까	4	바로	7
9	바로	3	자꾸	2
10	가끔	3	먼저	2
11	이제	3	가끔	1
12	자꾸	2	우선	1
13	먼저	1		
14	끝내	1		
합계		142		161

시간 부사 사용에 있어 특이한 점은 여성 화자가 ‘이제²⁷⁾’를 사용하는 빈도가 남성 화자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이제’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된 예만을 다룬다.



(36) 가. 이제 ㄱ뜨민 누게 손 받느니게? <F9: 203>

(이제 같으면 누가 손 받겠니?)

나. 하도 오래니까 이제 잘 모르쿠다. <M1: 138>

(아주 오래되어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36 가)는 예전에는 새각시 밥을 손에 받아서 먹었지만 지금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말이다. (36 나)는 오래 전 일이라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표현이다. 모두 예전과 대비되는 말로 ‘이제’를 쓰고 있다. <표 20>을 보면 남성 화자가 여성 화자에 비해 ‘지금’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성 화자는 ‘이제’와 ‘지금’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

(37) 가. 옛날에 지금처럼 사람덜 안주도 막 갖다주고 그렇지 안 허고 반 놓면은 그걸로 끝. <M7: 157> (옛날에 지금처럼 사람들 안주도 막 갖다주고 그렇게 안 하고 반

27) ‘이제’는 ‘바로 이때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사로 ‘지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기 높으면 그것으로 끝.)

나. 지금은 가락지도 주곡 돈도 주곡 허주만은 엇어. <F1: 178>

(지금은 가락지도 주고 돈도 주고 하지만은 (옛날은) 엇어.)

다. 나 저, 결혼헌 지가 지금 오십사 년 정도 됐는다. <M10: 168>

(나 저, 결혼한 지가 지금 오십사 년 정도 됐는데.)

라. 지금 현재로 말허면 안장 ㄱ쁜 거, 그거 해서 연결을 시겨서 운반을 헛다고.

<M2: 140> (지금 현재로 말하면 안장 같은 거, 그거 해서 연결을 시켜서 운반을 헛다고.)

마. 지금 내가 경로당에 가도 그 옛날 걸 ㄱ리치주게, 사름덜암피. <M3: 146>

(지금 내가 경로당에 가도 그 옛날 것을 가리치지, 사람들에게)

‘지금’이 사용된 (37 가, 나)는 명사로 쓰여서 ‘명사+조사’의 구조를 갖는 것이고 (37 다, 라, 마)는 부사로 사용된 것이다. ‘지금’을 ‘이제’로 바꾸어도 의미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같은 의미를 갖는 부사가 발화자의 습관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주로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가 사용되었는데 ‘또로’와 ‘따시’, ‘뜨시’가 방언형으로 사용되었다. 남성 화자의 방언형 사용은 ‘또로’는 피조사자<M5>가 1회, ‘따시’는 피조사자<M3>이 1회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화자는 ‘또로’를 5회, ‘따시/뜨시’를 19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여성 화자의 사용 빈도가 훨씬 많은 것을 볼 때 성별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여성 화자가 방언형의 부사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도의 등급을 높이는 부사

문장 안에서 어떤 어휘에 대해 그 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구실을 하는 부사를 정도부사라고 한다. 주로 부사는 개인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피수식어의 상태를 수준에 따라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한정하여 정도부사라고 한다.

<표 21> 등급을 높이는 정도 부사의 사용

	남성		여성	
	부사	빈도수	부사	빈도수
1	아주	11	제일/젤	11
2	더	7	더	7
3	거의	4	아주	5
4			거자	1
합계		22		24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정도부사의 강도는 ‘아주, 젤, 더, 거의/거자’의 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도부사에서 가장 높은 정도를 의미하는 것 즉, 등급을 높이는 부사는 ‘제일, 아주’가 있다.

(38) 가. 뚝요강을 하민 아주 소문이 건건ㅎ는 거라. <F9: 202>

(뚝요강을 하면 아주 소문이 무성해지는 거야.)

나. 누이동생이 엇으면 일가사름이라도 젤 친헌 사름 행은에 새각시허곡 ㄱ찌 갑니다. <M5:151> (누이동생이 없으면 일가 사름이라도 제일 친한 사람 해서 새각시 하고 같이 갑니다.)

다. 술 혼 사름 앞에 아무리 더 달라고 해도 안 좃어. <M3: 144>

(술을 한 사람에게 아무리 더 달라고 해도 안 좃어.)

라. (우시는) 많이 완, 혼 거자 오륙 명 오주. <F10: 205>

((우시는) 많이 왔어, 거의 오륙 명 오지.)

(38 가, 나)처럼 ‘아주, 젤’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주 소문이 무성하다’, ‘제일 친한 사람이’의 의미로 쓰인다. 중간 강도의 부사로 ‘더, 거의/거자’가 있는데 (38 다, 라)와 같이 대부분의 최상급은 아니지만 ‘현재의 것보다 많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사용은 여성 화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²⁸⁾가 있지만 제주도방언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도부사의 사용은 빈도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28) 김혜영(2009)은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정도부사의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공적인 발화상황보다 사적인 상황에서 정도부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3) 정도의 등급을 낮추는 부사

등급을 낮추는 부사로는 ‘조금²⁹⁾’이 있는데 ‘조금’을 뜻하는 부사의 이형태로는 ‘조금, 줌, 흐끔³⁰⁾, 흐끔, 흐쓸’ 등이 나타났다. ‘흐끔’의 이형태로 ‘흐끌, 흐꼐, 흐꼐’가 있는데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표 22> 등급을 낮추는 정도 부사의 사용

	남성		여성	
	부사	빈도수	부사	빈도수
1	줌	40	<u>흐쓸</u>	25
2	조금	15	<u>흐끔</u>	15
3	<u>흐쓸</u>	8	줌	10
4	<u>흐끔</u>	1	조금	8
합계		64		58

등급을 낮추는 정도부사를 남성 화자는 ‘줌> 조금> 흐쓸> 흐끔’ 순으로 사용하였고 여성 화자는 ‘흐쓸> 흐끔> 줌> 조금’ 순으로 사용하였다. 여성 화자가 방언형을 선호한 반면 남성 화자는 표준어형을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이 방언형 ‘흐쓸, 흐끔’을 40회 남성이 9회 사용하였다.

- (39) 가. (김치는) 콍대사니 마늘 영 조금 뿔아 농곡 혜근에이 고치도 집이 연 거. <F1: 177> ((김치는) 마늘 이렇게 조금 뿔아놓고 해서 고추도 집에 열린 거.)
- 나. 생각혜여근앵이 흐쓸 사는 디라사 곤쓸 서껏주, 게 안 허면은 줍쓸 서꺼. <F2: 181> (생각해서 조금 사는 데라야 흰쌀 섞었지, 그렇지 않으면 줍쓸 섞어.)
- 다. 줍 잘사는 사름덜은 한 뒤 마리 잡고 보통은 그자 한 마리 잡아서, 옛날에는 한 마리면 충분했거든. <M7: 157> (줍 잘사는 사람들은 한 두어 마리 잡고 보통은 그냥 한 마리 잡아서, 옛날에는 한 마리면 충분했거든.)
- 라. 새각시엔 헛자 곤밥허고 웨기 흐끔 나시 농곡 독새기 숭앙 세 개, 네 개 올

29) ‘조금’의 고어형 ‘적끔’은 ‘적(小)+끔(접미사)’으로 분석할 수 있다.

30) 강정희(2002: 531)는 ‘흐끔/ 흐쓸’은 ‘수사+공간어’의 형태로 ‘홀+끔/쓸’로 이루어졌으며 ‘홀’은 하나의 의미이며 ‘끔/쓸’은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로 공간의 의미는 퇴색되고 정도성으로 일반화되었다고 설명한다.

31) ‘작다’의 제주도방언인 ‘흐끔락허다/흐꼐락허다/흐꼐락허다’의 ‘흐끔, 흐꼐, 흐꼐’에 접미사 ‘끔’이 결합된 형태로 보면 ‘형용사 어간+ 접미사’의 구조로 ‘조금’과 일치하게 된다. 이형태인 ‘흐끔, 흐꼐’도 형용사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기 쉬워진다. ‘흐쓸’의 동의어로 ‘야쓸’이 있는데 ‘약간+ 쓸’처럼 ‘-쓸’이 접미사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려.<F3: 184> (새각시라고 해도 흰밥하고 고기 조금 낮게 놓고 계란 삶아서 세 개, 네 개 올려.)

마. 물피라는 건 고고리가 크고 양이 줄 많이 나고 허니까.<M1: 140>

(물피라는 건 고고리가 크고 양이 좀 많이 나고 하니까.)

(39 가, 나, 다)는 동사를 수식하는 예다. (39 가)의 ‘조금’은 ‘뺑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금 뺑아 놓는다는 것이고 (39 나)의 ‘조금’은 ‘사는’을, (36 다)는 ‘잘살다’를 수식한다. (39 라)는 ‘낮게’를 (39 마)는 ‘많이’라는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부사가 수식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에 따라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으므로 ‘조금’을 뜻하는 부사가 수식하는 말을 정리해 보았다.

<남성 화자(64)>

동사(37)-갈다, 갖추다, 개선되다, 느누다(2), 놓다(5), 먹다(3), 대표허다, 뭐허다(2),
보다, 생각허다, 서끄다, 서다, 심다, 알다, 잘살다(7), 하다(7), 보호하다
형용사(19)-잇다/이시다(9), 귀허다, 등차다, 힘들다, 혜똥록허다, 틀리다, 정신엇다,
점다, 알다, 안되다, 낮다
부사(8)-일찍(2), 조금, 좀, 젤, 많이, 다, 전이는

<여성 화자(58)>

동사(34)-(농사)짓다, 골다, 거리다, 고달들다, 공부허다, 그려지다, 놓다(4), 불르다,
버무리다, 배우다, 뺏다, 빠지다, 살다(4), 서끄다, 썰다(3), 알다, 일허다,
잘살다(2), 절이다(3), 피허다, 허다
형용사(17)-흙다, 가난허다, 나쁘다(2), 낮다(2), 낮다, 뜨다, 불으스름허다, 시다, 실
렵다, 있다, 예민허다, 젊다, 죽다, 질다, 푼푼허다
부사(7)- 나시, 혜똥록이, 영(4), 막

부사 ‘조금’이 수식하는 동사 중 식생활과 관련된 것을 밑줄 쳐서 나타내었다. 남성 화자가 4종류의 동사(느누다, 놓다, 먹다, 서끄다)를 11회 수식한 반면 여성 화자는 10개 동사(골다, 고달들다, 놓다, 버무리다, 뺏다, 빠지다, 서끄

다, 썰다, 절이다)를 17회 수식하고 있다. 음식과 관련된 동사를 사용한 빈도수를 살펴보면 여성 화자가 다양한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결혼과 관련된 질문이지만 여성 화자가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수식을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성 화자가 사용한 ‘조금’류의 부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잘살다’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남성 화자가 ‘잘살다’를 수식하는 경우가 7회인데 반해 여성 화자는 2회 나타난다. 여성 화자가 사용한 ‘조금 살다’가 ‘살 만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면 ‘조금 잘살다’ 형태를 가진 것은 3개다. ‘조금/좀/흐썰/흐끔 + 잘살다’처럼 쓰인 경우가 남성 화자에 비해 여성 화자의 발화에서 적게 나타난다.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 정도의 등급을 낮추는 부사가 ‘있다/이시다’를 수식하는 비율은 형용사 전체를 수식하는 비율의 47%에 해당한다. 여성 화자가 ‘조금’류의 부사를 사용하여 형용사를 수식한 횟수는 남성 화자에 비해 적게 나타나지만 훨씬 다양한 형용사가 피수식어로 쓰였다. 이때 정도의 등급을 낮추는 부사로는 ‘조금/좀/흐썰/흐끔’을 사용했다.

표준어형인 ‘조금/좀’과 방언형 ‘흐썰, 흐끔’에 대한 사용 비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이 표준어형을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전체 54개 중 45개를 표준어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은 반대로 58개 중 40개를 방언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사의 방언형 사용은 여성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표준어형을 선호할 것이라는 연구들과 달리 조사된 자료에서 제주도방언의 여성 화자들은 부사선택에 있어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4) ‘모두’를 뜻하는 부사

‘다, 모두’를 뜻하는 부사는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정상부사다. 여성 화자는 ‘다(100), 문(19), 문딱 (18), 전부(7)’ 등의 형태로 144번을 사용했고, 남성 화자는 ‘다(84), 문딱(6), 문(3), 전부(2)’ 등 95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다, 모두’를 뜻하는 부사의 사용

	남성		여성	
	부사	빈도수	부사	빈도수
1	다	84	다	100
2	몬딱	6	몬	19
3	몬	3	몬딱	18
4	전부	2	전부	7
합계		95		144

(40) 가. 이불 멘드는 날은 막 집이 식구덜이 다 왕덜 이불 멘들아. <F1:178>

(이불 만드는 날은 막 집에 식구들이 다 와서 이불 만들어)

나. (도새기는) 검질로 다 기실렷주. <M10: 166>

((도새기는) 검볼로 다 그을렸지.)

다. 그거 일가방상에 거 몬 나가 써나난 게 혼 백 장은 써실 거라. <M4: 148>

(극 일가친척의 것 모두 내가 썼었으니 한 백 장은 썼을 거야.)

라. (전지 지지는 거) 이 근방엔 전부 남자들이 헛어. <M12: 174>

((전 부치는 거) 이 근방에는 전부 남자들이 헛어.)

마. (도새기는) 아무 검질로도 허고 나무로도 허고 경행 터럭 몬딱 베껴. <F12: 212> ((도새기는) 아무 검볼로도 하고 나무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털 모두 벗겨.)

(40)의 밑줄 친 예들은 ‘모두³²⁾’를 뜻하는 부사들로 (40 가, 나)의 ‘다’는 뒤따르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이고 (40 다)는 결혼할 때 쓰는 예장을 모두 피조사자가 썼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40 라)는 그 지역에서는 명절이나 제사 때 전을 부치는 것을 모두 남자들이 했다는 것이고 (40 마)는 돼지를 잡을 때 털을 태워서 모두 벗겼다는 말이다. ‘몬’과 ‘몬딱’은 ‘모으다’의 방언형 ‘몬다, 모도다, 모두다’에서 파생된 부사형이다. ‘몬’과 ‘몬딱’은 표준어로 ‘모두’이며 ‘전부’와 ‘다’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부사다. 방언형인 ‘몬, 몬딱’과 표준어형인 ‘전부, 다, 모두’의 출현은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언형인 ‘몬, 몬딱’의 사용은 여성 화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32) ‘모두’는 표준어에서 ‘몬-(集)+오(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5) ‘그냥’을 뜻하는 부사

‘그냥³³⁾’을 의미하는 부사의 이형태는 ‘그냥, 기냥, 그자, 기자’ 등이 있다. ‘기냥/그냥, 기자/그자’는 같은 뜻으로 쓰인 ‘그냥’을 의미하는 이들 부사의 사용을 살펴보면 남성 화자가 ‘그자>그냥>기냥’순으로 여성 화자는 ‘그냥>그자>기자, 기냥’ 순으로 발화 빈도가 높았다. 표준어형을 ‘그냥’으로 보면 이형태 ‘기냥’은 모음 ‘-’가 ‘ㅣ’로 전설모음화 된 방언형이다. 이렇게 보면 ‘그자’가 원형이고 ‘기자’를 이형태로 유추할 수 있다. 원형이 더 많이 쓰이고 이형태가 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4> ‘그냥’을 뜻하는 부사의 사용

	남성		여성	
	부사	빈도수	부사	빈도수
1	그자	23	그냥	45
2	그냥	13	그자	20
3	기냥	3	기자	7
4			기냥	5
합계		39		77

‘그냥’을 뜻하는 부사를 여성 화자는 ‘그냥>그자>기자>기냥’ 순으로, 남성 화자는 ‘그자>그냥>기냥’의 순으로 사용한다. 이 이형태들의 쓰임을 살펴보면 서로 교체되어 사용되어도 문제가 없다. 같은 의미를 갖는 이형태들로 변별적 기능을 갖지 못한다.

- (41) 가. 계란 해근에 영 찌지미덜 흥뽀م 허고 그냥 둥글락허게 해실 거라. <F12: 212> (계란 해서 이렇게 부침개들 조금 하고 그냥 둥그렇게 했을 거야.)
- 나. 우린 그때 연지곤지 못 불르고 기냥 흥썰 영 얼굴 씻언. <F1: 175>
(우린 그때 연지곤지 못 바르고 그냥 조금 이렇게 얼굴 씻었어.)
- 다. 그자 밥만 먹어지민 존 걸로 알앗주. <F5: 191>
(그냥 밥만 먹으면 좋은 것으로 알았지.)
- 라. 이젠 메밀이 귀허니까 곤썰로 기자 서눔만. <F3: 185>
(이젠 메밀이 귀하니까 흰쌀로 그냥 시눔만.)

33) ‘그냥’은 ‘그[其]+ ㄴ[첨가음]+ 樣(양)’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으며 ‘어떠한 모양을 가하지 않고 그 모양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마. 얼굴 아이 반 그냥 갖추 뒤. <M11: 170>

(얼굴 안 보고 그냥 갔지 뒤.)

바. 잇는 형편대로 기냥 허는 거지 뒤. <M1: 139>

(잇는 형편대로 그냥 하는 거지 뒤.)

사. 가문잔치 날은 그자 장국, 메리치 농곡 해서. <M10: 167>

(가문잔치 날은 그냥 장국, 멀치 놓고 해서.)

(41 가~라)는 여성 화자가 발화한 예문이며 (41 마~사)는 남성 화자가 발화한 예문이다. (41 가)는 ‘둥글락허다’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고, (41 다)는 ‘밥만 먹어지민’ 전체를 수식하고 있으며 (41 나)는 ‘흐쭙’이라는 부사를 수식한다. (41 라, 사)는 후행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41 마, 바)는 ‘가다, 하다’ 동사를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문장전체를 수식하거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사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여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정리하였다.

<남성 화자>

동사(21)-가다(2), 갖다주다, 들어가다, 들어오다(2), 모시다, 받다, 빼다, 버리다, 쓰다, 시기다, 오다, 주다(2), 쳐들어가다, 하다(5)

형용사(1)-이시다

<여성 화자 >

동사(23)-가다(2), 거리다, 덩기다, 들라부뜨다, 들르다, 먹다, 멈추다, 밀리다, 살다, 씨우다, 열다(2), 오다(2), 빌다, 쪽쩌다, 꿇장시기다, 한복허다, 허다(4)

형용사(4)-둥글락허다, 빌착허다, 잇다, 헤양허다

‘그냥’이라는 부사를 사용할 때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에 비해 더 다양한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 화자가 다양한 형용사를 구사하여 더 섬세하게 묘사하는 특성과 연관시켜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부사를 사용하는 빈도수를 중심으로 의미별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후행하는 동사나 형용사 등을 수식하기 위하여 부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 제주도방언에서도 여성이 더 많은 부사를 사용하고 있다. 부사 사용에 있어 특이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방언형의 부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에 있어서 남성이 보수적이며 여성은 표준어형을 더 선호할 것으로 생각되나 노년층 제주도방언 화자들의 발화에서는 여성이 방언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부사는 표준어형과 부사형이 문장에서 수의적으로 선택되어 나타나며 여성이 방언형 부사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는 단어 선택에 있어 표준어형보다 방언형을 선호하는 여성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3.2.2. 보수적 음운 선호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 발음을 선호한다거나 여성은 남성보다는 표준어에 민감하고 표준어를 선호하며 남성은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사회언어학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여성의 교양 과시와 신분 상승 욕구에 따른 자기 언어를 과도 교정할 결과로 해석된다. 즉 여성은 표준어를 지향하는 개신성을 띠고 남성은 지역 사회에의 유대감을 위해 방언형을 지향하여 보수성을 띤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어 있다. 표준어는 교양과 지식의 상징이며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은 여성들은 표준어 사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포장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된 자료를 통해 제주도 여성들도 표준 발음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겠다.

1) 예사소리 형

제주도방언에서 고풍인 예사소리가 유지되는 어형들이 있는데 ‘시치다, 거끄다, 시기다’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고풍인 예사소리가 현대 표준어에서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변화하였으나 제주도방언에서는 고어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표 25> 예사소리 유지 실현 빈도

	시치다(씻다)	거끄다(꺾다)	시기다(시키다)	합계
남성			5	5
여성	3	2	5	10

‘거끄다³⁴⁾, 시기다³⁵⁾’가 ‘꺾다, 시키다’의 고어 형태이므로 통시적 관점에서 제주도방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를 고어의 예사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가. 바다에 쫄물에 소금 엮으난 혼 삼 일 컷당이 거 시청 강 걸로 김치행. <F12: 213> (바다에 쫄물이 소금 없으니까 한 삼일 담갔다가 그거 씻어서 가서 그것으로 김치해서.)

나. 봄이 나면 고사리 거끄레 가거든. <F9: 204>

(봄이 나면 고사리 꺾으러 가거든.)

다. 이날에 저 딸을 저 결혼 시기라고. <M8:160>

(이날에 저 딸을 저 결혼 시키라고.)

라. 경헨 살다보난 아들도 킨 결혼 시기게 뉘고, 딸도 킨 결혼 시건 뉘. <F8: 200> (그렇게 해서 살다보니 아들도 커서 결혼 시키게 되고, 딸도 커서 결혼 시켜서 뉘.)

(42 가)는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바닷물에 담갔다가 씻어서 사용 한다고 설명하는 피조사자의 발화이다. ‘씻다’의 고어형 ‘시키다’가 사용된 것이다. (42 나)는 ‘꺾다’가 고어형 ‘거끄다’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42 다)처럼 남성의 발화에서 ‘시키다’가 등장하긴 하지만 다른 단어에서는 여성이 예사소리가 유지되는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여성 언어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2) 구개음화 형

실제 발화에서 구개음화³⁶⁾가 일어나는 이유는 발음의 용이성과 힘의 절약과 같은 이유를 든다.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성의 논리로 힘이 덜 들어가는 발음을 추구하는 언중들의 성격이 발화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어에서 가장 두드러진 구개음화의 예는 ‘ㄷ’의 구개음화다. 그 외에 ‘ㄱ’이나 ‘ㅎ’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ㄱ’이나 ‘ㅎ’ 구개음화가 방언형에서만 나타나고

34) ‘꺾다’는 ‘꺾다’의 고어형으로 ‘꺾거, 꺾근, 꺾글소냐’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두 니 꺾근 이상이어나(警民編諺解16)’, ‘네가 하사 더러지여 너가 하사 꺾글소냐(答思鄉曲)’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35) ‘시키다’는 ‘시키다’의 고어형으로 ‘阿難일 시기샤 羅睺羅의 머리 갖기시니(釋譜6:10)’, ‘命은 시기는 마리라(月釋序11)’ 등에서 나타난다.

36) 구개음화란 ‘l’나 ‘y’계 이중모음의 영향으로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구개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있지만 서로 맥락을 같이하는 현상들이다.

(43) 가. 그냥 산파로 밭에[바테] 밭 갈아 놓고 산파로 짹짹 뿌려서 씨 잘 빼어야지.

<M1: 139> (그냥 산파로 밭에 밭 갈아 놓고 산파로 짹짹 뿌려서 씨 잘 뿌려야지.)

나. 농사 흥쓸 지민 밭디[받띠] 강 검질 매곡. <F5: 188>

(농사 조금 지으면 밭에 가서 김 매고.)

다. 흥 사람이 밭 밭씩 허민 그 밭을 [바슬] 샷 내가지고 배출 갈아.<F7: 197>

(한 사람이 몇 이랑씩 하면 그 밭을 샷 내서 배추를 갈아.)

라. 옛날 보면은 그 가름에라도이 가름 가까운 디 농사짓는 밭이[바시] 잇거든.

<M13> (옛날 보면은 그 마을에라도 마을 가까운 데 농사짓는 밭이 잇거든.)

마. 늬이 밭 빌영 흥젠 흥민 밭이[바시] 셔게? <F13>

(남의 밭 빌어서 하려고 하면 밭이 있니?)

조사된 자료에서 (43)의 예처럼 체언과 조사의 결합 환경에서는 ‘ㄷ-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밭’처럼 표준어에 ‘ㅌ’ 받침을 가진 단어가 뒤에 오는 ‘ㅣ’ 모음의 영향으로 ‘ㅌ’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어는 고어형 ‘밭’이 유지되어 ‘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개음화 되지 않는 것이다. (43 가)는 표준어의 영향으로 실현된 예이며, (43 나)처럼 처소격 조사 ‘디’와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이뤄질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43 다)는 ‘밭’의 방언형이 ‘밭’이므로 [바슬]과 같이 발화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43 라, 마)처럼 주격조사 ‘이’가 후행하는 경우에도 받침이 ‘ㅌ’으로 변화하지 않은 ‘밭’이기 때문에 [바시]로 실현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표 26> ㄷ-계 구개음화 실현 빈도

	ㅌ치, ㅌ찌 (같이)	돋이 (맡이/터울 ³⁷⁾)	부찌다 (붙이다)	합계
남성	24	0	3	27
여성	25	2	2	29

(44) 가. 우시 가는 사람이엔 현 건 그치 영 가는 사람이 셋주게. <M5: 150>

37) ‘맡이’는 표준어에서 형제, 자매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를 말하지만 제주도방언에서는 먼저 태어난 아이와 다음 아이의 차이를 일컫는 ‘터울’의 의미로 사용된다.

(상객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지.)

나. 혼 설 몬이로 나고 두 술 몬이로 나고 혜노난. <F11: 209>

(한 살 터울로 낳고 두 살 터울로 낳고 해놓으니.)

다. 터럭 기슬황 그 불 부찌 불민 기슬 거 아니파게? <M5:151>

(터럭 그을려서 그 불 붙여 버리면 그을 거 아니냐?)

(44 가)는 부사로 ‘함께’의 의미이며 용언 ‘ㄹ트다, 골다’에 부사과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ㄷ’이 뒤에 오는 ‘ㅣ’의 영향으로 ‘ㅈ’으로 변한 것이다. (44 나)의 ‘몬이’는 [몬지]로 실현된다. (44 다)는 ‘붙이다’의 방언형으로 ‘부치다, 부찌다’와 같이 나타난다. ‘같이, 맏이, 붙이다’는 표준어에서도 구개음화되는 단어이다. 남성 화자에게서 ‘몬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개음 ‘ㄱ’이 경구개음 ‘ㄷ’으로 변하는 ‘ㄱ 구개음화’는 표준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방언에서 많이 나타난다.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ㄱ 구개음화’는 다음과 같다.



<표 27> ㄱ-구개음화 실현 빈도

	지동 (기동)	저를 (겨를)	지름 (기름)	저슬, 저을 (겨울)	짐치 (김치)	진다 (긴다)	질다 (길다)	지프다 (깁다)	질루다 (기르다)	합계
남성	0	0	0	0	0	5	1	0	1	7
여성	2	1	10	2	17	4	9	2	10	57

(45) 가. 나무에나 어디 지둥에 모가지 걸령 영 돌아매영 한참 시민 죽어. <F12:

212> (나무에나 어디 기둥에 모가지 걸려서 이렇게 달아매어서 한참 있으면 죽어.)

나. 어느 저를에 요강 흥곡 하간 거. <F4: 186>

(어느 겨울에 요강 하고 여러 가지.)

다. 그땐 참지름베끼 더 셔서? <F2: 182>

(그땐 참기름밖에 더 있니?)

라. 여름엔 보리쌀, 저을엔 좁쌀 경혜근에 허영 먹단 이젠 그자 원 느나 잇이 곤 밥. <F6: 193> (여름엔 보리쌀, 겨울엔 좁쌀 그렇게 해서 먹다가 이젠 그냥 원 나 없이 쌀밥.)

(45)의 ‘지똥, 저를, 지름, 저을’ 등은 ‘ㄱ 구개음화’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음운 변화는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일어난다. ‘춤지름’은 비어두음절에서 보이는 구개음화의 예이다. ‘춤지름’은 ‘기름’이 먼저 구개음화하여 ‘지름’이 된 후에 ‘춤’과 결합한 조어라고 볼 수 있다.

(46) 가. 돛 흔 마리에 술 흔 허벅 질어 가는 디도 잇지만 우린 그렇게 못했어, 가난하니까. <M8: 162> (돼지 한 마리에 술 한 허벅 길어가는 데도 있지만 우린 그렇게 못했어, 가난하니까.)

나. 동네덜 머리 한 사름덜은 옛날은 그차근에 막 질게 허여근에 빌영 허영 여찌는 머리가 이서낫주. <F6: 192> (동네들 머리 많은 사람들은 옛날은 잘라서 아주 길게 해서 빌려서 하고 팔는 머리가 있었지.)

다. 도새긴 질화도 족양 사당 헛주. <F10: 208>
(돼지는 길러도 작아서 사다가 했지.)

(46)은 ‘길다, 길다, 기르다’가 ‘길다>질다’, ‘길다>질다’, ‘기르다>질루다’와 같이 ‘ㄱ>ㅈ’의 음운 변화³⁸⁾를 보인 것이다. (46 가)는 ‘몰을 길다’가 ‘질다’로 구개음화되고 다시 뒤에 모음 어미가 와서 ‘ㄷ 불규칙’ 활용된 결과다. (46 나)는 결혼식 때 엮은머리를 하기 위해서 잘라 둔 긴 머리카락을 빌려서 사용했다는 뜻으로 ‘길게’가 ‘질게’로 구개음화되었다.

‘ㅎ-구개음화’는 ‘ㅎ’이 어두에서 뒤에 오는 ‘ㅣ’모음이나 반모음 ‘ㅣ’의 영향으로 구개음 ‘ㅅ[ʃ]’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방언에서는 ‘힘>심, 형>성, 형제>성제, 향나무>상낭, 흥년>송년, 향도>상뒤, 혀>세, 흥악하다>송악하다’와 같이 나타난다. 조사 자료에 나타난 ‘ㅎ 구개음화’ 어휘의 빈도 수는 아래와 같다.

38) ‘떡이다’의 경우는 ‘ㄱ’다음에 ‘ㅣ’모음이 와도 구개음화하지 않는다. 이는 율라우트가 ‘ㄱ 구개음화’ 보다 앞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미 ‘떡이다’가 ‘뻬기다’로 되어 율라우트를 겪었기 때문에 그 후에 ‘ㅣ’모음에 선행하는 ‘ㄱ, ㅋ, ㆁ’처럼 ‘ㄱ 구개음화’ 환경에 접하게 되어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구개음 쪽으로 모음이 변화되었으므로 다시 ‘뻬지다’로 ‘ㄱ 구개음화’가 일어날 필요성이 없다.

<표 28> ㅎ-구개음화 실현 빈도

	성 (형)	성(형제)	상뒤/상도/상스 (향도)	합계
남성	0	3	1	4
여성	6	11	10	27

(47) 가. 나 일본에 성들 사난 일본 가불켄. <F9: 201>

(나 일본에 형들 사니까 일본 가버리겠다고.)

나. 다섯 성젠데 우리 형님은 뭘 타고 장계가난 기억이 나. <M12: 173>

(다섯 형제인데 우리 형님은 말 타고 장가갔던 기억이 나.)

다. 하인이라는 것은 상도칩이라고 해서 그 리에다가 회관이 이서 가지고 허면,

<M9: 165> (하인이라는 것은 향도집이라고 해서 그 리에다가 회관이 있어서 하면,)

라. 상스칩이 가운 비바리, 드룻 가운 장 쓸 디 엇넨. <F4: 188>

(향도집에 갔다 온 처녀, 들에 갔다 온 장 쓸 데 없다고.)

(47 가)는 ‘형’이 ‘성’으로 구개음화되고 복수화접미사 ‘-들’이 결합된 형태이다. (47 나)의 경우 ‘형제’는 구개음화된 ‘성제’로 발화하면서 ‘형님’은 ‘성님’으로 발화하지 않았다. 이는 ‘ㅎ 구개음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는 증거다. ‘ㅎ 구개음화’의 필연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발화자에 따라 구개음화된 형태를 발화하기도 하고 구개음화되지 않은 형태를 발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의적인 음운 변화가 여성 화자에게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7 다, 라)의 ‘상도칩, 상스칩³⁹⁾’은 ‘향도, 향사’가 구개음화된 발음으로 구개음화 이전의 형태인 ‘향사’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단어가 출현하는 모든 경우에 방언형인 구개음화 형으로 발화되고 있다.

‘ㄷ 구개음화’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반면 ‘ㄱ 구개음화’와 ‘ㅎ 구개음화’에서는 여성 화자의 구개음화형 발화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 ‘ㄱ, ㅎ 구개음화’는 표준어형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며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음운 변화다. 표준어에서도 나타나는 ‘ㄷ 구개음화’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는 ‘ㄱ, ㅎ 구개음화’는 여성의 발화에 많이 나타났다.

39) ‘상스칩, 상뒤칩’은 마을의 공동 일을 논의하는 집으로 ‘드르에 가운 장광 상뒤칩 가운 비바리 쓸 디 엇 나(들판에 갔다온 된장과 향도집에 다녀온 처녀는 쓸 데 없다.)’와 같은 속담이 있다.

이것은 여성 화자가 방언형을 더 선호한다는 말이 된다. 이때 화자가 방언형을 선택하는 것은 구조적인 규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와 사회적 규범의 영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여성 화자가 구개음화된 방언형을 선호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이 여성의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쳐 여성이 방언형 발음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규범이란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환경을 말한다. 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까지도 여성이 언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제주도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규범이 언어 선택에 있어서 보수성을 유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3) ‘ㄹ’첨가 형

표준어에서 여성이 귀엽게 보이고자 하는 심리의 반영으로 ‘ㄹ’을 첨가하여 ‘요 걸루’와 같은 형태의 발화가 나타난다. 이와 관련은 없지만 제주도방언에서도 ‘ㄹ’이 첨가된 방언형이 등장한다. 통시적으로 고어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방언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표 29> ‘ㄹ’첨가 형 실현 빈도

	출리-/ 츄리-	불르-/ 부르-	몰르-/ 모르-	찢르-/ 찌르-	합계
남성	29/1	2/3	2/20	0/0	33/24
여성	20/1	4/2	3/4	1/0	28/7

(48) 가. 새서방 출려근에 신부칩이 오는 거라. <F2: 179>

(새서방 차려서 신부집에 오는 거야.)

나. 삼촌네 집에서 밥을 해 가지고 아침에나 저녁 때나 신랑 신부 불르지.

<M10: 168> (삼촌네 집에서 밥을 해 가지고 아침에나 저녁 때나 신랑 신부를 부르지.)

다. 배설에 담양 숯아근에 익은 거 몰르민 적꼬지로라도 꼭 찢르민 피가 나민 선 거고 피 안 나민 익은 거. <F10: 208> (창자에 담아서 삶아서 익은 거 모르면 적꼬지로라도 꼭 찢르면 피가 나면 선 것이고 피 안 나면 익은 거.)

라. 팔월 나민 감저 파당 감저 청 먹고, 청에 정심으로. <F10: 208>

(팔월 되면 고구마 파다가 고구마 찢서 먹고, 찢서 정심으로)

<표 29>처럼 용언에서 자음이 첨가되는 형태는 두 개의 기본형을 인정하기도 한다. ‘츄리다/출리다’, ‘부르다/불르다’, ‘모르다/몰르다’와 같은 어형이 그것이다. ‘츄리다’가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48 가)처럼 ‘출리다’ 형태를 보이며 의미는 ‘준비하다’이다. (48 나)의 ‘불르다’는 ‘부르다’가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횟수로 사용되고 있다. (48 다)는 ‘몰르다’와 ‘찹르다’가 동시에 출현하는 문장이다. (48 라)처럼 ‘팔월’이 ‘팔뿔’과 같이 명사에서 ‘ㄹ’ 첨가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정승철(2000: 182)은 선행어의 중성을 후행어의 첫 음절 초성 자리에 복사하여 발음하는 복사 현상으로 설명한다. 자음이 첨가되지 않은 형태를 기본형으로 보고 방언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자음 첨가로 보는 것이다. ‘모르다’의 경우는 고어형이 ‘몰로다⁴⁰⁾’이므로 ‘ㄹ’이 두 개 존재하는 것이 더 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음 ‘ㄹ’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고어형인 ‘ㄹㄹ’형이 제주도방언에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단어 사용은 여성 화자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난다.

4) 모음조화 파괴 형

모음조화⁴¹⁾는 15세기 국어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국어에 와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 있어서는 아직도 잘 지켜지는 편인데 조사된 자료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예를 볼 수 있다.

<표 30> 모음조화 파괴 형 실현 빈도

	배와	태와	비와	만들아, 멘들아	어려와, 어루와	어두와	계
남성	1	5	3	2	3	0	14
여성	4	3	1	23	6	1	38

(49) 가. 가가거겨 그것덜 흐쵸 배와나고. <F5: 191>

(가가거겨 그것들 조금 배웠었고.)

40) ‘몰로다’는 ‘모르다’의 고어형으로 ‘聖은 通達호야 몰물 이리 업슬 씨라.(月印 1:19)’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41) 모음조화는 한 단어 안의 모음들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현상으로 양성모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ㅓ, ㅓ, ㅕ, ㅛ, ㅜ, ㅠ, ㅡ)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현상이다.

나. 거기 태워서 두 사람이 앞 뒤에 서서 신부를 모셔 오는 거죠. <M1: 138>

(거기 태워서 두 사람이 앞 뒤에 서서 신부를 모셔 오는 거지요.)

다. 누룩 행은에 술 만들어 넣은에 솟되 비와 농곡 <M5: 153>

(누룩 해서 술 만들어 놓고 술에 비워 놓고.)

라. 친정어머도 삶도 어려와도게 어떻습니까? <F11: 209>

(친정 어머니 삶도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마. 도새기 잡는 날 어두와사 일본서 오란. <F4: 185>

(돼지 잡는 날 어두워야 일본에서 왔어.)

(49 가)의 ‘배우다’와 (49 나, 다)의 ‘태우다’, ‘비우다’는 ‘우’를 갖는 동사이다. 이들 동사의 ‘우’가 ‘오’로 나타나는 것을 표준어가 방언에 와서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고어형이 유지가 되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들다’ 외에도 ‘배우다, 태우다’처럼 2음절어에서 선행 모음이 ‘우’인데 ‘-아’가 결합하여 ‘배와, 배완, 배왕’, ‘태와, 태완, 태왕’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빅오다, 톱오다’에서처럼 고어에서 ‘-오-’를 가졌던 단어인 경우 과거형을 기억하여 활용시 양성모음과 결합하는 것이다.

‘ㅂ 불규칙 용언’인 ‘어렵다’가 활용할 때도 ‘-어’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아’로 발화되는 경우도 있다. 남성 화자 ‘어렵다’를 문장에서 사용한 전체 7회 중 3회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았고 여성 화자는 12회 중 6회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은 형태를 쓰고 있다.

(50) 가. 신부웃은 그 당시에 조금 있는 사람은 지대로 만들아서 입고 경 안 현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빌어오고. <M10: 169>(신부웃은 그 당시에 조금 있는 사람은 자기대로 만들어서 입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빌려오고.)

나. 먼저 시집간 언니, 먼저 온 아지망덜 막 왕 이불 다 멘들아. <F1: 178>

(먼저 시집간 언니, 먼저 온 아주머니들 막 와서 이불 다 만들어.)

다. 뜬이엔 현 거 그거 옛날은 첨 성산 지영 가민 그거 풀어나신디 그거 멩글안 에 흐쉴 돈 벌어난. <F5: 190> (뜬이라고 한 거 그거 옛날은 첨 성산에 쳐서 가면 그거 팔았었는데 그거 만들어서 조금 돈 벌었었어.)

(50)의 ‘만들다⁴²⁾’는 ‘만들아서, 멘들아, 멩글아’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두 연결어미 ‘-아’와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화자에 게서 두드러졌다. ‘만들어’와 같은 형태는 남성이 7회 여성이 6회 발화한 반면 ‘멘들아, 만들아’처럼 발화한 경우는 남성 2회, 여성 21회다. ‘만들+아/어’의 환경에서 여성은 46회 중 23회를 ‘만들아’ 형태로 사용하여 50%의 비율로 모음조화를 파괴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여성 화자가 ‘멩글다’로 쓰는 경우도 3회 나타났다. 이는 여성 화자들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멩글다, 멩들다’의 2음절 ‘·’를 쓰던 당시의 발음형을 유지하여 ‘·’가 소실된 뒤에도 어간 뒤에 오는 어미로 ‘-아’를 쓰는 것이다.

여성 화자가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는 발화를 하는 것은 과거 발음을 기억하는 형태로 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고어형을 유지하는 보수성이 여성 발화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5) 음절 축약 이전 형태

제주도방언에서 ‘갈다’가 ‘ㄱ트다, ㄱ뜨다’로 나타난다. 표준어에서 ‘-’모음이 추가되어 2음절어가 3음절어로 바뀌므로 음절신장⁴³⁾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고어형이 ‘ㄱ트다’이고 현대 국어의 표준어가 ‘갈다’이므로 제주도방언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축약 이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제주도방언에서 단어가 축약되는 형태가 많다는 것이다. 음절을 추가하여 길게 말하는 것은 제주도방언에서 보기 힘들다. 제주도방언은 여러 면에서 중세국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방언의 이러한 단어들은 표준어에서 모음이 추가되어 확장된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고어형의 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2) ‘만들다’의 변화 양상은 ‘멩글다(15세기) > 멩들다(15세기후반) > 민들다 민들다, 문들다(16세기 후반) > 만들다(19세기) (현재도 같음)’와 같다. 16세기에 들어서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위치에서 ‘ㅇ’의 ‘으’로의 합류가 확대되어 ‘멩들다’의 ‘들’이 ‘들’로 변하고 양성모음인 ‘·’가 없어지면서 ‘만들다’가 활용할 때 음성모음 어미 ‘-어’와 결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방언에서는 이 단어가 2음절의 아래 ‘·’가 없어졌는데도 활용할 때 양성모음 어미 ‘-아’와 결합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

43) 김광웅(1989)과 현계철(1992)은 1음절 어간에 ‘이, 우, 으’가 첨가되어 2음절어가 되는 제주도방언의 현상을 ‘음절신장’으로 보고 있다.

<표 31> 음절 축약 이전 형의 용언 발화 빈도

	ㄱ뜨다 /ㄱ뜨다	노뜨다	시끄다	거끄다	무끄다	더뜨다 /더뜨다	계
남성	9	1	1			2	13
여성	9	2	4	2	1	4	22

(51) 가. 지금 ㄱ뜨민 우엿 형들이라도 반지라도 모양 허주만은 그런 형편도 못 뉘.
 <M12: 175> (지금 같으면 위의 형들이라도 반지라도 모아서 하지만은 그런 형편이 못 뉘.)

나. 바닷에 물때 모양으로 혼 데는 노뜨고 혼 데는 야픈 데고 <F9: 204>
 (바다의 물때 모양으로 한 곳은 높은 곳이고 한 곳은 얇은 곳이고)

다. 족두리 행 이망거리 딱 붉은 걸로 딱 무끄면은 빗네를 무꺼. <F3: 183>
 (족두리 해서 이마 딱 붉은 것으로 딱 묶으면은 비녀를 묶어.)

라. 밥 먹기 전이 수꾸락으로 떠서 그 밥사발 더뜨는 거에 세 수꾸락을 떠근에 상 알드레 놔. <M4:148> (밥 먹기 전에 숟가락으로 떠서 그 밥그릇 덮는 거에 세 숟가락을 떠서 상 아래에 놔.)

(51 가)는 ‘같다’의 방언형으로 ‘ㄱ뜨다’를 사용하는 남성의 발화이며 (51 나)는 바다의 물때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는 여성 화자의 발화다. (51 다)에서는 ‘무끄다’가 두 번 출현하지만 뒤에 나온 ‘무꺼’는 모음어미와 결합된 형태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51 라)는 ‘뒸다’의 방언형인 ‘더뜨다’를 사용한 발화다. (51 나, 다)에서 보이는 ‘야픈’과 ‘무꺼’처럼 모음 어미가 결합된 형태는 그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아 제외하였다. 전사과정에서 ‘묶어’를 ‘무꺼’로 표기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발음으로 볼 때 기본형을 어떤 것으로 볼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방언이 고어형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음절신장이 아닌 축약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고어의 형태가 남아 있는 어휘는 남성 발화보다는 여성의 발화에서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다.

6) 전설모음화와 단모음화 형

제주도방언에서는 전설모음화⁴⁴⁾와 단모음화를 통해 발화 시간을 줄이는 경계

성뿐만 아니라 음을 분명하고 강하게 발음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전설모음화는 표준어 보다 지역 방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조사된 자료에서는 ‘무슨>무신’, ‘쓰다>씨다’, ‘쓸다>썰다’와 같은 형태가 있다. 제주도방언에서 남녀 화자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겠다.

(52) 가. 그때 무신 금전 ㄱ튼 건 없엇고, 미녕 놆 가지고 함 속에 낵 가져 가면은 그디 예장 소굽에 놆. <M12: 172> (그때 무슨 돈 같은 것은 없었고, 무명 놆서 함 속에 놓고 가져 가면 거기 예장 속에 놆.)

나. 물방에 쉼나 물이나 메왕 비치락으로 썰멍 올려 낵. <F3: 185>
(연자매 소나 말이나 메워서 빗자루로 쓸면서 올려 놓고.)

다. 그땐 죽두리 씨는 사람도 있고. 난 면사포 썸. <F8: 198>
(그땐 죽두리 쓰는 사람도 있고. 난 면사포 썼어.)

(52 가)처럼 ‘무슨>무신’과 같이 변화한 것은 남성이 27회, 여성이 57회 나타났고 ‘쓰다>씨다’, ‘쓸다>썰다’와 같은 발화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각각 5회와 1회로 나타났다.

전설모음화의 한 종류인 음라우트⁴⁵⁾ 현상도 방언에서 많이 나타난다. 음라우트는 뒤에 오는 전설모음 ‘i’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후설모음을 발음하고 전설모음을 이어서 발음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한 음운현상이다. 조사된 자료에서 음라우트를 보이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표 32> 명사·부사의 음라우트 실현 빈도

	고기/궤기	그냥/기냥	합계
남성	52/3	12/2	54/5
여성	26/20	63/17	89/37

44) 전설모음화는 /s, x, t, ss, ss/과 같은 [+coronal] 자음 아래에 오는 후설 모음인 /-i, ɪ/가 전설 모음인 /i/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45) 음라우트는 전설모음화의 한 종류로 국어에서는 ‘i’나 ‘y’계 이중모음에 의한 ‘이’모음 역행동화가 있다. ‘아기>애기’에서와 같이 후설모음 ‘a’가 후행음절의 전설성을 가진 ‘i’에 의하여 전설모음 ‘ai’로 바뀌는 것이다.

(53) 가. 이제 꺄뜨민 무신 잔치하는 집이 도새기 꺄기라도 헛쫐 썰어냥.<F1: 176>

(이제 같으면 무슨 잔치하는 집이 돼지 고기라도 조금 썰어놓고.)

나. 헛 번 고기를 주면 두 번은 안 쫐어.<M3: 144>

(한 번 고기를 주면 두 번은 안 쫐어.)

다. 기냥 맛맛 오는 사람마다 떡 주지 아니 허여, <F3: 185>

(그냥 모두 오는 사람마다 떡 주지 않아.)

라. 가마 문을 영 열아근에 나오렌 손짓으로 경허민 막 부끄러와근에 그냥 <F1 : 177> (가마 문을 이렇게 열어서 나오라고 손짓으로 그렇게 하면 막 부끄러워서 그냥)

(53)은 피조사자의 발화에서 움라우트된 형태와 원형이 나타나는 예문을 뽑은 것이다. 남녀 모두 표준어형을 더 많이 쓰고 있지만 방언형 사용 비율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53 가)는 돼지고기를 ‘꺄기’라고 하고 (53 나)에서는 ‘고기’라고 발화한 것이다. (53 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떡을 먹었고 오는 사람 모두에게 떡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53 라)는 신랑집에 신부를 실은 가마가 도착해서 문을 열어서 나오라고 손짓을 하면 부끄러워서 했던 것을 생각하며 담화표지로 ‘그냥’을 사용한 예이다.

<표 33> 동사의 움라우트 실현 빈도

	드리다/ 디리다	들이밀다/ 디리밀다	떡이다 /멕이다	맡기다 /메끼다	벗기다 /뻬기다	합계
남성	10/1	0/0	0/7	1/0	0/0	78/16
여성	0/0	0/1	2/17	0/2	0/4	91/68

(54) 가. 잘못 쓴 거던지 그걸 수정을 해 가지고 디렸주게. <M3: 144>

(잘못 쓴 거든지 그걸 수정을 해 가지고 드렸지.)

나. 헛 마리를 죽게 살게 멕열 백 키로 이상 멘들어 놔야 그걸로. <M6: 155>

(한 마리를 죽게 살게 먹여서 백 킬로그램 이상 만들어 놔야 그것으로.)

다. 꺄기 메껴불민 도감안티 메껴불민 대장이주, 주인 권한 엇어, 도감이 대장. <F10: 208> (고기 맡겨버리면 도감에게 맡겨버리면 대장이지, 주인 권한 없어, 도감이 대장.)

라. 가지깁일 영 뻬걸 밥을 헛 수꾸락 영 거리고 고기 헛나 놓고 헛상 아래 영 놔.

<F2: 181>(바리 뚜껑을 이렇게 벗겨서 밥을 한 손가락 이렇게 뜨고 고기 하나 놓고 해서 상 아래 이렇게 놔.)

동사가 음라우트 되는 예를 정리하여 보았는데 (54 가)는 예장을 잘못 쓰면 그것을 수정해서 드렸다는 말로 ‘드리다’를 ‘디리다’로 발화하였다. (54 나, 다, 라)는 ‘떡이다, 말기다, 벗기다’를 ‘뻑이다, 메끼다, 뱃기다’로 발화한 것으로 사동접사나 피동접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표 32>와 <표 33>에서 여성이 음라우트된 발화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음라우트된 어형을 적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정도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표준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음라우트는 다른 음운현상보다 방언적 특성을 더 잘 드러내는 것으로 하류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음운현상⁴⁶⁾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주 사회에서 여성화자가 음라우트 어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남성에 비해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사회활동의 기회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ㄴ’가 ‘ㄱ’로 변하는 음운 현상도 전설모음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어의 전설모음화 조건⁴⁷⁾은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것은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 제주도방언에서도 많은 출현을 보인다.

<표 34> ‘ㄴ>ㄱ’ 음운 변화 실현 빈도

	가마/가메	장가/장게	치마/치메	부갯집/ 부갯칩, 부갯집	만들다/ 멘들다	합계
남성	37/4	14/9	3/3	3/3	12/2	69/21
여성	11/33	0/2	3/21	0/7	29/20	43/83

(55) 가. 가메는 물, 물해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M4: 148>

46) 이주행(2003: 73)에서 음라우트는 상류계층에서 하류계층으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자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하게 해 주는 사회 표지로 간주한다.

47) 전설모음화는 [+coronal] 자음 다음에 후설 모음이 오는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말한다.

(가마는 말, 말해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나. 옛날에사 시집 장개 가젠 허민 어디 요즘 ㄴ치 어디 얼굴이나 알안 가수가?

<M5: 149>(옛날에야 시집 장가 가려고 하면 어디 요즘처럼 어디 얼굴이나 알고 갔습니까?)

다. 멧지 닭은 거 해연 치메허고 저고리 하나 입언. <F11: 211>

(명주 같은 거 해서 치마하고 저고리 하나 입었어.)

라. 함 안에 저 옛날은 미녕 담아신가, 혼 필, 두 필 담고 것도 부젓칩이라야 하영

담지. <M11: 171> (함 안에 저 옛날은 무명 담았으나, 한 필, 두 필 담고 그것도 부젓칩이라야 많이 담지.)

마. 두부에 돼지고기 농곡 경험베끼, 옛날 잔치사 무슨. <F12: 121>

(두부에 돼지고기 놓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옛날 잔치야 무슨.)

(55 가, 나, 다)는 2음절 명사이고 (55 라)는 ‘부자’가 ‘부제’로 바뀌고 다시 ‘집’과 결합한 것이다. (55 마)는 조사 ‘밖에’가 ‘베끼’로 발화된 것으로 후설모음 ‘ㄴ’이 저설인 전설모음 ‘ㄹ’로 이동한 후 전설모음 ‘ㄱ’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방언에서 ‘ㄹ’과 ‘ㄱ’의 구분이 없고 ‘ㄱ’로 발음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 표준어와 방언형이 같은 피조사자의 발화에서도 등장하는데 표준어형을 더 많이 발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언형인 ‘ㄴ>ㄱ’로 음운 변화된 형태들을 여성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주도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방언에서 이중모음 ‘ㄴ’이 ‘ㄱ’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ㄴ>ㄱ’ 단모음화 현상을 보이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표 35> ‘ㄴ>ㄱ’ 단모음화 실현 빈도

	멧/멧	명주/ 멧지	병/뺱	며느리/메누리	합계
남성	1/19	0/0	4/0	1/4	6/23
여성	1/20	0/34	7/5	4/2	12/61

(56) 가. 게도 지 직시밥은 멧 수깅 먹긴 허여. <F1: 178>

(그래도 자기 몫의 밥은 몇 숟가락 먹기는 해.)

나. 잘 허는 사람은 멧지로 우알로 행 입곡 가난헌 집은 미녕. <F3: 183>

(잘하는 사람은 명주로 위 아래 해서 입고 가난한 집은 무명.)

다. 남편은 저 뺱 걸런에 혼 십 년을, 암병덜에 돌아간. <F5: 188>

(남편은 저 병 걸려서 한 십 년을, 암병으로 돌아갔어.)

라.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그 메뉴리 ㄱ슴을 데려왔는데.<M2: 142>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그 머느리 감을 데려왔는데.)

(56 가)는 결혼식날 새각시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그래도 자기 몫의 밥은 몇 숟가락 먹는다는 말로 관형사 ‘몇’의 방언형 ‘멧’을 사용한 예다. (56 나, 다, 라)는 명사에서 ‘ㄱ’이 ‘ㄱ’로 바뀐 것으로 (56 나)는 신부의 한복을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명주천으로 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명천으로 만들어 입었다는 이야기다. ‘명주’는 옷감 이름으로 여성의 발화에서만 등장한다. 같은 주제를 갖고 조사한 것이지만 남성 화자에게서는 등장하지 않는 소재인 것이다. (56 다)에서는 ‘병’을 앞에서 ‘뺑’이라고 발음하고 뒤의 ‘암병’은 ‘암뺑’이라고 하지 않았다. 같은 문장 안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발음 되는 것을 보면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 적용되어 발화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56)의 예는 표준어에서 ‘ㄱ’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방언형에서 ‘ㄱ’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 또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으로 전설모음화한 것이다. 방언형에서 이와 같이 후설모음이 전설로 이동하는 현상과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은 ‘발음 경제’원리에 의한 것이다. 후설모음보다 전설모음이 발음 부담량이 적기 때문이다. 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자료에서 수의적 교체가 일어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화자의 언어 습관이나 담화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전체적으로 여성 화자가 방언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 보수성을 유지하는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 여성은 고어형과 방언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로써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언어를 통해 보상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은 표준어 사용률을 보이는 것도 여성어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의 음운현상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어에서 더 보수성을 나타내고 고어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제주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표준어에 노출될 기회 역

시 적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남성들보다 적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적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와 생활하기 때문에 표준어를 익히거나 말해야 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어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그와 연관되어 있는 모두를 알 경우는 폐쇄적 연결망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밀도가 높은 폐쇄 연결망 속의 개인은 그 집단의 언어적 규범을 지키도록 요구 받는다. 제주도방언을 구사하는 여성들이 방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속해 있었던 폐쇄된 사회적 연결망 때문이다. 제주도방언을 구사하는 여성이 속한 치밀한 연결망이 방언 규범을 강요하기 때문에 표준어 사용 비율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오랫동안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취업의 기회도 많지 않았던 제주도 여성들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고 친인척의 연결망 속에서 평생을 생활했다. 따라서 폐쇄된 고밀도의 연결망 속에서 살아온 제주도 여성에게 사회는 방언 사용의 규범을 강요했으며 표준어를 구사할 상황이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폐쇄적인 고밀도 연결망의 전통사회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제주도 여성 화자들에게 방언형을 쓰도록 강요했고 자연스럽게 보수성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3.3. 여성성이 강조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여성성’이란 여성으로서의 특질 혹은 여성적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을 뜻한다. 페미니즘에서의 ‘여성성’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다움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가부장제의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말하고자 하는 ‘여성성’은 주로 관계지향적인 능력이나 평화주의적 태도 또는 보살핌의 윤리와 같은 자질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특성을 말한다. 성 차별적 입장에서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억눌린 여성이 아니라 남성과 다른 여성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성이 드러나는 여성 발화 특징을 종결법, 접속부사와 감탄사의 사용, 기층생활 관련 어휘 선호면에서 살펴보겠다.

3.3.1. 여성 특유의 종결법

제주도방언에서 높임법 종결어미의 사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존칭의 종결어미를 더 많이 사용하며, 존칭형 어미 중에서도 ‘합쇼체’ 보다는 ‘해요체’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여성 선호의 종결법을 남성이 사용하는 경우⁴⁸⁾도 있다. 이는 성별의 차이가 사회적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 선호적 언어 특성이 남성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성별 언어는 단지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여성처럼 말하는 남성과 남성처럼 말하는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담화 상황에 따라 성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할에 맞게 학습된 사회적인 성에 의해 여성의 발화 방식이 대화 전략 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남성도 여성적 발화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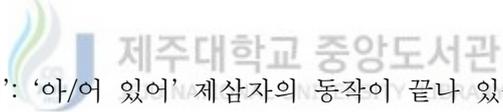
존칭 종결어미 사용과 ‘해요체’의 사용이라는 여성어의 특징은 제주도방언에

48) 임흥빈(1993: 69)은 한국어에 절대적 여성어는 매우 드물다면서 특히 여성 취향의 가요 가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는/나)가요’, ‘-나요’형은 거의 절대적 여성어에 속한다고 했다. 남성의 경우에는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적인 장면에서나 쓰이는 일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제주도방언의 존대법 체계는 존대, 평대, 하대의 세 등급으로 나뉜다. 비격식체인 ‘해요체’는 제주도방언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이 ‘해요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제주도방언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여성 화자가 사용하는 특이한 종결어미가 존재하며 생략형 종결문의 형태가 여성 화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종결어미

종결어미 사용에서 동일한 문장 종결 형식을 남성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남녀 공통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어는 남성보다도 더 길고 높고 부드러운 억양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다. 성별에 따른 종결 억양을 비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제주도방언에서 여성들만 사용하는 종결어미의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2011)에서는 아래와 같은 종결어미가 부녀자들이 주로 쓰는 어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 
- ① ‘-아시메/어시메’: ‘아/어 있어’ 제삼자의 동작이 끝나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② ‘암시메/엄시메/ 엄시메’: -고 있어. 제삼자 또는 화자의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③ ‘아시크메/어시크메/ 여시크메’: -아/어 있겠어. 그 동작을 끝내 있거나 또는 화자의 의도·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④ ‘암시크(케)메/ 엄시크메(엄시케메)/ 엄시크메’: -고 있겠어. ‘ㅎ여’할 자리에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겠다는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위의 네 가지 어미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 ① -아시/어시 -+ -메
- ② -암시/엄시 -+ -메
- ③ -아시/어시 -+ -크+ -메
- ④ -암시/엄시 -+ -크-+ -메

‘-아시/어시-’는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로 표준어의 ‘-았/었-’이며 ‘-암시/엄시-’는 진행의 선어말 어미로 표준어에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 있-’에 대응한다. ‘-크-’는 의도, 추측, 가능의 의미를 갖는 선어말 어미로 표준어로 ‘-겠-’과 비슷하다.

제주도방언의 공손법은 현평효(1985) 이후로 ‘흡서체, 햅여체, 햅라체’의 3등급 체계를 이룬다고 알려져 있다. 제주도방언에서 ‘하오’체는 나타나지 않으며, ‘햅여’체는 표준어의 ‘하게’체에 해당된다. 종결어미 ‘-메’는 같은 연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사실이나 동작 상태를 말할 때 쓰이는 종결어미로 ‘햅여’체에 해당된다. ‘-메’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57) 가. 지금도 함은 가져가메. <M6: 154>

(지금도 함은 가져가.)

나. (건지머리는) 빌림도 허주만은 이녁 집안에 아지망덜이 행 놔둔 어른덜도 이시메. <F1: 175> ((엎은머리는) 빌리기도 하지만은 자기 집안에 아주머니들이 해서 놔둔 어른들도 있어.)



조사 자료에서도 남성과 여성에게서 ‘-메’가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예를 볼 수 있다. (57 가)는 결혼식하기 전에 옛날에도 함을 가져갔고 지금도 가져간다고 말하는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 ‘-메’를 사용된 것이다. (57 나)는 엎은머리는 빌리기도 하지만 자기 집안의 아주머니들이 해 둔 어른들도 있다는 여성 화자의 말에 ‘-메’가 ‘햅여체’로 사용된 것이다. (57 가)의 ‘가져가메’와 일반 서술문 ‘가져가’, (57 나)의 ‘이시메’와 ‘이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져가, 이서’가 각각 가져간다는 뜻과 있다는 뜻을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57 가)와 (57 나)는 사실을 객관화하여 남들이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신을 타자화하여 객관성을 부여한 발화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햅여체’ 종결어미인 ‘-아/어’보다 대체로 그렇게 한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발화가 된다. ①‘-아시/어시-+-메’, ②‘-암시/엄시-+-메’와 함께 쓰이는 주어가 삼인칭인 것을 보면 ‘-메’는 3인칭 주어의 대체적인 양상을 기술할 의도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종결어미 ‘-메’ 사용의 예는 필자의 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2

권과 5권의 남녀 피조사자 발화를 참고하였다. 한림읍 금악리 김기생 <F13> 할머니는 15회, 제주시 용강동 권상수 <M13> 할아버지는 무려 223회나 종결어미로서 ‘-메’를 사용하였다. 이것을 보면 ‘-메’는 여성 화자만 즐겨 쓰는 종결어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메’가 여성 화자들이 즐겨 쓰는 종결어미가 아니라면 앞에서 제시한 어미 ①②③④가 모두 성별과 관련 없는 사용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과거시제와 진행상이 결합된 형태의 경우 유독 부녀자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58) 가. 게난 물박도 콧박으로 옛날은 혜시메. <M13>

(게난 물바가지도 박으로 만든 바가지로 옛날은 했어.)

나. 매집이 불이 엇엉이 혼 집이 밥 허며는 불 강 담양왕 이녁네 저 검질에 불행 밥혜시메게. <M13> (모든 집에 불이 없어서 한 집에 밥 하면 불 가서 담아와서 자기네 저 검불에 불 해서 밥했어.)

제주시 용강동 권상수 <M13>는 남성 화자임에도 (58)과 같이 ‘-아/어시메’ 형태의 발화를 하였다. 표준어 ‘했네’로 대역되는 ‘혜시메’는 ‘ㅎ+여+시+메’로 분석되며 이때의 ‘-시-’는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연결어미 ‘-메’는 표준어 ‘-으니’의 의미로 쓰이고 과거시제와 진행상과 결합한 ‘-아시/어시메’는 ‘-았/었으니’에 대응되는 의미로 쓰이고, ‘암시/엄시메’는 ‘-고 있으니’의 의미이다.

(59) 가. 우리 어멍 밧되 가시메 이제 느네 집이 가키여.

(우리 어머니 밧에 갔으니 이제 너희 집에 갈게.)

나. 나 이제 감시메 어디 가지 말양 이시라.

(나 이제 가고 있으니 어디 가지 말고 있어라.)

다. 밥 떡어시크메 걱정허지 맙서.

(밥 먹어 있을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 난 이되서 놀암시크메 확 갓당 오라.

(난 여기서 놀고 있을테니 확 갔다 와라.)

(59)의 예는 이유의 연결어미로 사용된 예이다. (59 가)는 ‘우리 어머니가 밧

에 갔으니'처럼 과거 시제이며 의미로 쓰인 것이며 (59 나)는 '내가 이제 가고 있으니'와 같이 진행형으로 쓰인 것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과거와 진행상이 결합한 형태를 보인다. (59 다)는 동작을 '끝내고 있을테니'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59 라)는 동작의 진행과 의도의 의미가 결합된 것이다.

강정희는 '-메'가 조건, 인과의 접속문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이유, 원인, 조건의 '-에'가 있기 때문⁴⁹⁾이라고 했다. 연결어미의 '-메'는 표준어 '-(으)니'로 대역된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연결어미의 '-메'와 종결어미의 '-메'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연결어미 '-메'는 현대 표준어에서도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때'로 남아있는 반면 종결어미 '-메'는 이유나 원인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현평효(1985)에 따르면 '-메'는 '형체' 평서법 어미에 해당한다.

- | | |
|-----------------|------------------|
| (60) 가. 난 밥 먹으메 | 가'. 가윈 밥 먹으메 |
| 나. #난 밥 먹어시메 | 나'. 가윈 밥 먹어시메 |
| 다. #난 밥 먹엄시메 | 다'. 가윈 밥 먹엄시메 |
| 라. #난 밥 먹(으)크메 | 라'. *가윈 밥 먹(으)크메 |
| 마. @난 밥 먹어시크메 | 마'. *가윈 밥 먹어시크메 |
| 바. @난 밥 먹엄시크메 | 바'. *가윈 밥 먹엄시크메 |

(60)의 부호 '@'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둘 다 사용된다고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종결어미로 사용된 것은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부호 '#'는 연결어미로만 사용되는 것이고 부호 '*'는 비문을 나타낸다.

(60 가)는 일반 진술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은 못 먹지만 나는 잘 먹는다는 뜻으로 '난 밥 잘 먹으메'를 쓸 수 있고 혹은 '아파서 죽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다. (60 나, 다, 라)는 '나는 밥을 (먹었으니/ 먹고 있으니/먹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연결어미로만 사용된다. (60 마, 바)는 문장을 종결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제주도방언화자는 연결어미로 사용할 뿐 종결어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조사 과정에

49) 강정희(1987b:528)는 '-메'를 'ㅁ+에'로 분석하여 'ㅁ'은 동명사어미의 잔존이고 '-에'는 이유 등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서 피조사자들도 ‘-아/어시크메’나 ‘-암/엄시크메’가 연결어미로만 사용될 뿐 종결어미로 사용되지 않는다⁵⁰⁾고 했다. 추측이나 의도의 선어말어미 ‘-(으)크’와 결합한 ‘-(으)크메’는 종결어미로 나타나지 않고 연결어미로만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60 가')는 ‘그 애는 죽이 아니라 밥을 먹어’라는 뜻이고 (60 나')는 과거시제로 ‘이미 밥을 먹었을 거야’로 사용되고, (60 다')는 추측의 의미로 ‘먹고 있을 거야’처럼 쓰인다. (60 라', 마', 바')는 비문으로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크-’는 3인칭 주어와 같이 쓰이지 못한다.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 ‘-메’는 삼인칭 주어를 필요로 하고 ‘-크-’는 주어의 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이기 때문에 3인칭 주어가 올 수 없다. 여성 화자가 ‘-메’를 종결어미로 선택하는 이유는 1인칭 주어인 나의 단정적인 발화가 아니라 사실을 객관화하여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화자가 자기의 의견을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의견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비단정적인 표현을 주로 쓰며 망설이고 자기 없는 듯한 화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종결어미 ‘-메’가 과거에는 여성 화자들이 즐겨 쓰는 종결어미였는데 점차 남성 화자들도 쓰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여성 화자들이 즐겨 쓰던 말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남성 화자들도 쓰는 예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표준어 ‘해요’체나 제주도방언 ‘마씀’의 경우도 여성들이 많이 쓰는 어미에서 점차 남성들도 사용하게 된 예다.

제주도방언에서 여성 종결어미라고 할 만한 것으로 ‘-심⁵¹⁾’과 ‘-순⁵²⁾’이 있다. ‘-심’은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령법 ‘흐여체’ 어미다.

(61) 가. 이제 일흐레 가심.(이제 일하러 가라.)

나. 이레 아지심.(여기 앉아라.)

50) 최학규(1989)는 ‘-크메’가 조건과 구속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종결어미가 아니라 도치된 형태의 연결어미라고 주장하였다.

51) 현평효·강영봉(2011: 150)에서 ‘-심’은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손아랫사람에게 그 행동하기를 친밀하게 권하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끼리 쓴다”고 설명되어 있다.

52) 현평효·강영봉(2011: 150)에서 ‘-순’은 “용언 어간에 붙어서, ‘흐여’할 자리에서 명령이나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끼리 쓴다.”

- 다. 케민 이거라도 먹순.(그러면 이거라도 먹어라.)
- 라. 이제랑 가순.(이제는 가자.)
- 마. 어디 감순?(어디 가고 있니?)
- 바. 잘 갔다 왔순?(잘 갔다 왔니?)
- 사. 우리영 ㄴ치 가겠순?(우리랑 같이 가겠니?)

위의 (61 가, 나)에서 ‘가심, 아지심’은 ‘ㅎ라체’의 ‘가라/글라, 아지라’보다는 높임의 의미가 있다. 명령법에서도 아주 낮춤보다는 중간단계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은 자기는 사용하지 않으나 어머니가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시동생에게 말을 할 때 아주 낮춰 말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명령형의 ‘-심’과 의문형의 ‘-순’은 같은 대상에게 사용하는 어미로 조사되었다. ‘-순’은 (61 다, 라, 마)처럼 명령·청유형으로도 쓰이고 의문형으로도 두루 쓰인다. 또한 (61 바, 사)처럼 시제 선어말어미와도 결합하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

‘-심’과 ‘-순’이 ‘-시+ㄱ’, ‘-수+ㄴ’형태로 분리된다고 하면 ‘-시-’와 ‘-수-’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며 ‘ㄱ’과 ‘ㄴ’은 종결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ㄱ’은 보통 명사형 어미로 사용되며 종결 형태에서 나타나는 예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에서 ‘어디 가멘?’이나 ‘집의 가멘.’처럼 ‘ㄴ’이 의문형과 평서형의 종결 위치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순’의 ‘ㄴ’은 종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종결어미의 결합 양상에서 특이한 점은 ‘먹으순?’ 이나 ‘먹으심’이 아니라 ‘먹순, 먹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매개모음 ‘으’의 출현이 보이지 않는다. 현대 표준어 ‘-(으)세’는 ‘하게’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데 제주도방언 ‘-심’과 비슷한 결합 형태를 보인다. 받침이 있는 어간의 경우 ‘-(으)세’와 결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먹세, 잡세’처럼 받침이 있어도 ‘-세’와 직접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결어미의 사용은 여성이 남성의 가족이나 아주 낮추어 말할 수 없는 상대에게 존칭의 의미를 가미한 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다. 남

편의 동생이나 아주 낮춤체의 말을 쓸 수 없는 대상에게 ‘-심’과 ‘-순’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한 것이다. 여성 화자들이 주로 썼던 어미로 현재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여성 발화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특이한 종결어미의 사용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화자들에게 강요된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결과라기보다는 남성들과 다른 문화를 갖는 제주도 여성 화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생략형 종결법의 사용

여성들은 문장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문장 중간에서 불완전하게 끝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완전하게 끝난 긴 문장의 경우 남성이 작성한 문장과 여성이 작성한 문장에는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여성은 등위적인 문장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자들은 자기의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 표현하지 못하고 망설임이나 자신 없는 듯한 말투의 애매어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성 언어의 특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였다. 제주도방언에서도 여성 화자가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의 사용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겠다.

- (62) 가. 그자 그추록 행은에 서로 이제 인사허곡 밥행 나눠 먹곡 그추록. <M5: 152>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밥해서 나눠 먹고 그렇게.)
- 나. 가문잔치, 가난허고 허난 그자 친척들 모영덜 기자 술 한 잔 허고. <M11: 170> (가난하고 하니까 그냥 친척들 모여서 그냥 술 한 잔 하고.)
- 다. 계도 보리쌀에 곤쌀 허나씩 낱 밥도 행 하영 행 그날은 맥이곡. <F1: 178>
 (그래도 보리쌀에 흰쌀 하나씩 놓고 밥도 해서 많이 해서 그날은 먹이고.)
- 라. 장웃이엔 험 거 영 입고, 또 허나는 영 쓰곡, 멩지에 물들여근에 푸린 물 붉은 물 들영 색동 놓멍. <F2: 180> (장웃이라고 한 거 이렇게 입고, 또 하나는 이렇게 쓰고, 명주에 물들여서 파란 물 붉은 물 들어서 색동 놓으면서.)

(62)는 문장을 완전히 끝맺지 않고 문장 종결 부분을 생략하여 애매하게 끝낸 문장들이다. (62 가)는 결혼식 다음날 사돈잔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으로 ‘그렇게’로 문장을 끝맺고 있다. ‘그렇게 했어.’라고 끝을 맺어야 하는데 ‘했어’를 생략하여 문장을 끝맺고 있다. (62 나)는 가문잔치라고 해도 특별한 음

식이 없었고 가난하니까 친척들이 모여서 술 한 잔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문장을 끝맺지 않고 연결어미 ‘-고’로 문장을 끝내고 있다. (62 다)는 이불 만드는 날은 먼저 시집간 언니, 시집온 새언니 모두 모여서 이불을 만드는데 그래도 보리쌀에 흰쌀을 조금 섞어서 다른 반찬은 없지만 밥이라도 많이 해서 먹었다는 내용으로 ‘먹이고’로 문장을 끝내고 있다. (63 라)는 결혼할 때 신부의 옷에 대한 설명이다. 장옷 하나는 입고 하나는 머리에 쓰는데 그 장옷은 명주에 물을 들이고 색동을 놓으면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완전히 끝맺지 못하고 생략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표 36> 평서문의 종결 형태

	남성	여성
전체 문장 수	1,583	1,786
종결문	953(60%)	992(56%)
생략형	368(23%)	490(27%)

이 연구에서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지 않은 문장을 생략형으로 분류하였다.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맺은 종결문의 형태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종결어미를 생략하여 문장을 종결한 형태의 빈도수는 여성 화자가 조금 많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확신행의 종결형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애매하게 문장을 끝내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여성어 연구 결과는 뒷받침하기에는 미미한 수치지만 제주도방언에서도 여성 화자들의 생략형 종결 사용을 선호함을 볼 수 있다.

3.3.2. 접속부사와 감탄사의 사용

1) 접속부사

접속부사란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⁵³⁾’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접속부사로 설명되어 있는

53)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접속부사’항의 뜻풀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것은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렇지만, 그리고, 그리하여’ 외에도 ‘단, 따라서, 써, 연이나, 연중에, 연즉, 이리하여, 하건만, 하기는, 하기가야, 하물며, 하지만’ 등이 있다. 제주도방언을 사용하는 남녀 화자의 접속부사 사용 빈도는 <표 37>와 같다. 담화표지로 쓰인 것은 제외하고 접속부사로 쓰인 것만을 대상으로 빈도를 조사하였다. 남성 화자가 여성 화자에 비해 두 배로 접속부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접속부사의 사용 빈도

	남성 화자		여성 화자	
	전체 어절 개수 (token)	어절 종류 수 (type)	전체 어절 개수 (token)	어절 종류 수 (type)
전체 어절 수	15,735	6,122	16,081	6,402
접속부사	144	17	72	11

아직까지 접속부사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 범위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남기삼·고영근(2009)는 ‘접속 부사는 앞 문장의 의미를 뒤 문장에 이어주면서 그것을 꾸미는 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에 는 단어를 이어주는 말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학자에 따라 접속부사의 범위 설정이 다르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그러-’류의 접속 부사에 한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남녀 기본 자료에 나타나는 ‘그러-’류의 접속부사⁵⁴⁾를 정리해 보았다. 제주도방언에서 ‘그러-’는 ‘경, 쟁, 계, 겨, 거’의 형태로 나타난다.

<표 38> 접속부사의 종류별 사용 빈도

	남성		여성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계난/겨난/겨난	32	계난/겨난/겨난	32
2	그래서	23	경행	12
3	게서	18	겐디/건디	11

54) 김미선(2001: 45)에서는 ‘그러-’류의 접속부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시간 관계: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자
- 대립 관계: 그러나, 그렇지만
- 원인 관계: 그래서,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하여
- 조건 관계: 그러면, 그래야
- 전환 관계: 그런데, 그러다가
- 양보 관계: 그래도

4	게민	17	게민	11
5	겐디/건디	10	겐	2
6	게니까	10	겡	1
7	경행	7	게니까	1
8	게고/겨고	6	경허곡	1
9	근데	6	그러니까	1
10	겐	4		
11	겨곡	4		
12	겡	2		
13	경혜근에	2		
14	그러니까	2		
15	그리고	1		
합계		144		72

(63) 가. 우리 대엔 두 채가 보통이랏주. 겐디 난 물질헨 나대로 버스난 세 채헨.

<F10: 206> (우리 대에는 두 채가 보통이었지. 그런데 난 물질해서 나대로 벌었으니까 세 채 했어.)

나. 시집이서는 며느리 나시 옷을 허영 놔두주게. 겡 그 옷을 갈아입어.<F9: 202> (시집에서는 며느리 것 옷을 해서 놔두지. 그러면 그 옷을 갈아입어.)

다. 불합격허면 결혼 못 허지. 게난 다시 써 오랑 허주게, 그 예장을. <M3: 144> (불합격하면 결혼을 못 하지. 그러니까 다시 써 오라고 하지, 그 예장을)

라. 이상 엇이면은 거기서 이젠 들어오랜 연락을 합니다. 게민 그때 또 들어 가는 겁주. <M5: 150> (이상 없으면은 거기서 이젠 들어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들어가는 거지.)

(63 가)는 혼수로 이불 두 채가 보통이었는데 피조사자는 물질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 채를 준비해서 시집갔다는 이야기로 앞 문장과 뒷문장은 전환의 관계로 연결된다. (63 나)는 결혼식날 시집에 가면 며느리 옷을 따로 해두는데 그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겡’ 하나만으로 조건의 접속부사 역할을 한다. (63 다, 라)는 결혼식날 신부집에서 예장 검사를 하는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접속조사 ‘게난’과 ‘게민’을 사용하였는데 표준어로는 ‘그러니까’, ‘그러면’과 같은 의미다.

<표 38>을 보면 남성 화자가 여성 화자 보다 발화시 접속부사 사용에 적극적이다. 접속부사의 사용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⁵⁵⁾와도 일치한다.

55) 장영희(2000: 109)는 드라마 대사 어휘 계량을 통하여 20대 남녀 어휘 사용을 비교하였는데 남자가 접

접속부사가 문장이나 절 사이의 논리적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더 많이 의식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방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부사 사용(3.2.1.)에서 여성 화자가 성상부사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성 화자는 접속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장의 논리적인 관계를 생각하여 발화하려는 남성 화자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여성은 언어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며 더 빨리,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접속부사 사용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적인 여성의 특징으로 인해 접속부사 사용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여성성이 강조된 발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탄사 사용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말을 가리킨다. 대화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조사된 제주도방언 자료에서 담화표지로 사용된 감탄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느낌이나 의지를 표현한 것만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39>과 같다.



<표 39> 감탄사의 사용 빈도

1	남성		여성	
	아	18	아이고/아이구	46
2	아이고/아이구	2	아	5
3	어느 절에	0	어느 절에	7
4	에구	0	에구	1
합계		20		59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탄사를 비교적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가장 특징적으로 사용한 감탄사는 ‘아이고’다.

‘아이고’는 △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 반갑거나 좋을 때 △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다.

(64) 가. 아이고, 그것도 얼마나 맛이 좋다고. <F1: 176, 좋을 때>

(아이고, 그것도 얼마나 맛이 좋다고.)

속부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나. 아이고, 저 새각시 백 근짜리 도새기 왓젠. <F7: 196, 놀람>

(아이고, 저 새각시 집에 백 근짜리 돼지 왔대.)

다. 아이고, 옛날엔 나 열아홉에 시집간, <F11: 209, 기막힐 때>

(아이고, 옛날엔 나 열아홉에 시집갔어.)

라. 아이고, 어느 절에 그거 어디 십니까게? <F11: 210, 탄식>

(아이고, 어느 겨를에 그거 어디 있습니까?)

(64 가)는 옛날 잔치 음식이 고급스럽고 좋지는 않았지만 정말 맛있었다는 말로 맛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64 나)는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집 잔치에 도움이 되라고 ‘백 근짜리 도새기’를 보내 오면 크고 살진 돼지를 보냈다고 놀라움과 반가움의 표현으로 ‘아이고’를 사용했다. 또 (64 다)와 같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것이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강조할 때나 (64 라)처럼 옛날에는 예단이나 예물이 있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그런 것이 그 시절에는 없었다고 탄식을 하면서 감탄사를 사용했다. 발화에서 놀라움과 기가 막힘 등을 나타내기 위해 ‘아이고’를 사용했다. 이때의 ‘아이고’는 화자의 감정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본 문장과는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거나 감탄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64) 예들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감정 표현이 풍부하여 감탄사의 사용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 화자의 발화에서 ‘어느 절에’는 7회 사용되었는데 그중 5회는 (64 라)처럼 ‘아이고’와 함께 사용되어 옛날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감탄사 ‘아’는 남성 화자가 18회, 여성 화자가 5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화자가 ‘아이고’를 사용하는 대신에 남성 화자는 ‘아’를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65) 가. 아, 신발도 이 저 장화 닳은 거 그 뭐 무슨 거 십니다. <M5: 149>

(아, 신발도 이 저 장화 같은 거 그 뭐 무엇 있습니다.)

나. 아, 경헌 사름 여기 아무도 엇어. <M7: 156>

(아, 그렇게 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다. 그자 광목으로 아, 수논 거 이섯저, 베갯잇, 베갯잇에. <F10: 206>

(그냥 광목으로 아, 수논은 거 있었다, 베갯잇, 베갯잇에.)

(65 가)는 신랑이 신는 신발을 알고 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아’를 사용한 것이고 (65 나)는 말 타고 결혼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내용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반대 표현을 하기 위해 감탄사를 사용하였다. (65 다)는 여성 화자의 발화로 갑자기 생각 났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를 사용하였다.

표준어를 대상으로한 여성어 연구 결과에서처럼 제주도방언에서도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보다 감탄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감정 표현에 적극적이며 담화 상황에서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감탄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 화자의 특성이 제주도방언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예다. 여성이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은 여성의 특징 중 하나다. 남성에 비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성이 감정 표현에 적극적인 것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 화자의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은 지배와 피지배 혹은 완전함과 결손의 의미로 설명될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여성이 감탄사를 많이 사용한다. 즉 여성이 감탄사의 적극적 사용은 여성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3.3.3. 기층생활 관련 어휘 선호

남녀 모두 발화시에 자신의 관심영역과 관련된 낱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임홍빈(1993)은 여성이 신체나 태도, 성품 그리고 행동 등에 관련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여성의 생활영역이 가정에 국한되고 남성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민현식(1995)은 여성이 관심을 두고 있는 어휘와 남성이 관심을 두고 있는 어휘를 조사하였다. 여성은 ‘가사, 육아, 요리, 바느질, 의복’ 등에 관심을 가지고 남성들은 ‘정치, 스포츠, 성, 전문 직업’과 관련된 어휘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고 했다.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선호하는 어휘는 ‘엄마, 하늘, 귀엽다, 깨끗하다, 순수, 맑다, 예쁘다, 평안, 반지, 별, 가을, 인형’ 등이라고 했다. 이 연구의 조사 내용이 ‘결혼’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주제에 대해 말할 때 남성과 여성이 더 자주 사용하고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방언 여성 화자의 어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어절수를 분석하고 고빈도 어휘를 뽑아보았다. 먼저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 버전1.5.5(일명 깜짝새)를 통해 어절 빈도와 음절 빈도를 산출하였다. 전사하여 정리한 남성 피조사자와 여성 피조사자의 전체 어절과 음절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0> 남성 피조사자의 어절 수

이름	주소지	전체 어절 수	어절 종류 수	전체 음절 수	음절 종류 수
M1	구좌읍 송당리	1,570	940	3,776	448
M2	남원읍 태흥리	1,155	738	2,942	399
M3	대정읍 동일리	1,209	695	2,844	355
M4	서귀포시 상호동	1,194	778	2,877	395
M5	성산읍 삼달리	1,501	786	3,678	395
M6	안덕면 사계리	1,380	931	3,393	451
M7	애월읍 신엄리	1,230	654	2,838	369
M8	제주시 건입동	1,348	838	3,336	427
M9	조천읍 신촌리	1,427	809	3,645	401
M10	표선면 하천리	1,451	801	3,148	376
M11	한경면 금동리	997	652	2,343	355
M12	한림읍 귀덕리	1,273	786	3,208	416
평균		1,311.25	784.00	3,169.00	398.92
합계		15,735	6,122	38,028	4,787

<표 41> 여성 피조사자의 어절 수

이름	주소지	전체 어절 수	어절 종류 수	전체 음절 수	음절 종류 수
F1	구좌읍 송당리	1,535	914	3,760	461
F2	남원읍 태흥리	1,248	778	2,940	416
F3	대정읍 인성리	1,147	696	2,638	415
F4	서귀포시 회수동	1,326	747	3,066	382
F5	성산읍 수산리	1,217	736	2,918	388
F6	안덕면 감산리	1,146	661	2,775	362
F7	애월읍 신엄리	1,353	824	3,355	406
F8	제주시 건입동	1,436	951	3,489	456
F9	조천읍 조천리	1,726	1027	4,128	459
F10	표선면 하천리	1,286	754	2,909	423
F11	한경면 산양리	1,465	760	3,366	413
F12	한림읍 귀덕리	1,196	751	2,742	415
평균		1,340.08	799.92	3,173.83	416.33
합계		16,081	6,402	38,086	4,996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말이 빠르며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말을 한다. 언어능력 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근소한 차이지만 제주도방언 화자의 경우에도 같은 시간 동안 이야기한 어절 수나 음절 수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성이 더 다양한 어절과 음절을 발화하고 같은 시간 동안에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성이 더 많은 양의 음절을 산출하는 것이다.

1) 고빈도 어휘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가 많이 사용하는 어휘를 찾으면 관심영역과 선호어휘를 알아 볼 수 있다.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남녀 화자가 같은 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이므로 고빈도 어휘를 통해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의 고빈도 어휘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성 12명과 여성 12명의 발화를 각각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고빈도 어휘를 산출하였다. 피조사자의 발화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자의 발화는 제외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42> 남녀 고빈도 어휘

남성						여성					
번호	단어	빈도	번호	단어	빈도	번호	단어	빈도	번호	단어	빈도
1	그	303	26	이	49	1	거	310	26	나	50
2	거	221	27	때	49	2	영	196	27	잘	49
3	가지고	220	28	가서	48	3	그	175	28	새각시	47
4	뒤	141	29	계단	48	4	혼	132	29	건	46
5	혼	126	30	헌	48	5	안	127	30	아이고	46
6	또	123	31	행	47	6	막	123	31	허는	45
7	안	116	32	신부	46	7	그거	115	32	옛날은	45
8	해서	104	33	헐	46	8	행	115	33	무신	44
9	우리	101	34	좁	44	9	저	111	34	혜근에	43
10	혜	91	35	건	43	10	다	101	35	것도	43
11	저	91	36	신랑	42	11	우리	92	36	이	43
12	다	88	37	거라	41	12	허민	90	37	땡	42
13	그런	71	38	강	41	13	그런	82	38	개	40
14	허민	66	39	그때는	41	14	이제	80	39	그때	39
15	그거	65	40	잘	39	15	또	71	40	아니	37
16	이제	65	41	침	39	16	헌	67	41	농곡	37
17	허고	63	42	것이	39	17	난	65	42	하나	36
18	허는	61	43	것도	38	18	그냥	63	43	이디	36
19	막	59	44	이젠	38	19	경	62	44	이불	35

20	그때	58	45	나	38	20	간	57	45	이젠	35
21	한	58	46	이렇게	38	21	강	56	46	계난	35
22	아	56	47	그자	35	22	때	54	47	계	34
23	두	55	48	하나	35	23	허고	51	48	못	34
24	딱	53	49	그렇게	35	24	두	51	49	물	33
25	계	51	50	사름	34	25	뭐	50	50	허곡	33

남성 화자의 고빈도 어휘 10개는 ‘그, 거, 가지고, 뭐, 흔, 또, 안, 해서, 우리, 헤’이고, 여성 화자의 고빈도 어휘 10개는 ‘거, 영, 그, 흔, 안, 막, 그거, 행, 저, 다’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의존명사 ‘거’와 대명사 ‘그’다. ‘그’는 지시성 담화표지로 사용된 것도 포함된 수치다.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의존명사 ‘거’나 대명사 ‘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방언뿐만 아니라 표준어에서도 나타난다. 앞에서 사용한 명사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고 줄여 사용하는 경제성으로 볼 수 있다.

고빈도 어휘 목록에서 남성 화자는 ‘가지고’, 여성 화자는 ‘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명사로는 남성 화자가 ‘신랑, 신부, 사름’을 여성 화자가 ‘새각시, 이불, 물’이 고빈도 어휘에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특징적으로 많이 발화하는 어휘를 알아보기 위해 핵심어 분석을 통해 여성 화자의 특징적인 단어들을 찾아 보자.

2) 여성 화자의 핵심어

핵심어의 초기 개념은 사람들의 사상과 사회·문화적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의 해석을 반영하는 중요한 단어를 가리켰다. 이때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핵심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과 해석에 따라 핵심어의 정의뿐 아니라 핵심어로 선택되는 단어들도 달라질 수 있다. 컴퓨터의 성능이 발전하고 언어학적인 분석을 위한 말뭉치 활용 소프트웨어도 보다 편리하게 발전하면서 핵심어를 분석하는 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핵심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해 내면서 핵심어의 초기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통계적인’ 핵심어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두 개의 말뭉치(참조 말뭉치와 대상 말뭉치)에서 각각 추출한 단어 목록의 빈도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 즉 참조 말뭉치에 비하여 대상 말뭉치에서 현저

하게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를 핵심어라고 한다. 이로써 초기 핵심어 연구의 핵심어 정의보다 더욱 객관적인 핵심어 정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어(keywords 또는 key words) 또한 통계적인 관점에서 핵심도(keyness)를 계산하는 통계식을 세우고 그 식을 따라 핵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단어들을 가리킨다. 즉 다른 텍스트에 비해 어떤 텍스트에 특징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단어로 그 텍스트를 대표할 만한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이 되는 말뭉치(남성 화자의 발화)와 연구 대상이 되는 언어의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말뭉치(여성 화자의 발화)를 비교하여 참조 말뭉치에 비해 대상 말뭉치에서 비정상적인 빈도로 나타나는 단어들을 뽑아 보았다. 핵심어 추출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Antconc 3.2.4.이다.

<표 43> 결혼 이야기에 대한 여성 화자의 핵심어

번호	핵심도	빈도	어절	번호	핵심도	빈도	어절
1	141.588	196	영	26	15.318	56	간
2	56.782	42	냥	27	14.871	11	습양
3	48.404	46	아이고	28	14.871	11	콩
4	34.432	31	옛날은	29	14.871	11	하간
5	31.095	23	영행	30	14.219	15	이레
6	29.663	31	머리	31	14.128	23	허명
7	28.391	21	아기	32	13.701	31	헨
8	27.14	115	행	33	13.519	10	건지
9	27.039	20	가메	34	13.519	10	저레
10	25.687	19	뜨로	35	13.519	10	허연
11	25.687	19	맹지	36	13.491	20	든
12	25.062	65	경	37	13.373	45	옛날은
13	23.583	26	혜영	38	13.146	43	혜근에
14	23.398	63	난	39	13.039	17	경허명
15	20.999	47	새각시	40	13.001	14	아덜
16	20.831	123	막	41	13.001	14	영영
17	20.547	63	그냥	42	12.815	30	뎌
18	20.42	20	족두리	43	12.524	37	농곡
19	19.168	19	뇌근에	44	12.395	115	그거
20	19.168	19	흐꿈	45	12.168	9	나난
21	18.927	14	입곡	46	12.168	9	습아근에
22	17.921	18	허영	47	12.168	9	시집갈
23	17.575	13	시	48	12.168	9	아기덜
24	17.575	13	오란	49	12.168	9	이턱냥으로
25	16.223	12	늬삐	50	12.064	310	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던 ‘거’는 핵심도 면에서 50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남성 화자도 똑같이 많이 사용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 화자의 고빈도 어휘에서 두 번째 빈도를 보이는 ‘영’은 남성 화자의 발화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핵심도가 가장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빈도에 의존해서 추출한 핵심어는 화자의 발화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포함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⁵⁶⁾를 지닌다. 그렇지만 대용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한 핵심어 목록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43>의 핵심어를 통해 여성 화자의 선호 어휘와 관심분야를 알 수 있다. 여성 화자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남성 화자에 비해 핵심도가 높은 명사는 ‘옛날, 아기, 머리, 가마, 명주, 새각시, 족두리, 무, 콩, 판머리’ 등이다. 이 단어들은 결혼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여성의 화제가 되는 단어들이다. ‘놓다, 삶다’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과 관련된 동사 또한 여성 화자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여성 화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처리를 통해 얻은 결과에서 여성 화자의 주 관심사는 아기와 의복 그리고 음식⁵⁷⁾에 관련된 것이다. 주제를 ‘결혼’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음에도 여성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발화하는 단어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발화하는 일반적인 여성 발화의 특징과 일치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관심 분야가 육아, 음식, 옷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에 대해, 한정된 시간 동안 발화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공통적 관심 분야에 대한 단어가 핵심도가 높은 것은 여성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성이 강조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특징으로는 여성특유의 종결어미 사용과 접속부사와 감탄사의 사용, 기층생활 관련 어휘 선호를 들 수 있다. 제주도 방언에서 여성 화자의 특이한 종결어미인 ‘-심’과 ‘-순’의 사용은 여성이 남성의

56) 전지은(2010: 10)은 빈도에 의존한 핵심어가 갖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상 텍스트에서만 나타나는 고유명사가 핵심어 목록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별 단어를 넘어서 구차원의 핵심어 추출이 어렵다.

셋째 구체적으로 텍스트에서는 한 빈도 출현하지 않은 단어도 해당 텍스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빈도에 의존한 방법으로는 추출할 수가 없다.

57) Lakoff(1975)는 성별에 특유한 어휘들(아이들, 부엌, 의복)을 여성언어 자질로 간주하였다. 여성의 어휘는 주로 그들의 특수한 작업영역과 관심영역, 육아, 가사, 유행 등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포함한다고 했다.

가족이나 아주 낮추어 말할 수 없는 상대에게 존칭의 의미를 가미한 형태다. 또한 ‘-메’를 사용하여 자기를 타자화하여 객관적으로 발화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적 특징이 강조된 결과다. 여성이 감정 표현에 적극적인 것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 화자의 특징이다. 남성과 여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이 감탄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주제를 ‘결혼’에 한정하여 조사하더라도 여성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발화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여성들의 관심 영역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성 화자의 주 관심사는 아기와 의복 그리고 음식에 관련된 기층생활 관련 어휘들이 핵심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적 특징이 발화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문화는 언어로 표현되며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각각의 문화를 갖게 된다.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차별이 아닌 차이의 관점에서 제주도방언의 성별에 따른 발화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주도방언의 여성어는 일반적인 여성어 연구에서 보여지는 특징뿐만 아니라 제주도 여성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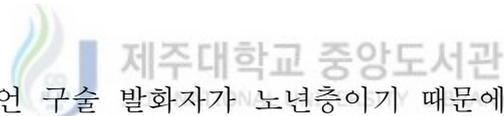
제주도방언의 여성 화자들만이 갖는 특징을 ‘지역성, 보수성, 여성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론에서 제시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성이 반영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특징에서는 제주도 여성이 처한 자연적·문화적 환경이 다르므로 다른 언어 형태를 선호함을 볼 수 있었다. 담화 표지에 있어서 여성은 부사성 담화표지와 조사성 담화표지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담화표지의 사용은 청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문문 중에서 여성 화자는 강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수사어문문을 많이 사용하였고 명사 종결문을 통해 확신을 가진 발화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적 환경의 극복을 위해 거센소리로 음을 강화하여 발음하려는 경향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제주도의 여성은 남성의 부재 속에서 농업 및 어업에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활동으로 여성만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도맡아 해야 했던 특징은 자신감과 확신의 형태로 언어에 투영되었다.

2. 보수성을 유지하는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특징에서는 제주도 여성의 고어형과 방언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지역의 여성들은 폐쇄된 사회적 연결망 속에 있으며 사회 구성원을 모두 알고 있는 밀도가 높은 연결망 속에 살

고 있다. 폐쇄된 고밀도의 연결망 속에서 살아온 제주도 여성에게 사회는 방언 사용의 규범을 강요했으며 표준어를 구사할 상황이나 필요성이 없었고 자연히 보수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3. 여성성이 강조된 제주도방언의 여성 발화 특징으로는 우선 여성 특유의 종결어미 사용을 들 수 있다. 제주도방언에서 여성 화자들이 사용하는 특이한 종결어미인 ‘-심’과 ‘-순’은 아주 낮추어 말할 수 없는 상대에게 존칭의 의미를 가미한 형태다. 이는 공손한 표현을 선호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메’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를 타자화하여 객관적으로 발화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성 강조된 것이다. 여성이 감정 표현에 적극적인 것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 화자의 특징으로 감탄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여성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발화하는 단어는 기층생활 관련 어휘인 아기와 의복 그리고 음식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단어들이 핵심도가 높게 나타는데 이것은 여성성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제주도방언 구술 발화자가 노년층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은 사람과의 대화나 격식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한정된 발화 상황에 국한하여 남녀 화자의 발화 특징을 살핀 점과 제주도의 현실적 상황 때문에 남성 피조사자 중 교육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지역 방언에서 성별 방언을 계량화하여 특징을 찾으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제주도방언의 구술자료가 더 많이 구축된다면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범모(2011),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강범모(2012), <남성과 여성 발화의 어휘적 차이: 코퍼스 기반 남녀 판별 연구>, 《한국어학58》, 1~30.
- 강소영(2013), 《언어와 여성》, 지식과교양.
-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1·2, 제주문화.
- 강영봉(2007), 《제주어》, 국립민속박물관.
- 강성희(1994), 《지역개발과 여성 경제 활동 변화에 관한 일 연구: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 강정희(1987a), <여성어의 한 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는/ㄴ거 있지(죠)’를 중심으로>, 《국어학 신연구 I》, 탑출판사, 339~348.
- 강정희(1987b), <제주방언의 접속어미와 동작상 어미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국어학》16, 국어학회.
-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 강주현(1991)(역), 《여자는 왜 여자답게 말해야 하는가(Language and Woman's place)》, Lakoff, R.(1975), 고려원.
- 강주현(1994)(역), 《언어와 여성(Les Mots Et Les Femmes)》, Yaguello, Marina(1978), 여성사.
- 강주현(2003a), 《계집팔자 상팔자?》, 황소걸음.
- 강주현(2003b), 《나는 여성보다 여자가 좋다》, 황소걸음.
- 구현정(1995a), <남·여성형 어휘의 사회언어학적 의미>, 《어문학연구》3, 상명여대 어문학연구소, 45~75.
- 구현정(1995b), <남성형·여성형 어휘의 형태와 의미 연구>, 《국어학》25, 국어학회, 99~135.
- 구현정·전영옥(2005), 《의사소통의 기법》, 박이정.
- 권영수·김종수(2003) (역), 《페미니즘 언어학과 대화분석(Einführung in die feministische Sprachwissenschaft)》, Ingrid Samel(2000), 대구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 김귀순(2000), <남성언어와 여성언어의 사회언어학적 접근>, 《언어과학》 7권1호, 27~53.
- 김미선(2001), 《접속부사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 김미진(2008), <제주도 여성속담의 이중성>, 《영주어문》16, 영주어문학회, 43~66.
- 김미진(2010), <제주도방언의 친족어 연구: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영주어문》20, 영주어문학회, 24~47.
- 김선재 (1961) (역), 《언어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Jespersen, O.(1922), 한국번역도서.
- 김선희(1991), <여성어에 관한 고찰>, 《목원대 논문집》19, 목원대 어문학연구소, 111~127.
- 김성렬 외(2003), 《언어와 사회》, 도서출판 역락.
- 김영목(1995), 《여성어와 공손표현에 관한 연구》, 계명대 영어교육 석사논문.
- 김영진 외(2004), 《대전 사회방언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 김종수(2003), <언어에 나타난 남녀 비대칭 구조1>. 독일어문학 22집, 한국 독일어학회, 315~334.
- 김종수(2004), <언어에 나타난 남녀 비대칭 구조2>, 독일어문학 24집, 한국 독일어학회, 243~260.
- 김종수(2006)(역), 《페미니즘 언어학과 성차별 메커니즘 (*Kontrastive Feministische Linguistik*)》, Hellinger, Marlis(1990), 부산대학교 출판부.
-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 김한샘(2005),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2》, 국립국어원.
- 김혜숙(2009), <성별에 따른 ‘네’와 ‘예’의 사용과 변화양상>, 《언어연구》25, 한국 현대 언어학회, 85~101.
- 김혜영(2009), 《구어에서 나타나는 정도부사의 사용의미》,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김혜영(2011), <남성과 여성의 사적 대화에서 발화 특성연구: 담화 기능 분석을

-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53, 한국외대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
 구소, 89~108.
- 김희숙(1998) (역), 《성과 언어(Wemon, Men and Language)》, Jennifer
 Coats(1986), 청주대학교 출판부.
- 남기심·고영근(2009),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원식 (1985) (역), 《사회언어학개론(Sociolinguistics, an Introduction)》,
 Trudgil P.(1974), 형설출판사.
- 문순덕(2005a), <제주지역 신문 광고에 나타난 여성대상어>, 《영주어문》9, 영
 주어문학회, 59~79.
- 문순덕(2005b), <제주방언의 높임말 첨사의 담화기능 -‘마씀, 양, 예’를 중심으
 로>, 《언어연구》20-3, 한국현대언어학회, 1~17.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반말체 첨사의 담화기능>, 《영주어문》5, 영주어문학
 회, 71~86.
- 문순덕(2012), 《제주여성 속담의 미학》, 민속원.
- 문순덕·김원보(2012),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매’연구>, 《언어학연구》 17-1,
 한국언어연구학회, 27~42.
- 민현식(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여성연구》34, 숙명여대, 1995,
 7~64.
- 민현식(1996), <국어의 성별어 연구사>, 《사회언어학》 4~2, 한국 사회언어학
 회, 1996, 3~29.
- 민현식(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사회언어학》5~2, 한
 국 사회언어학회, 529~587.
- 박경래(1993), 《충주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 박경래(1999), <청원방언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청자대우법의 힘과
 유대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16, 개신어문학회, 3~64.
- 박석진(2012), 《한국어 성별 언어의 실현 양상과 발화 상황 요인 연구: 하십시
 요/해요체의 전략적 용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 박선자(2001), <우리말 여성 기호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여성학연구》11-1,

- 부산대 여성학연구소, 119~147.
- 박소라(2004),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1960년대 2000년대 멜로 영화에 나타난 남녀 언어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 박영순(2004a),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4b), <사회언어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언어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사회언어학회, 3~22.
- 박은하, (2008),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성차이어와 성차별어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논문.
- 박창원 외(1999),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 박혜경(1998), <여성의 언어와 사회~후꼬의 관점에서>, 《인문연구》19,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41~62.
- 배영환(2009), <광주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개신어문연구》29, 개신어문학회, 29~60.
- 서민정(2008), <한국어 여성 묘사 표현의 특성>, 《코키토》63, 부산대 인문과학연구소, 279~296.
- 서정범(1969), <여성에 관한 명칭고>, 《아세아 여성연구》8, 숙명여대, 77~108.
- 서진숙(2010), 《국어 여성어 변천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 소은희(2003), <현대 중국어에 나타난 여성 언어의 특징>, 《중국문화연구》 2집, 중국 문화연구학회, 105~123.
- 안병곤 외(2006)(역), 《일본어는 여성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가?》, 栗原葉子, 中西清美(1990), 보고서.
- 우신화(2005), 《여성어에 나타난 협동적 대화 추구의 양상》,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 우윤식(2004), <남성과 여성의 언어행위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외대논총》24, 부산외대.
- 유혜정(1997), 《여성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 유성곤(1989), <여성어에 관한 연구>, 《동서문화》,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47~61.

유창돈(1966), <여성어의 역사적 고찰>, 《아세아 여성연구》5,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37~72.

유형선(2004), <남성과 여성의 언어사용성향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논총》 14,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21~34.

이기갑(1995), <한국어 담화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1, 담화인지언어학회, 261~286.

이기우(1995)(역), 《페미니즘과 언어이론(*Feminism and Linguistic Theory*)》, D. Cameron(1985), 한국문화사.

이경수 외(2006)(역), 《여성과 언어(女とことば)》, 遠藤織枝 외(2001), 박이정.

이능우(1971), <한국 여성어 조사>, 《아세아여성연구》10, 숙명여대, 1971, 71~82.

이덕호(1997), <언어와 성의 연구현황과 앞으로의 과제-특히 여성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5~1, 사회언어학회, 3~26.

이상규 외(1993)(역) 《방언학개설(*Dialectology*)》, Trudgil P.(1980), 경북대 출판부.

이상원(2012), <번역에서 여성어는 존재하는가>, 통번역연구16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1~18.

이석규·김선희(1992), <남성어·여성어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2집, 목원대, 36~73.

이우석(1995), <문말표현에서의 여성어에 대한 고찰-한일어의 남성어와의 대조에서>, 일어일문학연구27, 한국일어일문학회, 81~118.

이원표(2004), <국어학과 사회언어학>, 나라사랑 108집, 외솔회, 75~131.

이익섭(2000), 《사회언어학》, 민음사.

이주행(2003), <사회계층별 언어 특성>, 《언어와 사회》, 도서출판 역락, 61~87.

이정민(1981), <한국어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173,174호, 559~584.

이정희(2002), <발화 행위시 여성의 공손함에 관한 연구>, 일어 일문학18, 대한

- 일어일문학회, 49~66.
- 이창숙(2000), <국어의 여성어 연구: 연령별 여성어의 특징을 중심으로>, 강남어문10, 211~236.
- 이화연(2004), <여성의 언어와 여성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관한 비교연구>, 응용언어학 20권 1호, 한국응용언어학회, 203~221.
- 이화연(2009), <한국어, 아랍어, 영어의 여성어 양상에 대한 비교연구>, 《중동문제연구》 8권 1호, 명지대 중동문제 연구소, 111~132.
- 임규홍(2004), <성별에 따른 국어 담화표지 사용모습: 중고등학생 이야기 대화를 바탕으로>,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93~113.
- 임지룡·배문경(2003), <여성발화의 화용적 특성 연구>, 《문학과 언어》25집, 문학과 언어학회, 161~202.
- 임홍빈(1993), <국어의 여성어>, 《국어사회언어학 논총》, 국학자료원, 1993, 67~78.
- 장영희(2000), <20대 남녀 사용 어휘의 대비적 고찰>, 《국어화법과 대화분석》, 국어화법학회, 93~115.
- 장태진(1969), <현대 여성어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8, 숙명여대, 51~76.
- 전지은(2010a), 《핵심어 분석을 통한 영어 성별어휘 사용 양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전지은(2010b), <성별에 따른 한국어 부사 사용 양상: 세종 구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언어와 언어학》47집, 한국외대외국어종합연구센터언어연구소, 191~217.
- 전지은(2010c), <성별에 따른 한국어 부사 사용 양상: 세종 구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언어와 언어학47》, 한국외대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2010, 191~217.
- 전혜숙(2008), 《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
- 전혜영(2006), <언어 사용자의 성별과 발화 특성>, 《한국어학31》, 47~70.
- 정명진(2001),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You Just Don't Understand)》, Tannen, D.(1991), 한언출판사
- 정승철(1995),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정승철(2000), <제주 방언의 음운론>, 《탐라문화》 21, 179~189.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제주도교육위원회(1976), 《탐라문헌집》.
- 조남민(2010), <여성어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33, 143~181.
- 조태성(2003), 《여성어의 인지 의미론적 연구: 합성명사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 조희선(2003), <아랍어에 나타난 여성언어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집》24-1, 한국 중동학회, 185~213.
- 채순옥(2009), <연변지역의 여성어와 남성어>, 2009 한국사회언어학회, 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 논문집, 91~101.
- 최성윤(2003), 《국어의 여성언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학규(1989), 《제주도 방언의 서법 체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혜정(1999), 《국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표현연구》, 배재대학교 석사논문.
- 황정민(2008), <성별 담화표지어의 사용 양상 비교 연구>, 《한국 언어문화학》 5권 1호,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347~370.
- 한국사회언어학회(2012),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 한국사회언어학회 엮음(2009),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현평효(1991), <제주도 방언 존대법의 특징>, 《새국어생활》 제1권3호, 83~93.
- 현평효·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도서출판 각.

Ardener, S.(1975), *Perceiving Woman*, London: Mallaby press

Milroy, J. & Milroy, L.(1978), *Belfast : Change and variation in an urban vernacular. Sociolinguistic Patterns in British English*, London: Edward Arnold.

Johnson(1983), *Political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of Attitudes Towards*

- Woman's Language, *Communication Quarterly*, Heft 2, pp.133~138
- Key, M. R.(1975), *Male/Female Language*, Metuchen, NJ: Scarecrow Press.
- Labov, W.(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Trudgil, P.(1975), *Sex Cover Prestige, and Linguist change in the Urban British of Norwich*, Reprinted in B. thorne and N. Henly, *Language and Sex Different and Dominance*, 88~108
- Zimmerman & West(1975), Sex roles, interruptions and silences in conversation. In B. thorne and N. Henley,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105~129



<Abstract>

A Study on Female Speeches in Jeju Dialect

Kim, Miji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female speeches in Jeju dialect. It is considered that females in Jeju island have strong viability and independent living attitude. This research was started by the thought that there would be certain characteristics in the language used by females in Jeju island since Jeju society requires different roles to females and there are different social limitations as well.

Generally in Korea, there is few difference in language by genders. However, unnoted morphological difference by genders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at all. Even though the vocabularies and expressions are same, the frequency and preferred words could be different by genders. Therefore,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difference in preferred words used by females in Jeju islan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differentiation rather than sexual discrimination.

Most of the precedent studies regarding female speeches only covered standard language and analyzed data are based on assumed speeches or written documents.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compared and analyzed actual dialects spoken in Jeju island because of regionality and actuality that has not been tried before. Research data include dialects of Jeju island spoken by 12 males and 12 females above age of 75 from 12 administrative districts in Jeju island. Also, two books written and surveyed by the researcher of this thesis were used as supplementary

data.

This thesis is composed of four chapters. In chapter 2, there is definition of female language and various theories regarding interpretation of female speeches. In chapter 3, female speeches in Jeju island are analyzed by being classified into ones that reflect regionality, maintain conservativeness and focus femininity. In '3.1. Female speeches of Jeju dialect reflecting regionality', discourse marker, usage of interrogative sentence, terminal statement and strong phoneme are analyzed to identify how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reflected in speeches of Jeju island females. In '3.2. Female speeches of Jeju dialect maintaining conservativeness', it is confirmed that Jeju island females prefer archaic and dialectal words and pronunciation rather than standard words and pronunciation and the causes are identified. In '3.3. Female speeches of Jeju dialect emphasizing femininity',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speeches are studied through identifying the usage of sentence final endings, exclamation and basic living vocabularies.

In speeches of Jeju dialect used by females, there were not only general feminine characteristics but also uniqu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females. Those characteristics are studied by classifying into 'Regionality, Conservativeness, Femininity' and the summary of th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1. In characteristics of females dialects in Jeju island reflecting regionality, the impact of regional environment in Jeju island on female language was identified. Especially, the research focused on discourse marker, interrogative sentence, and phoneme.

In dialects of Jeju island, male speakers frequently used directional and interrogative discourse marker while females more used adverbial and postpositional discourse marker. Among postpositional discourse marker,

the most frequently used expression was '-Ge', which indicates the intention of females speakers to form intimacy with the listeners and clearly express their thoughts. In addition, the usage frequency of interrogative sentence was higher in female speakers but frequency of general interrogative sentence was low while special interrogative sentence was high. Among special interrogative sentences, the female speakers frequently used rhetorical interrogatives and it is also considered to reflect regionality since rhetorical interrogative indicates strong affirmation. Female speakers also frequently used affirmative sentences that statements are ended with nouns. These characteristics are opposite to precedent studies that state females use tentative and hesitant speeches. Also, there was higher tendency for females to use strong pronunciations to overcome natural environment. Unlike characteristics of female speeches in standard language, which is that females frequently use fortis and '르' sound to look endearing, female speakers in Jeju island use strong phoneme.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n general female language and that of Jeju island can be explained by special regionality of Jeju island. The females in Jeju island had to be in charge of economic activities and it led to confidence and conviction in language.

2. As a result of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female speeches in Jeju dialect maintaining conservativeness, females in Jeju island prefer archaic and dialectal phrases. In general, females more prefer standard language compared to males. It is regarded that females prefer standard language since they want to be compensated of their low social status by language. However, as a result of studying adverbs and changes in phoneme in Jeju island dialects, female language demonstrated higher tendency of conservativeness. That is, female speakers in Jeju island

preferred dialectal adverbs rather than standard language adverbs and they used archaic and dialectal expressions compared to male speakers.

According to 'social network theories', an individual belongs to closed network when he or she knows all the people in the network and an individual in dense closed network is forced to follow the language norms in the group. Females in Jeju island belongs to traditionally closed social network and the density of network is high since all the community members are aware of one another. The reason that Jeju island females frequently use dialects is that closed social network forces them to do so. For a long time, females had not been allowed to go outside of the island and they had to live inside of the community network composed of relatives. Therefore, Jeju island females who had been living inside of high-density and close social network were forced to use dialects and there was no necessity for them to use standard language.



3. Characteristics of female speeches in Jeju island dialects emphasizing femininity include usage of feminine sentence final endings, exclamation and preference of basic life vocabularies. In Jeju dialect, female speakers use unique sentence final endings. The usage of '-Sim', '-Sun' indicates respect for the listener and '-Me' indicates the intention to speak objectively about himself or herself. There is difference in the way that males and females express their emotions and the fact that females use more exclamations demonstrate their femininity. Females frequently used words related to baby, clothes and food. This phenomenon indicates that females prefer basic life vocabularies.

<부록> - 구술 자료

1. 남성 피조사자의 구술 자료

<M1, 구좌읍 송당리, 79세>

질: 결혼할 때 어떻 헤난마씨?

답: 내일 결혼식 헐라면은 식을 지낼라면 오늘 친족들이 전부 모여서 그 도야질 잡아서 낼 쓸 거, 낼 손님들 접대할라도 도야지 잡으면은 걸 우선 저녁 때 친족들부터 고기 썰면서 집안 사름덜 보고 가문이엔 허는디 그 사름덜을 우선 그 짜투리 고기, 그거하고 안칩 썰어놓고, 창자, 창자.(30 가) 그런 거 합쳐서 저녁 잔치를 헐니다, 우선 식구덜끼리. 그래서 그 잔치 허고 낼 아침 결혼식을 헐 거 아십니까? 결혼식 허기 이전에 우선 저 선영들안테 조상들안테 제를 지냅니다. 그 잔치고기여 밥이여 출려와서 선영들안테 제를 지내고 그다음은 신랑이, 만일 신랑집이민 신랑이 출발헐라면은 또 오늘 베슬허는 날이라고 해서 결혼하는 날은, 관복 입어서 이제, 결혼하는 날은, 크게 상 출려서, 상을 잘 출려서 향불 피와놓고 신랑안테 우선 주죠, 걸. 그 상 받아나면은 또 이제 신랑이 나갈 거 아십니까? 신부집으로 갈라면은. 나갈 때는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이 뭐 큰아덜이든 작은아덜이든 장가가는 아덜안테 그날 신랑안테 차비라고 해서 돈을 얼마 집어줍니다. 노비 가져야 여행을 허는 거니까. 그래서 나와서 신부집이 가서 흥세함이라고 있어요, 흥세함. 결혼 약속 문서 써가는 거주예.(12 다) 그 이제 수상객이 딱 들고, 상객 중에 켈 대장, 들고 가서 가문에 가서 신랑을 받아들이겠다고 허락하면은 이제 들어갑니다, 신부 집에.(32 가) 신부집에 또 상을 쳐려와, 손님맛이로. 거기 신부집이 상객, 수상객허고 여기서 흥세함이라고 헐 거 들고 갑니다예. 거기 가서 절허고 짝 드리면은, 그 흥세함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시랑목이라는 아주 얇은 천이 있어요, 천. 걸 두 필 놉쇼. 그것은 그 사름 결혼 후에 얘기 나면 그 얘기 걸레라고 얘기 업고 다니는 질빵 그런 거 허고 뭐 허는 걸로 해서 담아놓고 그 문서를 이제 그 위에 딱 놉서 드리면은 거 받아서이 내가 갖다 주면은 상대방 상객이 받아서 쪽 읽어와서 뭐 틀린 게 없으면은 곱게 받아들여서 들어오라고 허고 글자가 리거나 뭐 약점이 잇이면은 안뵈다고 바꾸 시키기도 헐니다. 거는 그니까 가는 사름이 좀 뵈 아는 사름이 가야 뵈여. 고쳐야 뵈여, 그걸. 요건 항목이 틀렷다 허면은 이걸 고쳐야 뵈지.

질: 우시는 뭇 사름이나 갑니까?

답: 우시가 우시라고도 허고 상객이라고도 허는디 보통 옛날은 우시라고 헐고 근래와서는 상객 소릴 많이 허는 거. (우시는) 신랑 상객 헐 두 사름, 거 또 이제 성가에서 한 사람, 외가 한 사람, 보조 상객 헐 사름 따르코 행 갑니다. 대여섯 명 되고 여자 상객이 또 잇거든. 여자 우시라고. 한 일곱 사람쯤 웹니다, 일고여덜. 신부 데리레 가는 신부 우시가 또 이서. 신부방에 가서 같이 상받고 여자 상객, 그래서 신부가 나올 때 뵈면은 데리고 나오는 거죠, ㄴ치. 신부는 지가 책임지고 모시고 갈 거라고 해서. 게서 이 결혼식을 그렇게 지내다가 보통 식장을 벨로 안 갖죠. 신부집 가서 상 받고 거기서 우시덜 다

데리고 신부하고 신랑은 말타고, 신부는 가교라고 해서 영 들고 다니는 거, 사람이 드는 거. 태와 가지고 신부 타는 무신거 가교라는 게 있어요.(9 다) 거기 태와서 두사람이 앞뒤에 사서 신부를 모셔 오는 거죠.(49 나) 교대도 할 수 있는데 그전에도 가교 말이 있어요. 앞이 하나 뒤에 하나 해서. 말에도 그 등에 해서 그 체를 앞뒤에 세워서 무꺼서 말 끌고 오면은 말에 태와오는 수도 있죠. 말에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그 가교라는 가메에 낚서 태와 태와와서 집이 와서 절차가 이디 와서 사둔 인사 다하고, 허민 걸로 (신부 친척들도) 오는 겁니다. 올 때 신랑집에서는 갈 때에 뭘 가져가냐면 쌀 한 말, 돼지 다리 큰 걸로 하나. 그것은 우리 가문에서 먹으니까 당신네도, 잔치 차린 걸 가져왔습니다 행 갖다 드리는 거. 신부집에서도 땃가로 가져오죠, 이제. 거른 사둔집에서 온 사둔잔치는 우시상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 사름덜이 여자집이서도 신랑집에서 온 걸로 잔치하고 신랑집이서도 신부집에서 온 걸로 잔치하고. 아이 다음날은 또 그날 거의 험니다, 그날. 저녁때 돼가면은 손님덜 가고 허면은 사둔집에서 온 걸로 잔치하자고 해서 나눠 먹는 거죠.

데려오면 그 앓는 방향이 또 다 있어. 보통 그저 그 즈세히는 몰른디 안방에 강 앓아서 이 문앞으로 앓지 안하고 좀 쥘 안네가 강 앓아서 존 방향으로 앓지는 거죠. 하도 오래니까 이제 잘 모르쿠다.(36 나)

질: 잔칫날 먹는 음식은 어떤 게 잇수과?

답: 고기 잘라서 놓고 이저 쌀이 벨로 없으니까 팔 서트곡 밥에, 보리쌀에 이 신랑신부나 우시들은 순전 저 좋던 굿던 쌀밥을 주고, 이제 어려우니까 보리쌀 밥을 해서 쌀밥을 해서 우에 사발 우에 툇 쌀, 보리쌀은 밀에 담고 보리밥은, 우에 쌀밥은 짝 입혀.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주는 게 얼마 안 줘니다. 고기도 아주 얇게 썬 거 석 점베피 안 줘. 근래에 와서 두부, 순대도 많이 낫주. 옛날도 순대는 잇엇어요, 집에서 담아서. 순댄 주고 순대가 마진 때는 간 마든 거 찰아서 썰영 피 나니까 생찬 안 뵈고. 대창이라는 것도 잇는데 그런 것도 썰어놓고 잔칫 헛주 뵈.

질: 옛날은 연애 결혼은 엇엇지예?

답: 물론 엇엇죠, 중매결혼. 부락에서 좀 덕망이 잇는 사름덜 말빨이 잇고 그런 사름덜이 '어느 집안에 새각실 우리가 구허고 싶은데 거 좀 말 좀 헤줍서 허면은 그 집이 가서 막 좋다고 해서 신랑이 착허고 딸 허락해 주렌 허민 거 또 허락해 주면은 사주 얻으레 신랑집에서 가는 거죠. 신랑이 강 생년월일 해서, 생년월일 두 개 합치민 스주팔자 아넵니까? 여즈 남즈 합치민. 사주팔자 맞으면은 결혼식허고 안 맞으면 못허는 거지. 신랑집에서 그사줄 얻어오면은 이제 어디 글 많이 배운 사름안티 강 사주고남 헤여. 고남해서 좋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남해서 써줍니다. 써주민 걸 또 신부집에 보내야 뵈여. 나 멋대로 허면 안 뵈니까. 요렇게 해서 사주고남을 헛으니까 판단허는 거죠. 신부집에 가서 사둔 맥에서 이거 잘 보십서. 우리가 이거 가서 정성껏 헤 앓으니까 받아 보십서. 여자집이 가져가서 합격하면 그게 막펜지 뵈는 거죠. 막펜지 가져오는 날 음식 대접헤요. 처음 신랑이 처음 인사 갈 때는 물도 혼 적 안 줘. 막펜지 가져가는 날 사둔덜 허고 집 안 어른덜허고 신랑허고 마치 가죠. 마치 가고 인사허고 이렇게 해서. 거 오케이헤야 가

는 거지. 처음은 그 사주고남현 것을 갖다 줘서 웬간히 쓰겟다고 허면은 그게 마지막으
로 인사허레 가는 거 그게 막젠지. 신랑이 처음 이 집에 장가들겟습니다 허고 허락했다
고 해서 딸을 허락해서 고맙습니다 인사올 거 아닙니까? 인사올려도 뭐 아무것도 안 줘.
처음에 주면은 결혼식이 잘 안된다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아무 것도 안 주고 깨끗이 보
내, 맨입으로. 요새 그뜨민 커피라도 흔 잔 주주만은, 안 줘. 결혼을 적어 논 거니까, 거
기. 여저도 막 부끄럽고 남이 남자 만나는 것이 처녀시절 그 시절은 결혼식 날이나 가서
만나지 게 안 허민 못 봐.

질: 신랑이 입을 영 막앙 들어간덴 헛게 만은.

답: 부채죠, 부채. 접었다가 폼다가 허는 거, 것에 가립니다. (신부를) 데려올 때도 못
봐. 집이 왕 이제 방에 앉혀 놓면은 밥 대접허고 뭐 헛 때 보고 싶으면 신랑이 숙허게
지나가는 척허멍 보는 거지, 마주 얼굴 딱 보면 뭐엔 말도 못허고. 다음 날 우리 집이 어
제 결혼식 행사 치뤘으니까 친족분들이 문밖 수고했다고 해서 또 오십서 초대해서 가문
어른덜안티 뭐 잔치허던 퇴물 해서 나눠 먹는 거지. 것이 마지막이라.

질: 옛날 부조는 어떻 헛나수과?

답: 대략 쌀 한 말씩 헛 가든가 크게 생각허면, 흔 말 엮으니까 두 뉘. 녁 뉘가 흔 말이
니까. 엷는 사름은 밥 먹기 어려우니까 반 말 가져가고, 흔 말 가져가고 그래서. 녁녀히
사는 사름은 한 말 가져 가고. 귀허니까 그것이 큰 부주라. 아니, 쌀이 어디 잇어요?(17
다) 잇는 형편대로 기냥 허는 거지 뭐.(41 바)

질: 농사는 어떤 거 지어났수과?

답: 옛날에 피 우선, 봄에 뿌려서 가을 들어서 베어다가. 그거 복잡합니다, 그거. 껍질
여섯 불이라, 잘잘한 피 껍질이. 거 산에 가서 나물 많이 헛다가 대로 바꾸니 크게 짜
막. 피를 그 꼭지를 따서 그 바웃에 놔서 아래 이만치 노프게 해서 이제 불 때주. 불 때
서 걸 막 들루와, 거기서 불로. 불로 물리워서 이젠 다음은 이디 명석 깔아서 명석에 궤
와 놓면 발로 비벼 발에 피가 다 나. 막 열로 말려근에 바삭바삭 거칠어 노니까 발에, 할
머니덜 막 피가 나게 부비지, 걸. 게서 맷돌, 들방에라 흔 디 갖다 놔서 서로 수눌면서
맷돌 돌려서 거기서 쌀을 까 먹엇지. 피 고고리 터는 것이 지금은 뭐 탈곡기가 잇고 허
니까 뉘는디, 아그 도리께도 잇섯주만은 이것은 잘 말렸으니까 우선 식기 전에 발로 비
벼야 뉘. 뜨거울 때 헛야 잘 부벼져. 그냥 산파로 발에 발 갈아 놓고 산파로 짹짹 뿌려서
씨 잘 뺏어야지.(43 가) 그 모여진디 또 덜 모여진디 씨 덜간디 허민 안뉘니까 씨 뿌리
는 사름도 아무나 못 뿌려요, 거. 농살 전문으로 계속 농살 지니까 게도 씨 잘 뿌리는 사
름이 가서 쉼 뿌려야 뉘여. 많이 쉼여근에 골고루 안 나가면은 모인 디 흠어진 디 허민
안 뉘거든. 똑바로 그것이 가야지. 씨 뿌려놔서 씨 뿌린 다음은 말을 흔 오십 두나 많은
딘 흔 칠팔십 두 몰아다가 몰 발로 밧을 다 밧으는 거. 진압을 시겨야 뉘. 잘 진압 시겨
서 그다음 종자가 자라나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지 안허고 알이 탄탄이 진압 잘 뉘었니
까, 영글게 잘 뉘습니다. 피는 잘 벌여, 또. 잘 퍼져 잘 벌여, 잘 벌여져. 하나가 나면 가지
가 막 여라 개 퍼져. 그저 줌 조생 올피라는 거 잇는데 올핀 수확이 안 나고 물피라는

건 고고리가 크고 양이 좀 많이 나고 허니까(39 마) 올피, 물피 피가 두 가지예요. 보리는 한참 후에 헛쥬, 피보다. 산두, 옥두라는 그산두가 여기 제주 산두는 정말 쌀이 보리 밥만으로도 못해요. 보리밥 이 좋은 지금시대에 좋은 보리밥 만이 못 해, 그 쌀이. 아주 거칠어, 비삭비삭해서. 그중에 옛날에도 산두가 석상베라고 허는 차나룩이 좀 잇었어요. 석상베라고 해서 벼가 그런 것도 잇고 아니면 그 그냥 그 잡씨덜은 정말 좋지 안허여. (그다음은) 그냥 버리는 거여. 보리는 흔 참 후에 그때 비료도 안 나오고 감저도 싱그쥬. 그 보리 갈라면은 옛날은 비료가 엇고 퇴비가 없으니까 소 키워서 소 퇴빌 좀 하는데 건 양이 얼마 안 돼니까 우리 송당 ㄱ튼 부락에서는 혜안에 가서 산에서 소를 여름 때 맥여주겠다고 소 하나 맥이는 디 흔 보리 흔 말이나 흔 말 반이나 받으면서 품삯을 그거 베피 안 줘. 소를 멧 백 두 모여다가 여기서 하루 종일 산에 강 맥일 거 아녓니까?(19 가) 저녁 때는 담 싸는 밧디 와서 집어봐, 걸 다. 집어너민 거기서 똥 오줌 쌍 그제 거름이야 것ㄱ라 바량이엔 허는디, 바량. 그걸 해서 거 똥오줌 쌍 거름이 똥다고 해서 거기 가을 똤민 이제 갈아서 보리 씨 빼영 가는 거쥬. 그제 걸름이예요, 소 똥 싸고 오줌 싼 것이. 게서 보리도 좀 갈았쥬. 겐디 일로 서쪽으로 김녕 가야 보리가 돼는디 함덕 잘 똤디 일로는 보리가 잘 안똤여, 또. 하작물이고 피는, 늣빼나 줌 그때 심은 거 닳고 배추 ㄱ튼 건 잘 안 똤고. 소가 거 돈이 없영 못해요. 그때 소 하나 살라면 돈이 이서야 사지 똤. 거니까 돈 좀 잇는 사름덜이 소를 흔 멧 개 가져서 이 소 우리도 하나 키우고 싶다고 막 슁정을 하면 암늣 흔날 줘. 기냥 주는 게 아니고 이 소가 새끼 나서 반씩 나누자고. 그 사름은 조그만 암소 하나 폴양 내불민 그디서 늣도록 맨날 이년에 하나씩 나눠 가는 거라. 너 하나, 나하나, 반작소. 너 하나 나 하나 나눠 가지는 거지. 그제 키워서 이제 거 열심히 허면 집이 부랑헌 늣이 없고 돈 하이 쓰편은 그걸로 해서 소를 키우기 시작했지.

<M2, 남원읍 태흥리, 81세>

질: 결혼할 때 어떻게 혜낫수과?

답: 말 타고, 가마 타고, 옛날 것ㄱ라 무신 옷이엔 허느냐? 사모관대, 신발은 구두 못 신엇어. 초신은 안 신고 고무신은 신어져신가? 그 당신 결혼허는 날은 가막창신이라고. 가마는 어떤식으로 만들엇냐면 이런 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우에다 천을 씨우고, 천을 씨우고 사람이 들고 나고 혈 수 잇는 입구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서 앞이면은 여기다 물 메우고 여기다 물 메우고 요렇게 연결을 시겨 가지고 여기 말이 그 쉤질메라고 잇어이. 저 지금 현재로 말허면 안장 ㄱ튼 거, 그거 해서 연결을 시겨서 운반을 했다고.(37 라) 양쪽 잡으민 똤여, 나무로 똤 거, 부출이라고 해, 부출, 가마부출. 양쪽 이렇게 잡양 안지면은 또 똤가 재밋는 거냐면, 오줌 요강, 요강 알지? 요강을 가마, 가마 속에 똤어. 왜 놓는냐면, 거리가 먼 디 갈라면은 가다가 이 신부가 오줌도 메릴 수 잇고 허니까 그 안엇 오줌 싸고 경행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일정을 통허고 자기가 또 사용헛어. 시집 올 때 가정은 거, 사용허고.

질: 새각신 똤 행 와낫수과?

답: 그때 예물은 뭐 출리고 왔냐면은 이불이라고 헌 거 쪼끄만 헌 거 두 사람 덮을 수 잇는 거 개서 그 가마 속에 놓고 그거 말고 잘사는 좀 잘사는 집에는 예 옛날 케라고 잇어. 그거 하나씩 가져오는 사름도 잇고 그건 잘사는 집안, 못사는 집안에는 그렇게도 못히고.

질: 새각시신디 뭐 해주는 건 잇어났수과?

답: 왜 없어? 옷 혼 벌 해주고, 한복, 신발허고, 아이 그때 고무신 우리 헐 때 우리 헐 때는 고무신 난 때여. 저 누게고 태봉이 어머은 저 초신 가정 가시난 마당더레 던져 불어났어. 신랑 칩이서 초신 해 왔으니까는 신부 신으라고 헐 왔으니까 그 덴져불언. 그때는 고무신이라도 어디서 나오느냐면 일본이나 출입허는 사름덜, 그런 사름베끼, 우리 한국에는 고무신, 신이 안 나왔어.

질: 새각시 들레 갈 땐 어떻 해났수과?

답: 우선은 신랑이 가고 신부 데리러, 그때 우시라고 해서 신랑 외가칩이서 혼 사람, 성가칩이서 혼 사람 두 사람 갖어. 세 명, 다른 사람 가느냐면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하인, 그때 하인 몰 이렇게 잡고 신랑 태우면은 몰 이렇게 잡고 끌고 가고, 또 신부 데령 올 때는 그저 뉘께 실른 말을 잡고 오고. 가마, 뉘께엔도 허고 가마엔도 허고. 예 처음에 들어 가면은 그 하인이 예고를 헌다고 올레 먼 데서 부터 호호~ 호호호호~ 예고를 허면은 그디서 알아서 느람지라고 알지, 느람지. 그저 띠로 만든 거 느람지, 그거 해단 짝 페우고, 신부집 마당에 신랑 맞이하느라고. 그디 가서 물을 세우면은 그때 여장이라는 게 잇어. 예물이 아니고 함, 홍세함. 그 안내 저 여장이라고 문서가 잇어. 어느 집안에 딸이 어느 집안에서 데려 간다는 증거, 영수증 비슷한 거. 그거 강 드리면은 그 신부 집안에서 그걸 검토를 해보고 글자를 맞게 쓰느냐 안 쓰느냐 요사름허고 요사름 신랑칩이 성씨가 무스거다, 뭐이다 그런 걸 확인을 허고 들어오라가민 들어가서 이제. 딴 거, 저 옛날 무명, 무명 혼 필이라고 헐어. 혼 필. 그건 뉘허레 주느냐면은 그 갖다가 신부집에다 갖다 주면은 그게 신랑 신부 얘기 나면은, 얘기 나면은 삿빠, 이런 거 허라고. 예장 통과 행 가면은 식사허지. 옛날 산두밥, 산두, 산두, 밧벼. 대부분 그런 걸로 해서 상을 한 상 차려줘. 게난 경 먹고 나와 버리면은 그다음에 요즘 뉘 신부덜 뉘 준비허는 식으로 준비해서 오게 뉘면은 가마 들이 대면은 그디 타면은 신랑칩이 데령 오는 거라.

질: 새서방은 입도 영 막아났젠 헐게만은.

답: 지금은 부채, 부채데, 그게 옛날 그게 만들어진 게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느냐면은 신랑이 신랑이 청부라이 청부, 이디 타졌어. 타지니까 그거 감추느라고 감추느라고 이렇게 해다고 해. 옛날 유래가, 요것을 감춘다고. 요즘은 뉘 결혼식 헐라고 허면은 뉘 서로 상면해서 그렇고 저렇고 허지만은 그때는 부모덜 말만 들어서 결혼허는 거라.

질: 신부 들양 오민 그 다음은 어떻힙니까?

답: 그 다음에는 신부 데려서 신랑칩이 오면은 일단 내려. 내려서 신부상을 올려준다 고. 결혼 식이라는 것은 없엇어. 강 데려오는 거. 데려오면은 그 우시라고 내가 얘길헐

지. 원래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그 메뉴리 2층을 데려왔는데(56 라) 집에서 잔치하고 뭐 허젠 허민 바쁘니까 외가집이서 혼 사람, 성가침이서 혼 사람행 두 사람이 감시원이라, 감시원. 감시원이 아니고 상객, 요즘 2층민 보호해주는 사람이지. 신랑 신부를 보호해주는 사람.

질: 새각시 새서방상엔 특별한 거 뭐 나오니까?

답: 특별한 거, 특별한 거는 닭. 통채로 올린다고, 통채로. 통채로 올리고 그다음에는 밑반찬 조금 잇겠지만 건 벨다른 건 엇고, 경허면은 신부가이 신부가 밥을 출려준 걸 다 먹질 안 험다고. 요즘 2층민 자기 양 현대로 먹는다 그때는 혼 수갈 아이민 두 수갈 떠 먹고 물려. 상을 물리게 돼면은 여기는 어린아이덜이, 보통 남즈덜이겠지. 쪽 해근에 앓아. 그거 얻어 먹을라고. 신부가 밥 수까락 딱허게 노민은 재빠른 놈덜은 어린 아이덜 지금 2층민 혼 대여섯 설, 요남은 설 밑에 아이덜 이 닭을 화작작 심어서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앓으면은 신부 먹단 밥을 수갈로 하나씩 떠서 손이 이렇게 해서 먹고. 이것도 좀 납찬 아이들은 얻어먹고 나2치 미련험 사름은 얻어먹지도 못험어. 그렇게 헤.

질: 도새기 잡는 날은 어떻습니까?

답: 웨야지 잡는 날은 그게 가문잔치라고 해서이 친척들만 모이지. 친척들 모여지면은 도야지 요즘 2층민 혼 멧 키로나 웨나, 예 십육관이 멧 키로지? 그때 혼 웨야지 혼 관으로이 혼 육십키로 육칠십 키로지, 육칠십 키로 웨야지 혼 마리 잡으면은 그날 그날 아시날 웨야지 삶고 웨야지 내장, 내장을 삶아서 요만큼씩 썰어서 적꼬지에 고지에 혼 너댓점 이렇게 꿰고 꿰서 집안 어른들 나지 그거 혼 고지씩 보내고, 또, 내장 2층민 거, 제라헌 고긴 아니고, 갱 보내고 현장에 잇는 사람덜 혼 두석 점씩 나눠주고 이렇게 험어. 도야지 잡는, 도새기 잡는 날이 가문잔치, 가문잔치렌 험 건 이 가문만 친족덜만 모여진다는 거야. 의논도 좀 하고, 누구는 상객 가고 누구는 대반, 대반이라는 거 잇어, 대반 앓고. 대반이엔 험 건 에 뭐라고 표현헤야 웨나? 주인 역할 허는 거라. 신부가 오면은 신부 또래에 나이 또래 데려다가 옆이 앓아서 뭘 좀 같이 보호헤 주는 거, 보호헤 주는 사람. 신부허고 대반허고 2층민 앓는다고 앓아서 그 대반 앓은 사람이 밥도 먹으렌 헤야 밥도 먹고.

질: 새각신 장옷 입어났수과?

답: 그게 혼 동네 험나. 두 불 가진 사람이 있어, 옛날 좀 잘사는 집에는. 계난 빌려다가 입어. 빌려 입어났다가 돌려 주고. 공짜로, 값으로 주는 건 엇고 체면상 주는 사람은 있겠지, 조금 잘사는 사람은 주는 사람도 있겠지. (가마는) 그것은 공동으로 하는 게 많지, 마을에서. (옷은) 빌려 입어, 빌려 입어, 뽕 돌아가면서. 말도 신랑 타는 말도 그 동네서 예쁘고 좋은 말, 순 허고 이런 말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빌려다가.

질: 잔치 다음날은 뭐 허는 거 엇수과?

답: 다음날은 사돈잔치라고 해서이 사돈잔치라고 해서 신랑 아버지가 신부집이 간다

고. 가서 서로 맞질 큰질 하고 ‘어제 사돈님네 덕택에 행사를 무사히 지냈습니다.’ 해서 신랑아버지가 인사를 허면은 신부 아버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돈님네 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인사 나누고 그게 사돈잔치라고 했어. 경허민은 그다음에는 결혼식은 완전히 끝나는 거. 들렁 가는 거 이버진라고 해서 이바진가 이버진가? 떡행 가서. 지금 얘기하면 옛날 떡 허면은 만두 모뎀만두로 혼 이만큼 씩. 안네 잘 험다고 허는 사람은 팔이나 무수. 그거 담고 그런 거 대부분이주. 아, 돼지고기도 그 집에서 신랑집에서 잡은 돼야지 혼 다리, 컷던 적엇든 혼 다리하고, 술 한 뉼.

질: 옛날은 집에서 도새기 질랐지예?

답: 거의 다 집에서 키운 거지. 옛날은 돈이 없었으니까 살 게 없지. 보통 혼 마리, 요멘큼씩. 석 점은 고기 두 점하고 순대 잇잖아, 순대, 순대 담아근에 순대 혼 점 요멘큼. 수웨, 수웨. 두부 그때 없었어. 머릿고기는 그 가문잔치날 거의, 수웨영 베설이영. 제라헌 고기는 뒷날 잔치허는 날 손님 대접험라고 그것은 건드리질 안하고, 머릿고기하고 내장 덜 주로.

질: 술도 집에서 뉼들어났수과?

답: 술에 옛날 밀주라고 해서, 밀주라고 해서 집에서 담근 거. 준비 허는 것도 그거, 먹는 것도 그거. 계난 그런 어려운 시절도 해방 전에 해방 전에 그렇게 어려웠어. 어려웠는데 해방 후에 육이오사변 이년 후라가니까 미국에서 원조도 들어오고 미국 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잘사는 나라에서 들어왔겠지. 원조들 들어오니까 삶이 나았어. 혼 이년 후에 부터는 확실히 나았어.

질: 부주는 어떻 해났수과?

답: 부주라는 거 그땐 돈이 없었으니깐은 옛날 무신 저 쓸 그든 거 그자 우리 후제는 혼 말이라고 해서 쓸 혼 말이라고 해서 대부분 부주를 험는디 요런걸로 하나도 부주허곡. 우리 험 때는 요런 걸로 두 개, 보리쌀이나 좁쌀이나. 우리 결혼험 때 돈 부주 배랑 엇어났어. 돈 부주도 가끔 셔신테주만은. 농사가 대부분이지, 보리, 조. 쌀이라는 것은 밭 배가 좀 잇었는데 저 중산간 땅 널르고 그런 디나 목산이라고 해서이 산두 메물 이런거 목산 중산간 부락이 잘 뉼더라고. 보리하고 조, 고구마 그게 주로 식량이랐지.

<M3, 대정읍 동일리 77세>

질: 옛날 결혼험 때 어떻해났수과?

답: 옛날에는 그 결혼험 때, 우리 결혼험 때, 그전이는 우리 결혼험 때 혼꿈 전이는 무시걸 험느냐면은 결혼험 때는 이 마당에, 도고리 알아져? 도고리. 그거를 놓고 이 노라미, 노라미를 짝 페와 가지고 그, 신랑이 사서 그 도고리 우에 사민 그, 노라미를 뉼아서 저디 뉼 잇고, 뉼. 게서 그 노라미를 뉼아서 나갈 때는 올레에 신부침에 갈 때 경험 그침, 그 부락에 용인이 그 물을 잡주게, 용인이엔 혼 건 이 심부름하는 사름이지.(7 가)

돼지 ㄹ픈 것도 잡고, 뭐 이거 심부름 허는 사름. 그 사름안피 그 물을 잡아근에 해서 그 신부침까지 가서 또 신부침이 가도 그 신부침에서 또 그렇게 노라미를 빼왔어. 그 도고 리 농곡 행 거기서 이젠 상객이라고 해서 가면은 우시엔 허주게. 가면은 우선 예장을 드러 가지고 상, 상에 놔 가지고 그레 돛머리 놓고 예장을 상 우에 놓면은 그 집에서 그 침, 예장을 봐 가지고 합격을 해야. 불합격허민 결혼 못 허지. 계난 다시 써 오랑 허주 게, 그 예장을.(63 다) 다시 써 오랑 허민은 다시 써 가질 아니 허고 보통은 그디서 그냥 따시 저 뭐냐, 우시덜이 그걸 써, 글제 틀린 거던지 뭐, 잘못 쓴 거던지 그걸 수정을 해 가지고 디렷주게.(54 가)

들어가민, 들어가민 그 사모관대라고 알아? 사모관대를 쓰면은 그 사모관대에서 쓴 차 식사를 상 위에 출리지 안허여. 거기 사모관대 이디 이렇게 핀 닻은 게 있어. 이디 뒤에. 그거를 뽑지 아니행은 뽑지 아니멘은 그디서 인사를 안 허여. 어른들안피 다 인사를 해야지 신랑이. 건데 그걸 뽑아불면은 그 사모관대 침 해서 그 신부덕에 전부 인사를 허고 그거를 쓴 냥은, 것이 아주 높은 거라서 그것이, 절대 신부의 집덕에 인사를 아니해도 무 방허다. 경해서 그거 빠불면은 인사를 해야 돼고.

질: 잔칫날 밥은 어떤 밥 먹어마써?

답: 밥은 통사밥, 거 하얀 사기 그릇 통사밥이고 또 조금 뭐냐, 뭐헌 집에는 유기, 전부 유기로 해주게, 놋그릇. 그거 그걸로 전부 다 그 신랑 신부덜 또 상객 이런 사름덜은 그 놋그릇에, 대우지. 그때는이 그 뭐냐, 귀혜노니까 보통 일반 사름덜은 그 뭐냐 보리, 여기 육지광은 모르고 여기 제주도는 쌀은 귀혜 가지고 거 뭐 조금 낫고. 보리에 낫히고 보리쌀허고 쌀은 조금 놓고. 그 신랑 신부 그런 디 상객이라 그런 사름덜 쌀밥을 먹고 그 외에는 쌀밥 엇고. 다른 반찬도 벨로 엇엇주게. 김치나 허고 김치도 요새처럼 그 뭐냐 그 결부된 것이 아니고 그때는 김치가 그 과랑헌 거 그대로.

질: 도새기 잡는 날은 어떻게났수과?

답: 가문잔치 아섯날이주. 그날은 돼지를 삶으면은 그 돼지 국물에 침, 이 중간까지도 경헛주게. 몹, 몹을 놔서 돼지 국물, 돼지 삶아난 국물에, 잔칫날은 엇어, 그 아섯날. 게 그 말 그대로게 가문 권당덜만 오니까게. 동네사름 벨로, 권당덜만. 옛날은 그거주. 중간에 동네사름덜 막 오고. 부주헛 때도 그때는 부주를 돈으로 벨로 안 허고 쌀, 보리쌀이나 뭐 이렇게 해서 쌀로. 부주가 돈으로 흥곤 데는 얼마 안 뻬어, 다 곡물로. 술도 중간에 끼지는, 중간까지도 돼지고기 취급하는 사름은 도감, 술 취급하는 사름은 주감. 주감해서 막 그 뭐냐 술 흥 사름 앞에 아무리 더 달라고 해도 안 져어.(38 다) 딱 두 잔 아이면 석 잔. ㄱ딱 못 헛어. 딱 감독해 가지고 어 뭐, 술 두 잔 더. 게고 그때덜은 술 흥 잔만 더 먹젠 허민은 침 무신 백이 두 개 잇거나 헌 사름 아니민 못 먹엇어. 고긴 딱 석 점. 그리고 석 점도 어떻게냐 하면은 그 처음, 처음에 밥 먹을 때 친족덜 오지 안허여?(18 가) 친족덜 오민은 처음 밥 먹을 때는 석 점을 주고, 흥 번 먹은 밥을 두 번 먹을 때는 안 줘. 고기가 없으니까, 부족허니까. 아 그 뭐 침 여기 부자나 이런 데 가면은 어 뭐이냐 석 점을 주고 게 아이면은이 두 점, 수에라고 해서 침 순대 그거 수에, 뚝비 거 잘 사는 집은 뚝비헛저. 거 흥 번 고기를 주면 두 번은 안 져어.(53 나) 계난 나 결혼헛 때 ㄱ

지만 해도 이거 흔 오십 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 뭐냐 도감을 빌젠 허면 아주 잘허는 사람을 빌었주게. 왜 그냐면은 그 고기를 썰어서 이렇게 허면은 보여, 보여. 기술자는 경헛다고. 나도 저 서림 가서 그 찜 빌어다가 헛는다. 아주 얇게 썰주게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 집이 소님이 어느 정도 있다 참고허주게 그 도감이. 그래서 아, 요정도면 뉘헛다 해서 딱 먼저 도감이 썰어 가지고 잔치 허는 사람덜 암페 집주인 암페 이 집에는 이 정도 고기로 허쿠다 허민은 아, 거뉘 그렇게 허라 허든지 뉘 거보다 더 올리라 허든지, 느리라 허든지 해서 경허민 그거, 것도 그 뉘 **도감암페는 돈을 쥐서게?(27 라)** 무시걸로 으져 가주게. 영장 때나 잔치 때나 공정이라고 이섯어. 공정이라고 해서 돈으로 갚아야 뉘 건디 돈이 엇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이 나지 안해서?(22 다/ 25 나)** 우리집에 영장이 나질 안해서? 소상, 대상을 그 도감을 빌영 허주게. 그러면은 년을 공정을 쫓주게. 공정, 공정을 뉘 주냐면은 떡하고 또, 고기하고 술 해서 똑 ㄱ져가. 도감, 도감만 으져가는 것이 아니고 공정을 년 으져가냐면 저승웃, 웃헌 사람 허고 소림, 대림헌 사람, 도감, 또 주감 이런 사람신디 공정을 다 으져갓주게. 그래서 다 공정으로 으져가서. 돈으로 아니 허고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떡, 고기, 또 술허곡 헤 가지고. 다 ㄱ져가서, 돈은. 경허난 그때 우리 큰 후에도 그 이 동일리 이 부락만 아니고 다른 부락도 다 경헛어.

질: 신부들양 오민 신랑칩이선 어떻 헛나수과?

답: 그 계란이 말이여. 그렇게 그 계란을 하나 결혼허는 잔치칩이 그 계란을 하나 얻어 먹을라고 그렇게 그 찜 애를 써난 기억이 나 나도, 어린 때니까. 저거 흔 점 얻어 먹어시민. 그러면은 잔치에 신부 와서 상을 받으면은 그 찜 옛날말로 곤밥이엔 허주게이. 곤밥을 허면은 어떻게 신부 수까락으로 헤 가지고 손에 손 영 허면은 손에 다 흔 수까락 썩 쫓어. 거 찜 그것도 얻어 먹을라고. 거난 아주 특별헌 뺨이 잇거나 경허지 안허면 못 먹어. 거 계란 찜 하나 얻어 먹을라고 찜. 이젠 먹엄서게? 아으덜토 아이 먹어. 앳튼 그때 찜 살아나간 게 찜.

질: 결혼하기 전에 절차는 어떤게 잇수과?

답: 막펜지는 그 삼존이라고 해서 삼존. 존채백범 이렇게 써 가주게이. 시유 만약 예를 들어서 멩중동이주게이. 멩중 절 처음에 멩동을 허던지, 중동을 허던지, 계동을 허던지, 멩 중 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절기 써 가지고 삼존을 써서, 삼존이엔 말은 줄존자 아니? 그 삼존, 세 존을 써 가지고 그 찜 예를 들어서 막펜지허고 예장허고 비슷헤. 막펜지는 계난 택일, 택일헛 때 그 연서를 주면은 그디가 예를 들어서 신부가 멩월 메칠날 낳수다 경허면은 그걸 강 받아오면은 그걸 꺾고 신랑칩에서는 정시집에 가서 택일을 허주. 택일을 허면은 그 택일에 맞게 써 가지고 막펜지 ㄱ져 가사주게. 것도 예장허고 비슷헤, 비슷허주게. 아, 결혼식 끝나면은 저 뭐냐 육지처럼 어디 무슨 신혼여행 그런 건 엇엇고.

질: 결혼식 다음날은 뉘 헛나수과?

답: 그대로 뉘 그 찜 사돈대우라고 잇엇어, 사돈대우. 결혼식 뉘에, 뉘날. 사돈이, 예를 들어서 **사돈이 우리집을 올 거 아니라?(19 마)** 남자칩이도 그디 가야지, 뉘날 내지 또

뒷날. 왜 가냐면 서로 이거 집을 알자고. 중매결혼 해노니까 집을 모르거든 서로. 그니까 집을 알자고 서로 사돈 대우라고. 남자도 또 그디 가야지. 뭐 인사하고 그디서 출려논 거 있지 안허여계?(22 라) 것에 밥 식사하고, 거 그자 사돈대우라 허지. 오일 걸렸주. 겨고 치우젠 허민 뭐 오일 충분히 걸렸어. 이제 ㄹ치 예식장에 강 그 오죽 간단행 좋아게? 게 난 그 관혼상제라 해서 춤말 옛날은 관이여, 혼이여, 뭐 장이여 이렇게 육지하고 여기 제주도하고 많이 틀려. 육지 강 봤는디 이 예가 틀려. (나무 오리, 기러기) 허긴 해났어. 그 거 결혼할 때 그것을 가마, 가메에 신부 그거 이제 뭐 있지 안허여계? 혼례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신부, 신랑 절 하고 그거 허여났어. 이 침 흘기 닭은 걸로, 신랑 이~, 신부~ 무시거 잊어부런. 헛어, 해 낮어. 그것이 ㄹ만 이서 봐. 내가 혼 오십 년대까지는 허였어. 오십 년대까지는 허고 육십 년대 넘어가서 촌촌 엇어지기 시작했주. 그때는 겨고 그 몰 없어지니까 우선 차가 이서알 거 아니라게? 건디 그 차는 그때 시발택시 나온 디가 육십 년달 거라. 새마을인가, 새나라가, 그거 나도 결혼할 때 그거 탄 헛는다. 것도 대정읍에는 하나베끼 엇엇어, 하나. 비싸지, 그때 돈 얼마 준철이 모르크라. 하나 셋주게. 저디 허 상수라고 그 사름 시에 가비엇주만은 그 사름 허나. 그 후에 새나라가 무신거 나왔주. 국산차 호로. 게난 그때 도라꾸 타서 결혼헌 사름도 셔서. 거 탕 현 사름도 셔서. 차 엇어 노난 어떻 헛 거라게? 아, 몰 엇지. 겨난 그 몰 엇어진 후로. 아니 뭐 들을 거 시민 옛날 거 뭐 헛 말 싹건 옛날 걸 지금 내가 경로당에 가도 그 옛날 걸 ㄹ리치주게 사름덜안 피.(37 마) 겨니까 옛날 거 만약 모른 것 싹결랑 곱아. 오면은 나 ㄹ리쳐 주크라.

<M4, 서귀포시 상호동, 84세>



질: 결혼할 때 어떻 해났수과?

답: 몰 타서 그 나가 그때는 그 하인들이 저 보통 세 사름이랏어. 겐디 나 헛 때는 일곱 사름. 그때는 저 대개 보통 세 사름인디 오랜 집입주, 우리집은 오랜 집. 그래서 그 시절엔 상당히 토평 상호에서 일등집이지. 오랜 집이고 허니까 종손이고 허니까 사름덜이 그때 일가도 많아. 지금도 혼 백 일곱 사름인가, 지금 현재 일가도 잇는다. 겨허니까 게 이렇게 앓아서 늙은 할아버지덜이 아이 웬다 허민 헛 수가 엇어. 이렇게 허라 행. 뉘 야지도 하영 잡앗지.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이 문중이 경 뉘니까 그 외로 잔치 옛날에는 잔치 먹으레 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거든. 왜 그러냐면 오랜 집은 그 사돈덜 가지사돈덜 뭐 막 오거든. 우리집은 옛날엔 집이 네 거리랏는디 요기라. 네 거리랏는디 지금은 다 뜯어서 새로 저 세 거리 헛지, 지금은 현재. 게서 이젠 사름덜 막 오민 지금도 창고 이 집 만인 해서. 게민 그 어느절에 방드레 다 들여 놓지 못헤, 너미 하니까. 창고 그디 헤 놔서 그레 막 여자덜은 막 답아 낫지. 밥도 먹엇는지 안 먹엇는지도 모르고, 너무 사름이 많으니까.

질: 멧설에 결혼헛마씨?

답: 나 열일곱 설에 장가가시네. 열일곱 설이난게 거 뭐 요즘 ㄹ뜨민 애기지. 보난에 그때도 지금은 보민은 그 신랑신부가 만나서 손도 잡고 다니는데 그 시절엔 경 안 허고.

그 늙은이덜이, 어머니덜이 벗덜하고 누가누젠지 몰라. 집을 살피레 온 거라. 잘사는 집인가, 하효주게, 처가는. 하흔디, 아주 하효 일등이랏어. 경혜노니까 똥 풀기가 애삭했는지. 운동날이랏어, 신호 국민학교 운동날. 난 모르지 뭐, 여라이가 와서 집을 살피고 뭐, 참 고맙다고. 간 것이 어딜 갖느냐면 그 장가들 집이야. 장가들 집인디, 보니까 이만큼 출려서 돼지고기니, 소갈비니 옛날에 막 출려놓고 주는 거라. 열일곱 살이라도 그땐 당돌했어, 내가. 지금은 행편엇어도. 계난에 무슨 말 허냐면 우리 사위헛으면 막 좋겠다 헤. 아, 똥 잇수가? 아 이레 불릅서. 거기서도 아는 거 나도 짐작은 허지. 운동 구경 갖젠 경허대. 신호 학교 운동허는 날이라. 이제는 그 집이 신호학교서 멀질 안허여이. 게서 데려오라고 허대이, 그 거세기가. 마누라 똥 사름도 모르지. 막 좋은 아이 하나 왔저 경헛. 그 똥아피 말허는 거라. 문 약속날은 다 헤봐된 어떻 헐 거니? 허난 막 존 아이민 갑주 어떻 헛니까 평생 이디 살지도 못헐 거고, 가근에 계나저나. 강 보라, 강 보라. 아 이젠 막 출려노난 나 열일곱 살부터 술도 헛어. 아 이젠 술도 ㄱ져다 놓고 갈비여 운동날이난 산디 식구가 전체가 그 시절에는 먹을 게 엇어서 막 헐 땀디 하효에서 일등이랏어, 재산이. 겐디 소갈비 먹는 디가 어디 없어. 그것은 나가 막 생각허난 이제는 저 데려다가 술도 먹는 거 보곡 밥도 먹는 거 보곡 헤야겠다 그렇게 헤서 출려는 거라. 운동날이난 산디 여기서도 우리 집에서 출려 갖거든. 갈빈 엇고 돼지고긴 잇고. 그때에 빵떡 하나가 육 전헐 때라, 육 전. 게서 이젠 빵떡이 저 고급이주, 고급빵이라. 게서 이젠 빵떡이영 문 내난 먹어 가는 것이. 이젠 그디 간 잔뜩 먹고 배불리 먹고 나와가니까 아 그 마누라 똥 사름이 잘갑센 허여. 아 이젠 나 처갓집 똥 건디 알면서도 누구냐고. 웃으면서 계난 마누라 똥 사름이민 좋켄 헛주, 참 좋다고. 아 인상도 막 좋았어. 호리호리한 게 인상도 좋고. 이젠 웃어, 웃어. 나도 대개 알면서 알면서 우리 마누라 똥 사름이민 참 좋겠다만은 헛거든. 거난 또 웃음만 허는 거라.

겐디 아 이거 좀 이시난에 스삼사건 초가 똤여. 폭도덜 와서 불 부썬불고 우린 토평 소개 당 헤서 가불고 이 부락은 비엃단 말이며. 아이 똤겠다헛 난 처갓집이 갖어. 그땐 그 부락에서 다 막아이. 외부락 사름덜 들어오지 못허게끔. 어떤 청년덜이 와서 여기 저 사위 왓수가 이거라. 난 사위엔 말이 그 부락 다 소문 낫어. 난 사위도 지금까지진 아닌디. 겐 난 어디 곱았느냐? 이 방에 스렁이라고 잇어. 스렁에 우로 이렇게 열게 똤잇어. 옛날에 그디 술 담양 놔똤헛 허주, 곱짐으로 그땐 술이 발각똤면 과태료가 굉장허거든. 거 치와똤에 스렁 속에 들어가라는 거라. 흘 수 엇이 스렁 소곱에 들어가는 거라. 밥도 아침저냐, 아침 일찍이 누구 손님 오기 전이 일찍헤서 그 스렁 아래 들이쳐. 아 이눔으 거 일어낭 앓이민 똑 머리 거썬이. 그자 누웠다 일어났다라. 그자 곱음으로 스렁 트똤에 박아져서 살았지.

질: 계민 결혼은 언제 헛마썬?

답: 결혼식 십일월 이십일날 헛는디 결혼헛 살아보질 못헛어. 스건 나니까게. 스삼스건이 상당히 오래 갖어. 하효 가불고, 여자는 친정 가불고.

질: 잔치 때 음식은 뭐 헛니까?

답: 도새기 잡아근에이 그땐 돼지 고기도 많이 놓질 못헤여. 막 알롭게 이와 ㄱ치 썬

어서 케기 혼 집에 요정도 베끼 안돼여. 가문잔친허민 내장덜 잊지 안허여, 내장. 내장허고 접착벤가 무슨 거 해서 머릿고기덜 허곡 행 요만씩 허게 썰어. 고지에 다 켜여. 것이 왜 그러냐면 문중 사름 수정 세면서 고지에 켜 걸 한고지씩 다 사름 수정마다 그땐 테우대. 고기가 없을 때라 것도 없어서 먹질 못힐 때야. 곤밥으로 당추 안돼주. 반지기라고 해서 보리술에 곤술을 서져어. 거 맨 보리밥 허는 집도 이섯고. 지금도 논이 있어, 우리. 산뒤 아니고 나룩도 굉장히 좋아. 하논이라고 해서. 잔치 혼난게 살아질 거라게.

질: 잔칫날 신부 들레 가 낫지예?

답: 신부 들레 갖지. 계난 일곱 사람 든 것이 하인 일곱 사람 든 것이. 일산이라 현 것이 요만이 우산^ㄴ짜. 두사름이 물을 타도 그것을 들러. 물 이끄는 사름이. 하인이 계난 그디 가민 저 방안에 앉지도 않고 그 신랑이 들어 가민은양 구들 문에 앉아.(12 마) 양 착 지게문이거든 밀었다 닫았다 허는 요렇게 해서 둘이가 요디 앉고 요디 앉고 해서. 구들문 베끄디. 식산 안 주데. 긴 별도로 있어. 별도로 잘 맥여. ^ㄴ짜 먹질 안허지. 밥상 물려야 먹어, 그 사름넨. 선재 부채 잇잖아 부채. 그놈으로 영 막지, 막앙 갖지. 예장 봤주게. 통과해야주게. 그 가민은 저 그 하인이 그걸 해서 그땐 흥세함이라고 있어. 흥세함 우에 이렇게 놔서 걸 갖당 바찌는 거라. 경행 신랑 왓다 허민 이디 상을 놔. 이디 난간이 민 난간 우이 상을 놓민 하인이 이렇게 상우트레 예장을 놓는 거라. 노민 깨여서 봐. 지금도 나 그런 건 잘 써. 그거 일가방상에 거 문 나가 썬나난 게 혼 백장은 썬실 거라.(40 다) 게서 그 놓면은 이젠 거기서 문장에 신부 부친이 옆에 있어. 계민 싹 꺼내여이. 오케이 해야 들어가는 거라. 들어가민 대반이라고 있어. 대반은 저 아주 그 일가에 복 잇다 허는 사름, 가깝고 아 이 사름은 복잇는 사름이다 허민 그런 사름을 앓져.(7 나) 남저지. 게서 밥 먹기 전이 수꾸락으로 떠서 그 밥사발 더뜨는 거에 세수꾸락을 떠근에 상 알드레 놔.(51 라) 잡귀를 저 귀신을 와서 대접 허는 거라. 잡식인디 제사할때영 줌틀려. 밥만 해. 그 밥 곤밥이 상당이 어려울 때거든. 사름덜은 그 아이덜 띠깅허게 사거든. 계민 염치 없이 먹나고 헤도 먹을 수가 없어. 아이들은 띠깅 헤노니까. 손 영 허민 대반이 손바닥에 혼 수꾸락씩 거려 주는 거라. 여자들은 뭐 안 가. 신랑신디만 아이덜이 모여.

질: 새각신 가메 탕 읍니까?

답: 가메는 물, 물해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55 가) 계난 하인이 돈돈헌 사름 안 허민 물이 들러키면은 문제거든. 계난 물을 딱 잡으민 깰못힐 사름이라야.(5 가) 그다음부편 집이 온 거라. 집이 오민 또 신부상이라고 해서 또 있어. 또 밥을 출려놔. 세수꾸락도 안 먹었는디 배고프거든. 신부도 배고파, 신부도 배고프고, 신랑도 배고파. 아 이거 뭐 밥 한 사발은 먹어야 할 판인디 수꾸락으로 영 혼술 먹는 처행 상을 물리거든.(13 가) 그땐 계란 놔이, 숲은 거. 깨서 혼 댓 개 놔, 사라에 해서. 것도 하나베끼 못 먹어. 그렇게 귀헌 때라. 하나 먹으민은 또 그건 아주 그 대반허고 가까운 사람, 가까운 아이덜. 하나씩, 거 댓 개 안땐 거난게 나눠서 먹어해서 기냥 주민 나뉘 먹어져게. 계란 하나 입에 놓민 싹 먹어부니까. 뭐 형편 잇엇어.

질: 옷은 뭐 입었 결혼했습니까?

답: 옷은 한복계. 신부 옷은 또 장옷이라고 해서 장옷 입지. 문밖 한복 입은 우에 입는 거라. 지금도 죽으면은 장옷을 입질 거라.

질: 잔치 뒷날은 또 새각시 집이 갑니까?

답: 보통은 뒷날 인사차 가는디 잘 허는 사람은 떡을 해서 췌 양쪽에 시끈다게. 그것이 저 일가가 많은 사람은 그 떡 해간 걸 문 나눠. 침떡계. 술 혼 뵈, 뵈지고기 다리로 혼나 게서 아정 가. 계민 술이 먹당 작으면은 술 혼 뵈사 무스거 사람 혼 잔씩 먹어도. 떡을 거 엇어노니까 막 구송도 혈 때라.(2 가) 누구네 집이 잔칠 하면서도 산다허는 집이서 오는 것이 떡 혼나? 해서 구송도 허고. 아이 그뻐 가락지란 거 엇엇어.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질: 결혼할 때 할머니가 뭐 가정 완마씨?

답: 이불 두 개라. 엇어, 플레이블이라고 여름에 더플 거.(31 나) 그거지 뵈, 방석 두 개 이불 두 개 계난 여자 집에서 간단허주게. 췌는 잔치에 안허고 미리도 오는 수도 있고 잔치 넘영 오는 수도 잇어. 혼 일 년 잇당 오는 수도 잇어.

<M5, 성산읍 삼달리, 80세>

질: 결혼할 때 어떻 해난마씨?

답: 말 탄에 가십주게. 계난 그때는 남자는 몰 탕 가고, 여자는 가마 타근에 시집가고 그추룩헐 해십주. 그때 저 미시거 관복이엔 해 가지고 저 새각시 새서방 입는 옷이 따로 이십주게. 이런디 영 사모관대 쓰곡 해 가지고 경행 갑주. 빌려주는 거마씨. 아, 신발도 이 저 장화 닳은 거 그 뵈 무슨 거 십니다.(65 가) 옛날 장군덜 신는 거 잇지 안허파 예?(12 라/ 22 나) 그갑주. 계난 아 거 이름이사 다 이신 겁주만은 그거, 관복에 사모관대 잇곡. 아, 준비허는 건 혼엇이 벨로 다르지 안합니다게.

질: 신부 들레 갈 때 어떻게났수과?

답: 신부 들레 그때는 뵈 저 옛날에사 시집 장계 가젠 허민 어디 요즘궤치 어디 얼굴이나 알안 가수과?(55 나) 그자 어떻 아방이 그디 시집가렌 허민 가곡 장계가렌 허민 가곡 그자 허민 윈 허는 겁주.

질: 새각시 얼굴은 뵈 결혼했디가?

답: 아, 얼굴이엔 현 거 무신 말이파? 얼굴도 혼변도 못 봐십주. 미운 사람도 어떻아방이 가렌 허민 흘 수 엇입주, 어떻 말이파? 그거 벨 수 엇어마씨. 나 난산리계. 아 여기서 혼 두 참, 두 참은 뵈니다게. 아니 들레 가나 뵈나 시집 장계 갈 때사 몰 타고 가불민. 장계 간 후에는 그자 걸언 가고 허는 거고. 장계 가는 날은 몰 탄 갑주, 몰 탕.

그때양 들어 가렌 허민 하인덜 그 앞이 강 딱 세와뵈근에 몰 탁 시끈 거 해뵈 하인이

강 그디 가근에 집이 강 새서방 왔습시다 헤 가지고 여장을 드립시다게. 여장 드리곡 허민 거기서 이제 여장 거 뵙은에 문 앞이서 탁 낱양 그뻐 것도 그대로 안 헤마씨. 상 탁 출려낱은에 그 상 우트레 갖당 이제 탁 놓민 향불 피와농곡 행 탁 봐근에 그예장에 맞게 씨시민 들어오렌 행 들어가곡 틀리민양 글자 혼 번라도 틀리민 뉘 이거 여지 엇어마쓰. 또 돌아오라근에 쓰나 경 안 허민 경허난 옛날은양 새서방 저 우시 가는, 우시 가는 사름이엔 현 건 마치 영 가는 사름이 싯주게.(44 가) 그 사름이 영리한 사름 아니민양 강으네 새각시 집이 강으네 막 혼납니다, 혼나. 거 쓸 줄 모르곡 허민 어떻힙니까게? 그 동네 사름 빌영 쓰도 못 허곡. 게난 새서방 그 우시 가는 사름이 머리 낮은 사름이라사 갑니다게.

질: 우신 뉘 사름이나 갑니까?

답: 두 사름마씨. 외가집에서 혼 사름허곡 성편에서 혼 사름 허곡 경 갑주게. 새각시 들레 가는디 또 들러리엔 현 거 여자도. 게민 하인 경행 갑니다. 그때 예장 썩 간 거 거기 가근에 이상 엇이면은 거기서 이제 들어오렌 연락을 험니다. 게민 그때 또 들어 가는 겁주.(63 라)

질: 새각시상이나 새서방상에 맞춘 거 하영 출려줍니까?

답: 옛날엔 득다리, 득다리 허민양 독새기 농곡 허민 거 떡쟁 허민 막 거 아이덜 그거 영 문트명에 상 베리당 (2 다) 그거 옛날에사 곤밥 오죽 어루와수과게?(11 가) 득다리도 어렵곡 허민 떡당 남으민양 그거 영 가져가젠 허민 혼 수까락 얻어 먹어 보젠 게민 새각시집이선 가민 떡당 남으민 대반 앗은 사름, 대반 앗음이엔 현 건 새서방이나 새각시 가민 주인 노릇행 옆이 앗는 사름이 싯주게. 저 신랑집에선 저 거시기 여자가 앗곡.(8 가) 새각시집에서는 여자, 아 새각시집에서가 남자가 앗일 거로구나. 경허민 그 사름네가양 밥 먹다 남으민 그 대반 앗인 사름이 곤밥 그거 수까락으로 영영 땡은에 흐쉴 다 나놉. 게난 거 오죽 어루와수과? 옛날에 곤밥 혼 수까락 얻어먹젠 영 손에, 맨손에 헤 가지고, 손에 행은에 혼 수까락 떠주민 그거 막 맛종게 얻어 먹으명. 곤밥 쪼끔 힘들엇수다게. 일반 잔치 먹으레 간 사름덜 곤밥이 어디 실 말이파?(26 가) 반지기, 게 쪼쉴밥 흐쉴 허곡 그자 무시거 허주. 풋, 풋도 흐쉴 놓고, 게난 그때는양 또 일반적으로 허지 못힙니다. 사름이 게난 부젷집인 산뒤도 흐쉴 서끄곡 가난현 집인양 피조 알아집니까? 피조, 피조도 거 쪼쉴 닳은 거 허영 현 겁주.

질: 잔치날 뉘 행 먹어낱수과?

답: 그거 피쪼쉴 허민 밥이 흐쉴 쪼 헤뜨록 허니까 경헤근에 일반 잔치 먹으레 간 사름덜싯디 주고. 가문잔치날은 지금은 도새기 잡으민 그 배설덜 누게 먹읍니까?(6 라) 가문반이엔 허는 거, 가문잔치엔 허민 아시날 아시날 가민 도새기 잡으민 그거 그 창지덜 양 막 빨아뉘근에 허민 접시에 흐끔씩 농곡 또 못 온 사름덜 나신양 고쟁이에 꿩영 경행 쪼끔씩 다 돌리고. 경헤여근에 꿩이엔 현 건양 도새기 혼 마리 잡으민, 두 마리만 잡으민 큰 부젷집이라사 도새기 잡앙 허곡 게 안 허민 혼 마리 잡앙 아시날 가문잔치에는 기자 그런 저 내뉘반이엔 행 그 창지덜 행은에 그거 먹고. 내뉘반, 내부. 내뉘반이엔 현 건 이

창지보고 내부. 내뽕반이엔 현 건 창자니까 내부. 가문잔치날이엔 허는 건 그것만 먹는 거우다게. 국도 먹주, 그땐 도새기도 채 숲질 안허난에 가문잔치 날은. 숲은 디도 심니다. 도새기 숲아난 국물에 물망 썰어 넣은네 그거 행 국 행은에 도새기 피 넣은에 허민 맛줍니다, 맛좋아, 그때. 또 오죽 어루와수과? 물망이엔 현 건몹국이 물망이라고 헛어, 물망. 물맹이, 물맹이. 그것에 도새기 잡은 피 받아넣은에 피 놓곡 물맹이 놓곡 행은에 국 끌렁, 국 끌렁 먹엇주.

질: 도새긴 어떻 잡읍니까?

답: 도새긴 그 아무나 안 잡았어, 옛날에. 하인이엔 헤 가지고 저 잔칫날 그 새서방 모상 가는 사름이 몰 이끄곡 모상 가는 사름이 그사름이 하인이엔 헤 가지고양 그 사름이 잡아마씨. 아무나 안 잡았수게, 옛날에, 도새기. 계난 옛날엔 양반 상놈, 요즘 ㄱ뜨민 저 상놈이주게. 상놈이엔 헤 가지고 늦이 뺑 그 사름이 도새기 잡읍니다게. 아무나 도새기 안 잡읍니다. 그 사름 품은 뒷도름 들른 길로 주고, 뒷도름 들른 거엔 현 거양 뒷도름이엔 현 건 도새기 잡으민 또꼬망 펜에, 그쪽에 거 영 저 뒷다리 사이에 거 들릅니다게. 들르민 그거 헤근에 하인 짝이라. 맛중주, 맛중주만은 사름덜은 맛은 좋는데 그 또꼬망 펜이거엔 허니까나이 그것도 쥔 나쁜 길로 헤 가지고 하인이 가져가는 마씨, 품이엔 거예. 요만이 험니다게. 드라매영, 도새기 드라매영 나무에 드라매영 죽입니게게. 죽여근에 진 짜 옛날 헤난 거 생각허민 기시립주, 기시려. 검질로양 요즘은 그 돛주루부엔 행은에 불로라도 삭 기시린다. 옛날엔 검질. 검질행 도새기 드라매 죽으민 노력방은에 도새기 우트레 검질 영 낱 불 부쟁 거 기슬파, 터럭 기슬파. 터럭 기슬룬 다음엔, 터럭, 터럭이엔 현 거 알지양?(12 바/ 19 바) 터럭 기슬황 그 불 부썬불민 기슬 거 아니파게?(19 나/ 44 다) 계민 칼로 박박박박 긁어근에 물로 싹 씻어넣은에 이제 잡읍주게. 경험니께. 수웨, 수웨는 가문반 험 때 가문반이엔 헤 가지고 그계 가문반이엔 현 건, 계난 잔칫날에는양 가문이엔 헤 가지고 집안 식구덜만 앗양 먹는 거우다게, 집안 식구덜만. 준비허레 오랏다근에 먹는 거주. 계난 요즘은 이 침 잔치 어디 강은에 당일잔치 헤블고 허난 그거주, 옛날은 잔치 허젠 허민 삼일을 험니께. 가문잔치엔 헤 가지고 아시날 준비험 때 일가들만 모여근에 허는 게 가문잔치, 그때 그추룩 행 내부반행 먹고 잔칫날 먹곡, 뒷날은 또 그거 설르레 설거지허레 가곡, 경허당 보문 삼일 걸려마썸, 옛날에.

질: 잔치 뒷날은 뭐험니까?

답: 사둔침이 갑니께, 뒤맞이엔 행양, 뒤맞이.(30 나) 우린 이렇게 행 먹엇소 헤 가지고 이제 저 도새기 다리 저 전각으로양 큰 거 혼 다리, 혼 다리 놓곡, 쫄 혼 말 정도 놓곡, 술 놓곡 행은네 사둔잔치허레, 사둔잔치허레 가는 거라마썸, 신부침에. 그때는 저 새서방쪽에서 아방허곡 또 누게 그 새각시 누게허곡 베헤근에 ㄱ찌 갑니다게, 새각시 베헤근에. 경행 가근에 그디 강은에 지영 가. 계난 새서방 누이가 시민 누이동생이나, 또 누이동생이 엇으면 일가사름이라도 쥔 친현 사름 행은에 새각시허곡 ㄱ찌 갑니다.(38 나) 겨곡 저 새서방 아방허곡, 어뎡은 안 가고.(1가) 경행 가민 그디 강은에 이젠 도새기 저 앞다리 가정가민 그것에 행 또 그디 강은에 그거 숲곡 밥행 또 거기서 먹어 앗양은에 그계 바로 사둔잔치, 옛날엔 그추룩 사둔잔치엔 헤근에 뒷날ㄱ지. 계난 사흘이라마씨.

질: 새각시집이 갖당 다시 새서방집이도 읍니까?

답: 또 읍니다, 그날 읍니다게. 겨난 그건 바로 사둔잔치라. 알고보민 요새 보민. 겨난 그때는 완젼허민양 또 일가 사름덜이 문 모여앗입니께. 그디 모여앗이면 강은에 이제 그 저 새각시집이서가 먼쳐 갈 겨난 그디서 강 일가 사름덜 모여 앳이민 이제 그디서 서로 인사덜 허고(4 마) 또 이제 여긴 또 오민은 새서방집이서 또 일가사름덜이 보딘 켜당덜 입니다게, 보딘 켜당덜 행 모여앗양은에 허민 또 이제 오라근에 여기서 통성명허고 그 가져온 것덜 도새기 켜기도 숲곡 밥도 허곡 행 먹곡 행은에 경행. 그자 그추록 행은에 서로 이제 인사허곡 밥 행 나눠 먹곡 그추록.(62 가)

질: 결혼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잇수과?

답: 그 스주고남이엔 헤 가지고양 스주고남이엔 행은에 처음에 새각시 구허민 거기서 이제 날짜 다 적영 새각시 날짜 새각시 생년월일 적영 오라근에 또 여기 새서방 아방이 또 이제는 어디 저 택일허는 디 강 정시신디 강 택일허민 그 정시신디 강은에 스주고남 을 헤마씨. 스주고남을 행은네 좋덴 허민 허곡 나쁘덴 허민양 가고 싶어도 안 뉘여마씨. 나쁘덴 허민 안 헤. 요즘은 스주고남이 무시거 자기네. 좋민 허주만은 옛날에는 뉘 스주고남행 좋덴허민 얼굴 혼번 안 봐근에 그대로 시집가고 장계 가수게. 그런 디 하마씨.

질: 새각시신디 반지도 주곡 험니까?

답: 반진 아니고 저 치메저고리 헤줍니다, 치메저고리. 겨곡 치메저고리 헤주곡 또 새서방 저 신랑침이서는 새서방 한복 혼 벌 헤주곡 원 그거. 경허난에 또 옛날에는 여자들 시집가젠 허민 이불 잘허민, 하영 허민 두 채 경 안 허민 이불 혼 채, 소게 이불. 그거 행은에 가곡. 혼 채 아니민 두 채주. 겨난 그것도양 미시거 허민 하인이 정읍니께, 하인. 이불 혼 채, 두 채 허민 갈 때는 새서방 저 물 이경 간 하인이 이불을 정 와 마씨.(12 가) 이불 아무나 안 정와. 요즘은 무신 중간엔 차로 허난 차로 시껏주만은 하인이 전왔 주게, 이불. 새각시 집이서. 게난 켜짜이나 잘행 허는 사름은 미리 조금 갖다주는 사름도 잇고 경 안 허민 켜짜 ㄱ쁜 거라도양 그 조금 힘들어마씨. 겨난 먼 디쭈 허젠 허민 하인 도 쭈 힘들엇수다게. 구르마도 엇은 때, 옛날은 구르마도 엇곡 허난 거 오죽 무시거 헐거 짜? 갈 땐 새서방 물 이경 가곡 올 땐 이불 져앗영 오곡. 겨난 힘들엇주게 막. 아이, 이불 헤빳자양 미시거 이불 혼 채, 베개 두 개 허곡, 이불 혼 채 행은에 보따리에 쌍 져와 마씨. 게도 요즘 닙지 안헤영 소게이불이난에, 요즘사 무신 알루롱헌 거 혼쉴 행. 뉘께, 뉘께. 뉘께가 물, 물에 메웁니다, 물. 물 앞뒤, 물 두 마리 행은에 게난 물 두 마리 행은에 뉘께에 저 새각시가 타민 물 등더레 낱은에 그자 ㅁ성 읍주게. 여자덜게 오쭈미라도 ㅁ루우민 싸살 겨난 요강, 요강 그자 그때는 사기요강, 하얀 거.(31 가)

질: 잔치허젠 허민 술도 집이서 만들어놋수과?

답: 술은 저 거시기 도닥지헌 거. 도닥지헌 거 알아집니까? 도닥지엔 헌 건 저 집이서 누룩헤근에 술 만듭니다. 만들아근에 그것이 뉘민 그 고소리엔 헌 거양 고소리 헌 거 낱은에 솟테 그저 무시거 낱은에 술 만든 거 낱, 고소리 우트레 낱, 고소리에서 이제 불 숲

아가민은 고소리에서 짐 잊지 안허꽈?(22 가) 짐으로 헤 가지고 웨는 거라. 그 술이 고 소리가 이렇게 술 나오는 구멍이 딱로 이수다게. 게난 그 구멍으로 츠츠츠 흘치민 그게 술 웨는 거라마씨. 거 막 독허여. 누룩 행은에 술 만들어 넣은에 솟디 비와 농곡(49 다) 그 우이 고소리엔 현 게 이수다게. 또 고소리 우에는 또 물을 놔마씨. 물을 열두 번 곱아 놓면은 거 퍼붙어똥 새 거 놓고 행 열두 번 곱아 놓면은 술이 다 똥다는 것을 알아마씨.

<M6, 안덕면 사계리, 75세>

질: 결혼할 때 어떻게난 마씨?

답: 옛날 우리 결혼할 때사 무신 어떻허고 정허고 헐 게 이서? 침 어떻 아방 곤는 냥 가곡 오곡 허는 거난. 사흘 구경헐. 사흘, 사흘 썸 구경헐. 만난 결혼허기 전이 현 사흘 만나고 현 결혼은 현 댓달 후에 헤저실 거라.

질: 얼굴도 못 뵈 결혼헤낫데 헐게만은.

답: 우리 때사 거즘 다 뵈주 무신. 팔 구십 난 사람덜이 보기 힘들엇주. 결혼할 때 옛날 족두리. 남자는 뭇 타고. 족두리에 거 무슨 옷이엔 현다만은, 장옷이 아니주게. 사모 관대에 입는 옷은 무신 옷이엔 현다만은. 모르겠네, 똥사 입어저신디. 우리 할망은 저 열리. 그 당시야, 여자야 팔자 좋지. 가마 특허게 앓이민 돌랑돌랑돌랑. 사람이 다 너이 너이가 들리. 경허당 싹뜨민게 앓앙 쉬당 오곡.(11 나)

질: 밥은 어떤 밥 행 잔치 헤수과?

답: 그때 그 당시사 밥은 보리밥이주, 어찌똥든. 겐디 신랑 신부상에는 쌀밥이 나오고 그 당시는 계란 하나가 힘들엇어. 신부방에도 계란 잘 헤야 너댓 개, 신랑방에도 계란 너댓 개. 이런 정도로 상에 오는데 똥지고기 그튼 거는 의례건 오는 것이니까. 애들이 막, 아주 왕 손 내밀아근에 독새기 하나 도렌 허멍, 하나씩 쥐버리면은 똥 아이덜이 못 먹어. 겨난 수꾸락으로 딱딱 그치명 반씩 갈랑 게민 아이덜이 지꺼저근에 흠치 늘개 드치주. 그런 똥도 잇주게. 쌀밥 침 먹기 힘들엇어. 그 당시는 제사 때썸 웨야 밥 침 현 공기 요만은 쌀밥 제사 때나 썸 먹주, 게 안 허민은 먹기 힘들엇어. 특별헌 때 아니면은 쌀밥 먹기 힘들엇어.

질: 새각시집이 똥 주곡 현 거 헤낫수과?

답: 별로 그게 엇어. 지 생각 나민 똥 오켄 허민 왕, 데령 왕 살민 웨는 거고 아니 허켄 허민 설러볼고. 무신거 주멍 헐 말이라? 이 근간에 오니까 세상이 너무 변해서 여자도 헤영 내밀면은 남자침이서 어떻허여게? 우리 메누리 헤여게, 헤여게 허멍. 그거 준 거는 팔십년도. 아, 건데 우리는 그게 흥정이 안 똥대. 지네끼리 연애 헤붙어서 아 연애허난 그 사둔침이서가 무신 똥 ‘아무 것도 필요엇수다.’ 헤부니까 아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 엇어. 요즘은 술쩍이 돈 현 일억이나 안 가지면은 어디 똥. 장계 보내지도 못허고 일억 가정은 잔치 정도고 어디 아파트라도 하나 허젠 허민 이삼억은 또 들어서.

거난 침 아들놈 하나 풀젠해도 오억은 가져야주. 아 제주시 흥 이십 평짜리 아파트 하나 어디 십 평짜리 헤져, 오 평짜리 헤져, 경허명 흥 삼억 쥐알 거 아니?(19 다) 게 부니까 세상 좋질 안허여. 옛날식으로 제주도가 정낭을 걸영 사는 시대로 돌아와야 허지, 이제는 다 도둑놈덜이라. 어느 것 하나 사기가 영 뺨 안 뚫는 게 엇고, 다 강 보문 알게 모르게 도둑질 헤 먹는 거고. 세상이 침 좋질 안허여. 침 교회서 근듯이 말세가 언젠지 몰라도. 제주도 사람들로만 지금 살고 있다면은 제주도 발전은 조금 안 된다고 보지만은 삶은 너무 좋주게. 환경이고 뭐이고 무슨 이런 아스팔트 경 필요한 거라? 삭삭 더움이나 허고. 에이고, 에이고, 징그루와. 요즘은 또 차 하나 엇이민 아무 일도 못 허고 옛날사 무신 고 딱고딱 걸영 강 허고 걸영 간 오곡 다 헛던 거. 이제는 나나 늙이나 다 즐락허민 차, 즐락허민.

질: 새각시 들레 갈 때 어땡 험난마씨?

답: 그 우리 나론 비허면은 이전인데 신부집에 가서 말에서 내려서 신부집 마당에 들 어설 때 썸 뚫은 영 이걸 가려놔어. 뭐 부채 그게 그 당시 부채 아닌가? 입 막는 게 아니고 얼굴 가리는 거주게. 경행 홀로 눈만 베통헤근에. 지금도 함은 가져가매.(57 가) 건 데 원하는 집안이 잇고 것도 집안별로 ‘에 우리집엔 그런 함 필요가 엇어’해서 안 받는 집안도 잇고. 아 그때는 함이 가져오렌 허난 함은 가져가고. 함 안네, 광목 경허고 거기 예장사 뭐 바꿨디 낡 가는 거난 허지만은 돈 댜 폰 담으민 그거 까근에 그거 받은 사름 덜 낫이 회식비주게. 집안에 돈 가는 건 아니고. 지금으로 말 허면은 회식비, 회식비. 거 난 저기서가 상대방 여자집에 부친이 뚫든 할아버지가 뚫든 친척이 뚫든 그래도 내 뭐 줌 아노라 허는 사람이 앓아 가지고 함을 받고 거기서 이제 들어오렌 허주게 신랑을. 그 게 즉 말헤근에 그 여자 집안에 사위라든가 뭐 때에 따라서는 사위가 없으면 아덜이 중 방이라고 헤근에 안내를 허주게. 경허난 이전 들어오렌 험 댜 뚫는 들어강 예장을 갖 당 내놓는 거지. 거기서 그걸 깡 한참 검토허영 허당 보민 여기서 실수행 무신 글자 하나를 틀리게 써볼거나 뭐 허면은 그 자리서 빠꾸시켜근에 신랑이 거 고쳐 써야주. 아, 못 허는 사름인 경우는 저 뒷전으로 영 행 허민 거기서 다른 사름이 거 뭐 그렇다고 집이 강 썸 오렌 험 거라게? 옛날 풍습대로는 허무는 좋기도 허고 재미도 잇고. 이런 결혼식 ㄱ튼 거는 재미도 잇고. 한참 날이나 우청 비나 오젠 험 때 썸이는 방놈이 영 신랑을 받 아들이지 안 헤근에 한참 바깥디 내불영 비오는 날 썸은 침 우산이 다 동원뚫야 뚫고. 경헤불민 안네서들은 ‘아, 거 빨리 불러들이라, 불러들이라’ 허고. 젠디 신랑은 가고 싶어도 아 이놈의 중방이 ‘어서오십시오’를 안 허니 갈 수가 없지.(13 나) 전통혼례식으로 험 때 무사 제주도에서도 하영 헛주. 원양새 동네에서 가끔 잇엇주만은 보기 힘들어. 오십년 대 이때는 헛는다. 이 촌에는 그 당시도 말로 많이 헛는데 시내서는 차로. 겨난 지금 현 재도 저런 게 전승이 뚫 가지고 대정향교서 가끔 한번씩 허지 안 험신가? 대정 향교에서 도 그거를 헤라, 헤라 헤도 에이고 자기네들 귀찮은 생각만. 임기 끝나민 끝나는 생각만 허지 그런 저런 뚫을 하나 전승시킬라고 안 하니까 향교 이렇게 한번 구경가는 것도 취 미가 없어. 그런 전통 혼례 ㄱ튼 거라도 허무는 ‘아 오늘 누게네 이렇게 혼례식 현다, 구 경 가자.’ 이렇게라도 허주만은 갈 일이 엇어.

질: 옛날은 일례 잔치해냈던 헨게 만은.

답: 근데 그게 경 많이 현 게 아니고 뒤치닥거리까지 전부 정리허젠 허민 일주일 걸리 주. 삼일 잔치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전날 허고 당일 허고 이튿날. 이튿날 신부침이서 사둔침이 오잖아. 우시덜이 이튿날 오거든, 잔치 뒷날. 이제는 당일 어디 식당에 가민 커피숍에서라도 만났 인사허영 다음 언제 혼번 만남시다 허민 끝인데 그 당시는 경. 신랑집이서 갈 때는 당일 우시덜을 신랑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 게 부니까 걸로 끝이 나는 거고 이튿날은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게도 뭐 웨지 발 짚어지곡 행 그거야 으레건 혼 다리 둘러땡 가야주. 신랑집에서 신부집이, 신부집이선 안 가져가고. 게 출려는 디 이거 술 안주 가져와수다 영 행 내미는 거주, 무슨. 술직허니 너무 궁색헌 때거든. 아 이제도 잔치허는 디덜 다리가 오고 가는 모양이라, 이제도. 겨난 그 전례는 경 쉽게 사라지질 안험 직 허여. 게난 옛날이 존 때주게.

질: 도새기 잡는 날은 어떻 험니까?

답: 도새기 잡는 날이 주로 가문잔치날이 웨여. 그날 오전에덜 다 잡앙 농곡 삶곡 허민 집안덜 다 저녁에 와근에 저녁 식사 겸 고기반덜도. 고기가 그렇게 그 당시는 웨지고 기 백 키로 잡으면은 멧백 명 잔치를 그거 한 마리로 헛으니까 그렇게 웨지고기 혼 점 먹기가 힘들엇어. 석 점만 허여지민 종주만은 석 점까지 안 허여. 무신 헛튼 뼈다귀나 얼르면은. 옛튼 겨니까 그 당시는 우리 뭐야, 이 농촌에는 술직허니 뭐 이제는 화장실이여 벤소여 영 곤지만은 돛통이 이섯거든, 돛통. 도새기 그거 혼 마리에 아 이제 얼마 옛영 잔치 허게 웰 건디 허민 그거 혼 마리를 죽게 살게 멧영 백키로 이상 멘들어 놔야 그걸로.(54 나) 겨난 돛통이엔 현 게 이서근에 지금은 뭐 화장실에, 통에서 무슨 냄새 정신 빠진 소리덜. 사름덜이 게니까 옛어른덜 두뇌를 따라갈라 그러면은 세상에 환갑, 두 환갑을 헤도 그 두뇌는 못 따라가. 얼마나 헤야 개구리가 울챙이 때를, 울챙이가 개구리 새끼가 모른다는데 그게 아무 데서나 나오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 사름덜도 이제 막 옛날로 돌아가민 안 웨고 제주도는 혼 육십 년대 썸으로 돌아갓으민은 외지 사름덜만 제주도에 안 들어왔어도 현재 생활하는 데덜은 또 재미있고 험 건데. 세상 인심이 다 옛어져 버리고. 우리 사계는 막 이제 한 멧년 전에 젊은 층에서덜 집 절대 빌려주지 말고 이놈덜 와가면은 문제가 복잡하다, 웬 물 안 웬 물 다 쓸어가져 와근에 퍼대겨 노니까 안 좋다고. 그 집 빌려준 사름덜신디 막 옥혜, 저런 놈덜 빌려줬다고. 이젠 뭐 다 구석구석에 박아진 게 제주도 본토백이가 반 웰 건가? 반 안 웨지 안허카? 문짜 젊은 아으덜 다 나강 학교여, 직장이여 다 나강 늙은이덜만 다 풀아박아된 가난 늙은이가 경 수정이, 일 못허는 것덜만 다 들이청 가난.

질: 새각시신디 옷이라도 헤줍니까?

답: 옷이엔 현 건 의례건 혼 벌 허는 거주게, 치마 저고리, 양단 치마저고리. 그때도 그런 게 양단 치마저고리가 쥔 좋은 거엔 허주게.

질: 할머니 댁 뭐 행 와났수과?

답: 몸땡이만. 예, 이불 이제 그냥 이서. 옛날은 그런 게 잇었는데 어디 요강 방안에

좌근에 헐 일 엇텐 해근에. 요강 ㄱ튼 거를 방안에 놓기 시작 허믄은 환자라. 잠잘 때도 뒤 일어남 바끄디 나강 화장실에 강 시원히 빵 들어와야주. 요강 위에 걸터 앓앙, 거 환자나 허는 거주. 그 당시는 누게 심어가도 안 허고. 이제야 주웃주웃허당 심어도 가고 장난도 허젠덜 허곡 허주만은.

질: 이 동네선 농사는 주로 어떤 거 지어났수과?

옛날에는 보리, 감저 했는디 근래는 그계 없고 마늘허고 지슬, 브로커리, 양배추. 논도 잇주만은 논농사 짓는 사름이 지금 현재 이 앞이도 반은 논인데 농사를 안 허주. 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 몇 사름덜이 해근에 자기 양식으로 그거는 허는 사름도. 아,나도 몇 년 전까지는 해 밧주만은 안 되겠대. 뭐도 안 나오고 아예 그 돈이면 사먹자 허는데 근데 그거 허고는 달라. 돈이, 쌀은 대며 놓면 오늘도 정미소를 가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십키로 사례 돈 오만원 쟁경 가젠 허민 영영해정.

질: 죽을 뻔한 때 이서났수과?

답: 죽을 뻔 현 거 흐 뒤차레 교통사고. 아 일차에는 거 운이 좋아 가지고 운전석에 서이가 앓았는디 차가 멧 바꾸 굴러붙어도 뒤엿 사름덜은 털어지면서 다 부상도 당허고 눌러버리니까 죽기도 했는디 운전석에 앓았는데 아찔헐 한 바꾸 도는 기억까지는 나는데 그다음에는 완전 정신 잊어버려 가지고 누가 나오라, 나오라헐 나완 가만이 앓앙 보니까 일로 절로 아우성이고 켜디 멀쩡헐 거라 늡은 다 죽어 가는디. 아 경허난이 사름 멡은 되게 질 사람이로고. 이거 육년 팔년 돼불엇주만은 밧디 가단 이 농사차 완 받아부난 또 죽지 안헐 뿐 헥 살고. 사람이 살당 보민 영도 허곡 허기야 허는 거주만은게. 켜디 멡이 점점 벳더 가민 또 그런 뵈도 셔.

<M7, 애월읍 신엄리, 75세>

질: 결혼헐 때 어땡 해난마씨?

답: 어땡 어땡해, 신식으로 허주, 예식장에서. 아, 경헌 사름 여기 아무도 엇어,(65 나) 저 하르방이나. 요즘 얼마나 말 타고 현 거 육이오사변 때나 헛주, 그 후에는. 나가 스물 여섯 살, 육십육 년도. 아 우린 저기 그 예식장 엇어져 붙어서, 구업 초등학교 앞에 예식장이 잇엇는디, 사진관이 잇엇는데 거기서 헛는데. 구식, 구식헛자 우리도 어린 때니까 거 저 말 타고 뭐 허는 거 내용도 잘 모르고.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주례, 집사 다 허고 사진 찍고. 아 그거의 경우에는 지금은 거 저 예식장, 침 식당에서 헛주만은 그때는 집에서, 삼일 간. 돼지 잡는 날 하루, 동넛 잔치, 동넛 어른들 잔칫날 하루, 결혼식날 하루, 삼일 간. 돼지 잡아 가지고, 집에서, 동네 줌 그 헐 줄 아는 사름덜 해다가 고기덜 돼지, 동네 사름덜 대접허고 먹고 잡는 날. 삼일 잔치 헛어, 옛날은.

질: 도새긴 멧 마리 잡앙 잔치헐니까?

답: 그거는 집안마다 다 틀려. 우린 한 마리. 그땡 어디 외방사름덜 안 오고 다 동넛사

름덜만 허니까, 지금은 뭐 헛주만은. 또 좀 잘사는 사름덜은 혼 뒤 마리 잡는. 보통 한 백, 좀 잘사는 사름덜은 한 뒤 마리 잡고 보통은 그자 한 마리 잡아서, 옛날에는 한 마리면 충분헛거든.(39 다) 옛날에 지금처럼 사름덜 안주도 막 갖다주고 그렇지 안허고 반 놓면은 그걸로 끝.(37 가) 고기 석 집허고 뭐 조금, 순대 그튼 거. 촌에선 충분헛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한 마리면 충분헛어. 동넷 사름덜 그치 와 가지고 다 그치 수놀이 가면 서.

질: 도새긴 어떻 잡습니까?

답: 죽이는 거 모가지 끈 무꺼서 나뭇가지에 돌아매 가지고. 거문 내루와 가지고 죽으 민 내루와서 불턱 앓져 가지고, 숯 앓지듯 돌맹이 놓고 거기서 불 때 가지고 저 털, 털 불 붙여서 끄시리는 거라. 경행 그거 끄시령 물로 깨끗이 다 손질헤영 잡는 거. 내장덜 그런 걸로 헤 가지고 반, 고기 석 점에 조금 모지레른 그런 것덜 조금씩헤서 갖다가 안 주허고 그렇게 헛지. 머릿고기는 안 썼고. 머릿고기는 결혼식 때 우리 제주도 말로 문진 제라 헤 가지고 제 지낼 때, 제 지낸 다음 잔치 끝나면은 친척들 멧 사름 모여 가지고. (문진제는) 널 잔치면은 널 세백이. 지냉게 예식장으로 가는 거지.

질: 신부 들레 안갑니까?

답: 신부 데령 왕 신부집으로 강 신부집에 가서 또 거기서 또 거깃 잔치 끝나른 예식 장으로 왕 예식허는 거. 신랑허고 또 뵈고, 뭐냐 그 들러리, 부신랑 거하고, 친척들 멧 사름 사돈들안티 가서 인사하러. 함, 함. 함 가정 가. 그거 뭐 광목? 그거하고 또 예장. 누구누구, 신랑 누구누구 행. 그 내용은 우린 모르겠어. 하나까 그런가 부다 헛지. 그런 말은 들었는디 우리 헛 때는 뭐 솔직이 말헤서 우리 장게 갈 땐 그냥 갖다주면은 그냥 무주건 다 받아. 옛날에는 거 나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신랑이 말 타고 가거든. 말 타고 갔을 때 그 예장을 신부집에 갖다주면은 신부집에서 그 예장을 딱 봐. 그때는 그 아 마 구한국 시대라도 그 한문 위주로. 글자 예를 들영 신랑집에서 일부러 큰 대자 대한민 국 이렇게 헛 때 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큰 대자 밑에 탁 허민 클 태자 뉘분단 말이 여, 일부러. 신부집에 실력이 있나 없나 일부러 그렇게 찍어 가지고 갖다주면은 예를 들 영 거기서 딱 봐서 이거 틀렸다 허민 딱 다시 빠꾸허면은 옛날은 그랬대. ‘지필묵 가져오 라’ 허민 신랑이 말 우에 앓아둬서 딱딱 썩 허고 일부러 글자 하나를 획자를 하나 빼 가지고 갖다주는 거라, 테스트 헛라고. 케민 거기서 또 몰라서 그냥 받아볼면은 되는데 알 아 가지고 글자 틀렸다 허민 다시 가져오라 허민 신랑이 그만큼 알아야 그것도 허는 거 라. 경행 예를 들영 큰 대자 밑에 탁 클 태자거든. 딱 다시 씨근에 점하나 톱 찍영 딱 가져가른 ‘아, 신랑 이정도면 뵈다’ 이런 식으로. 그 집안에. 거기서 거그라 뭐 청객이라, 중방, 중방. 들어강 앓앙 그냥. 아, 우린 완전 지금 식이라, 지금 식이나 마찬가지로.

질: 새서방상엔 뭐 맛존거 하영 올라옵니까?

답: 아, 생선도 올라오고 돼지 머린 안 올라와. 돼지고기 핫튼 여러가지 종류, 좋은 걸 로. 닭도 뭐 올라 오는 디도 잇고 안 올라오는 디도 잇고 거 집안마다 다 틀리니까. 모르 겠어, 그때 득 왔는지 안 왔는지 나 거 뭐 알안나? 국은 생선국, 옥돔. (옥돔) 제주도 말

로 생선, 것도 집안마다 다 틀리드라고. 미역 놓는디도 잇고 또 저 무우 놓는 디도.

아 케난 거기서 끝나면은 그 시간 뉘 가면은 이제 사돈연맹 험다고 헤 가지고 저 여기 신랑 측에서 간 사름덜 사돈덜이거든. 게른 또 이제 신부측에서 거기 뉘 친척덜 와 가지고 상견회, 상견회. 거 끝나면은 예식장으로 오는 거주. 상견회 끝날 예식장으로 왕 예식 끝나면은 사진 찍고 걸로 끝. 게 예식장에 와서 사진 찍고, 혼인 선서 딱 끝나곡 허른 사진 찍고. 경혜근에 신랑집으로 신부집 저 손님덜 데령왕 방 하나 별도로 딱 행 사돈덜 연맹 험다고. 그렇지 여기서 간 사름덜, 이제 못 오는 사름덜은 거기서 허고 또 여기 신랑집이 와서 거기서 온 사름은 또 여기서 신부집이 안 간 사름덜. 모여 가지고 뉘 허다가 시간 다 뉘른 저 '우리 딸 잘 데령 살아줍서.' 허여근에 인사혜동 가부는 거주. 신부 혼자만 남는 거지.

질: 신부가 시집올 때 뉘 가정와났수과?

답: 그때는 옷장, 또 뉘 그릇 ㄱ튼 거. 그뉘 테레빈 엇은 때니까 테레빈 안 허고 그런 거. 신랑은 반지, 반지허고 그때는 뉘 잘살앗든 못살앗든 반지, 좀 잘사는 집은 돈 수가 많으게 허곡 엇은 때는 그자 형식적으로라도, 금반지. 한 돈짜린 안 허고 보통 석 돈 헛지, 하나짜리. 헤 줘야주게. 건 헤 권. 거 옷이나 뉘 헤 주긴 헤 주는 모양이더라고. 난 모르겠어.

질: 부주는 어떻헤났수과?

답: 그때 그때 돈 만 원이른 커서. 아니 신랑 신부덜. 잔치 먹으레 온 사름덜은 혼 오천 원, 오천 원이른 커실 거라. 만 원은 저 친척. 예를 들영 친척이 신부안티 주는 거, 만 원이나 혼 멧만 원씩 주고 결혼식집에 잔치 먹으레 온 사름덜은 만원 미만이라. 게 요런 거는 저 중산간 가서 헤야지. 해변에는 그때도 중산간허고 해변허고 차이가 컷다고. 완전 그때 저 웃드리라고 우리 제주도 말로이, 상투 들고 수염들 다 행. 우리 신업은 그런 사름이 엇어, 이 해변에는. 그만큼 수준 차이가 많았어. 한 오십, 육십 년대 이전에. 보진 봤지만은 그 쫓아가서 보진 못허고 예를 들어 동네사름덜 결혼식 험 때 신랑신부, 신랑덜 말 타고 가는 거 그것만 봤지 뉘,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런 뉘도 잇엇긴 잇엇는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 헛는지 안헛는지 신경 안 써부난.

질: 사돈잔치도 헤났수과?

답: 사돈집이 아니고 처가집이 신랑신부만 처갓집에 강, 처갓집에 강, 강 처갓집 친척들안티 인사허고 가문잔치라 헤 가지고 거기서 또, 신랑 왓젠 행 가문잔치 그 집안에서 친척들끼리만. 신랑 가야, 결혼식 전 날도 거기도 허는데, 그때는 신랑이 엇은 때거든, 결혼 안 험 때니까. 신랑이 신부 데려갓다가 친정집에 마지막으로 인사허레 온 걸. 친척들만 모여 가지고. 아, 가져가는 거 엇어. 건 왜냐면 결혼식 날, 결혼식 날, 신부집에 뉘 가정 가. 뉘지고기 ㄱ튼 거, 사시미 ㄱ튼 거, 바구니에 쌍. 나 잘 몰라. 젊은 사름이난 몰라. 우리 하르방 와서민 잘 알 건디 오늘 안 왓네.

질: 이바지나 신부집이 뉘 주는 것도 헤났수과?

답: 그때는 그런 거 없어. 우리 결혼할 때 그런 것 없어. 아덜 풀 땀 뭉 집안마다 것도 뭉, 잘사는 집, 못사는 집,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왜냐면 자기네끼리 알아 가지고 거기서도 헤 오지 안허곡 우리도 헤 가지 안 헐 걸로 허든 딱 걸로 끝. 거 약속허기 따라.

질: 잔칫날 밤인 뭉 헤낫수과?

답: 동넷 사름덜 와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신랑, 신랑 일부러 매달아, 발 무껴 가지고 매달아 가지고 막 일부러 신부 뭉 헐랴고이. 막 뜨리민 신부가 스정허고 뭉 허든 또 예를 들엉, 돈 ㄱ튼 거라도 혼 얼마 딱 행 ‘우리 신랑 봐주시오.’ 행 허든 두 번 때릴 거 한 번만 딱 때령 이거 돈이 적다 허든 또 신부가 또 갖다주곡. 계난 그 친구덜이 신부안 티 돈 뜯어낼라고 술 사먹을 거. 그거 행 신부덜 막 못견디게 헐라고 신랑 잘 풀어주지 안허여. 돈이나 많이 갖다주민 장난으로 기분 조민 풀어주고 그렇지 안허민 더 오래 끌어. 그런 풍습이 이서났어. 우리 헐 때는 아니고 그전이. 우리 헐 때도 모르지 건 지방마다 다 틀리니까 헛을런지도 모르지만 나는 안 헛어.

질: 중매 결혼헤수과, 연애 결혼헤수과?

답: 중매, 저 우에 애월읍 봉성. 차, 버스. 신랑 차 벨도로 없어. 버스에 딱 탕 갖어. 그때도 옛날이주게. 거기 강 거 헤근에 끝낭 일로 올 땐 신부 측에 손님들도 탭고 여기서 간 사람덜도 탭곡 행 예식장에 왕 예식 끝나면은 또 신랑집에 와 가지고 또 뭉 음식 대 접허고 행 끝나면은 신부측에서 온 사름덜 버스로 데려다 줘야돼. 누구 말적 아니라도 인터뷰 이런 거 헐 줄 알아시민 그런 거 어디 강 잘 들엉 나들걸. 신경 안 쓰니까 몰라. 우리도 뭉 신식으로 헐 거난, 몰라. 아, 원래가 여기. (질: 할아버진 육지도 나간 살곡 헤 납디가?) 나? 난 군대생활 헐 완 군대생활 8년.(29 다) 장기 복무 헐 완, 리에 완에 리에 일 줌 보다가.

<M8, 제주시 건입동, 84세>

질: 사모님은 어떻 만난마씨?

답: 산책헐 영 오명 보난 그 여자가 그냥 물 길언 지언 올라가데. 어디 어느 집드레 가는고 영 보난 지금 노동의원 앞이 공사하는 디, 이디 이제 우리 처갓집이라. 일로 영 들어완 고만 산 보난 물 비우는 소리가 풍풍풍 향아리에 물 비우는 소리 나더라고. ‘집이 여기인가보다.’ 다음날도 땡기단 보민 글로 물 길어서 가고. 하루는 내가 들어 간 “실례합니다.” 누구시냐고 우리 장모가. “난 이제야 저 이 동네 와서 사는 사름이고, 군대에서 이제야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디 젊은 청년덜 잇으면 친구 할려고 인사차 들렀습니다.” 우리 아덜이 둘이 잇긴 잇는데 하나는 큰아덜은 저쪽에 살고 작은 아덜은 나허고 ㄱ치 산다고. 어느 날은 술안주 허나 가지고 그때 저 ‘부란디’라고 허는 술 나왔어. 부란디 소준데. 공구병이라고 하든 그 맥주병보다는 크고 뱀병보다는 작은 거. 부란디 부란디 헤시니깐 술 이름이여. 거 한 병 가지고 들어갓지, 인사하고, 내일 또 가고,

모래 또 가고. 세 번째 딱 가서 술 먹으면서 처남덜보고, 그땐 처남이 아니지. 집사람이 전씨거든. “전형네 혹시 내가 여기를 자주 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겠다고. “보니까 이 집에 딸도 잇는 것 마타서 전형네는 누이 동생인지 모르겠습시다마는 제가 장가를 들면 처남매부가 될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했어. 아이고 우리 장모가 옆방에 앓았다가 문을 벽 열면서 우리, 일 없다고 그렇게 나무래지 말라고, 어디 쟁패 마튼 놈이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장모가 막 분개해서 사람 없다고 그렇게 나무래지 말라고. 저도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어찌다가 나 신분을 보장해 줄 사람이 없거든. 내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해볼고 친구 따라서 내가 막 텅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러 텅진 것도 아니고. 또 학교 안 다니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 게니까 낯선 사람이야. 낯선 사람이 가니까 끝내 자기를 없이 여긴다고 해서 장모가, 굉장히 성격이 반듯한 어른이거든. 그래서 “저도 절대 나쁜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낮익어서 몇 번째 가서 집사람 막 목 쉬고 결혼 안 한다고. 결혼 아니 하는 것도 잇지만 준비도 전혀 안 된 거지. 이것들이 없으니까, 그 막 목이 바짝 쉬어볼고 집사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택일기, 택일 해서 택일기를 가지고 딱 가서 본인을 만난 거야, 본인. 우리 처남 마누라, 처남 다 만나고.

택일을 보니까 십이일 만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막 목 쉬어볼고 그냥 뭐 난리여, 먹을 것도 변변이 없는데 결혼이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것은 더프는 이불 한 채 하고 깔아 눕는 요 하나허고 그거면 된다. 그거면 내 만족합니다. 딸만 주십시오.”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택일을 보니까 택일 잘 하는 데 간 택일 보니까 이날 결혼을 하면은 평생동안 좋고 이날로 안 해면 결혼 날짜가 없다고 허는 거야.

이게 평생에 켈 좋은 날로 하는데 이날을, 딸을 게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날을 저 딸을 저 결혼 시기라고.(42 다) 그 말엔 아무도 준비가 안 된 거에 대답을 못헌 거야. 그래서 강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요 가까운 디 노동의원 앞이 방엿 공장이 이서났어. 그 방에공장 앞집이 딸 결혼 허기로 해수다. 게난 우리 아버지가 ‘저 가까운 디 딸이 이서났구나이’ 우리아버지는 나이가 드시니까 영 멀리 가서 멀리서 보는 거. 며느리 험다고 하니까 어떤 딸인지 자꾸 가서 내다 보는 거라. 결혼을 딱 허게 됐는데, 그니까 그 누구 보증해 주는 사람이 없잖여. 그때 요디 그 건설회사 텅기는 사람 조그만 사람이 잇길래, “어 거 형님이라도 날 좀 보증을 서시오. 나 나쁜 놈 아니오.” 겐 “아 이 사람 뭐 얌전헌 거 같수다”고 혼 번 강 경 얘기허고. 그래서 그럭저럭 허다 보니까 닥쳐분 거야. 근데 이제 준비 안 됐거든, 돈이. 건디 그때는 관덕정 쪽에 저 중앙예식장이 하나 잇엇어. 잇엇는데 제주도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 거기서 한 게 아니. 거기 가서 “돈 얼마 예식장 값이 얼마우파?” 허니까 스천오백 원이렌. 스천오백 원, 혼 번 결혼 하느디. 게서 또 물엇다고. 그 왜 물어냐면 구화폐, 신화폐가 잇거든, 그때. 화폐개혁헌 얼마 안됐단 말이여. “구화폐는 얼마우파?”허니까 “아 첨 아까 나 잘못 곱아전.” 스만오천 원이래는 거야. 한 번 결혼하는데. 게니까 나는 염두도 못 내는 거. 이젠 거기서 결혼 못하겠다 말이여. 돈이 없으니까. 게서 고양부 삼성혈 여기를 혼번 가봐야지 그 가서 보니까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관리자를 찾아간 “내 고씨니까 여기서 결혼을 할라고 하는데 허가 됩니까?” 하니까 막 “경허문 도 트는 거주 뭐.”

그러면 “좋습니다. 돈 얼마 냅니까?” 하니까 거 조상 모신 앞에니까 향초료 쫓불 킬

돈, 그 초 한봉 값이면은 된다. 게니까 간 보니까 초 한 봉에 삼백오십 원이여. 오백 원 딱 내니까 거기 그 회사자 명단에 탁 올려주고. 오백 원을 낸 거야. 게 이젠 탁 내고 예식장 빌어 놓고, 그 당시에는 신랑 곁에 ㄱ치 도와주는 사람이, 요즘은 뭐 뭐 무신 신랑? 그게 대단히 잘못 된 거라. 그저 들러리, 들러린 이제우리 팔촌형, “나 들러리 섭서.” 허 난 “경 허주.”헨 결혼하는데 차는 우선 그때 버스 하나 비는 것이 좋았헨, 친구 또 짚 차 하나 있으니까 신랑 신부 탈 건 허고 겐 삼성혈에 간 그 마당에서 주례도 집안어른이지. 주례 사고. 주례 들이 샀어. 하도 웃겨부니까 우스웬 주례 못허켄.

“주례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 줘서. 나 화장실 갔당 오크메, 오줌 누러 갔다 오켄.” 경 허난 신랑이 경허는 놈이 없다는 거야. 겐 나 갔다 오니까 남자가 오줌 마려울 때 여자는 오줌 안 마려우냐고 신부도 오줌 누고. 경허난 그때 어느 여중, 저 여고 교장선생이 또 주례를 헤짚어. 웃으멍 마당에서 뭐.

질: 옷은 어떤 옷 입었 결혼헤난 마씨?

답: 전통도 현대도 아닌 거여, 없으니까. 보통 양복 입는 거여.

여자는 면사포 딱 씌우고. 옷은 예식복 입었. 그건 여자가 빌려온 거지 나가 뭐.

게니까 자기 건 자기가 준비허기로 헨지. 신식도 아니고 구식도 아니고 전통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 내가 그런 것이 불만이란 말이야. 무엇을 전통적인 거 하나만 이라도 지킬 줄 알아야지, 나라가. 뭐 헨느냐 말이여? 지금 현재도 없는 거야. 지금도 전통헌데라고 해서 무슨 닭 울리고 어떻 허고 허는 게 형식이진 진짜 전통적인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게니까 전통도 과거도 현재도 없는 나라야, 지금.

젠디 나는 집에도 예식장, 예식혈 만한 모든 것이 갖춰지질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 속에 그 조상의 영전 앞에서 마음 속에는 명상허는 거고. 제주 고씨지. 대한민국에 제주 고씨 아닌 것이 이서? 찾아봐. 없어, 없어.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조상님 위패 앞에서 결혼한다는 정신이 잇는 거여. 게니까 그때 사진덜이 신부는 그냥 면사포 쓴 대로 이 소나무 저 소나무 간덜 여기저기 땡기멍 카메라 촬영들 막 헤놓니까 영화 촬영한 것처럼 그렇게 웬 거야.

질: 결혼은 몇 년에 헨 거마씨?

답: 오십구 년돈가 오십팔 년인가? 몰라 그런 거 난 호적에 원나이에 서겨부니까. 그런데 호 적 나이로 썼단 말이야. 사주팔자 보는 것은 원나이에 헨주만은.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삼성혈 소낭밭 가운데 간 결혼을 허니까 사람들이 일로 절로 소문이 난 거야. 아무개는 그 무신 뜻에서 거기서 헨는지, 자꾸 남의 말은 하기 좋다고 막 하는 거야. 잘헨다는 사름, 못헨다는 사름 많아. 근데 그때 내가 향초료를 오백 원을 갖다 드렸는데 그날 잔칫날 저녁에 오백원을 부조해서 우리집에 왔더라고, 그분이 그 관리하는 그분이. 아, 내가 잊지를 앓거든. 오백 원 내가 향초료를 냈는데. 그니까 오백 원 향초료 낸 것은 공금이 되거든, 근데 자기 돈 오백 원을 부조를 한 것은 핑장히. 요섯 돈이면은 한 오만 원? 그때 사만오천 원이 예식장비니까. 그래서 고마운, 그분 돌아가셨지만 마음적으로 그분을 잊지 안 헤, 감사. 그렇게 해서 이제결혼헨는데.

질: 집에서 잔치 안헤수과?

답: 잔치했지. 집에서는 돛 잡고게 잔치덜 헨. 가문잔치라고 하는 것은, 집가자 월라문자 집안 식구를 말하는 거거든. 가문이라고 허는 거는 일가 친척들 중에도 가까운 친족들 스촌 오촌 뭐 이런 사름덜 집에 오십서, 의논하는 거지. 널 행사를 어떻게 하고 누구는 중방을 마트고 누구는 우시 가고 누구는 이런 것을 의논할려고 하니까 웨야지 족발이라든지 걸 아강발이라고 해. 아강발이라든가 그런 걸 삶아 놓고, 고기도 찌꺼기덜 좀 모아 놓고, 술안주 하면서 이렇게 뭐 노력 분담허는 거여. 그래서 그런 것을 남 욱하지 안허게 할라고 하든 의논, 사전에 계획을 짜는 거야. 그런 것이 가문잔치야. 훌륭한 정신덜이야, 옛날 헨 거.

질: 돼지는 멧 마리 잡앙 헨마씨?

답: 웨야지 우린 한 마리. 여러 마리 할 수가 없지. 전부 아껴야 하니까 요즘은 열다섯 마리 스무 마리 하는데 그 시절은 그 한 마리도 절약 절약해서 그거 이만은 큰 헨 점이크게 썰어도 좋지만은 인원이 많을 것 ㄱ트니까 서로 조금 조금 느나 먹는 정신이거든.

질: 신부 집에 가져 가는 건 뭐 엇어마씨?

답: 가져가는 거, 신부집이 가는 것이 그 이바지라고 해서, 이바지하고 거 이제그것도 하나의 위안품인데 잔치를 준비할라고 하니 여러 가지로 괴롭다고. 거니까 웨야지 다리 하나 허고, 돛 한 마리 가져 가는 디도 이서. 돛 헨 마리에 술 헨 허벅 질어가는 디도 있지만 우린 그렇게 못헨어, 가난하니까.(46 가) 웨야지 다리 하나에 술 두 텨가 해서 계란. 전날 가서 “약소하지만 성의를 다하니까 술안주 하십시오.” 허든, 그날 그 전날 일헌 사람들이 나와서 술 한잔 하고 “이거 새서방 집이서 뭐 가져온 거난 헨 잔덜 허주.” 이렇게 해서 것도 위안품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바지. 그 옛날은 전집으로 헨 짐 지어가는 집안이 잇고 아까처럼 돼지 다리 하나 정도 해서 뭐 뭐 조금 갖춰서 가져 가는 디가 잇고 그 옛날도 사람이 사는 것은 천층 만층이거든. 그 자기 분수에 알맞게 하는 사람들이 잇어.

근데 그 이제 잔치하는 날은 흥세함이라고, 흥세라 하는 건 붉을 흥자, 흥포거든. 흥포로 싸서 지금도 허는데 지금은 허는 사람은 하고 아니 허는 사람은 안 하는데, 지금은 봉투 헨 장 행 그 속에 돈 얼마 넣 케우렁 형식하는 거.

<M9, 조천읍 신촌리, 82세>

질: 멧 살에 결혼헨마씨?

답: 열일곱 설 때 십칠 세 나이로 육이오 동란 당시에 혈사지원을 해서 군대에 출전을 헨습니다게. 열일곱 때 군대에 들어가서 입대해 가지고 육이오 전쟁을 해 가지고 침 구사일생으로 살아 나오고 아까 앞에 무공훈장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그래 가지고 침. 결혼식에는 저는 군대 열일곱 설에 가 가지고 스무 살 때다가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오니까 그때는 가면은 전사 당해볼고 전사 당해볼고 경허니까 할아버지덜이 나가 썰 장손이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시켜 가지고 후손이라도 하나 보자 해 가지고

고 휴가 오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 그래 가지고 결혼 당시는 여기는 말, 말에 신랑을 타고 또 이제 하인이라고 잊었어, 하인. 하인이 가마, 신부 태우는 가마를 들고 직접적으로 그냥 동네 결혼식을 그냥 가마 들고 이제 말을 타 가지고 하인이 말을 이끌어 가지고 신부침으로 모셔 가는 거라. 계민 뒤에는 이제 신부 태울 가마를 이제 들고 따라 가 가지고 허면은 신부침이 가면은 에~ 억새, 억새로 엮어 가지고 느람지라고 해 가지고 딱 헌 것이 있어요. 경허민 그 신부침이는 올레로부터 싹 마당까지 그것을 딱 깔면은 이제 신랑이 이제 앞에 이러끔 막으는 걸로 막아 가지고 막는 게 있어요. 이름은 몰르는데 것이 뭘 패라고 해 가지고 이러끔 가리는 것이 있어요. 알론 걸로 해서 이러끔 똥골똥골 영해서 짝르르하게 퍼서 얼굴을 딱 막아 가지고 들어 가 가지고 그 신부침이 들어가고 이렇게 허는 식으로.

질: 옷은 뭐 입었 결혼혜난마씨?

답: 옷은 거 저 우리 왕덜이 그 도복, 그런 거. 이디 쓰고 그 옛날 구식으로 허는 거 데레비에 거 나오는 구식 결혼식 허는 것이 과거에 혜난 결혼식 복장이예요. 가마도 보관해 가지고 창고에 놔두고, 동별로. 동별로 그 동에다가 가마 놓는 디가 잇고 신랑 옷덜 잇는 박스가 이서 가지고 박스에 보관했다가 이제 어느 집이 잔치 햄젠 허민은 동장이민 동장침이 가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빌려다가 입고 결혼식을 헛어. 가마는 두 명 앞에 혼 사름 뒤에 혼 사름 해서 딱 허게 놔 가지고 끼워 가지고 손잡이. 먼 경우는 뭐 그때는 교통이 차가 없는 시대라노니까 먼 데라도 이렇게 걸어 아정 가고 그러끔. 게 난 중방이 잇쥬, 중방. 중방이 이서 가지고 안내를 싹 신부집이서 이러끔 허면은 중방이 들어가지. 가지고 가는 건 이불포, 신부는 신랑집으로 아이, 다른 이불 포들을 싹령 그저 하인들이 지고 신랑집으로 오고(7 다) 신랑침이선 아무것도 아이 가정가.

질: 함도 안 가정 갑니까?

답: 함, 흥세함이라고 그 지금도 함덜을 허는 디가 있어서 멧사름 건 지금도 써줘요. 문어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즉 계약서라. 과거에는 다른 그 말도 풀면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서를 써 가지고 매도를 허는디 소위 인간으로써 딸 자식을, 게난 신부침이서 요청허는 거라. 왜 우리가 신부를 말이야 어릴 때부터 한 이십대까지 키와 가지고 당신네 집이 주는데 무의미하게 줄 수가 있는냐 해서 거 계약서라, 문어장이. 뭐 김해 김씨 선생님 입납 해 가지고 딱 봉투에 써 가지고 이러끔 해서 문어장을 속에 써 가지고 이제 귀헌 자식을 이제 당신네 집이 이러끔 기혼을 허고 있다 해 가지고 써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신부집더레 이제 가서 함 들러 가지고 계민 들어가면은 이제 집안에서 쥬 그 에 유식헌 문장을 대표로 해서 함을 들렁 가는 거라. 함을 들렁 가서 허면 신부집에서는 이 입구에다가 팽풍을 쳐 가지고(34 가) 상을 딱 설상행 놔두면은 이제 신부침에 집사가 있어요. 집사가 있으면은 집사가 이러끔 딱 해서 신랑집에서 들어와 가지고 허면은 그 입구에다가 이러끔 들러 가지고 허면은 죽은 상을 놔요, 큰 상 놓고. 계민 죽은 상더레 이러끔 해서 딱 허게 신부침에 그 집사가 이러끔 행 상을 영 들르면은 상 우터레 딱허게 놔 가지고 이제는 확인을 허는 거라. 게난 하집사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 문어장이 한자라도 뜯리면은 바꾸를 시켜 가지고 새로 써오라 이러끔 해 가지고 보내났어요. 그러

기 때문에 이 신랑집이서는 그 신부집에서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문장을 함을 들렁, 함 허젠 허민 막 글류와. 계난 나도 많이 갖는디 놈의 집이까지 가났어. 빌어서, 가서 답변을 할 사람이, 그래서 빌어 가지고 나도 놈의 집이까지 함을 들러서 멧 곤데 멧겨난디 집안에는 나가 총 또 함 허는 사름은 글류와 가지고 재혼헌 사름도 아이 뉘고 자식을 잘나 가지고 한번에 이런 자라나는 그런 분을 집안에서도 뽑아 가지고 함을 들고 가게끔 했어. 함을 딱 허게 놔 가지고 이제 요즘은 그냥 이러큼 허면은 함 열어 가지고 이시면은 이러큼 폐와 가지고 이제는 뒤에서 부모님이 잇당 팽풍 뒤에서 이러큼 해서 딱 확인 해 가지고 이제 독독해 가지고 상드레 올려 가지고 그거 끝나면 이제 신랑이 방으로 들어오고. 과거에는 시랑목이라고 해 가지고 왜 시랑목을 두 필을 놓느냐면 애기 나면 애기살지성귀, 살지성귀 그걸로 똑똑 졸라 가지고 살지성귀 딱허게 끼와 가지고 허는데 그 풍속이 지금도 살지성귀 헐라고 해서 시랑목 담아요. 요즘은 또 한 이십만 원 돈을 함 소곱에. 예전에는 돈 ㄱ쁜 건 잇었는데 근간에 와서 돈 담은 식이 이제 나온 거라.(4 나) 봉투에 이십만 원 돈을 속에 놔 가지고.

질: 사돈잔치는 어떻 허는 거꽈?

답: 결혼이 끝나면은 끝나면은 이제 신부집이 인사차로 가요, 사돈네 집이 인사차로 갈 땐 뉘지 다리 한 다리 놓고, 술 놓고, 쌀 놓고 이러큼 해 가지고 싸 앓져 가지고 신부집이 가면 또 신부집에서 신랑집더레 싸앗정 또. 결혼식 끝난 다음, 뉘날. 또 뉘날 이쪽으로 신랑집으로 오죠. 계민 사돈끼리 사돈연맹을 허는 거라. 사돈잔치가 그거. 계난 요즘도 근간에 이제 식당에 가면은 사돈연맹 방을 출린다 말이여. 이제 그것도 이제 잊어져 불었어. 식당에서 잊어져 불어 가지고 그것도 출리젠 허면 거 혼 칠팔십만 원이 소요 뉘단 말이여, 상 두 개 출리면. 지금도 허는 디가 잇긴 잇는디 식당에도 상객상 방이라고 빌어 가지고 예약해 가지고 출려 가지고 허는 디가 잇는디 요즘은 그냥 사돈연맹도 식당에 강 행 일반식사영 ㄱ찌 앓자근에 해 부니까 사전에 상견회덜을 해 부니까 결혼허기 전에 사돈님덜 다방에설 만나든지 식당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거기서 식사를 허는 것이 이제 그것이 상견회라고 해 가지고 끝나 부는 것이고.

질: 신부집이 가정가는 건 뉘 잊어났수꽈?

답: 계난 가져가는 것이 뉘다리허고 쌀허고 술 혼 뉘허고 담아 가지고 계난 혼꺼번에 갈 때 이제 신부 우시 여저 우시가 간단 말이여. 남저우시도 가곡 여저우시도 가는디 포따리에 바구니해서 그걸 놔 가지고 혼꺼번에 포따리로 싸서 차에 실러 가지고 사돈집이 가져간단 말이여. 거난 것이 함이 붉은 색허고 파란색, 그러큼 해 가지고 그걸 쉼어. 함을 딱 해서 상하를 구분해야 하니까 상하를 구분해 가지고 딱 하면은 포따리로 딱 함을 싸 가지고. 과거에는 가시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를 지역에 혼 두 군데가 있어서 그걸 빌어다가 빈들빈들헌 나무 요즘 퀘덜 옛날 그 가시나무로 헌 퀘덜 막 사 가지고 걸 따까 가지고 집에 침 놓는 집이 있어요. 퀘덜 좋은 퀘덜은. 그런 나무로 빈들빈들헌 나무로 짜 잇는 와꾸를 짜잇는 두경까지 다 빌어다가 해 나면은 또 그 이후에 갖다 드리곡 허명 가시나무로 멘든 것에 허는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잊어 노니까 시장에 가서 나이롱 바구니 두경 잇는 거 사다근에 경허민 게서 포따리도 풀아주민 포따리로 이제 삼각형으로

막 엮어. 요 정도 엮어근에 딱 해서 허면은 창호지 저 끈어 가지고 뱅뱅뱅뱅해서 풀로 딱 부짱 그래서 여기에 상이라고 딱 썩 표시해근에 함 영 들르면은 영 우이 딱 꽃 모양으로 끄트머리는 허게.

신부침에 들어갈 때는 뭐 마찬가지로 뭐 별 것이 없어. 그날덜 신부방이 잇고 신랑방이 있으니까 신부방에는 집에 펑풍 폐와와 가지고 이제 그날을 보레 간 때 택일을 할 때 신부는 어느 방에다가 어느 방향으로 앉이라고 다 택일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막은방으로는 못 앉는다허민 여기 앉일 건디 여기는 막은 방이다 허민 요쪽으로 돌려 앉져근에 신부방에 저러끔 장치를 해근에 유도리를 허주게. 겨민 이제 신부상을 별도로 다 출령 신부 혼 사람만 먹고 신부 우시덜 온 디는 신부 우시덜 상 출려 가지고 신부방에는 신부 우시 온 사람덜이 다 앉고. 신랑 온 때는 중방이, 신랑 집에 오면은 혼쫄 저 그 집안에서 여성이 젊은 여성이 다 해주지, 남자침에서.

질: 새각신 뭐 가정 읍니까?

답: 겨난 간단해여, 이불 뿐이라. 이불 해서 포따리에 싸가서 요강 ㄱ뜨거 이런 가구 ㄱ뜨 거 엇엇고, 그자 요강, 요강허고 세수대야 겨난 그때는 다 ㄴ뜨긔으로 해서 그런 거 해 가지고 이제 가곡 이불 포따리는 그자 하나 이불 해 가지고 싸 가지고 딱 쫄라매면은 하인이 지어 앉어근에 신랑침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신랑침이 가면은 하인덜은 들어 오지 못해, 헛방, 헛간에 가서 이제 하인들은 그디 가서 허면 식사를 글로 하인덜 것을 헛간으로 가서 제공을 해주면 거기서 먹고. 하인은 절대 이 방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하인이라는 것은 상도침이라고 해서 그 리에다가 회관이 이서 가지고 허면(47 다) 종도 처근에 회의 소집도 허고 혼인이 나면은 말도 끌고, 그 부인은 또 이불 지곡 허는 거.

질: 가문잔치는 어떻 해놔수과?

답: 가문잔치는 듯날 내일 결혼식이렌 허민은 집안사람덜, 동네 사람덜이영 출리는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오면은 도야지 잡아 가지고 그자 그거 쫄끔식 해 가지고 술안주로 이러끔 해 가지고 허는 것이 가문잔치. 그때는 도야지 혼 마리가 잡으면 아주 큰 대잔치라. 아이고 그때는 고기가 먹기가 힘들어 가지고 제사 때나 혼 번 가면은 적 헛거 혼 점 먹지 그전에는 먹지를 못헛지. 의식주가 해결이 아이 돼 가지고 보리고개 시절이라노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당시에는 일본 제국 시대로부터 와 가지고 ㄴ뜨대야 세수대야 요강도 스텡으로 쉼로 현 요강덜이라이. 문딱 공출 와근에 쟈트, ㄴ뜨트 문딱 빼 가불어 가지고 우리도 일본제국시대에 보리밥을 못 먹엇어요. 멘장이 와 가지고 높은 동산에 와서 아침에 왕 딱 샷당 연기 나는데 시민 그냥 쳐들어 간단 말이여. 쳐들어 가근에 가택수사를 허여. 쟈 쌀 이시민 문딱 털어 가불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시절에도 이제 보리 ㄱ뜨 거 갈면은 문딱 털어 가부니까 이제 먹으기가 힘드니까 이제 잡곡이라는 거 ㅍ, ㅍ ㄱ튼 거 ㄱ튼 것만 갈아 가지고 그걸로 의식주를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요. 일반에는 밀, 밀 해다가 ㅍ 서껴 가지고 밀팍해 가지고 먹엇지. 밀팍으로. 우리 막 엮은 후에도 우리 누님 풀 때도 집이서 밀팍, 밀 해다가 밀팍을 헨 맥여서. 특별헌 음식 가튼 거 엇지. 웨지 허면은 침 안침 배설 가튼 거 조금씩 끊어놓고 고기 두어 점 허는 것이 침. 게고 조금 잘사는 집은 조금 낮게 헛지. 못사는 집은 보통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침. 아주 힘

든 생활들을 헤أت쥬.

<M10, 표선면 하천리, 75세>

질: 결혼할 때 어떻게난마씨?

답: 사모관대 헛지, 구식 지금 소위 말하면 구식 결혼 헛지. 가문잔치 허고, 잔치허고 두불잔치 허고.

질: 돼지 잡는 날은 어떻게났수과?

답: 돼지 잡는 날은 친족들하고 주위에 사름덜 모여서 돼지 잡아서, 내창 그때는 내창 이주, 하천에 공사도 안 허고 할 때니까 그자 그런 데 가서 하고 이제는 바닷가에 가서 잡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그시리는 것은 옛날에는 검질로. 불 부껴근에 그시리는데 이제는 바나가 나와 가지고 바나로 그실리지. 검질로 다 기실렸주.(40 나) 목 틀어 가지고 베에 무꺼 가지고 나무 찢러서 이렇게 돌리지. 그러면은 돌리면은 그 베가 조이면서 이 목을 눌러서 잡는 거지. 목 줄랑 죽이는 거지. 기실령 잡앙 가마에 삶아 가지고 그날부터 주위에 사름들 술도 한 잔 하고 뒷날은 가문잔치엔 행으네게 아 그날부터 고기는 먹어. 옛날 많이 잡는 데는 관으로. 가지고 하면 백관. 이런 정도 잡고. 아 그때도 보통 사름 손님 많이 다니는 집이는 세 마리, 게 안 현 집은 한두 마리 잡고. 옛날은 집이서 다 질 랫주게. 미리 기루고 또 수눌음이라고 헤 가지고 친족끼리 형제 간끼리 해서 잔치 때 돼면은 돼지 한 마리 길러서 주면은 또 돼지 해서 작은 집에 동생 집에 일이 생기면은 수누는 거지. 부주허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뱃술이라고 헤 가지고 8리터 짜리 큰 거. 그거 열 개 든 거 한 상자 헤도 부주 중에는 큰 부주로 생각했주게.

질: 친척들은 부주 어떻게났수과?

답: 그때 당시는 돈 이천 원, 부주가. 게니까 그때 돈도 이천 원이지. 지금은 이만 원 이지만은 이제는 뭐 동네도 삼만 원, 오만 원 부주허지만은 그때 돈은 이천 원. 그전인 쌀, 쌀 한 말, 우리 장가갈 때까지도 쌀은 헛어. 보리쌀도 가정가는 사름 잊지만은 그 좀 생각하는 쌀 한 말이나 관뵈로 두 개. 아니, 그저 이디 할마니들 그 옛날 말론 닷 뵈엔 허주.(15 라) 관뵈 두 개, 게니까 그거 허면은 관뵈 두 개를 닷 뵈라고 헤근에 부주를 헛지. 한 말은 네 관뵈. 그것도 좀 생각허는 사름덜이 경허고 경 안 현 사름덜은 그냥 그저 그때만 헤도 보리쌀도 가정 가는 사름도 있고, 부주허고 헛주. (3 다)

쌀 재배, 그때는 산뵈엔 헤 가지고 밭벼, 밭벼를 갈앗주. 그걸로 행 부주허는 사름도 있고, 사명은 아니 허고 집이서 생산뵈 거. 그때는 어느 가정이든지 밭벼를 조금씩이라도 다 갈앗주게.

질: 가문잔치날은 어떻게났수과?

답: 가문잔치 날은 주위에 침 안면 잇는 사름, 사돈댁이영 다 오주게. 잔치날은 친족들 만 허고 예식장을 안 가니까, 예식장 가도 친족들허고 친구들 일부 가지. 그때 당시 우리

할 때는 예식장이라는 게 었었어. 그때 말로는 신식 결혼, 우리ㄴ치 허는 사름은 구식 결혼. 모여서 밥 먹고 소주도 한 잔 하고 놀기도 하고.

질: 잔칫날 먹는 거는 어떤 거 먹었수과?

답: 옛날은 저 돼지, 밥으로 하면은 밑에는 보리쌀 저 밥이고, 위에만 조금 두 수깁 쌀밥을 놔근엔에 주고 해났어. 부조객덜 오면은 그렇게 해났어. 보리쌀 밥을 밑에 층에는 보리쌀 밥 밥그릇에서 우에만 한 두 수깁 정도 쌀밥해 가지고 이렇게 었쳐 가지고 제사 때도 다 그렇게 해났어, 옛날은. 요즘은 뭐 쌀이 많으니까 뭐해도.

밥은 사발에 다 거렁 쥐. 저 보리쌀허고 저 미시거 허고 쌀하고 서튼 밥. 국은 돼지고기 아니고 미역국 ㄴ튼 거, 또 이 미역에 무수 썰어 가지고 허터서 허는 국덜 이서. 돼지 잡는 날만 먹고, 돛국물이라고 해근에 가문잔치날은 그자 장국, 메리치 농곡 해서.(41사) 계난 사라에 고기 석 점허고 순대 혼 점.(6가) 요즘은 뭐 두부도 주고 떡도 주고 허는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 순대 하나에 고기 석 점. 게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주면은 다 잘덜 먹고 이랬는디 요즘은 풍부허니까 잔치집이 가서 고기 안 먹잖여. 작지, 작앗주. 크게 줌 논 짐은 잘 사는 사름. 고기가 요 절반만치 삼분에 이만치씩 해서 석 점 주니까케 그거 뭐 고기 줌 귀헐 때니까 안 먹는 사름이 없주. 다 먹었주.

질: 친척들이 모여서 잔치날 헐 것도 의논허고 험니까?

답: 의논들 행, 여장이엔 해근엔이 함도 쓰곡 그때는 지금이니까 함 지어가고 뭐 미리 허지만은 해서 그 잔칫날은 함 가정 가근에 드러근에 거기서 잘못웨면은 그 신부집에서 이이 결면은 새로 또 수정헐 거 이시면 추정도 허고 그 자리에서 허기도 허는 집안도 이섯지만은 그렇게까지 허는 집안은 없는 거 ㄴ타. 단, 우리 외가에 잇는 외가에서 예춘, 예춘이라는 디 거길 장가가는디 우리 외삼춘이 초등학교 선생 헐는데 가니까 거 잘못 써왔다고 다시 뭐 허렌 허난 신부 안 데령가켄 헐 와 가니까 안 데령 외가니까 이제 그 다시 막 그 친족들이 잡아가 가지고 데리고 가고 해난 일도 잇고.(1나)

질: 잔칫날 아침이 신부 들레 갈 땐 어떻허는 거우파?

답: (신부) 데리러 갈 때 제 지내는 집안도 잇고 안 허는 집안도 잇고. 조상들안티 이렇게 해서 자식이든 손자든 손녀든 결혼 시점덴 해근에 알리는 거고. (예장) 통과허민 들어가서 또 상 출령 주주게. 잘 출령 주주. 아, 우리 헐 때 거 닭다리 하나, 이제는 닭 가튼 거 허민 혼 마리씩 올라가지. 닭다리 하나 놓면은 그것도 좀 정신 었인 놈은 이제 그 밖에 잇는 사름들이 아정 돌아나볼민 먹지도 못허고 경 해났주. 뭐 떡 가튼 것도 좀 놓고 헐는디 지금ㄴ치 안 허고 간단허여. 그때만 해도 우리 헐 때는 신랑친구나 뭐 그런 거 없었어. 들러리 상객이라고 해 가지고 남자 외가에서 한 사름, 본가에서 한 사름,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자 가고 어린애들 또 이시면 한두 명 따라가고. 열 명 정도 가주. 새각시 들앙 오민 집이 와 가지고 아, 그때 우리 헐 때만 해도 난 온평리 장가가니까 그때는 이런 승용차도 었일 때니까 주럭, 주럭으로 우리 헐 때만 해도 거 허고. 그전인 말도 타고 신랑은 말 타고 가고 또 신부는 가마, 말, 말 두 개가 해 가지고 앞뒤에 해서 가마를 었쳐 가지고 아 계난 말 이끄는 사름이 잇주게. 그다음에 차차 변천

이 뒤편서 그 다음에는 택시도 나오니까 택시도 빌려서 하고. 추력은 두 개베끼 없으니까 신랑 신부 앉아 버리면 나머지는 밖에 뒤에 타는 거주게.

질: 신랑집이 오민 어떻습니까?

답: 집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랑 가서 허는 식으로 상 받고. 아, 사진은 그 찍는 집도 있고 그 당시에는 우리 혈 때만 해도. 안 찍는 사람은 안 찍고 생활에 따라서 그건 뭐. 우리 갈 때만 해도 나 저 결혼헌 지가 지금 오십사 년 정도 됐는다,(37 다) 나 열아홉에. 그때만해도 우리도 잘사는 편에 속해 가지고 이 주위가 열한 사람이 살던, 이 동네가 형성 될 때 열한 호가 살아 가지고 형성된 텐데 다 나가고 나 혼자만 원 본토백이죠. 제주도말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해 가지고 나가 이디 산 게 오 대째.

(신부상) 받은 다음에 신부 구경허레 오면은 신부 먹던 밥해 가지고 그때는 수갈로 어린아이들 손에 툄툄 한 수갈씩 거려주고 그걸 얻어 먹기 위해서 침 어린 아이들이 쫓아다니고, 아 우리도 헤실테주. 기억은 안 나도 우리도 헤실 건디. 그렇게 허고 그게 끝나면은 친족들이 주는 축이금 또 옷, 그때 당시에는 주로 옷 가튼 걸로 저 선물덜을 많이 헛주게, 새각시안테.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우리 장가갈 때는 예단이나 이런 거 엇엇어.(10 다) 우리 아덜이 지금 쉰 다섯인데 가네 갈 때 부떠가 우리도. 그로 후에 우리 간 후에도 뭐 한참 있어야 그 예단 소리가 나오고 뭐 신부 뭐 해주고 이랬지. 옛날엔 그게 엇엇텐 허니까.

질: 중매로 결혼헤낫수과?

답: 저 우리 그저 외할아버지가 한의원 헛고. 우리는 선도 안 보고 사진으로만, 사진으로만 그 해 가지고. 거난 저 우리 이 하천리에서만도 우리 집사람신의 장가를 들젠 네 사람이 갖는데 내가 다섯 번째 해 가지고 당첨헛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선보레 오면은 딱 봐 가지고 안 뵈겟다고 어떻게 헛 판인지. 우리 아버지가 다니다가 도로변이니까 그저 술 한 잔 먹게 뵈고 얘기허는 과정에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하 우리 메뉴리 해야 뵈겟다고 해 가지고 사진 한 장 보낸 게 뵈 가지고. 그 우리 아버지가 독자라 독자. 나도 좀 장가를 일찍 가게 헛는다.

질: 잔칫날 밤이도 뭐 허는거 시수과?

답: 또 이제 그 밤에는 판 데는 지금은 노래방도 가고 단란주점도 가고 그러는데, 집에서 그침 해 가지고 이제 그 동네분들이 모여서 장구도 치고 소위 말허는 물허벅 그것도 치고 밤에 놀고 또 이렇게 하면은 신부가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아니 부르거나 신랑이 아니 불르면은 해 가지고 다리를 무껴 가지고 때리지.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또 뵈날 친족집에서 이제 밥을 해 가지고 신랑 신부 오랜 헤근엔에 접대도 허고.(4 라) 친척집에서 이제 그 내가 우리 집안에 종손이니까 이제 그 우에 삼촌네 집에서 밥을 해 가지고 아침에나 저녁때나 신랑신부 불르지.(48 나)

질: 잔치 뵈날은 또 신부집이 가낫수과?

답: 신부집에는 또 이제 그 두불잔치엔 헤네 잔치 뵈날, 신부집에 갈 때는 뵈지 다리

허나, 쌀 한 말, 술 한 뿔 이렇게 놓고 그거 가정 가서 길로 잔칠 허는 거지, 그 집에 가서. 또 그러면 거기서도 또 주면은 다시 가정와 가지고 요즘은 보통 한 멧 년 전까정만 해도 당일 그자 그 두불잔칠 안 허니까 당일 가면은 이렇게 그 포장해 가지고 주면은 가지고 와서 먹고 갈 때 또 신랑도 가지고 가서 허는데, 이바지, 그게 쫓이라.

질: 새각시안티 뭐 해주곡 또 새각신 뭐 행와마씨?

답: 그때 우리 갈 때만 해도 예물도 엇고, 옷은 저 신부옷 한복 한 불 해주주게. 계난 나 인척이 곁은 말이 기념품은 옷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퀘, 퀘허고, 단스 불박이 간단 현 거지, 큰 거 아니고. 이불은 해주주게, 이불은 세 채. 좀 이신 사름은 세 채 경 안 허민 사름은 두 채도 행 오곡 또 막 생활이 곤란헌 사름은 한 채도 행 오곡 허는디 세 채 행 오면은 한 채는 어머니 아버지 드리고, 두 채는 또 이녀들이 쓰는 거주. 그게 그 뭐 우리 장가가고도 한 이십 년은 그런 형태로 해실 거라. 계난 조금 이신 사름은 퀘 두 개. 저 생활이 좀 조금 무시거 현 사름덜은 퀘 하나는 다 행 와실 거라. (10 나)

질: 결혼할 때 신발이영 옷은 어떤거 해마씨?

답: 우리 갈 때만 해도 구두 신엇주만은 신부는 고무신. 이렇게 코 잇는 고무신 이서. 지금도 한복 입는 사름덜은 그거 주로, 나이든 사름덜은 신지 안허나? 짚신 그런 거 아니고. 장가 갈 때는 그저 장옷 입으니까 그 털신 신주.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임금들 입는 옷에 비슷한 거. 모자도 이렇게 쓰고. 맞추는 게 아니고 예복 빌려 주는 디가 있어, 마을에.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조금 저 뭐 헛던 집에 요즘 말로 허면은 철학관 비슷한 데 해 가지고 옷을 보관해 두는 디가 이서 낫주. 옷 빌어와나민 것도 샅도 얼마 드리고. 신부 옷도 다 마찬가지로. 가마도 그디 보관허는 장소가 이서 가지고 보관하고. 신부옷은 그 당시에 조금 있는 사람은 지대로 만들어서 입고 경 안 현 사람은 아까 얘기헌 대로 빌어 오고.(50 가) 옛날도 그 식이주게.

<M11 ,한경면 금동리, 81세>

질: 결혼할 때 어떻 해난마씨?

답: 우린 뭍 타고, 옛날 그저 신랑 입는 옷 잇잖여게. 할마닌 가마, 옷은 그자 그 드레스 닳은거 하얀 거 그자 한복. 계고 난 뭍 타고 우리 가난해 노니까 부인은 소, 소로 가마, 가마를 소 우테 뉘 허고 옛날엔 그저 메곡 가나지 안해서게? 가차운 디고 허난 소 앞뒤에 메 가지고 그 우티 가마 올려 가지고 걸 탕주게. 계고 뭐 옛날사 다 그랫주 무신. 오십년대 오십년도니까이 나가 군대 갔다 나가 육이오 때 갔다 왔주게. 열일곱에 중학교 곧 들어가난 그자 헨 가불엇주게. 갓다완 보니까 뭐 가난허고 뭐 더헐 건 엇고.(1 다) 지금까지 약간 뭐 헛으면 운전이나 배왕 차나 탄다. 그때 어린 뭍이니까 뭐 군대 가서 뭐 술이나 먹고 놀단 왔어. 그뻐 돈 생각도 없엇고 어리니까 뻐 사름덜은 돈 번다 뭐 헌다 헛주만은 그렇게 못헛지.

질: 중매 결혼 험마씨?

답: 중매, 그땐 중매. 우리 동네 친척 할아버지가 있는데 판포주, 판포. 거기 안 사름
놔 가지고 중매해 가지고 혼 뉘 혼 뉘 돼기 전이 험주 뉘. 혼 이십 일 새로. 얼굴 아이
뵈 그냥 갖주 뉘.(3 가/ 41 바)

질: 잔치험 때 도새긴 뉘 마리나 잡읍니까?

답: 잔치야 거 뉘 도새기 혼 마리 잡앙 그땐 뉘 사름덜토 하영 아니 오고(35 가) 어려
운 동네 사름들 부락이고 허여 노니까 친척들만 헤연. 도새기 잡는 날게 친척덜도 와근
에게 뉘지고기도 삶앙 먹고 내복도 삶앙 먹고 뉘지 내복 잇잖여게, 내장. 그런 것도 먹고
험주게. 가문잔치날은 허엿지게. 가문잔치 가난허고 허난 그자 친척들 모영덜 기자 술 한
잔 허고.(62 가) 술은 셔났어? 그자 막걸리덜 옛날 좁쌀로덜 담앙덜. 할머니허고 살단 오
래 살아노니까 우리 아버지는 옛날 일본시대 일본 가불고 어머니 또 육지로 물질 다니고
게난 뉘 어머니허고 정도 엿지 뉘. 경허단 또 개가험 가불고. 나 혼자 생겨된 가부단 뉘
오도 아녀고 허니까게 어떻헤게. 그땐 개가험덜 가부니까 할머니허고 같이 살안. 어렵게
살았지. 나 완 보난 흥년 그땐 막 흥년들언. 고구마 옛날 이저 공장에서 골아난 주시잇잖
야. 그거 저 모슬포 가 가지고 그디 공장이 셔났거든. 게난 그디 간 그것덜 산덜 지언 왔
어, 그땐 뉘. 할머니가 나이든 때 지언 와서 거 풀어 가지고 죽 쉰 먹고 경허명 살았지.

질: 잔치날 특별험 음식은 엿수과?

답: 특별한 음식은 뉘 엿어. 보리썰허고 썰허고 서꺼 가지고 신랑신부 상객 온 사름덜
은 곧밥 주고 그 남은 사름덜은 약간 서꺼근에 부жат집덜은 그자 썰밥으로 허주만은 우린
가난허난. 상 출령 허민 신부 신랑상은 약간 낮거든. 겨민 무똥에덜 아으덜 쭈런이 사민
덜 하나씩 주곡덜 거 다 허여놉주게. 특별난 건 뉘 엿어. 계란, 계란, 독도 잡앙 놓는다
우린 엿어노난 그런 것도 엿고 그자. 전이나 짓곡 헤근에, 보릿가루 골아근에 보리썰, 밀
가루가 엿어놉주게. 보리썰 골아근에 그레 새우리나 놓고 마농이나 농곡 행 전 지저근에.

질: 신부집에 뉘 보내곡 헤수과?

답: 엿언, 엿언, 못 보냈지. 옛날 부자집덜은 보냈지. 뉘지도 혼 마리 잡앙 보내고, 잡
아근에 보내고, 게메 보내놉주.(14 가) 술은 아니, 술은 옛날 춘이, 춘이 잇잖여. 술 춘이
그거 제우험 사단덜 춘이 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덜영덜 혼 뉘 두 뉘험 사당. 잔치
험 때도 사당 허는 것도 잇주기게.(11 라) 더런 사와야주게. 부жат집덜은 그자 잘 허고.
보통덜은 그자 사름덜은 그자 그렇게 험지.

질: 신부 들레 갈 때 어떻험니까?

답: 예장만 썩 가지 뉘, 뉘 건 필요엿어. 그디서 예장 받아근에 통과허민 도새기 다리
영 썰이영 술이영 돈 신 사름덜은 가정 가고. 예장 방근에 합격허민 그자 들어오랜 허고.
합격 못허민 새로 썩 가야지. 예장을 새고 그디서 쓰나 험 드물민 보통 통과 뉘여. 들어
가민 상, 신랑상 출려 놉둔 거 강 혼 적 먹고 헤여근에. 우시덜도 가주기게. 인산 아니
허여. 우린 그런 거 엿엇어.

질: 신부 들안 오민 마당에서 사진 찍꼭 됩니까?

답: 우린 사진은 못 찍언. 아니 카메라로 혼 장 찍은 건 잇고. 뜯 사름덜도 영 완덜 사진 찍고. 우린 스춘 동생이 완 카메라 하나 ㄹ정 와선게 그걸로 하나 찍언 경험. 그런 건 엇고 생각도 못허고. 아무 것도 엇어. 그자 완 그자 들어왕근에 신부상 출령 먹어근에 그디서 우시온 사름덜 먹어지민 가고.

질: 잔치 뒷날은 또 신부집이 갑니까?

답: 게 흐루밤 자민 신부집이 가야지, 사둔대우. 강 질, 인사허는 거지. 아니, 우리가 신부친척덜이 모여 이시민 우리도 뻗 사름 강 먹을 거이 잇나게? 돈 신 사름덜은 일주일 이어 뭐 보름이어 허지만은 어신 사름덜은. 우린 옛날은 옛날. 오십이년든가 오십삼년든가?

질: 새각시가 뭐 행 시집옵니까?

답: 이불은 행 와, 례 허고. 어디 강 봉강 산디 행 왓어. 거뿐. 이불 ㄹ뜬 거 하나. 헤준 거 없어 우린. 가락지 ㄹ뜬 소리, 그런 것도 엇고. 옷은 시어멍이 새각시 옷 혼 벌 헤주는디 우린 아무 것도 안 헤졌어.

난 물 탄 사진도 짓고, 그때 옛날 소서, 소서 이서낫주게. 소서가 다 행 몰도 꾸영 가고 가마도 인도허고 다 헤난. 차이가 이만 저만이 아니, 추럭도 타고 허고, 추럭도 엇어. 우리 할망은 가마 타저, 소로 헤근에. 결혼 때 찍은 사진은 셔, 우린 셔.

질: 부조는 어떻게 낫수과?

답: 쌀은 안허고, 아, 여즈덜은 쌀로 허고 남잔 우리 험 뎀 혼 이십 원, 최고가 삼십 원, 또 오십 원이 친척 중에 최고 오십 원. 부자허고 가난이 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니, 그때도. 어신 놈ㄹ라 허렘 허민 헤지느냐?(27 가) 거난 사둔 발이 걸름 발. 신부 허고 신랑은 어느 정도 옛날은 다 맞게덜 부졌거든. 어디 이만이 잘사는 집이 못사는 집허곤 안 부졌어. 게난 사둔발이 걸름 발이. 소나 돌이나 그 옛날 짐을 지지 안헤?(22 마) 어느 정도 중량 가타야 거든. 안 가트면 그거. 거난 사둔 발이 걸름 발. 옛날 걸름을 실러 낫거든. 옛날 말이 다 맞는 말이라. 맞아야 돼지. 이젠 연애허니까 이만큼 뉘도 관계 엇주만은, 지냥으로 부뜨니까. 옛날에는 절대. 부잔 부자끼리 허고. 옛날은 상놈 양반 셔노니까.

질: 가마나 함은 마을마다 이서낫수과?

답: 이젠 가마덜 신 디 어실 거라, 엇어. 그 당시에는 각 마을에 한 개씩은 다 셔났어. 실 거라덜 어디 전통 뭐 험 딴 이실 거라. 함도 마을에 다 이서난디. 가져가 나쁜 내중에 함은 돌려 줘야지. 함 안에 저 옛날은 미녕 담아신가, 혼 필, 두 필 담고 것도 부젓칩이 라야 하영 답지.(55 라) 이제도 경험주. 잘 담으면은 베 혼 필, 미녕 혼 필 담아나신디 이젠 시령목 담안게 아으덜 지성귀덜. 이젠 옛날추룩 허젠 허민 돈이 더 들어. 예식장에 허는 거 더 들어. 가마도 빌어와야지, 물 열 개 타는 거 빌어오젠 헤 보라. 더 들지. 우시덜도 탕 가야지. 집안에 쉼 참모진 대장이 함 흐영 가야거든.

질: 잔칫날혜난 거 생각 나는 거 잊수과?

답: 여기 부락에 딱 들어 오면서 저 신랑 신부가 온다고 이제 하는 노래가 있어. 그 노래는 형~ 혜, 형~ 하면 신랑 신부가 오는 거야. 거민 막 뛰어나와. 나와 보면은 말 타고 오지. 가마, 가마는 또 그치 오지. 신랑은 앞에 사고 색시는 가마 타고. 그때는 어려운 때니까 돼지 육십키로 잡으면은 최고지. 육십키로 안에 현 사름이 많다고, 고기 석 점 쫓어. 석 점에 땀부라, 감저 땀부라, 그거. 가문잔칫날은 청객, 도감, 심부름 허신 분덜이 영 다 청혜. 친족만 허는 거 아니고 수고허신 분덜 같이 청혜. 도새기 한 마리 육십키로 안에도 많아. 육십키로가 최고. 한칭 짜리, 근으로 육십키로가 한 칭. 하나 잡으면 잔치 넉넉허지 뭐. 육십키로 하지 못하고 잔치한 집 많아. 결혼식날 아침에 제를 지내. 문전제를 지내기도 허고 조상제 지내는 분덜도 있고. 그날 편케 혜달라고 비는 거지. 시간 딱 보고 좋은 시간에 제 지내.

<M12, 한림읍 귀덕리, 75세>

질: 결혼할 때 어떻게 혜난마씨?

답: 에이구 우리 결혼사 요섯 사름덜 골으민이 거 뭐 거짓말이엔 허고이. 우리가 육십이년 십이월 이십칠일날 결혼헨. 우리 형님은, 나가, 그땐 택시가 없었어. 저 한림 그 다리 윗에 그 의원허는 집이 그집에 거름 시끄는 담프차가 있었어. 그 찰 간신히 빌어 가지고. 앞에 신랑신부 타고 뒤에는 이불 실르곡 친척들도 타고 저 이불 실르곡 가구 실르곡 경행 허메. 그때 뭐 전날 허곡 무시거 그런 것이 었인 때난.

질: 새각시 들레 가민 어떻 혜마씨?

답: 신랑, 신부집에 들레 가면은 저 중방이라고 있어 중방, 중방이라고 나와 가지고 누레미 깎앙이, 저 무똥까지 누레미 짝 깎아. 얼러 가지도 못 허게, 경행 그디 신랑 오면은 중방이 그 집안에 저 줌 대표혜 가지고, 사위, 큰 사위가 가고 그러는데 중방이 가서 들어오렌 허민 들어가고 경헨어. 게 들어오렌 허민 예장을 신랑 앞이 예장을, 함, 함을 들러서 그 속에는 함 속에는 뭐 미녕도 놔 가지고 그때 무신 금전 ㄹ튼 건 없었고, 미녕 놔 가지고 함 속에 낵 가져 가면은 그디 예장 소꿍에 놔.(52 가) 거기 가면은 그 집안에 대표급 상으로 행 거 받앙 문전 앞이 강 놔 가지고 올라 보지. 올라근에 보면은 거기에 그때 걸 굉장히 따주왔어. 그래 가지고 받아들이지. 받아들여 가지고.

질: 새서방상 맛 존 거 하영 출령 줍디가?

답: 새서방상에 그때는 새서방상에 맞존 거는 별로 없었고이 독새기, 독새기 혜여근에 니 개 행, 독 고달ㄹ치 촘촘촘촘 만들어 가지고 모양 낸다고 네 개를 쪽 행 논 기억이 나고 뭐 독ㄹ튼 것도 없었고, 전지, 전지, 독새기 전지, 두부, 또 모뎀 전지. 모뎀 전지 그렇게 기억이 나네.

질: 옷은 뭐 입었 해놔수과?

답: 우리 형넌 관복을 입었었는데 우리부떠는 가다마이 입었어. 우리 형님은 독혜친데 우리 형님은 몰 타고. 나가 다섯 형젠데 내가 막둥이. 다섯 성젠데 우리 형님은 몰타고 장계가난 기억이 나.(47 나) 나 따라가고 해난 거 기억이 나고.

우리 말췌 형님은 한림에 장갈 들었는데 그때까지만해도 소서들이 횡포, 횡포라면 음식물 ㄴ튼 거들 가져 가는 거 췌 혼혜. 멀 것이 었은 때니까 그런 거 많이 헛다고. 그래 가니까 한청 단장이 그때 귀덕 사름이 한청 단장이었는데 그렇지말고 우리 한청에서 허자. 가마 들르고 말 그 심어 가지고 오는 거 우리가 허자. 거 좀 개선뵐 거지. 그래 가지고 우리 말췌 형님 헐 때는 그 한청덜이, 한청이엔 허민 알아지크라? 그때만 해도 사삼 사건 폭도를 지키고 마을을 지키는 예비군 모양에 성담을 지키고 그런 청년들 단체, 그 단체에서 헛는데 그것을 한청이라 그랫지. 소서는 각 마을 마다 소서가 이섯지. 소서라면 하인, 하인. 그때는 상놈.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덜안티 야야 그렇게 헐 때지. 상놈허고 양반이라고. 횡포가 심헛 것이 아니고 음식을 허민 자기네가 해주면서 많이 가져가버리고 멀 것이 없이 그자 헛다 그 말로 그런 횡포를 말하는 거지. 거 뭐 무력으로 횡포가 아니고 그런 것이 심혜 가니까 우리도 이걸 애껴 가지고 우리도 먹고 우리 한청덜이 허자 헛 기억이 나. 한림 저 아주머니, 한림 장집인데 나 따라가고 따라오고 헛 기억이 나. 우신 가도 우린 어리니까 들어가진 못 허지. 게서 이따가 가마 뒤에 따라오고 해난 기억이 나.

질: 새각시 먹단 남은 밥이영 나눠주곡 해놔수과?

답: 나눠 주지. 저 우리ㄴ지만 해도 그랫지. 대반 앳인, 대반이라 헛지. 대반이라 허면 그 집안에 웃어른덜 새각시방에는 그 질 웃어른, 할머니가 들어가지. 신랑방에는 웃어른 대반이라고 앳이면은. 끝나면은 그 창 밖에는 손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쌀밥을 나눠줘. 나눠주고 그런 독새기 ㄴ튼 건 그 나눠 줄 것이 얼마 안 되니까 건 친손자. 어떤 기억이 나냐면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양잘 갖어이. 그니까 친손자하고 그런 차이가 나더라고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네도 다섯 성젠디 두 번채라 우리 아버지. 두 번채데. 정월멩질에 과썰허레 가지 안허여이? 강 질 허면은 빛을 주냐면 창호질 쥐, 창호지. 건 뭐 허냐면 연 만들라고. 그때는 돈도 었고, 근래 와 가지고 돈도 주고 그랫지. 세뱃돈이 어디, 그때는 상상도 못 헛지. 창호질 쥐. 창호지 주면은 친손자는 창호지 헛 장을 주고 나는 반 장짜릴 주더라고, 반 장. 그런 기억이 나. 그런 췌췌헛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 글리지 말앙 쥐야지. 그 창호질 헛서 연 만들잖아. 헛 장짜리 연허고 반 장짜리 연은 하늘과 땅이라. 그렇지 헛 장짜리 연하고 반 장짜리 연하고는. 그 연 그 연 싸움이라고 허지. 연싸움은 어떻게 허느냐면 마을과 마을 대항 연싸움도 하고 그러지. 연술에 에 그 호야라고 불쌀 때 호야 잇잖아. 그걸 막 빼져 가지고 밥에 무쳐 가지고 그술에 발라. 발라근에 연이 확 쏟아져서, 딱 고비치민 확허민 거 연술에 그 사기가 잇영 연술이 딱 팔라지잖아, 연술이. 그러면 연 막 날라가 버리지. 날라 가버리면은 하늬 트름 좋은 날은 어디 검약까지 날라갈 정도라. 그렇게 크게 날라. 호야 그저 등피, 호야 등피 알겠지? 유리, 막 그저 이제 지금 전기다마 ㄴ튼 거. 그거 막 빼져 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고.

질: 도새긴 집에서 잡아냈지양?

답: 도새기 집에서 잡지게. 도새기 우리 큰아덜 헐 때는 일곱 마리도 잡곡 그랬었는데 우리 헐 때는 삼일, 칠일 잔치해. 둬비 허멍 둬비 허는 날, 뒷날은 돼지 잡곡이, 뭐 준비 허고, 전날은 전지 지지곡. 전지 지짐도 남자들이 지젓어. 남자들이 지지고 그랬었는데. 아니야, 이 근방엔 전부 남자들이 헐어.(40 라) 고기 썸도 것도 기술자 도감이라 해 가지고. 도감이 두 개 있어. 술도감, 술도감. 그때는 땡이 아니고 추니 있잖아?(34 나) 추니 해서 그걸 주전자로 비와주면은 하도 그때는 귀헌 때라. 그 술 춘이, 도감을 아니 허면은 조레질 못헤여. 조레질 못헤. 골고루 허지 못헤 가지고 막 퍼가불어. 퍼당 먹어불어. 거민 그 도감을 딱 앓지면은 멧 사름이 들어간 중 알면 주전자에 그걸 적당히 비와주거든. 그러면은 그런 게 술도감. 또 돼지는 요새 백 키로 경허지 앓고 막상허민 육십 키로 정도. 육십키로 정도 도새기 크질 아너거든. 그걸 허면은 이걸로 이 집안에 잔치 믱화줘야 거든, 책임상. 허당 그때 옛날 판장도 엇곡 허면 돼지고기가 부족 허면은 도감 책임이라 이. 도감을 딱 맡겨. 게서 그 사람안티는 뵈을 주고, 공정, 공정이라면은 수고헌 비로 돈을 췌는데 그때는 멀 걸로 줘. 돈 대신에. 오면은 그때는 잔치 먹으레 오멍 돈 가져옴도 허곡 쌀 믱튼 것도 가져오는다. 쌀 헤근에 갖다주고 해. 공정이라고 공정. 게난 그 뵈물 남으면은 돼지고기도 좀 놓고, 전지도 놓고, 두부도. 술도감안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고. 공편허게 이걸 허비허지 아니게 주인이 직접 허지 못허니까 늣 빌려근에 공정허게 허라. 게 아니면 주인만 뵈경 내불면 거 엇어저불지 아너이. 그런 밑에서 도감을. 그뵈한 마리 이상 잡는 걸 못 봤어.



질: 사둔잔친 어떻 허는 거파?

답: 사둔 잔치, 사둔 잔치라 해 가지고 우리꺼지도 그랬지. 잔치 끝나민 뒷날은 사둔집 이 가. 신랑 신부허고 그디 아버지허고 어머니허고 가, 그집에. 또 게고 그자 큰 메누리 나이 정 갈 사람. 믱치 따라장이 그때만 헤도 사둔집이 가근에 고맙수덴 인사헐 때는 멀 걸 정 가. 쓸도 헐말 허고 술 헐 뵈허곡 또 돼지고기나 먹단 거 우리 헐 때는 돼지고기 한 다리 가정 가났어. 가정 가근에 그 사둔집이 강 가문잔치라 해 가지고 새각시집이 강 허잖아?(17 나/ 22 바) 거기 강 가문잔치라고 해. 게민 친척들이 다 와. 그때 뒷날 해서. 뒷날 사둔집이 강 인사 강. 또 뒷날은 그집이서 와. 그 뒷날 또 뒷날은 신부집에서 경 그 추룩 출령 와. 오면은 여기서도 친척들 모이도록 해 가지고 인사도 허곡 그랬어. 굉장허 중요했어.

칠일 잔치라 해 가지고, 둬비허젠 허민게 뒷날덜 물도 질어오고, 근물 질어와, 둬비허젠 허민 근물 질어와야 허지 안허여, 근물. 것도 질어오고 것도 부주로이 돈 엇인 사름은 부주로 허곡. 둬비허젠 허민 준비허지 안허여이, 게민 흐루헤야허여. 둬비 허곡, 찜. 비제기 헤영 비제기 알아지크라? 둬비 찌끄레기. 그걸로 동네 사름덜 다 나눠주지. 것도 국도 끓여 먹고.

질: 할머니신디 반지라도 흐나 해줍디가?

답: 우린 그런 거 못헤영 한이 뵈여이. 게메 난 경을 못헐어.(14 나) 난 게서 가슴 아

픈 것이 그거라이. 난 다섯 성제였는데 막둥이였거든. 우리 아버진 어떻이라도 나만 결혼 시켜서 돌아가실라고. 군인 제대하고 결혼한 구일만이 돌아가셨고 집이 사름은 결혼하면 삼일 만이 방직공장에 갔었고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았어. 게 참 솔직히 군인 딱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결혼시켜 가지고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 가지고 건데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 결혼할 생각이 없던 도망갈라고 그랬어. 나 스물다섯. 스물넷, 스물다섯 나는 혜. 솔직하게 지금도 집이사름한테 말은 잘 안 했지만 그때만 혜도 집이사름은 나보다 혼나 우인데 혼살 우인데 오빠가 나 동창이라. 중학교 동창인디 그렇게 친했어. 또 그디도 혜병대, 나도 혜병대. 그런데 오니까 아버지는 그길 딱 접혜 가지고 결혼허라 허는데 난 도저히 생각이, 어떻게 백영 살려알 거 아니가?(19 라)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돈 한 푼 엇지, 참 도망갈라고 했어. 도망갈라고 했는데 부모님 생각허니까 그럴 수도 없더라고. 또 신부를 보니까 그럴 수 없더라고. 돈이 없어. 우리 형님네도 다 똑ㄴ치 군인을 가 가지고 전투에 임했어. 게도 다 돌아가신 분 한명도 없고 고생해서 오는데 돈이 무슨 돈이 있나? 지금 ㄴ뜨민 우엇 형들이라도 반지라도 모양 허주만은 그런 형편도 못 웨.(51 가) 그럴 형편이 못 웨. 그래서 도망갈라고 그랬어. 겐디 우리 처가집은 좀 신식이라. 우리집 사람 그래도 참 이뻐어. 참 이뻐 낫다고. 우리 처남이 똑똑하고.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중매 해서 벌써 와부니까 날짜ㄴ지 다 정혜더라고. 해서 헐수 엇이 결혼을 허긴 허는데 기가 막힌 결혼을 헐 거 아니가? 지금도 나 하나만이 가슴이 아파.

2. 여성 피조사자의 구술 자료

<F1, 구좌읍 송당리, 78세>

질: 결혼할 때 어떻게 헐디가?

답: 족두리 쓰곡 가마 타곡 행 시집갓주 무신.(1마) 옛날은 시집가는 새각시덜이 저 뉘족두리 써근에 가는 때문에 그냥 잇어, 마을에 잇어. 강 빌려오민 웨어.

질: 옷은 어떤 거 입어마씨?

답: 한복, 치메 저고리. 난 하얀 색깔 입었어. 에따 그때사 옥양목이엔 헐거 히양헐 거. 게난 그 족두리 쓸 거라부난 영혜당 건지머리혜근에 영 돌려다근에 막 따와근에 그 조저근에 막 허지. 거 허는 사름이 잇어. 동네 게난, 난 큰아지망, 이젯말로 올케언니가 혜쨌주만은. 잘허는 사름도 엇고 그자 이녁냥으로 얼굴도 무신 동동 구리무나 흐쨌 불르고. 막 가는 사름덜은 연지곤지 불르명 거주만은 우린 그때 연지곤지 못 불르고 기냥 흐쨌 영 얼굴 싯언.(41 나) 그 건지 영 따오는 거 혜는 어른이 가정왕 혜줘. 빌림도 허주만은 이녁 집안에 아지망덜이 행 뇌둔 어른덜도 이시메.(57 나) 치메저고리만 입어. 아이, 장옷 닳은 것도 입영덜 허는디 막 출리지 못허곡 흐쨌 가난허고 못살고 허는 사름덜은 그런 거 다 출리지 못허는 사름도 잇지. 남자도 기냥 바지저고리도 입곡 기냥 뉘 엇이민 뉘 아무 헐 양복 저고리라도.(10 가) 사모관대도 쓰지. 기냥 머리 영 빚어근에 오래 웨어 부난 이제 잇어부럿주만은 사모관대혜근에 남자덜도 영 써는 거 잇어,(4 가) 써야주. 그

거라.

질: 신부 들레 어떻 신랑이 와마씨?

답: 몰 탕 오지. 부채로 영 가리곡 해근에 몰에서 느리민 그디서 뭐 허는 사름덜이 막 기냥, 첫 7라 뭐엔 허느니 중방이엔 허느니? 들어오라 나가라 해야 들어오지. 들어가민게 그디 무신 오래돼부난 집안에서 막 사주 무신거 허는 거 썩 가는 게 있어. 그거 가정가 근에 그디서 익어빵 그거 영 잘 통과돼곡 헤사 들어오렌 행 경 안 허민 7짜오라 뭐 잘 못허민 그냥 튀장시키곡 첨.

질: 새서방상엔 뭐 올라 옵니까?

답: 독새기도 숲양 놓고 멘 그때사 뭐 독새기 정도주, 무신. 독새기허곡 곤밥허곡 경. 독새기 첨 이젠 많이 보기 좋게 하영 영 꿰주만은 옛날은 세 개썩 해근에 세 방울썩 행 그것도 막 힘들게 구행덜 해서. 사삼사건도 베랑 오래지 안헌 때곡 허난 무신 독새기여 무시거여 정신츄리멍 헐 말이라?

질문: 밥허곡 국은 어떤 거 됩니까?

답: 곤밥이지. 장게가는 날은 새서방, 새각시 곤밥 주지. 아 거난 저 무수나 영 썰어놔 근에 늪빼, 썰어놔 기냥 무신 이제 7뜨민 무신 잔치허는 집이 도새기 꿰기라도 흐썰 썰 어놔.(53 가) 도새기 꿰기 좀 썰어놓곡 해근에 장국해근에 허지. 무신 미역국은 해근에 허민 옛날도 그거 미끄럽덴 해근에 잔치날은 그 미역국은 새서방상엔 아니 주거든. 경행 도새기 숲양 꿰기 흐썰 썰어 놓곡게 아이고 그것도 얼마나 맛이 좋다고.(6 다/ 64 가) 보리쌀 막 숲아근에 풋 놓곡 행 보리쌀 숲아근에 잔치 먹으레 온 사름덜 맨 보리밥이라, 썰은 하나씩하나씩 놓고. 게도 그것도 막 얘기가 흔 다섯 개 이신 사름은 돈은 하영 허민 삼백 원 게 안 허민 백 원, 이백 원 행 얘기 숫자대로 다 데려와근에. 꿰지고기도 하나 잡양 그거 잔칠 허젠허민 집안에 식구덜이나 한 사름은. 이만큼씩 꿰지고길 요만큼 풀잎만씩 행 알게 썰어근에 거 상에 놓민 얘기 들양 간 어멍은 얘기 줍양 그거 간장물에 찍으멍 밥 맥이당 보민 어멍 먹을 건 엇어. 어멍은 항상 굶엇어. 옷을 일이 아니라. 그땀 이 미역도 어려운 때라노난 미역도 바다 해안 동네 사름덜은 해도 이딧 사름덜은 미역도 그거 어렵지. 경해노난 그자 그럭저럭 무수국행으에 막 꿰지고기 삶아놔 저 어멍어멍행 조금 영 비린내만 나게 해주. 삶이 말이 아니라.

질: 다른 반찬은 엇수과? 콩나물 7뜨 거.

답: 콩나물이 어딧어? 세상에, 아이고 경 콩나물 나온 지 오래 돼지도 안헤서게. 콩나물 그때사 무신 콩나물? 잘허민 그디서 무우채나 무쳐근에 늪빼 숲양 썰어근에 영 무청, 저 잘 허는 사름은 무신 꿰나 흔 방울 영 허트곡 경 아니민 소금 흔 방울 허터근에. 무신 다 경 정신출령 이것 저것 메리치허곡 갈치 굶곡 헐 말이라?

질: 김치는 이서났지예?

답: 김치, 김치도 그냥 그때 김치, 그래도 그때 김치가 막 생각이 나. 늪빼 독닥독닥허

게 썰어근에 그냥 영 저 나박김치추룩 알팍알팍허게 너필 요만큼씩 허민 네모나게 행 썰어근에 막 정성들영 쪽과 그거 흐솔 영 뽑아놓곡 꼭대사니 마늘 영 조금 뽑아놓곡 헤근 에이 고치도 집이 연 거.(39 가) 고춧가루도 무신 빨경게 이서게? 그거 행 멧 개 타당 그 고추 빨근거나 이신 사름은 빨근 거 허고 풀고추라도 행 썰어와도 그게 익어갈 수록 코싱헌 게 입에 달콤헌 게, 요즘은 그런 거 맛볼 수 엇어. 진짜 그게 생각나. 늣빠 흐끔 절여. 짜끔 절엿당 해서 그디서 저 매운 물도 무수에 거 그거 좀 빠지고 물도 많이 안 나근에 허곡 허민 짜끔만 절엿다근에.

질: 배추 김치는 엇어났수과?

답: 배추가 어덧어? 게 그거게 어평행 사위나 오는 날은 그거 어평행 훗아다근에. 이 디선 저 여기가 옛날 어른덜은 드리송당 드리송당 헤도 드리는 저 사실 조천면이주게, 교래리. 겐디 그 옛날부터 사름들이 살아가는디 아주 산촌 부락에 제일 먼저 사름 살기 시작헌 디가 그 교래리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이 송당, 이렇게 뻗젠, 어른덜 말이. 그러니까 드리 송당이라고 헛지. 겐디 지금은 모른 사름덜은 드리 송당 뭐 아주 촌스러운 그런 큰애기덜이엔 말해도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전해온 걸로 어른들안턴 들어보민 드리 송당이 아주 이 산간벽지 부락중에서는 산 게 시작이 처음 뵈 부락이엔 헨 같이 어울린 말헛젠. 드리 사름덜 그디 무수, 그 춤곡 그딘 아무것도 옛날은 뭐 무신 어디 무우도 기냥 이 가을 들어가민 그거 다 뽑아근에 땅 소곱에 묻영 무신 믱뿔짚이나 행 영 더뜨곡 행 얼지 못허게 경헛당 뽑으멍 먹으멍 살았어. 땅에, 게 무우 영 쪽허게 이가 무가 나온 거민 뽑아근에 얼기 전에 그걸 뽑앙 이젠 땅 지프게 광은에 꼭대기만 입사귀 썸만 요렇게 메롱메롱 나오게 행 다 쪽 묻영 그걸 잘 더픈다 말이여. 흑으로 잘 텃영, 그 우에 소독 나온디 그무신 믱뿔짚이나 뻗짚이나 헤근에 줌영 그 우이 더퍼주나 아니민 새로 엮어근에 느람지, 무신 주쟁이 그런 게 있어. 그걸로 행 더뜨곡 경헛어. 경헛다근에 겨울에도 귀헌 사위나 누게 애기덜이나 가민 그 늣빠 뽑아당 무청 반찬행 주고 국 끌영 밥 먹게 해주고. 그게 세상살이 살아온 거라.

질: 가마는 어평 행 탕 가마씨?

답: 가마 영 들러근에 사람이 들렁 흐는 가마가 있어, 네 명. 가마엔 헛어. 시집갈 땐 이 줌 막 그거게 젊은 때 아니라게?(20 다) 어린 때난게 이제추룩 늣어시민 무섭곡 무시 거 허주만은 거 기분이게 출랑출랑 얼마나 좋으니까? 들르민 오썸오썸 이거 들러주고 요즘 그런 가마 타봐 맛이 어떤가? 진짜 웃기는 말이주만은 너네 세상에서는 가마엔 헛 거 꼴을 못 볼 거다. 가마 탕 오민, 그디 집이 오민, 새서방집이 오민 새서방이 처음에 그 가마 문을 영 열아근에 나오렌 손짓으로 경허민 막 부끄르와근에 그냥(53 라) 게도 나와야지, 집이 와시니까.

질: 새각시 구경허레 사름덜 오곡 헛니까?

답: 새각시 구경허레 오민 소못 기냥 애기덜 업곡 행 새각시 잇는 방이엔 헛자 막 옛날은 방 흐나썸 이신 집이 가민 우린 그런 디 아니주만은 그냥 어욱새 같은 거 비어당 창문에 비바람 몰아치는 거 때문에. 막 그걸 영 썻아 낫어, 데며 낫어. 그디 애기덜 업영

왕 그 곤밥 혼수깅 얻어 맥이젠 그냥 둘라 부땡 그냥 밀렀다 땡겏다 막 새각시 보젠. 옛날은 갈산뒤엔 현 쫄이 이섯어게. 저 곤밥허는 쫄이. 막 꺼럭이 산뒤 풀리가 이만큼씩 현 건디 꺼멍현 갈산뒤엔 현 쫄이 이거 쫄은 처음에 까민 빨경혜. 겐디 좀 갈민 좀 불으스름허게 행 그걸로 곤밥행 그냥 새각시 밥이엔 행 그디 보레 온 아이덜 신디레 그냥 수까락으로 그디 대반 앓인 사름이 혼 수까락씩 손더레 영 수까락으로. 게민 그냥 아이 어른 잇이 어떤 아인 두 손 영행 영허곡 경허민 잘 보는 사름은 ‘넌 아니.’ 넌 이작 손은 아니엔 해근에. 혼 수까락도 아이 갈 정도록 죽아노난게 어떤 말이라게. 게도 그디 신 아이덜 영 봐근에 혼 열 명이민 열 명이 어떻 가도록 나와근에 쥐야지, 세 방울씩을 쥐도. 먹구정 해도 못먹주만은 게도 분시도 모르곡 시집갈 때 그런 멍텅구리덜이난. 게도 지 직시 밥은 땡 수깅 먹긴 허여.(56 가)

질: 신부 옆에 도와주는 사름도 잇어난마씨?

답: 대반 앓인 사름이엔 이서. 게난 큰메누리나, 그디 먼저 간 큰 동세나 뭐 뭐 거스춘이나 뭐나 우잇 사름이 그디 앓아. 앓앗당 옷도 잘 영 치마도 영 잘 해주곡 죽도리 그런 거 쓴 것도 영 잘 해주곡 올려주곡 밥 먹을 때도 영 이 옷소매도 잘 해주곡.

질: 시집갈 때 무신거 행 간마씨?

답: 이불 하나 요 하나 무신 요강단지 뭐 그런 거지. 하얀 기냥 사기 요강. 요강은 꼭 가정 가. 시집가는 사름 궤짝도 하나 잇고. 이제 그뜨민 농이라, 궤지. 그디서가 왕 다 시경 가지. 그냥 이불 잘허민 이불 두 개, 요 두 개 해실 거라.(3 나) 이불 하나, 요 하나, 그 광목 천으로 해근에 영 물들여근에. 무신 빨경현 물도 들이곡, 옛날은 치즈도 물들영 노랑현 물도 들이곡 막 그런 식으로 헨 헛어. 벨로 곤 물건도 엇고 비단 양단은 그거 많이덜 잇겏지만 너무 비쌉 허지도 못허고 그자 광목 그런 거 해단 양젯물에 삶으곡.

질: 이불은 집이서 멘들아났지예?

답: 이불 멘드는 날은 막 집이 식구덜이 다 왕덜 이불 멘들아.(2 라/ 40 가) 시집가젠 허민 동생이 시집가나 무시거 허민 이불 멘드는 날이엔 행으네 이불 멘드는 날은 다 오지. 먼저 시집간 언니, 먼저 온 아지망덜 막 왕 이불 다 멘들아.(50 나) 경해도 옛날은 소게, 그것도 소게도 해다근에 막 그때사 이불에 영 폐와근에 바놓으로 듬성듬성 시끄곡 그거 허젠허민 하루 저물양 게도 보리쫄에 곤쫄 하나씩 낱 밥도 행 하영 행 그날은 맥이 곡.(62 다)

(이불은) 들렁 가, 그디서가 먼저 시켜가. 아니, 허기 전보다도 그찌 동시에 가도게 그건 그 구르마에나 무시거에 시경 가주게, 무신 새각시가 지영 가? 요강 단지에, 정동화리엔 해근에 발 영 세 개 달린 화로가 잇어, 불피는 화로.(30 라) 정동화리엔 행 그거 행가는 사름은 좀 잘 사는 사름인디 그것에 숯불로 행 불 살르곡 행 게니까 불 일어나듯이 잘 뒤편 허는 뜻으로 숯불도 행으에 피와근에 가마 소곱에 가정가는 사름도 이서났어.

질: 신랑이 신부안티 뭐 해쥬난마씨?

답: 해줄 게 뭐가 잇어? 지금은 가락지도 주곡 돈도 주곡 허주만은 잇어.(37나) 아니

시집이서 시어명 시아방네 집이서가 옷 혼 불은 해줘.(15 가) 옷 혼 불도 허곡, 허는 딘 옷 저 미시거 바자마엔 행 속곳, 그거 속치마, 보선, 하얀 고무신 그건 우리 같은 경우엔 얻어 입었어. 해줘, 양단 옷에. 양단이엔 행 옛날은 최고지게. 양단, 강 시집강 새각시덜 영 보단 보민 ‘저 새각신 양단옷 입었저게.’ 허민 기가 맥혀. 여러 가지 색깔이 이신디 글루와근에 막. 미시걸 해줘? 뭘 옷을 해줄 말이여게? 요새사 무신 신랑 옷 해주고 시계 사주곡 반지 사주고 어찌고 저찌고 허주만은 옛날은 그런 거 었어. 계난 그땐 친척들안 티도 지금은 이바지행 문딱 그거 사가곡 저거 사가곡 허주만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하나도 었엇어. 시집강 첫 번으로 설맞이 그때 잇잖여게?(20 바) 보선 해다근에 어른덜신 디만 혼 켈레씩 쥐, 새각시가.

질: 잔치날은 떡은 안 해냏주예?

답: 요즘은 떡도 막 허주만은 옛날 우리덜이 결혼허곡 헐 때는 경 밥허는 것도 정말 어려와근에 못허는 시절인디 떡 그런 거 헐 수가 었지. 상 나민 떡 막 골고루 허여, 옛날은. 지금은 그럭저럭 건성건성 허지만은 옛날은 기냥 뭘 시루떡도 치곡 막 메밀 ㄱ루 해근에 막 빙떡도 허고 베라벨. 옛날에 이 송당 ㄱ튼 마을엔 그 메밀 그런 거 빙떡이 더 여기선 늪빠 썰어냥 숲아근에 늪빠 알아? 늪빠 숲양 썰어놓곡 행. 원래 빙떡이 여기가 고향이라. 만뒤떡이엔 행 영영 줌아근에 똥글랑허게 밀어근에 뭘 그 소곱에 숨메 담양 줌양 만뒤떡이엔 행 풋쉬 미치곡 행도 허곡 벨 거 벨 거 다 해여. (숨메는) 속 담는 거. 아니, 풋도 놓곡 었은 사름은 무수도 숲아근에 놓고

<F2, 남원읍 태흥리, 87세>



질: 이 동네가 고향이파?

난 이 동네 그자 이 동네서 켜 이 동네서 살았주.

질: 동네서 결혼허난 신랑은 봐난 사름이라수과?

답: 보기가 봤주. 혼나 우. 중매주뭘. 나 열일곱에 결혼헐. 그때 막 어린 때주게. 그땐, 우리 결혼헐 때는 열 여덟이 켈 새각신 알아. 스물만 넘으면 열아홉이든 스물 넘으면 이거 막 늙은 새각시엔 해냏어.(2 나) 옛날은 경헐주게. 신랑칩이서가 동네 누게 빌어근에 게 강 영 글아도렌 헐에 헐 거주게. 몹에사 들어신디.

질: 약혼식도 허여마씨?

답: 약혼식이 어디 서? 약혼식 출리명. 저 신랑광 결혼헐 전인 말도 안 글아보고, 서로 대허질 안해서. 결혼 헐 전이 얼굴은 보긴 봐신디 말도 안 글아보고 영 대화를 못헤봤어. 그 시절엔 경헌 때주게.

질: 신랑이 신부칩이 오민 어떻헤마씨?

답: 새서방 출려근에 신부칩이 오는 거라.(48 가) 오며는 오라근에게 대반 앓일 사름이 청허면은 들어와서 상 출령 주민 (신랑) 못 보게 허여, 못 보게. 어디 고향에 가나 어디

죽은방엘 가나. 머리도 건지 헛어. 머리 해근엔에 시방 저 텔레비에 무신 사름덜 나오듯 영행 머리로 해근에 건지. 늑 머리 빌영. 영 건지 해근엔에 가낫주. 죽두린 없어, 우리 갈 땐 죽두리 없어. 건지 영 해근에 영영행 쨍저근에. 자기 머린 그때 영 어떻, 머리 질 면은 연결 시기주만은 그때. 아니 그때 우린 질지 안헤낫어. 혼엇이 경 무겁지 안헤어. 빌령 허는 사름도, 이녀집이 성 허는 사름도 잇고 건 여라 가지.

질: 옷은 어떤 거 입어마씨?

답: 여즈 한복 입어근에 장옷 입고. 시방 후루메ㄴ치 시방도 그런 옷덜 잇주게. 장옷이 엔 현 거 영 입고, 또 하나는 영 쓰곡. 멩지에 물들여근에 푸린 물 붉은 물 들영 색동 놓 명.(62 라) 시방도게 텔레비에 보민 든 물들여근에 입지 안허여? 감 말앙 저 텔레비에 보면은 물감 들여근에 막 널지 안허여?(18 나) 그런 물을 들이는 거라. 그건 이 한복은 이녀대로 만들어. 만들고 장옷 영허는 건, 쓰는 건 어디 강 빌어움도 허고. 입는 건 하나 이녀냥으로 만들어. 물들영 막 다듬이 허영근에. 다듬이는 돛배, 마께. 경행 영영영 막 다듬아 빈직빈직허게시리.

질: 시집올 때 뭐 가정 읍디가?

답: 이불 하나, 요 하나, 베개 하나, 흐쫂 질어. 모물채, 모물채. 그땐 모물 다 촌엔 헐 때난에게. 집마다 이섯주, 모물채. 하영 담아도 다 이서. 그것만 우린 헐 갖어. 친척 선물 ㄴ쁜 건 뭐 보선이나 양말이나 그런 거베끼 안 헤낫어. 사오지 사와. 우린 경헤낫어. 신 랑칩이서 시어명 옷 혼 불, 멩지옷. 계곡 방상에서 영 친족덜 이 옷곰을 헤다주다 옷을 멘들앙 주나 경현 거 받아낫어, 우리.

질: 옛날 새각시상에 뭐 올립니까?

답: 밥허곡 국허고 고기허고 계란허고 독허고, 독, 계란도 올라가주게. 독도 올라가고 계란도 올라가고. 미역은 닝길어분데 미역 안허여, 무수로. 김치도 이섯주. 아 시방 김치 아니라도 김치도 낫주게.(13 다) 어떻 멘들아? 시방ㄴ치 맛 좋게 만들진 안헤도 기자 ㄴ물 죽여근에게 뭐 혼엇이 양념 요새ㄴ치 놓질 안허지. 폐데기, 속 아니 앓인 거 그거 헤 여근에 등갓다근에 김치를 헛주게. 바당물에 강 컷당 허는 사람도 잇고, 소금에 절이는 사람도 잇고. 어려운 때난게. 메틀 커놓민 누렁해근엔에, ㄴ물이 혼 이틀 크민 누렁헤 불 주게. (고춧가루) 놓긴 낫주게, 놓긴 봐도 시방ㄴ치 진하게 놓진 안허여. 경헤도 그땐 맛 좋앗주. 그땐 집이서 대중 장덜 담으난. 콩 삶앙 메주 티왕, 티와근에 그저 췌어근엔에 그 항에 등강 소금 놓곡 경행 그 간 맛화근엔에 등가낫주게. 경헤근에게 거시기 장물 빠 근엔에 장물은 따로 놓고 웬장은 딱 따로 봐근에 웬장 따로, 장물 따로 헛주. 옛날에 (지 지미)그런 거 엇어낫어.

질: 순댄 어떻게 멘드는 거우파?

답: 웨야지 해근에게 내장헤영 허고 머리 헤영 고쟁이에 꿰근엔에, 수에영. 수에 시방 수에 담듯 허주게. ㄴ루 카냥, 모물ㄴ루 물에 강 그 다음에 그 배설 해근에 영행 이레 질 어근에게 시방 순대 담듯 담은 거라.(35 나) 다른 거 놀 게 없어 그때. 그런 것도 안 봐.

아무 것도 안 낱 ㄱ루만. 아 된 놈. 피 놈도 물은 놓지. 모물ㄱ루도 춤 거 놈? 느쟁이 낱. 느쟁이 저 ㄱ루 보단 더 우이 훑은 거, 흐솔 나쁘지 것가. 꺾데긴 아니라도 ㄱ루가 흐솔 나쁜 ㄱ루. 그 그거 느쟁이 빠 나근엿에 곤솔은 또 따로 빠 놓곡 행 허주게.

질: 새각시상 받으민 어떻 험니까?

답: 방으로 들어강 상 반앙, 상 반아근에 영 끝나면은. 그때 부끄르왕 잘 못 먹엇주, 부끄르왕 두 수꾸락 아니민 세 수꾸락. 영 끝나면은 그디 영 오라근에 아이덜 혼 오세 칠세 난 애기들 오라근에 영 앳앗다근에 고기도 확 앳앙 가불고 계탈도 앳아 가불곡 그 추룩 혜근에 밥 따시 그디서 또 밥을 앳아오렌 혜근엿에 그디 애기덜 밥 수꾸락으로 흐 나씩 막 나눠줘. 제반도 걷고, 강 밥상을 영 출려놓면은 가지깁이 더끄민 그 가지깁일 영 벧경 밥을 혼 수꾸락영 거리고 고기 하나 놓고 행 상 아래 영 놈.(54 라) 건 누게 건디 몰라. 경혜영 먹어나면은 앳앙 그레 더경 치와불어. 거 제반이엔 허멍 제반 걷음이엔 허멍.

신부 나신 곤밥허고, 그자 손님 나시는 보리솔 저 풋 행 서꺼근엿이 밥 혜근에. 혼번에 솥앙 보리솔에 혼디 솥아근엿이 풋이영 혼디 솥앙 저 곤쌀에 서꺼근엿이 밥 혜근에 손님 덜 오민 저 대접허지게. 생각혜여근엿이 흐솔 사는 디라사 곤솔 서껏주, 게 안 허면은 즐 솔 서꺼.(39 나)

그다음엔 뭐 잠자리 험베끼 뭐. 그때 허민 줌자리 가도이 시누이나 그디덜 시민 ㄱ찌 혼 방에 다 자고. 다 잔게, 켈혼헌 날도 옛날은 경혜났어. 결혼허민 그날 처낙 막 노는 딴 놀주게. 신랑 영 드라매영, 소리 안허민 노래 아니 불르민 돌아매근에 발창도 때리주 게.



질: 이바지도 혜낫수과?

답: 이바지 뭐, 이바지 출리고 무신 엇어. 것가 이바진가? 뿃날 잔치 녀으면은 뿃다리 하나 앳곡 행 사돈침이 갖다 앳다 허는 거.(31 다) 사돈침이 가져가고 신부침이서도 남 저침이 가져가곡. 뿃다리 하나 그거허고 술이나 혼 뿃.

질: 술도 집이서 답아낫수과?

답: 감저 빼때기도 혜근에 담곡 솔도 행 담그곡. 보리솔도 행 담가나신디 누룩 놓고 솔혜근에 시방 쉰다리 허듯. 누룩 낱 물 놈근에 저 영 놈두면은 부글부글 퀘면은 그거 혜근에 술 그건 그대 옛날엔 고수리엔 현 술 빠는 게 있어. 그 고수리로 술 빠근엿에. 불 습아, 물이 나와, 그디 받는 게 있어. 코에 영 뭐 페이나 두벵들이나 대반이 닳은 거 대 영 그레. 켌디 이 아침이 문 요샌 그런 거 안 봐나신가? 문딱 떡 끼여근에 뱅허게 막 막 아. 영 이거 짐 안 나게시리, 솥광 고수리 사이에 앳지민 이디 뱅허게 아무 거라도 ㄱ루 혜영 끼영 막아.

질: 잔치때 떡도 험니까?

답: 떡 흘 생각 하간 거 아이고. 떡은 제스 때나 허주 뭐. 솔벤 절벤 그런 거, 인절미, 압게, 중게 또시 침떡. 그뻐 경 혜났어. 압게는 영 요만씩 질지 안허고 중게는 영 소랑혜

근에 요추룩 질어. 곤솔로 아니 중게 압게는 저 거시기 줍쓸, 흐린 줍쓸로도 헤여. 곤솔로도 허고. 경혜영 고망 딸라근에. 그거 저 중게 압게는 지져야지, 고망 딸라근에, 영 그때 영 고망 딸라, 네 개. 중게는 영 스랑헌 거, 압게는 니귀 반뜩헌 거. 요 정도 베끼 허주. 중게는 소랑헌거 요만허고 압게는 요만허게시리 만드야. 은절미도 요만허게 만드는디 것도 네모나게 모양은 그때도 일름 틀리고 지지는 거 아니. 지름 낱 지져서, 춤지름이나 낫주 뒤. 그땐 춤지름베끼 더 셔서?(45 다) 꿩 막 해근에 그땐 이녀냥으로 막 지름을 빠난애. 옷쩍도 허긴 허여. 옷쩍은 동글랑허게 시리 해근에 쪼끌락허게, 요만이 쪼끌락허게 쪼끄만허게. 것도 지져야여, 쌀가루로. 지름떡 닦아도 족게 허여. 흐쓸 족곡 그자 그 중게 압게엔 해근에 뭐 요새 지름떡사 어떻 무신 지름떡은 벨도로 흐는 딴, 허지민 허고 못허민 말고. 옷쩍광 지름떡 틀려. 옷쩍은 쪼그만 허여. 켈 우이 올리는 거. 그전은 켈씨엔 허멍 현디. 저 인절민 맨 밑에 놓고 그 다음 솔벤 농곡 그다음 켈벤 낫주만은 요즘은 그 옷쩍을 맨 우이 놔.

질: 부주는 어떻게난 마씨?

답: 채물떡 행 가낫주. 그 요새 마뜨민 돈, 요새 돈 부주 안허여? 그추룩 돈부주 허듯 허는 거주게.(20 사) 거 흐 셔? 빈떡도 행 가곡, 무신 만두도 행 가곡 여러가지주. 동글랑허게 행 영 접는 거. 조개 송웬보다 크지. 모뎀솔로 풋쉬도 놓고 저 무수도 놓고, 밖엔 잘 미치나마나 저 밖엔 미치젠 허민 풋으로 미쳐야지. 겨난 빵 남 시작 허난애 빵으로 헤 갖주게, 요 중간애. 그자 요새 나는 빵. 겨난 요새 그런 게 없어. 멧 해 땃주, 거 설러 불건디. 요즘 돈으로 헤 가. 옛날엔 떡으로 상제 열이민 열 개, 다 채물떡 마정 스뎀 이만이 잔뜩 흐 짐씩 정 가낫주게. 침떡을 허든지, 풋쉬 낱. 그때 방에 저서, 영 방에 지는 거 있어, 남방애. 옛날이사 젓주 무신 거시기 방엿간이 셔서? 정 헛지. 채로 청, 처근엔애 마룬 놔땡 그 채 우잇 건 또 뽕곡, 또 뽕곡 행 막 뽕앙 막 마루 땡도록 막 뽕앙, 쌀을 물에 컷당 건정. 물 흐쓸 버무리고, 버물영 영영 밀어서 거 시리엔 현 거 있어. 시리에 놔근엔애. 흐꺼번애 놓질 안허고 흐 징 영 놓고 풋 삶아서 영 놔근애 또 흐 징 놓고. 요즘 기계방에서 허는 거, 그거 마뜨민 거주. 줍쓸로도 헤난. 옛날엔 줍쓸, 곤솔 흐쓸 곶앙, 줍쓸 마루 영 낱 그 우이 또 흐쓸 고달 다는 거엔 행 흐쓸 농곡 경해서. 풋은 징 떼지라고 놓는 거고. 흰 마루, 줍쓸 마루, 영행 칭이 저. 옛날애 고달 다는 거엔 행. 잔칫날 떡 아니허여. 우리 헐 땡 떡 아니 헤낫어, 그루후젠 헤도. 그때 살아난 생각허민.

<F3, 대정읍 인성리, 75세>

질: 옛날애 결혼헐 때 어떻게 가난마씨?

답: 결혼헐 때 어떻게서 무슨, 돈 엇인 사름은 걸영도 가고 경 안 현 사름은 트러구 저 버스가 어디서 그냥 추럭도 탄 가고 가메 탄 가곡 헛주. 먼 딴 도께 물 메왕도 가곡. 도께는 가메 닦은 건데 앞이 물 메왕 이제 마뜨민 하인, 소서지, 소서. 그거에 심영 물 형~헤가민 물 심어근애 와닥탁 와닥탁 뜨리민 그 물 딱 심곡 뒤엔 또 영 허민 또 사름 이라도 심나, 게 안 허민 물을 메나 허민 새각신 또 뭇엔 곤는 철이 알아? “아이고, 어무니 나 털어지쿠다게, 털어지쿠다게.” 허민 “아이고, 나 털어지쿠다, 어무니, 어무니.” 새

각시가 그렇게 불렀어. 불르민 친정 어머니 말은 “경허지 말앙 발 딱 버티당 도계를 딱 심으라, 심으라. 도계 부출을 딱 심으라.” 도계 부출, 영 심는 거 시주게. 지동 닳은 거 이서, 게민 딱 심어야. 게 안 허민 막 들러켜 가민 그레 저레 흔들철. 요 택시보단 클 거라. 그렇게 행 아기 밧디 가민 그늘케 허는 식으로 영 무껍 곱닥헌 포장헤영 탁 씨왕 이런 나무 해당 딱 얹어. 나 다리 ㄱ찌 몰 여기 탁 세와 하인은 여기 심영 새각시 타면은 딱 심영 털어져. 몰이 눈 딱 막아, 광목으로 수건으로 딱 막아불민 **베리지 못허민 나 죽 나 헐 거 아니?(20 가)** 몰이 들러키민 하인은 수건 딱, 그 몰 아구리 딱 심영 와닥탁 와닥탁 들러킬 거 아니? 새각신 털어질 거 사실이주게. 겨민 ㄱ수민 불르는 건 어떠한산디 푸더 지민 ‘아이고, 아버지’ 허진 안허여. ‘어머니’ 허주, ‘어머니, 나 털어지쿠다, 털어지쿠다.’ 올레 사민 그 딸 보내는 거 보젠, 털어질 걸 어떻 험신고 행 사민 ‘아이고, 어머니 나 털어지쿠다.’ 허민 ‘양펜이 나무를 딱기 심고, 복기 심으라, 심으라’헤. ‘발 버티꼭 허라.’ 허민. 경허당 가다근에 이젠 오즘을 ㄱ루울 거 아니? 요강은 뵈에 난 거 알아? **요강단지 알지?(20 라)** 요강단지 그 가메 속에 놓데. 오즘 ㄱ루민 하인ㄱ라 오즘 사켄 헐 거 아니? 아메도 오즘은 그디 강 앓앙 가멍 톨 태왕 가멍 싸진 못 헐 거 아니? “아이고, 나 오즘 싸쿠다게, 오즘 ㄱ룹수다.”허민 하인털은 하인이주게, 종이지게. “요강단지 이시니까 그 안에서 싸시오.” 허민 오즘 싹젠 허여. 그축 행 갖젠 허여.

질: 옷은 어떤 옷 입언마씨?

답: 옷은 한복, 한복 입꼭 우이는 장옷이라 장옷, 장옷 입꼭 이제난 멘사포여 하간 거셔. 옛날은 족두리라. 족두리 이만큼, 이디 테레비에 나는 사름추룩. 신랑이 가시면은 다림 클러근에 딱 무껍 갖어. 별조산디 어떻산디, **털어지지 말게 딱 무꺼근에.(33 바) 머리 여찌난게 머리 여찐 거 클러지지 못허게.(33 마)** 경허민 **족두리 행 이망거리 딱 붉은 걸로 딱 무끄면은 빗네를 무꺼.(51 다)** 족두리 털어지지 안 허게. 경헨 걸영 갖져. 장옷 물색 거. 머리 딱 머리라 자기 머리가 아니고 딱 머리 이렇게 헤여다가 요렇게 여짜. 나도 그추룩 헨 곁흔헨어, 족두리 썸. 테레비에 나오는 거 보민 족두리 예쁘데. 빌어오지 샅 내어오지. 그때 어디 샅 내어 오는 디가 시주게. 할망이 잘 행 나뵈당 자기 필요헌 때, 긴 머리 코쪼허게 놔뵈. 놔두민 자기 딸이나 손지나 이신 땐, 자기 머리 죽을 때 으정가젠 애껴근에 질게 행 놔뵈당 그걸로 예쪼 주고 엇을 땐 강 샅 내어왔어. 샅 내어 온 거 그 말이라. 자기 머리 끈영 놔뵈당 허는 사름 싹꼭, 할망털은, 이제는 다 끈어불엄주만은 옛날은 헤영 놔두민 샅 내어당 예쪼 가꼭, 굴룬 머리 이만큼 허여. 게민 베여, 나도 헤보난. 한복 입어 한복. **잘 허는 사름은 멩지로 우알로 행 입꼭 가난헌 집은 미녕.(56 나)** 여기 ㄱ뜨민 어디 그런 거 샅 내는 디가 셔난 쎅이라. 매 ㄱ을에 싹는 거, 족두린 가메영, 장옷은 자기 거 행 입꼭. 가만히 모셔 놔뵈당 죽으면은 입영 가. 가메 샅 내어근에, 돈주고 빌어오는 거. 견디 옷은 자기냥으로, 이녁냥으로 한복 헤영 장옷 헤영 입꼭 싹는 거 헝고, 타는 거 빌어와. 남자는 관복. 우이 폭 멘사포ㄱ찌 족두리 쓴 우이 폭 쎅 얼굴만. 장옷은 이녁만싹.

질: 신부는 뵈 준비행 가마씨?

답: 보선 그때 잘 헌 사름은 허고, 안 헌 사름은 안 허고 해서. 선물이 그거라 그거,

가민 웬당덜신디. 요즘은 뭐 답례품 홀이불여 뭐여 허는디 그거 대신, 그 시절엔 보선이 나 혼 베씩 해당. 이불은 행 가지. 혼 채 허는 사름도 싯고 이불 두 개, 요 하나 허는 사름도 싯고 베개는 두 개.

질: 베개는 하나 험니까, 두 개 험니까?

답: 진 것이 그 시절에 없었어. 딱 두 개 헛주. 진 거 베개 중간에사 낫주. 진 베개 험 방법이 었었어. 쫓른 거, 쫓른 거. 중간에사 진 베개 나고 이제난 험주. 옛날은 두 개 그 냥 두 개주 원. 진 것이 었었어. 이제사 낫어. (속)에 모뎀채. 혼 말이민 물 박세기로, 혼 말로 죽을까? 게나저나 혼 말,(17 가) 저 쓰레기통으로 하나 들어갈 거라. 하나에 헛주만 은 하영 들어가. 경허주만은 요즘은 쫓그만씩 기자 허는 체만 허니까 그거 뉘 가민 까지 민 벨락허는 따문 경 답앗주만은 경 하영 안 답아 이제는.

질: 잔칫날 밥은 어떤 밥 먹어난 마씨?

답: 보리밥에 풋 놓고, 풋 삶아근에 보리밥. 새각시는 곤밥이민 산뒤, 존 쓸이 이제 그 치 나룩이 없었어. 새각시 밥이엔 헤영 흐끔허민 창무똥에 새각시 구경허민 사발에 밥 주민 좋주. ‘손받읍서, 손 받읍서.’ 헤여근에 새각시 밥이우텐 허영 혼 수꾸락씩 손에 착 착 부찌테경 큰 낭푼이로 하나, 멧 사름 주당 보민 네 낭푼이까지 들어가. 곤밥, 그까지 거 멧, 사름은 과짜허영 문이 캄캄허게 사민 새각시 보켄 캄캄험 정도라 딱 막아사민. 낭 푼이 밥을 손 받읍서 허명. 그 시절엔 다 반양 먹어. 이제 그뜨민 안 먹지.

질: 도새긴 멧 마리나 잡양 잔치해 낫수과?

답: 도새긴 그자 혼 믈리 잡아. 가문잔치, 널 새각시 식허는 날이민 즈냐에 도새기 혼 마리 잡으민 머리나 허민, 감저 텨부란 헤여. 감저 텨부라 헤영 혼나씩 가문잔치 헤영 태 왕 쥐나신디. 뒷날은 레기 석점씩 헤끔씩 행 주곡. 김치도 늣뻘 깍두기 담양 물김치, 그 추룩 행 자불자불허게 깍두기. 널 잔치민 오닐 담양. 장물 집이서 담은 장물 헤여근에 고 기반 주고 무수김치 그거. 새

질: 새각시상엔 어떤 음식 올라가 마씨?

답: 각시상엔 무수 낵 국 꿩영, 지금에도 새각시 국엔 미역 안 놔. 혼들어분 따문, 살 립 혼들어분덴. 요즘은 식당에 강 헤여도 새각시 국은 따로. 일반 손님덜은 미역국헤도. 에구 새각시엔 헛자 곤밥허고 레기 흐끔 나시 농곡 독새기 숲양 세 개, 네 개 올려.(39 라) 새각시 모성 간 사름은 새각시밥 하나 툅 떠근에 계란 하나 툅 앓양 상 아래 낫당 하인 먹어불어. 하인이 으정 강 먹어불어. 감저 텨부라 그런 거나 놓고. 새각시상에도 벨 로 뭐 지지미나 지지가지고 썰영 낫주만은 또 흐끔 피험 때는 떡 만들아근에 그자 떡 그 자 상에 올리고 건 그 후제. 이 중간에사 떡 헛주, 아니 혼 생각이 안 나. 가난허곡 허니 까 쓸이 어디 셔근에 떡 허곡.

질: 결혼식 날도 떡 해낫수과? 돌아가신 때 허는 거 아니고?

답: 돌아가실 땐 지물, 그 무신거 상에 올리고 죽은 어른 떡 허영 그런 거나 헛주. 기

냥 밋밋 오는 사름마다 떡 주지 아니 허여,(53 다) 상에 쓰젠. 중간에사 떡덜 헤영 맥이 고. 떡이사 뭐 죽은 어른 상허영 헐 때나. 옛날에 소상헐 댄 상제덜 마다 떡 허영 이 상제, 저 상제, 적시, 적시허민 뜯 떡, 뜯 떡헐 얻어 먹엇주만은 밥도 헐 맥여 본디도 엇고, 떡으로덜 맥영 설러불고. 또 흐뎡 시난 우동 헐 맥이고. 츠츠츠츠 흐뎡 살아 갈수록 우동 헐 맥이고 이젠 흐뎡 잘 살아가난 밥 헐 맥이고. 좁쌀 침떡. 좁쌀 낱 곤쌀 영 고달 부짱 우트레 흐뎡 헤뚜룩이. 빵은 또 저 기주떡. 순다리 헐 뇌뵈다근에 보리쌀 가루로 빵 만들어. 경헐 떡어.(5 다) 메밀 떡, 중게 얇게 만들고. 가래떡 ㄱ찌 동글락허게 멘들어 가지고 영장밭디 가민 그건 또 남즈들 신디나 가주, 여즈들 신딘 오도 안 허여. 그건 고급떡이니까. 남즈덜 신디만 가. 중게 얇젠 영 스랑헌 거 허고 또 사각형, 니귀반듯헌 거, 니귀난 거. 메밀로 허는 거주만은 이젠 메밀이 귀허니까 곤쌀로 기자 서눔만.(41 라) 옛날이사 모물로 헐주만은, 모물로 중게 얇게 만들어. 좁쌀은 침떡만 허고. 공장에 강 허는 따문 기자 밋밋 곤쌀로 햐주. 옛날은 집이서 만들 댄 메밀로 헐주게. 도고방에 저근에 남방에 나무로 영 두드리멍. 니콜 방에 너이가 상, 세콜이 쉬와. 쌀을 물 큰 거 ㄱ루 만들젠 허민 얼마나 힘들어. 손이 붕물어, 붕물어. 옛날에 대소상 헐 때 떡 허젠 허민 허당 버치난 그루후제는 돌방에 쉼나 물이나 메왕 비치락으로 썰멍 올려 낱.(52 나) 이 ㄱ을에도 돌방에 여라 개 서나신디 어디레사 시켜 가붙어신디 이젠 엇어.

<F4, 서귀포시 회수동, 90세>

질: 결혼헐 때 어뎡 헐난마씨?

답: 도새기 잡는 날 어두와사 일본서 오란.(49 마) 잔치 못 허카부덴 이 집이선 막 즈 들앗주게. 경허단 듯 잡는 날 밤 들어서 오란, 일본서. 열세 살에부터 일본 간 스물 나난 들어오란, 난 열일곱이고. 난 열일곱에 시집 간, 아이고 아긴 때. 경 헐 나신디. 경헤연 혼 열흘 살단 또 일본 가부난 일본은 또 간 증명헐 보내난 일본 간 살단 오난 ㄱ로 하르방이 아파노난 난 또 거기서 임신허연. 임신헌 걸 그냥 이디 오란 제주도 오란 낱젠 하르방도 이디 잇곡 낱젠 오난 이제 우리 큰 딸 우이 ㄱ로 딸이 흐나 낱주게. 딸 세 개 낱서 아덜 못 난. 경헐 오란 다시 임신허여도 혼 때도 대판서 이제 중국 가고렌 허멍, 중국은 곧 오랏젠. 중국이엔 현 디 저 심경, 거기 일름이 심경 경헌 디 강 살멍 죽은딸 흐나 봉간. 겨난 나도 막 선덜도 아프고 하르방도 아프고 고향 가젠. 고향 오난 하르방은 낱오난 날 돌아다 된 또 그 여름 살안 ㄱ을 들어 가난 다시 스테 일어나난 살아져시냐? 중국 가난 돈은 하영 벌엇주만은 돈도 엇어불연.

질: 신랑 얼굴은 반 결혼헤수과?

답: 얼굴 알 수 시냐게? 난 열 설에 이 하르방은 열세 설에 일본을 가부난. 열 설에 무신 그 사름신디 결혼헐 중 알아시민 얼굴이라도 슬피주만은 결혼헐 중을 알아시냐게? 옛날은 경헐저게.

질: 웃은 뭐 입영 결혼헐디가?

답: 그냥 스복 입엇주게. 저고리 입곡 치메 입곡. 이제추룩 드레드도 엇곡. 우리 갈 맨 족두리도 엇엇저게. 여짜. 영 행 머리 이추룩 행 방에머리로 여짜. 멩지로도 행 입곡. 건 지네냥 친정어명도 혜주곡 시집이도 혜주곡.

질: 시집갈 때 뭐 행 간마씨?

답: 이불이나 하나 행 가주. 베개 흐주게, 베개. 옛날은 이만이 베개 크게 흐영, 흐디 누렌. 이젠 따로 허염주, 침. 모뭇채 닷말 든덴 흐주. 보통 말가웃베끼 안 들주게. 큰 거 허젠 허민 닷 말. 요강도 잘 허는 사름이 요강 허주. 난 어느 저들에 요강 흐곡 하간 거.(45 나) 건 중간에, 우리 더끌 거뿐. 우리 혈 때도 요강도 헛저. 어떻해도, 우린 엇으 난, 외하르버지가 아무 것도 엇으난 이불 흐 채.

질: 이바지엔 현 것도 받아난마씨?

답: 옛날엔 이버지, 이버지 허명 막 못사는 사름은 쓸 서 말. 쓸 서 말 아저간 거 이버지엔 헛저만은 이젠 천만 원, 것도 이버지 아니? 우린 이버지도 엇고 아무 것도 엇언. 그 자 이녀냥으로 엇으민 엇은 냥.

질: 잔칫날 음식은?

답: 밥, 도야지 잡곡, 밥. 국은 둠비 두 점 농곡 장국 허영. 물장으로 흐주. 이녀집이서 허민 전인 미원도 아무 것도 아이 놔도 물장도 들아. 이젠 미원 아이 낳은 물장도 못 먹어. 결혼할 땐 메역 아이 먹어. 무수, 놈뻘, 놈뻘. 채로 썰영 둠비 두 점, 국에 낳. 두 점 썩 혜영, 경혜낫저. 웨야지 고기 뭐 석 점 반에 낳. 짐치 농곡, 간장 농곡 행. 이제추룩 경 여라 가지 농곡 하간 게 이시냐? 이젠 이거 놓나 저거 놓나 혜뜩하게 먹어벧드랑치 안 허고 그릇만 막 어지루와. 옛날은 두부 농곡, 짐치 농곡 돛퀘기나 흐 반 농곡 경. 옛날에 결혼할 때 무수짐치, 물짐치, 무사 놓긴 농추게, 고치가루 농곡 무수짐치. 깍두기 짐치 그거. 이제추룩 배추가 어디서? 옛날엔 배추도 엇엇저. 이제추룩 좋은 배추가 어디서? 좋은 배추 엇어 옛날은 그자 느물은 당배치, 당배치허명 기자. 이제 배추그라 당배추엔 햐주게. 이제 짐치 허는 거. 당배추엔 허는디 경 속 안 앓아. 옛날은 속 앓인 느물 엇나. 기자 영 폐와진 거 그냥 행, 당배치엔 허명. 경 혜낫저.

질: 옛날에 무시거 허명 살아났수과?

답: 계난 이거 문딱 나냥으로 밤낫 벌명 멩지허곡 미녕허곡 경허명 벌명. 누에 질랑 누에 싸곡. 베령이, 요멘씩 흐 거, 거염지 닳은 거 질랑. 뽕잎에, 뽕잎 하나 족으나, 고지 강 혜당 경혜당 주곡 경허명 구들에서, 방안에서. 영현 디서 뽕 드러 먹으명게. 경혜영 고치 웨영 테레비 보민 잇땅 육지 어디 누에고치 허느네. 싸곡, 경허명 솟디 낳 고치 숲으명, 숲으명 그 문저 숲은 건 기어난 건 데껴불명 벗어진 건. 기쟁이에 낳, 손으로 영둥그는 것 잇나게, 맨들양. 그런 걸로 맨들양 영영허명 이착으론 들르고 이착으론 저붓질 허명 문저 싸난 건 앓아 건져내영 경행 싸. 경허민 감아지는 거에 영행 빙빙 감아지는 게 그거 흐영 플르민 또 빼영 실 감양 감아근에 멩지 짜는 기쟁이에 목강 요만씩 현 걸로. 목강이엔 현다게. 감는 거, 멩지실 감는 거. 감는 거 요만씩 허는 걸로 그레 찢러 가

레기 영 찢러근에 따시 멩지 타는 기계 북더레 요멘씩 현 북더레 그걸 낱. 그 멩지 꼬리 놓는 거. 꼬리엔 현 게 잇나게. 북더레, 꼬리, 멩지실 감아진 거. 요멘씩 현 거 감아진 거 그거 꼬리. 목강, 목강. 그거 놓는디 기쟁이 요만현 디 이디 기쟁이 영 놉근에게 요만현 북 요멘인현 것덜에 똑 손가락 닳은 거에 낱 다닥탁탁 발만 노리주. 발만 노려. 기쟁이 앓앙 발만 영행 의자에 앓앙 그런 기쟁이 영영 노리민, 발 주악주악 노리민 그것덜 들리지, 확하게. 영영허는 건 그건 베클에 앓앙 이녁냥으로 영 허는 거고. 기쟁이에 낱 허민 영영행 동겨. 경허명 멩지 차명 풀곡. 경허명 문 밧도 사곡 집도 침. 아이고 헤난 거 다 데껴붙엇주. 다시 그런 거 좇이카분덴 허느냐? 경허난 미녕도 차는 게 북이엔 현 거 발로 영행 동경 영 네치곡 영 네치곡. 영 네쳐뵤 박하게 둥기곡 영 네쳐뵤 딱허게 이착으로 둥기곡 저착으로 둥기곡. 거 베차는 거. 그거는 발은 영 그것도 영 현다. 영. 영허민 들리지민 또 이레 속허게 데끼민 또 일로 딱허게 데끼곡. 손으로 영허민 이착으로 마트곡 허명 들러정 이디가 들리지민 들러진 디로 북을 이레 데끼민 이거 마트민 또 저레 쥐뵤 이착으로 영 둥기곡. 또 이착으로 영 둥기민 쥐뵤근에 이착으로 영 둥기곡. 북, 북 그건 북이엔 근다. 꼬리 요멘씩 현 거 감앙. 거 놓는 거 북. 툅허게 놉. 북을 손으로 발 영허민 우에가 들리지주게. 들리지민 요레 쪽 둥기민 또 이착으론 마트곡 이착으론 밀린 길로 딱허게 영행 둥기곡 영 헤시네. 경허명 헤낫저. 경행 미녕도 흥곡 길쌈으로 문. 미녕 좇곡. 물레에 영 헤근에 멘네 쩡 영 좇앙 딱 돌리곡. 멘네 좇는 거. 물레, 물레. 문딱 다 다 헤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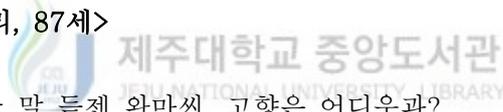
난 이 시집이서 그런 거 허난 시어명신디 다 배완. 멩지허는 건 나가 다 날로 헛주만은 미녕허는 건 시어명신디 다 미녕 저레 허젠 흥민 저레 놀아가곡. 멩지실을 영 미녕실을 영 이레 걸러근에 저레 놀아가사 그걸 딱로 놀아당 걸러뵤근에 이레 오랑 또 걸렝 이레 놀아가곡. 영행 느는 거. 무시거 박아근에, 낱 박앙. 고평난 거 헤영 이레 저 모둥이덜 그거 영 감앙 동골락 현 건 모둥이엔 현다. 미녕 모둥인 목화로 뵤 겨주게. 감아진 거 동골락허게 감앙 사발에 놉근에 영행 기쟁이레 고평 풀라진 것드레 하나씩 하나씩 빼여근에 일곱세여 옛세여 영헤여. 그런 걸로 헤여근에 요디 박앙 요레 못 박아근에 저레 갖당 저레 박곡 이레 행 놀곡. 경헤근에 그걸 미녕을 느는 거엔 흥영 그거 문딱 개영 낫당 브디엔 현 것더레 췌영. 그거 문딱 췌영 낫다근에 매영 저레 발 흥영. 느는 거 마당더레 헛다근에 그걸 놀아근에 미녕을 멘들젠 허민 그걸 놀아근에 요만은 미녕 너비가 요겨주게. 요만인 허민. 일곱세여 옛세여 경헤근에 놀앙 저레 박앙 이레 오랏당 또 걸리곡 헤영 문 헤지민 영행 돈 췌는 거엔 헤근에 딱로 돈 췌영 낫다근에 딱시 브디에 거 침백영 또 홀트명 또 영영 쓸명 그걸 영행 저레 놀아 가. 도꼬마리엔 현 건 큰 거 이만씩 현 거 헤근에 감앙 놉. 미녕차는 기쟁이레 놉근에. 손으로 낫사 흥듯. 멩지 짜는 건 멩지도 경행 놀주만은 그런 기쟁이로 멩진 경허젠 허민 흥도 끝도 엇어. 줌진 거난 얼마 못 짜. 영 다닥탁다닥탁 둥기는 건 아메도 열댓 자. 미녕은 잘 차는 사름은 뵤 스무 자여 스물댓 자여. 우리도 스물댓 자끼진 차낫어. 흥루에. 아이고 경허명 살아시네. 사는 걸 문 알아보켤, 거 알민 어뵤 험 거니?

질: 학교 뵤겨난마씨?

답: 아이고 흥교 뵤기곡 하간 거 옛날에. 야학, 야학도 무신 섹유지름 흥 각지 놓민 돈

이 서? 색유지름 혼 각지 농민 혼 열흘 하여. 스무 날 텅겨서, 스무 날. 아메도 열뒤 설, 회수에. 회수에난 혼 번은 저 상스 혼는 디 회보레 간 오난 우리 아버지는 옛날 하르바 지난 상스칩, 상스칩 해났저. 상스칩이엔 허민 회수 사름 몬 모영 휘 허곡 허난 상스칩 상스에 가온 비바리, 무신 드룻 가온 장 썰 데 옛넨 흥명 느시 방에 들어가지 못허게 허난 우리 어머니영 굴목에 살아났저, 옛날 어른덜. **상스칩이 가온 비바리 드룻 가온 장 쓸 디 옛넨.(47 라)** 드룻 가온 장도게 드룻 강 텅겨나민게 집이 오민 먹어지지 안 허주게, 경허난. 상스칩이 모인디 가오랏젠게. 비바리가 모인디 가오랏젠 비바리, 비바리 이젠 처녀주만은 옛날은 비바리. 할마니 놀레 가온 집이가 상스칩. 우리집은 상스칩 아니랏주만은 그자 이간, 마리도 엇곡 이간에 살아났저, 이간칩이. 부엌하고 구들 허곡, 마리 신 집도 엇어났저. **야학 간게 하도 오래 노난 알아지느냐?(27 다)** 한글 배우주 무신 한글. 가가겨겨, 기억니은 처음부터 기억니은. 이젠 아으덜 배우는 거 보민 어디 뛰어가당 혼 점 배우는 거 님안게. 우리 두런 땀 그자 기억니은 그거 가가겨겨. 계난 우리도 경 야학허는 디 일등 가근에 ‘야으 님으라.’, 열넛 줄 하루에 몬 웨우난 ‘야으 님으라, 야으 님으라.’ 경 현 말 들어났저. 계난 우덜이가 머리 좋난게 우리 우덜이가 오라방도 경헤나고 머리가 좋아. 열넛 줄을 하루에 혼 줄씩 열나홀 배와도 못 배우는 사름도 서. 몰랑 경현디 그거 열넛 줄 하루 처낙에 다 알안, 웨우렌 허난 동동 웨완. ‘야으 님으라, 는 무사 못헐디?’ 그런 말 들어났저. 공부고 대고 스무날 혼 거 무신 아느냐?

<F5, 성산읍 수산리, 87세>



질: 결혼헐 때 헤난 말 들젠 완마씨. 고향은 어디우과?

답: 수산리에서 수산리로 시집을 오란. 형제 서 오누이란디 오라바님네 두 분이 일찍 돌아가서 불고 계난 나 혼자만 어머니 모성 살단에 이디 오곡. 이디사 무시겨 **농사 흥쓸 지민 밧디 강 검질 매곡(43 나)** 그거 검질 매영 곡석이 막 크민 여물 들민 그거 비어다 근에 뜨리고 그거 허명 살앗주. 옛날은 기계도 엇어노난 조, 들고레엔 허여근에 영 빙빙 돌리멍 그것에 굴아다근에 여물 빠근에 먹고.

남편은 저 벵 걸련에 혼 십 년을 암병덜에 돌아간(56 다) 위고양으로 허연에 츄츄츄 음식 못 먹더니 만은 그게 오래여 가난 점점 못 먹으난 시에 병원에 두어 밧디 가난 위 암 걸리난에 삼 년 넘어 못 삼니덴. ㄱ 서른에. 스물 일곱에부떠 아픈 건디 열일곱에, 남편 ㄱ 스물에 만난에 딱 십 년 사난 죽어 불어서. 암벵이라 음식을 영 먹지 못헤연에

질: 멧 살에 결혼헐 마씨?

답: ㄱ 스물에 결혼은 헤신디 남편은 날보다 두나가 밀에. 경허난 오란에 기자 아파근에 약 떡곡 약 치료 허곡, 십년, 꼭 십년 사난 죽어불언. ㄱ 서른에 죽어 불언. 계난 아이덜토 이거 집안이 침 어렵젠 허난 거주만은 딸만 세 성제 나난 혼나 일러불고 딸 성제 뿐이우다. 집직헐 시아주방 아덜을 들안에, 들안 살단, 양제 들안 살단에, 그 아덜도 상제질이나 빌영 허젠 허단 보난 가비언. 이추룩 못난 팔자.

계난 집도 경현디 우리 시아바님 살 때 아주 유식헌 어른인디 이 동네가 큰 배 형시로

앗아노난, 큰 군함 형시로 므을 형시로 앓아노난 시아바님 자꾸 나신디레 동네 이동네 말잘이나 혈만헌 남젠 멩 졸라근에 오래 안 산덴. 경 현 말썸을 자꾸 우리 시아바님이. 시아바님이 그렇게 유식헌 동네사람덜 그 다 모여근에 오랜 행 이 공산당에 들러근에 누구 오고대고 절대 들지 말라, 들지 말라. 계도 공산당에덜, 하도 기냥 부락이 기냥 모집헨 허난 공산당에 들언덜 심어간 사름덜 다 죽어불고. 우리도 심어 가난에 우리 시아바님이 그 굴 속에 사는 거 알안 간 시누이 서방 사우영 우리 아덜이영 간 심어 온디 다시 그 멩 즐란 죽어불언. 남은 사름덜도 먼 심어간 죽어불고. 옛날에 그추록 헨.

질: 중매로 결혼헿지양?

답: 처음은 저 수산 알동네 시집을 가나신디 이디가 각시 일러부난 중매로 헨 만나수다. 두 번째. 우리 스춘 동세 날 데리레 간 수산 친정에 살암시난 나 그때도 난 수산 시집을 가나신디 그 시집이서 반대헨에 나가 오란 친정어머니영 살암시난 이디서 경 들레 간. 들레 간에 오란 이때까지 살암서.

질: 첫번 시집간 디선 무사 못살안 와불언마씨?

답: 수산서 그때도 스 년을 살아신디 열 여덱에 시집간 스물둘까지 살아신디 아기 못 날 거옴, 어디 간 시어명이 점 지난, 아기 못 날 사름이엔 점쟁이가 말헤부난. 하도 시어머니가 가렌 헨. 말지 못헨.

질: 젊을 때 막 고와난생이여예?

답: 곱은 무신거, 이제도 영 구진디 착허덴 허곡 그런 칭찬 말은 많이 들으멍 살아수다. 또 이 부녀회, 청년회 허민 부녀회장으로 또 오래 살고 또 노인회장 씨와난에 다른 사람헤도. 노인회장 씨완도 오래 사난 이디 젊은 사름덜 시난에 나 일름을 벳겨 비왔주만은 혼 번 씨왔다 허민 그자 출석 잘 흥고 미시거 허난 확 벗어남이 경 어루완 오래 썸 살앗수다. 저 부녀회장으로도 경 오래 살안 수산서 회장 썸 수효가 하지 안 허난. 인간 수가, 호수도 하지 안 허고 사름이 하지 안 허난 이제도 오십 호가 안 될 거라. 첨 나 씨와놈 시작허난 사름도 엇곡, 혼엇이 큰일 아니난 임원을 썸 오래 살앗수다.

질: 결혼허는 날은 무신거 떡곡 어떤 옷 입어났수과?

답: 도새기 잡아당 일가덜 다 숲아근에 그냥 접시덜 나뉘 떡곡, 옛날은 장옷 입곡, 장옷 우이 쓰고 헤근에 가메 타근에. 족두린 우린 안 쓰곡, 장옷 입곡 또 장옷 흥나, 또 이저 부락에서 접장옷 므을이 다 시집 갈 때 덜은 그거 씨와난 거. 돈 흥꿈 푼푼헌 사름은 이녁으로 헤영 입곡 따시 므을에서 시집가젠 허민 접에서 그 장옷을 가메에 부쁜 거. 가메도 헤근에 접으로 헤근에 아니, 돈 타진 안 헤도 므을에서 가메영 장옷이영. 남자도 풍뎡이 쓰곡, 풍뎡이 영머리에 쓰고 우이 입는 거 남저도. 그것도 남저, 여저에 대헌 장옷 꺾치 입읍니다. 그거 허곡 머리에 영 쓰곡 헤근에 몰 타근에 오는 사름 싹고 **또 그 막 어루운 사름은 그대로 조끄디 걸어아정, 걸영 오는 사름도 싹고.(7 라)** 신분 가메 오랑 멩글아근에 그레 태와 아정 가곡. 신발은 장옷에 부짱 다 셔났수다. 고무신 말아 흥쫂고 고무신 보다 낮은 거.

질: 얼굴에 화장품이라도 흐뭇 볼르는 체 헤마씨?

답: 화장품이 어디 서? 그때사. 테레비전에 보민 기리는 사름 짓고 화장허는 사름 짓 주만은 우리 시집갈 땐 그런 것도 었어. 우린 아주 시골에 살아노난 그런 거. 화장이 무 시것산디 그자 올레에 새서방 호호허여근에 소리가 나주. 새서방 신랑 당헤수덴 흐명 이 밋을에 흐쉴 늦은 사름이 새서방, 새각시 이불도 정 다니고 새서방 모성 텅기곡 허는 사름이 서수다. 그 사름ㄴ라, 그 사름네 그디고 저디고 잔치헬젠 허민 가근에 심부름 허곡 새각시 모시레 가곡 모셔다 주곡 그런 사름이 살아났수다. 그 밋을 부름씨 그 사름넨 그 디고 저디고 심부름 흐곡 새각시 모시레 가곡 모셔 오곡 그런 사름이 살았나수다. 밋을 부름씨흐곡, 밋을 부름씨 헤근에 잔치 때도 그 사름 오람젠 허민 막 밥도 많이 주곡 막 그 사름 돈도 얼마이 줘실 거라게 우리 부모들이, 우린 몰라도. 쟁 그 사름덜 경헤근에 어디 잔치 헤염덴 허민 돈 버슬 걸 손가락 꼬부리곡 허명.

질: 잔치날 무신거 먹어났수과?

답: 우리 결혼헬 땐 그때도 저 옛날도 아니 막 침 구식도 아니고 흐쉴 살아갈 때라노 난 보리쉴 솟았다근에 그거 하영 놉근에 곤쉴 낱 밥허곡 새각시 새서방만 흰쉴밥 헬 딱 로 거려노민 그거 다 새각시가 받아나나, 새서방이 받아나나 허민 그거 다 적시엔 영헤 근에 거려노명 앗인 사름 다 테와주곡 고기 흐 점씩 놓곡 새각시 받아난 밥이엔 헤근에 그거 특별헌 밥으로. 새각시 강 앗이민 막 새각시 보레덜 막 가민 그 고기 흐 점 먹젠 막 손 벌겨근에 허민 그거 테와주곡 경 헤났수다. 새각시상엔 특별히 그거 곤밥에 국에 헤근에 뤄. 메역국에 콩노물 놉근에 막 키왕 허민 그거 조금 서겨근에. 무사 고기 상에 막 하영, 국엔 안 놓곡. 장국흐곡 국에 놀 고기가 어디 서? 게난 그 잔치 먹으레 간 사름 덜 기자 옛날은 수에 흐 점 놓곡 고긴 두 점 놓곡 헬 적시로 헬 테우민. 새각시 강 상 받으민 새각시 보레덜 막 그냥 테깅 모여지민. 독새긴 솟앙 놉. 독새기 흐나 놓곡 따시 고기 적신 고기 적시대로 놓곡. 꿩지고기. 바닷고긴 안 쓰곡. 꿩지고기 썰어노민 그거 신 부가 그것에 더 불러근에 보레 간 사름덜 테와주곡 그 심부름 흐는 사름도 밥 흐쉴 적시 앗다주민 흐 수까락 놓곡 고기 흐 점 놓곡 헬 심부름흐는 할마니덜도 다 그렇게 테우곡 우리 시집갈 땐.

질: 시집갈 때 뤄 가정가났수과?

답: 이불은 헬 가. 이불 흐 채헬 그 가메 안에 흐나 놉근에 새각시 앗인 그디 퓌 디리 몰아근에. 베겐 침 그 신랑 신부 ㄴ찌 베렌사 헤신디 막 영 수랑허게 질게 헤났수다. 요 강은 가메 안에 놓곡. 요강은 저 사기로 웬 거 헤났어. 헤영헌 거 베끄디 꽃 흐쉴 그려진 거. 경헌거 헤나신디 우리 시집갈 때도 어루운 땐 ㄴ라. 그 요강 흐나 헬 강 살당 벌러 불곡. 그런 것도 잘 출리는 사름은 출려신디 우린 부모가 가난허게 사난 그런 거 안 허 연 시집이 간 살단에 꿩도 사놓곡 그 장롱 이추룩 헌 건 안 헬. 꿩엔 헤여근에 그거 헤 연 살아났수다.

이녁으로 부지런이 그땐 뜸 차근에 돈 버슬젠.(33 라) 뜸이엔 헌 거 그거 옛날은 침 성산 지영 가민 그거 풀아나신디 그거 멩글안에 흐쉴 돈 벌어난.(50 다) 잘 허나 못 허

나 기자 그거 기자 이녁집이 새가 지난 새 처근에 그자 영 지프게 놔근에. 뜰클이엔 헤 근에 이 양옆이 발로 영 밥곡 진진하게시리 헤여근에 영 혼 뽀씩 넘게시리 촉촉하게 열 두 칸 멩글아근에 그런 거 헤나신디 그런 거 옛날 헤난 거 잇땅 가끔 테레비에도 나오 라. 영영 허는 거 우리 헤난 거.

질: 학교는 다녀났수과?

답: 학교가 어디 서? 당추 학교가 엇어 낫수다. 학교가 엇어나난 우리덜끼리 모여근에 동네 공부헌 남자, 흐쓸 공부헌 남저 시민 빌어근에 가가거겨 그것덜 흐쓸 배와나고.(49 가) 일본시대에 나도 일본도 갖다 오곡. 우리 오라버니 일본 사난에 아기 들레 오랜 헤 네 그 펜질 받안 이제 어딜로 오민 마트켄 헤네 가났어. 아홉 술에 가네 열다섯에 오난 에 육 년 살아저신가? 계난 일본말 잘 허난 이 부락에서 그 일본말 배와주레 리사무소에 멩겨나곡, 모여지민 일본말 그때 일본말이 어루운 때난 그 친구덜 일본말 배와주젠 리사 무소에 가나곡 경헨. 그뻐 배우젠 헨 욱심이 엇어난. 그자 밥만 먹어지민 존 걸로 알았 주.(41 다) 배울 생각 무신 안 허곡.

일본 간, 일본 간에 흐쓸 일허레 멩이난, 일본 공장이 하난게 그디 강, 저 지갑덜 허는 거 영영 헨 거 헤나신디, 영영 손바느질 영영 행 올력 느력 허는 거, 자쿠 그거 헤났수 다. 그뻐 다 손으로만 허연, 어른도 못허곡 아이덜 손바느질 이제 아이덜만 허는디 그루 후제덜은 우리 일본 간 살단 올 땐 기계 난에 기계로덜 삭삭 허고. 아홉 술에 일본은 간 디 열다섯 나난에 들어오란.



<F6, 안덕면 감산리 92세>

질: 결혼헨 때 어떻게 가난 마씨?

답: 도계엔 헨 거, 도계. 도계 저 요만인 허게 허여근에, 저 물 메어근에, 물 타근에 물 그 즐기 영 헤영덜 물 두 개 메와근에 앞뒤에 돈 상 모성갓주. 새서방은 따시 물 하나 물 타근에 이녁냥으로 아구리 탁허게 물리곡 헤근에 가곡. 물 탕, 물 이제 들리는 거 안 봐서? 그추록 헤근에 그냥 새서방은 물 타근에 선재 영 들러근에 그 부끄는 거 없어? 그 거를 영 들르곡 행으네 가근에 이제 새서방이 새각시 들레 오젠 허민, 절로 오라가민 이제 저 느람지, 느람지 죽허게 폐와근에 이제 도고리 저디 강 그디 놓민 그디 특허게 시 리 느려근에,(4 다) 도고리 어평은에 내놓민, 경허민 느려근에 다시 새서방, 신랑 받을 사름이 영허민 강 들양 오주. 그디 다시 대반 앓곡 허지 안허여? 새각시도 대반 앓곡, 영 행 대반 앓아근에 새서방 들양 강 앓양 새서방도 꺾 앓아근에게. 경행 사름도 하영 가 민.

질: 잔칫날 음식은 어떤 거 행 먹어났수과?

답: 무시거 옛날은 새각시나 새서방 오민 곤밥허영 밥 출리민 그 곤밥을 이제 혼 적이 나 두 적이나 먹영 허민 그 밥을 수까락으로 저디 아으덜이 막 찌깍 사, 무땡에 사민 이제 막 혼 수까락씩 거러 놓민 영행 먹으멍. 이제는 경 곤밥들 하영 곤밥 먹영 살았주만

은 옛날은 보리조팝 먹엉 살앗주. 보리쌀 농곡 저 곤쌀은 쌀 혼 말이민 혼 석똥쫄, 풋 숲 아농곡 허민 벌경헌 게 더 먹긴 좋아. 먹기 좋고 맛좋주. 경혜근에 밥 혼 사발씩 거리민 무룩무룩허게, 국은 늪뻘혜근에 채로 썰어나근에 이제도록 하간거 그자 거러낭 허곡, 이제는 반은 혼 쟁반에 석 점, 석 점 농곡 그디 배설 수웨엔 헌거 수웨지 수웨를 이제 혼 점 가운데 놓고. 아니 수웨 농곡 배설 그 배설 다 이제 담아근에 수웨 혼 점씩 놓고. 수웨는 이제도. 모물코루, 이제사 모물코루가 막 빛나난, 모물코루 옛날은 모물코루 나근에 수웨 숲아근에 똑 혼 점씩 나났어. 모물코루에 저 아무것도 아이 놔. 물 조절행 나근에 도새기 피허고 나근에. 이제난 하간 양념을 하여 험주 옛날 양념 하간 거. 양념이 어디 있어?

질: 옷은 뭐 입엉 결혼헨마씨?

답: 멩지 치메저고리나 멩지 치메저고리 입어근에 가고 저 이불도 하나, 요도 하나, 베개도 하나 허여근에 질게 허여근에 두가시가 혼디 누렌 허고. 방석 하나산디. 요강 허영 멀린 가젠 허민 아주 옛날, 옛날은 저 정의 먼디서 이제 이딜 시집오민 경 소못 저 남편 이엔 혼 혼 일곱나 우이 이디 오랑 결혼허영 살곡. 우린 삼년 우이라도 혼 일흔 넷에 죽어비언. 겨난 하르방 죽건디가 이십일 년. 경해도 죽어지질 안허여. 아니 이제 살기 존 때난 잘 먹곡 잘 쓰곡 험주만은, 밤낮을 혼자만 살민 뉘.

질: 잔치 뒷날은 새각시 집이 갑니까?

답: 경혜근에 저 결혼행 새각시 돌아가민 뒷날은 따시 저 새각시 집이 저 새서방이 이제 새서방이영 새각시영 어멍칩이 오주. 아무 것도 아니. 집이 강 밥헤영 먹엉 경행 밥허는 사름덜 그냥 오는 사름도 있고. 먼 디 간 사름덜은 강 흐룻밤 자사허고. 이제 차가 시난 허지. 옛날은 차 엇이난. 친정에 갓주. 어떻사 헤신디.

질: 시집이서 뭐 해주디가?

답: 옛날은 옷 혼 불은 해주주게. 오민 이제 밥 먹어근에 말짜 이디서 혼 옷을 이제 옷 나 집이서 입엉 온 옷은 벗어똥 그거 입엉에 살곡. 경허민 다시. 멩지 치메저고릴 허나 난 저 거시기 일본서 성님이 시난에 멩지 치메저고리 입곡,(8 나) 그건 저.

질: 족두리도 써 난마씨?

답: 족두리사, 족두리 쓰질 안허고 옛날은 머리 여찌근에 머리 경허젠 허민 아시날은 그 옛날덜 다 허벅으로 물 저오민 물지레 간 사름은 혼 사름 그 머리 여찌는 머리 검은 다라 행근에 빗어근에 여찌근에 검은 다라 허여근에 쳇번 그냥 허민 여찌기가 구지난 머리 여찌젠 허민 막 땅에 오는 큰 머리 헤다근에 부찌근에 이제 영 허여근에 꼭허민 이레 소못 쭈쭈 나오고. 족두리는 이제 내중에. 이녀머리론 당추 못 헤. 동네덜 머리 한 사름 덜은 옛날은 그차근에 막 질게 허여근에 빌영 허영 여찌는 머리가 이서났주.(46 나) 경혜근에 이제 또 저 치메 저고리 입어근에 프리롱헌 물 들어근에 장옷 헤근에 입져근에 허민. 이제 그걸로 죽영 갈 때 허는 사름도 있고. 나두지 안허연 난. 나냥으로 허엿주게. 7만이 나뉘주. 경해도 요샌 저 그 사름덜 오라근에 문 무슨 지네 장사허젠 베로 뉘들아

근에 그거 폰텐 헨게. 견디 나는 멩지로 만딱 치메 저고리 바지영 문딱 헨 나뒸는디 그거 입질티 말티, 죽어불민 어뎡사 혈티. 경허난 무신.

질: 아이 뎡이나 이수과?

답: 아덜이영 딸이영 딸 시 성제에 아덜 성젠디 우리 아덜도 이제 일흔 둘이라. 손지덜 문딱 풀안. 이제 야기 나고 성손지. 혼 마흔 큰 손지가 이제 마흔 넘엇주. 처음도 야기 두개 나고. 이제 죽은 아덜은 미국 간 살아부난. 아덜 성제 딸 성제 그딘. 이디서도 큰아덜도 아덜 성제 딸 성제 나도 아덜은 죽은아덜은 미국 간 살아부난 큰아덜만 이제 나 부름씨 허여도 돈 당허여근에 거세기 오랑덜 다 해주고. 방 다까주고 옷 빨아주곡 허는 사름 오곡. 경헌 사름 사난 무신.

질: 잔칫날도 손님덜 곤밥 못 먹엇주예?

답: 옛날사 보리쌀 보리조팍, 여름엔 보리쌀, 겨울엔 좁쌀 경혜근에 허영 먹단 이젠 그자 원 느나 옛이 곤밥.(45 라)

질: 도새기 잡는날은 어뎡 해낫수과?

답: 도새기 잡는 날은 도새기 잡아근에 그거 문 시정 숲아근에 이젠 그것도 이젠 그간이영 북부기영, 북부기영 배설이영 문딱 허여근에 배설 큰 배설은 이제 빠와근에 그간에 놓곡 준 거는 이제 그 잡아근에 그날 숲아근에 어지렁 흰 것덜은 이제 허여근에 저웬당덜 모다저근에 흐나씩 먹는 거. 북부기영 간이영 문딱 썰어근에, 숲앙 썰어근에 혼 서너넉점씩 허여근에 일폰날 먹고. 잔칫날은 고기 석 점 놓고 배설. 이제는 그거 배설 아녀근에덜 고기만 혼 서너넉 댓점 와근에덜 잔치에 허고.

질: 이불도 집이서 다 멘들어낫지예?

답: 멘네 갈아근에 멘네 갈앙 검질 매곡 하간 거 헤영 그거 문딱 이제 타곡 혜근에 강테와근에 이불 쎄쎄이 이불 페우는 디서 문 헤여주민 집이 으저다근에 그거 문 이불 안팍에 옛날 미녕혈 뎡 미녕으로 허고 광목으로도 허고 경행 이제덜은 뭐 하간 거 허주만은. 곤 것도 옛날덜은 하낫구나만은 전쟁 나난에 곤 것덜도 옛언 미녕으로도 허곡. 그디 하님이엔 혜근에 여즈가 하님이 들랑 뎡기명 문 이불이영 문딱 가정 가. 이불 하나 허민 도께에 이불 깎아근에 도께에 와근에 이불 혼 채사 도께에 와근에 못 가?(28 나) 경혜근에 가곡 해낫주. 그루후젠 뭐 하영 허고 차에 이불 시짱 가고. 옛날은 경 그런 게 엇엇어. 나 시집갈 때는 그런 거 엇엇저. 보선도 난 아니 허고, 우리 갈 때는 안 헤서. 그루후제사 보선도 허고 이불도 문 허여주곡 하간 거.

질: 부주는 어뎡 해낫수과?

답: 부주는 이제는 돈으로 험주만은 옛날은 쌀 두 뉘, 보리쌀이나 좁쌀이나 두 뉘씩 허고 쎄당은 따시 혼 말헤영 가고 경헛주. 늣덜은 그냥 다 그추룩 저 쌀 두 뉘 헤여근에 으정 가민 따시 그레 멩텅이, 막 큰 집이덜 경 밥 혜근에 멩텅이로 담아근에 그 밥덜 문딱 그릇에 와근에 주곡. 조팍도 허곡 보리밥도 허곡, 잔치혈 때는 보리밥덜, 난 저슬에난

조팝달. 잔치 헌 사람은 이제 그냥 먹을 때는 저 방에 저근에 그레에 곶알, 곶아근에 먹는다 잔치 할 때는 저 보리를 곶아근에 첨 저근에, 그 밀방에 저근에 거죽 벳겅당 또 두 불 저근에, 두 불 저근에 그거를 먹어났주. 통보리쌀에 곤쌀 흐쌀 서겅, 그거 통보리 쌀 곶지 아녕 그거 막 쫄달 이젠 잔치허젠 허민 아시날 그거 문딱 시저근에 낫다근에 그 보리쌀 낱에 곤쌀도 시저근에 곤쌀 쫄끔씩 놓고.

질: 둬비도 해낫수과? 낱 어떻 멘드는 거과?

답: 둬비도 허고, 둬비는 이제 콩 곶아근에 콩 거핍이엔 허여근에 곱게 겨퍼근에 물 쪼다근에 이젠 방엿들에 곶아근에 그걸로 둬비 멘들아. 이제도 둬비 멘들앙 풀암서. 옛날 은 저 바당물 가근에 정 오젠 허민, 저 찬물이엔 헌다 찬물. 바당물을 찬물이엔 헌다. 질 어다근에 그거 허민 자르륵 허게시리 그 콩물이 나곡 경 안 허민은 그걸 놓지 안허민 갈 라지질 안허서 그냥 빌착허주게. 겨난 이제도 그런 물을 썸서, 둬비할 때, 소금 아이 낱. 소금을 놓질 안허고 바당물 해당 허곡 따시 소금물도 무슨 저 늪빼나 죽여난 물 헤여근 에 그거 흐끔 놓는다 어떻사 헌다. 난 바당물로. 경행 그루후제 헤도 식게 멩질 때엔 이 제 둬비덜 허영, 적갈허젠 허민 둬비 멘들아근에 먹음도 허곡 따시 그 적갈허곡. 둬비적 이젠 목 썸근에 적갈덜 다 식게멩질 때 이제도 헤염주게. 경허난 그거 옛날은 이녁냥으 로덜 막 둬비덜 헤여근에. 잔치때에는 이제는 다 잔치때 떡헤근에 놓는다 옛날엔 안 헤. 영장 난 때는 떡헤근에 상에 올리고 따시 제덜 멩 번 이제 공동장에도 강 문젠헤도 시 번 허곡 따시 집이 오랑 두 번 허고. 아이고, 꺫사 저디, 이제 가 불어사주.



<F7, 애월읍 신엄리, 85세>

질: 결혼할 때 어떻 해난마씨?

답: 아이고, 결혼할 때 나 결혼할 땐 사삼사건 막 터진 때라부니까 나 모시레 간 것도 청년들이 간 모셔 왔어. 신랑도 간디, 가메 들르는 거 청년들이 들러갓젠 허난. 청년들이 나 모시레 갓어. 옛날이야 어디 뭐 결혼헨 사진이라도 찍언나? 아, 신랑은 몰 탄 가신디 그 가메 들르는 사람덜이 신부 모시는 사람덜이 옛날은 가메게, 것에게 청년들이 들러왔 덴 허난. 구엄, 구엄이난 사삼사건 다 지켓주기게. 그때 사삼사건 때 음력으로 11월 19 일날이라 음력으로, 사삼사건 터진 때. 결혼날은 사삼사건 터져 가지고 결혼 헤신디, 12 월 2일날 헛거든. 청년들이 전부다 모시레 갓고 결혼헨 완 보니까 여기 잔칫날 보리밥 헛더라고, 보리밥, 쌀 쫄끔씩 서꺼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못 살압구나’ 헤신디(13 라)** 결혼헌 그 뒷헤에 스물한 살에 결혼헤신디 스물두 살 나난 아방 군인 가불엇거든. 유월 일일날 해병대로 해병대 3기로 군인 가불어신디 나 죽도록 고생헛어. 아방 군인 가부니 까 오만디 다 돌아다니고 저 강원도 대진꺫지 다 들어갓다 오고, 물질허레. 물질허레 다 갓다오고. 결혼할 때 반지가 이섯나? 지금이야 반지 잇지, 반지랑 말앙. 사진도 흔 장 안 찍엇젠 허난.

질: 옷은 어떤 옷 입곡헿 결혼헤마씨?

답: 족두리 써가지고. 머리 영 빈네 쏘아가지고. 족두리 써 가지고 이 장옷 입고게. 장 옷 입고 가메 탄 왓주게, 가메 탄, 가메 탄 모셔왔어. 가메, 장옷도 다 빌리는 디 이서. 가메허고 장옷허고 부락에서 딱 만들어놓 거 빌려근에 그 삭 무는 거라. 부락에서 삭 받 앓주기.(11 마)

질: 신발은 어떤거 신어마씨?

답: 신발? 고무신게. 고무신도 하얀 것도 아니고 까만 거. 발간 것에 흰 바우 영 둘러 진 거 더라고. 그런 거 주더라고. 아니, 신발은 시어머니네가 사준 거. 신발 아지고 왓더 라고, 거 신영 오랜. 신랑도 신랑 그 입는 거 지금 텔레비에 그저 관복 입영 절허는 거 잇잖여. 사모관대 딱 쓰고게 그렇게 헛지. 것도 다 나오는 거. 겨문 거 다 혼불 빌어오른 가메삿까지 얼마행 부락에서 돈 받았주게. 부락에서 다 받아. 가메 놓는 집도 다 만들안 나두고. 그 가메 ㄱ쁜 거 저 민속촌에 다 풀아실 거라.

질: 신랑집이 들어올 땐 어떻습니까?

답: 그때 바로 들어왔지 뭐. 어디 구경이나 헛나? 아무것도. 그냥 가메로 둘러다가 이 현관문 연 디 이레 탁 드리치민 들어와 줄줄. 신랑은 말 탕. 그때는 저그 신부 모셔 땡기는 할머니들이 이서났어게. 지금은 양반이주만은 옛날은 상놈, 상할망, 모셔 땡기는 할마 니덜이 이서. 게문 그 할머니가 왕 손 심으면은 이레 들어왕.

질: 신부상엔 맞춘 거 하영 출립니까?

답: 신부상에 계란 그거, 계란 시 개, 옛날은 결혼해야 계란 시 개행 스몫. 신부상에는 밥을 흰밥이거든, 쌀밥. 게문 아이덜이 그냥 막 무똥에 과짜 사. 그 신부밥을 얻어 먹을 라고. 겨문 이 모셔온 할머니가 수제로 혼 수제씩 그 아이덜 무똥에 산 사름 테와췌지, 그때야. 이제난 쌀밥 거러땡렸지. 경행 테와췌 신부야 혼 수꾸락 먹으나 마나지 뭐. 밥 먹지도 안허여. 부끄르와 가지고 먹지도 못해. 스물한 살이니까 혼 수까락 영 먹으면 게 문 그 할머니 수까락 해근에 다 아이덜 갈라주고 계란 다 갈라주고. 또 집안에서 나이 한 할망 여기 또 대반으로 앓거든, 신부 옆이. 게문 그 옆이 대반으로 앓으면은 그 할망 신디 이제 저 계란 두 개 허곡 다른 것도 갈라주더라고. ㄱ찌 온 할머니가. 경행 받아주 고. 신부 먹은 거 하나도 엇어. 그런 것도 안 먹어.

질: 국은 어떤 국 끓여 줍디가?

답: 국? 국은 옛날에 잔치땡 미역국 안 끌려. 미역국은 미역은 늑는 거니까 혼드는 거 니까 새각시가 혼든다고 늑뻘, 늑뻘, 늑뻘국 끌리지. 생선 농곡 늑뻘 깍데기ㄱ찌 썰어가 지고. 지금은 미역국이여 뿔이여 식당에서 허는디 옛날엔 미역국 안 끌려. 지금 경허니까 이혼율이 만아. 아니사주가 안 맞으니까 이혼율이 만아. 옛날은 다 사주 굴런 헛잖아, 궁 합이 맞으냐 안 맞으냐. 지금 그대로 막 알아가지고 다 해부니까 다 이혼율이 그렇게 만 아. 이 동네도 아기 땡 개씩 난 사름덜도 다 이혼헛 나갓어.

질: 결혼 헛 때 날도 봅니까예?

답: 신랑집이서 다 날 봤어. 신부 생일 다 죽아근에 가져가지. 죽으레 와. 게믄 그거 죽아주민 거 가정 강 다 맞춰보민 아덜이 멧 개, 딸이 멧 개, 뭐 아덜 엇덴 허는 사름도 있고. 게민 신부집이 가정 강 이날이 종덴 험시메 잔치 헐 거우다 허민 알앙덜 다. 또 지금은 약혼잔친디 그때는 가문잔치라고 사둔집이서 조금 저 결혼날 입을 거 멧지 저고리 금 기지로 멧지 다섯 자하고 거만 가져가. 그거 헝 가져가민은 신부집이선 밥 헝 곤밥헝 다 백이고. 옛날 생각허민. 옛날에 이 동네서 사삼사건이 잇는 거라. 우리 친정 어머니가 신엄 어른이거든. 신엄 잔칠 안허겠다고 헤낫어. 여기 빨갱이 동네라고. 게신디 우리 친정 외삼촌덜이 ‘아이고. 보냅서게. 시어머니네 좋고. 나영 벗허게, 벗허게.’헝 여기 왔주, 게 안 허민 안 와. 여기 사삼사건 여기서 헝네, 이 동네서.

질: 시집올 때 뭐 가정와낫수과?

답: 케 하나허고 정대, 이런 정대 닳은 거. 옛날은 정대 이섯잖아. 그거 하나허고 머리 열레기 놓는 칙갑, 요만인 현 거. 칙갑이라고 옛날은 지금 열레기냐, 낭으로 열레기지. 쳡빳허곡게 그거 영 들리치는 하꼬가 있어. 요만이 현 거 만들앙. 경헝 그거 허영 가져와 낫어. 요강도 가져왔지. 요강, 옛날은 다 요강 가져와 낫어. 그때 우리 결혼 헐 뎀 늦요 강이라. 늦으로 뎀 거. 지금은 뭐 비싼 거주만은. 두쟁이 툃 더끄고 그런 거. 거 뭐헐 때 다 바껴 가불엇어. 부락에서도 다 거되오렌 늦그릇 다 거되오렌 문딱 다 하나도 엇이 다 바껴볼렌, 나라에 바껴볼렌.

질: 도새기 잡는 날은 어떻헤마씨?

답: 도새기 잡는 날덜은게 쁘당덜 모영 떡곡게 도새기 잡앙 도새기 헝 마린 신부집이 가져가곡 헝 마린 지네 떡곡 신랑집이 떡곡. 도새기 저가는 것도 시집이 친척이 저갓더라고 옛날에는 용인이 저가신디 용인 못 빌게 해 가지고 돈 든다고. 돈드니까 친척들이 다 저간다고 그렇게 저갓어. (신부집은) 안 잡아. 신랑집이 가져온 걸로. 옛날이야게 지금은 키로로 허주만은 옛날은 근으로 허민 백 근짜리 허민 **‘아이고, 저 새각시 백근짜리 도새기 왔젠.(64 나)’**허민 지금은 키로로 멧 키로 멧 키로 허니까지. 난 팔십 근짜리 가져와시난 아이고 도새기도 백 근짜리 안 가져왔젠 허멍 이제 헤신디 그거믄 그때 잔치 헝거든게. 요만씩 썰어근에 아이들은 조, 조 꼭다리에 끼어 가지고 밥에 영 찢렁 주고. 조, 조 꼭다리가 있어. 조 영 오그라진 그 꼭다리, 그거 꺼꺼다근에 돛레기 석 점허곡 수웨 헝 점 영 쁘 밥에 영 찢렁 아이덜 밥은 다 줘낫어. 경허니까 어른 반만 이제 영, 이 갈리 하나 그친 건 쁘 웃어른, 갈리, 갈리, 갈리라고 잇어, 갈리에 그 슬 하양헌 거 부뜰 것그라 갈리라고 헝어. 그거 하나 영 걸친 거는 쁘 웃어른덜 그렇게 헝지. **‘옛날에 돛레기 먹어졌나?(27 나)’** 제사나 돌아와야 아버지 조끄되 영 앳이면 보시레기나 헝 점 얻어떡지. 지금 돛레기 거려 밀렸잖아.

질: 수웨는 어떻 멘드는 거마씨?

답: **‘수웨는게 돛배설에게 담은 거.(31 라)’** 것에 옛날은 보리썰 곶아근에, 보리썰 곶아 근엿에 도새기 잡아난 피, 피에 서꺼근엿에 것에 영 담아. 담앙 숲으민 것이 순대라. 순대 지금 풀잖아. 순대는 썰도 서껌주만은 옛날은 썰 안 서젧어. 보릿가루로 헝 도새기 잡

아난 피 서꺼근에 순대에 담양 거 순대.

질: 뚝비는?

답: 아이고, 뚝비사 뭐 뚝비 옛날은 그레에 곱았어. 그레 곱양 집이서 다 뚝비, 뚝비 허는 날도 동네 사름, 반에 사름 다 와. 뚝비게 그레 곱아근에 그거 솟디 낱 딸렁 막 딸렁 것으멍 딸리당 거제 익으른 여기 푸대 놉근엔에, 푸대에 비왕 그레착 행 우이 막 지 들랑 물 짜정 막 짜지민 것이 뚝비 뚝는 거라. 찌꺼기 안허여, 물만 느리와 물만. 이것이 뚝비라. 물만 빠지민 것이 두부, 옛날 두부 막 맛좋지, 지금 두부보단 더. 찌꺼기 었은 거. 아예 콩 곱아근에 체로 다 처근에 그물만 허거든. 그물만 행 거 딸렁 행 물 짜른 물만 아래 싹 빠져볼른 것이 두부라. 바당물, 바당물로, 바당물로 두부 딸려. 지금은 소금 조금 줍아낱 허나 소금 안 줍아논 물두부들은 너무 싱겁잖아. 저 시에 과양 저 우리 사촌동생이 두부집이라. 거기 두부집인디 거기서 잔치 맞추른은 아예 그런 두부도 혜도렌 허민 그런 두부 허여. 게난 우리 아기덜 풀 땐 다 그 사촌동생신디 강 맛취당 잔치 했어. 지금 두부 맛이 없어.

질: 김치는?

답: 김치야 옛날 김치야 거 무시거. 옛날은 그냥 김치가 배추가 밧디 갈면은 그 밧 내는 사름덜이 이제 흔 사름이 멧 밧씩허민 그 밧을 샅 내가지고 배출 갈아.(43 다) 거민 흔 사름이 열 밧 가는 사름, 열다섯 밧 가는 사름, 밧로 세영 갈면은 다마가 그렇게 안 앗거든게, 옛날 배추. 이것이 소금에 절영, 어떤 사름은 소금시민 허는디, 바당물에 강 물에 등갓당, 망아리에 담양 등갓당 거 절여지면은 시청 바구리에 건정 정 왕 고깃가루에 소금에 조금 양념 서꺼가지고 영영 혜났어. 강알러레 영영 행 그 김치가 그렇게 맛 좋 앗어. 지금은 양념행 영영 허지만은 옛날 경 안헛잖아. 게난 그 김치가 경 맛좋아났어.(6 나) 익어도 맛 좋고, 옛날은. 지금은 쪼그만 허민 겨난 시여, 시여. 김치덜이 옛날 김치 닦 지 안허영.

질: 술은?

답: 술은 춘이 술. 이만헌 춘이 잇잖아, 술춘이라고. 걸로 잔치 땐 불러가지고 옛날엔. 옛날 술 공장에서 그런 전부 통술이라났어, 지금이야 뛴술. 거 불렁 주전지레 영 비우멍 주전지 상마다 영 갓당 내불민 잔더레 비와서 먹엇지. 도감? 이디 퀘기 써는 사름이 도 감이라. 퀘기 써는 사름. 퀘기 썰멍게 흔 사름 이디 앗양 정반에 영 놉주곡 흔 사름은 썰 곡 겨른 도감 일당이 비싸. 퀘기도 하영 갓다 주곡게 술도 하영 갓다주곡, 경행 도감질 허는. 옛날은 돈 안 쥐, 그런 거 췌지. 그런 거 주고 내북 그쁜 거 사다 주고.

질: 잔치 뒷날은 어떻습니까?

답: 뒷날 옛날은 가문잔치 헛지게. 뒷날은 사둔덜도 가고 이제 사둔덜 오곡 또 이 녀 반에 친척에서, 친척에서 다 모여정 뒷날 제라게 잔치뵈여, 가문잔치가. 또 반 안네 서도 뵈헌 어른덜 초대허곡 신부집이도 허고 신랑집이도 허고 양쪽에 다 허여. 신랑이영 신부집이 가문 신부집이서 가문잔치행 먹어가지고 또 뒷날은 신랑집이 와가지고 또 허

는 거. 사둔덜이 이제는 그날 당일에 사둔덜 절핍주만은 뒷녁날사 강 사둔신의 절 마트 곡, 이디 왕 절 마트곡. 어멍은 안 가고 아방만 가. 아방만 가든 신부집이서 올 때도 아방만 와. 오라방이나 시민 오라방허곡 형부나 이시민 형부허고 그렇게. 어멍덜은 몰라. 계난 어멍덜은 사둔 얼굴 잘 몰라.

<F8, 제주시 건입동, 76세 >

질: 멧 살에 결혼헨 마씨?

답: 나가 열네 술에 약혼헤연 열여섯에 그 아무 것도 모른 때 나가 결혼을 헨 사람이 주게. 그 동기는 뭐냐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조실부모 한 신랑이라. 계난 시아버진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이실 때 나를 착허고 이쁘덴 며느리하켄 허연 청혼을 허연 약혼 헨는 데 시어머니가 급질로 또 돌아가 불었서. 돌아가비난 할 수 엇이 시할아버지가 우리 하르방네, 하르버지가 뭐허연 우리를 결혼 시겿주게. 경허연 시할아버지 밑에 시집 가가지고 한 삼 년 이시난에 아방이 저 어멍 아방 엇어지난 학교를 못허니까 이제 할아버지 밥해 줄 나 돌아가저시난 자기는 공부하겿다고. 계난 밧 흐나 풀안 이디 완 학교에 입학을 헨어. 입학해서 이월에는 6·5사변 터져 비난 군대 간. 계난 말엇이 고생한 사람이주, 나가.

질: 약혼 같은 건 안헤낫수과?

답: 옛날에사 그자 영 어른덜끼리 와근에 우리 영 행 사둔하게 허든 앓양 술이나 혼잔 먹으민 그거 약혼. 얼굴 봄이랑 마랑. 어른덜끼리만.

질: 결혼헨 땐 어땡헨 마씨?

답: 우리 결혼헤어도 우리 그 옛날에도 결혼헨 때도 어멍 아방은 엇어도 아방이 지레 죽덴 결혼 사진이 엇어게. 창피하덴 안 찍언. 겨난 저 우리 시어머니 오라방이 므을 이장, 옛날은 므을 이장허면 권세가 죽아서게. 이제 국회의원만이 헨주게. 그 국민학교 풍금 갖다놓고 헨, 만국기 다 달고, 꽃 뿌리는 아이 헨 다 하고 헨 결혼해도 결혼 사진이 엇언 야네들이 못 보주게. 경허난 나 그때 생각엔 키 죽아비난 그런 거 찍어놔뒤시문 아이들 보여주고 헨 거 생각 안 헨젿젠 허멍 허단 보난 죽어정 나만 살안. 결혼식 헨 땐 그땐게 그때 한복게, 멘사포 저 그땐 죽두리 씨는 사람도 있고. 난 면사포 썸.(52 다) 집이서, 마당에 경해도 사진도 엇고, 그때도 첨 금릉 므을에 들삭하게 결혼해도 영 못 살아, 못 살아.

질: 도새긴 멧 마리나 잡곡 잔치 때 뭐헨 먹어낫수과?

답: 친척덜 한 집은 두 마리도 잡고게. 옛날사 어루운 때니까이 밥도 보리쌀 서경 풋 낱 잔치 헨 먹고. 풋게 쌀하고 서꺼근에 허영 막 멧 솟허영 멕이고 헨주만은. 신랑상에나 신부상에만 쌀밥허영 먹이주. 반찬은게 김치에, 텨뿌라에, 웨지고기에, 뭘 계란 삶아놓고 그거.(9 가) 텨뿌라도 감저 텨뿌라에.

질: 시집갈 때 무신거 가정 가난 마씨?

답: 우리 그때 경대엔 헌 거, 화장대, 이불상, 이불 둘, 요 둘, 베개 두 개, 이불상. 영이불 개어 놓는 거. 이제 ㄱ뜨민 이불장. 상 요거추록 멘들아진 거. 서랍도 어신 거. 니 발만 들린 거. 경헌 그거 헨 시집갓어. 세숫대, 요강 그거 출리고.

질: 할아버지가 무신거 해주디가?

답: 할아버지는 무신거를 해주느냐게? 가난 멍지 옷 흔 벌 해줬게.

질: 언제 제주시에 완마씨?

답: 군대 간 의가사 제대로 그 사람 제대는 삼년을 안 살안 행 왔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 불고. 경허단 보난 이제 제대 헨 오고 농촌에 살젠허난 답답도 허고 허난 부산을 갔어. 부산을 가니까 청학동 옛날에 이북에서 왕 막 노점상덜만 이서낫주게. 그때는 그렇게 잘웬텐 허니까 돈 가정 간 그거를 사니까 우리가 재수가 없으니까 사니까 장사를 안 돼어. 안돼어 가지고 어땡 어땡 옷 푸는 가게. 국제시장 골목시장에 옛날 그런 장사가 많이 이섯거든. 또 그것도 시달린 안 되고. 내가 어린 때 시집을 가고 경 해도 얘기를 엇언 게. 거난 얘기를 엇이난. 그때에 그 사람이 독제주게, 할으방도.

(형제) 엇고, 독자. 게난 사춘덜은 많주게. 사춘덜은 이제도 바글바글 해주게. 우리집이 아방만 독제난 우리 친정 어머니가 독제에 아끼 못 나오면 막 허락해 줘 불라고. 아무 것도 문제가 엇이니까 독제에 막앙 안 된다고. 경혈 걸로 헨 막 난 저 육지도 포따리 쌍 돌아 나비고 경허른 막 아방이 당신 당선할 때까지는 절대로 기다릴 거난.

애기 당선될 때까지는 애기 못 날 때까지는 기다릴테니까 걱정하지 말렌, 나 당신 울리면 되질 안 헌텐, 당신 열네 설에 약혼해서 열여섯 설에 데려다 낵 자네를 어땡 배반 하느냐고, 아방이 절대 못 가게 헨 경 살아온 게. 경헌 부산 간 허난 저 우리 큰딸 가진 철이도 몰란 너미 오래비난 시간이 걸려노난 애기 엇일 걸로 포길 헛주게, 난. 울어전, 저 딸 난. 나 계산해 보라. 스물아홉에 나실 거라게. 저 아이가 금릉 한림읍에 소문난 아이라. 두행네 애기 엇단 애기 낵젠. 경 살아온 게 어땡어땡헨 이제, 부산서 낵안.

부산에서 난 이제 제주시에 완 양조장이라고 옛날 생겨낫주게. 술, 삼화양조장. 삼화양조장 생겨서 그디 완 아방이 성실헌 사람이난 전무직도 허고 그자 전무직 혜영 수금허레도 강 돈에 멩기멍 허여오곡 경허멍 허단에 우리가 아빠 도장이 사무실에 내비엇저게. 내부니까게 사업허는 디난 도장 내비난 사채도 보증으로 짝곡게 은행에도 짝곡 경허멍 돈을 갖다가, 사장네가. 그 사람이 우리 동네주게 경허당보난 어땡어땡 그 사람네도 고의로 경헌 것이 아니고 이제 한일소주 공장 그 사장네가 다 돈 대어 쫓단 그 사람네만 풀어주면 그디 삼화양조장 땅도 널르고 땅 끄치멍 풀안 그디 신 물 행 헨 사람이주게. 경헌디 그 사람네가 탁 잡안 허난 부도나지 안 해서. 부도 나난 우리는 삼대가 번 돈을 훌딱 망헛주게. 보징 앳안 뇌뵈 부도가 나난 법적으로 다 압류된게, 우리 재산이. 초운에게 밧덜이영게 아방 일름으로 다 신 거난 게 압류뵈 부난 이젠 빈털터리 아니라. 경 허단 보난 아방도 화병 난 죽어지고 경헌. 마흔요섯에, 아니 난 마흔넷.

아덜 하나. 아덜 이제 마흔. 하영들 날 때라도 경 못 난게. 딸 하나 난 딸은 허나 죽어

불고. 큰딸 아래 겐 마지막에 아들 하나 봉간. 경헨 아방도 화병 나고 경헨 아방 돌아가 불고 물질 시작헨. 아니, 그 전에도 막 헛주게. 처녀 때부터. 거난 금릉에서도 물질을 경 잘 허영 그뻐 미역 뜯어당 막 저 농사 지영 막 먹고, 이제 따로 물에 현 건 미역 팔앙 용돈 씨꼭 경허명 살아오단 경허연 부산으로 간 어땡어땡 이디 온 것이 3새 우리똥 두 설에 오난 몇 년? 오십 년. 이제 서부두 완 물질허기 시작허난 돈을 잘 벌어져. 상군노릇 을 헛주게 이젠 할망 돼어도. 상군, 상군. 잘허는 해녀 상군 노릇해영 살아온디. 아이고 천추도 뜯으면 이 삼등에 부뜨곡, 우미, 우미. 건입동에 막 천추가 경 좋아났어, 옛날에. 매립 아니 현 때. 경허단 보난 우리 해녀 직업이란 게 늙은 천해 보여도 무식헌 기술이 라. 자본 안 들영 돈 벌영 살아지는 거주게. **경헨 살다보난 아들도 킨 결혼시기게 돼고, 딸도 킨 결혼시건 뭐(42 라)** 이젠 걱정 옛이 살다 보난 복력이 시원치 안 헤라게. 며느 리도 옛곡. 게난 고생고생허명 고생이 딸도 못허게 산 할망이주게. 이 침 제주수협이 고 ○○이엔 하면 옛날 나 젊은 땐 일름 날러났주게. 왜냐면 그때는 문화재를 헛어, 수협 대 결로. 문화재를 허면 문화재를 허면 마이크 잡앙 차 위에서 노래를 불렀주게. 이어도 사 나~ 이어도 사나~ 허명 막. 나가 경 불르곡 막 노래 이젠 심장 뛰영 못 부르주, 노렐 막 잘 불러났저. 마이크 잡앙 ‘전복 잡앙 수출하고 소라 잡아 수출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허명 막 박수를. 3년을 나가 우승기 탄 사람이라. 그 노래 불런. 이젠 댜 신세대 똤인 직원덜도 우리 나이에 다 똤허고, 다 죽어불고 사름덜 잘 알아주지 안 헤도 그 옛 날엔 고시열이렌 허민 모르는 사람이 옛어 나어. 그렇게 살았던 할망이 이렇게 살고 있 어요.

질: 학교에 다녀난 마씨?

답: 학교는 언니덜이영 오빠덜이영 댜 일본 간 때난 가방이영 댜 사곡 헨 보내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게 여자는 공부허명 문장 안 나난 물질 잘 허곡, 일만 잘 행 착허민 시 집 가진덴. 경허명 공부를 안 시건, 야학 두회헨 일름자 알안. 똤 살 때고 한 금릉에서~ 그때 야학을 이서났주게. 국민학교 영 동네 조그만헌 디 이서났어. 그디 글 몰른 사람덜 강습헨 일본 히누마루노 허다가 국어 일본 배완 일본말도 좀 알아지고. 일본말 경허단 보난 해방 되불엇주게. 해방되기 전이. 일본말 게메. 국어, **일본말 배우단 보난 오꽃 해 방 되언.(14 다)** 이젠 야학허명 기억니은 배우고 4배우고 경헨 일름제 알앙 번호도 알고 험주. 어떤 선생 몰라. 남저 선생이 3르쳐 줏주만은 그런 거 똤 기억험나? 기억이 안 나.

질: 어릴 때 무시거 허명 놀아난 마씨?

답: 무시걸 헤여게? 우리 해수욕장이주게. 모살 많은 데난 그디 물 지영 해녀 배우명 그자 어명 일시경 놔두면 그거 다 헤지민 바다에 강 힘박질 허명게 해녀 배왔주게. 경허 명 산 거. **교무줄, 공기, 그런 거 무사 안 헤?(28 가)** 다 헛주, 강강수월래 그런 거 다 소똤. 밤이 줌 자서게? 경허문 엄만 들어오른 발콥데기 다 데와지명 지집년이 가름 들레 똤검젠 처 옥들명 헤도 옛날 놀레 똤검젠 가름 들런 지집년이 똤검젠 경허명 살아왔어. **거난 아니 저 비양도엔 현 디 강 물질을 헤오주게, 금릉은.(15 나)** 게문 또 놀 지믄 조그 만이 잘 저? 노래 부르명 배 요남은 척 행 이제 막 상군만 재진백이 들어사근에 비양도

갈 때 시험 부떠 농민 재미가 나누게, 니 먼저 가져, 나 먼저 가져. 경혜연 살단 원.

질: 언제부터 물질허연 마씨?

답: 나? 열여덟에 상군노릇 허연. 아이 때 다 배완. 학교도 안 허고 야네 때 뭐 시경 놔두민 집 청소해 두고 밥이나 해뒹 바당에 강 살명 배왓주گی. 이제사 저 뭐 운동으로 감주. 아이고 우리 때에는 전복도 하고, 해삼도 하고, 소라도. 소란 막 데껴 비명 돈 날 거만 그때는 돈도 안 땡주. 제주시에 완 수출허기 시작해 가니까 해삼 값도 좋고. 해삼도 바꾸니로 건져와도 돈 한 푼 안 줘. 이제는 키로에 이만 원 아냐?(20 나) 저 전복도 백에 만이천 원 가요. 백그람에. 나 요 그지겐 오백 그람짜리 하나 해연 흔 손에 오만삼천 원 벌었어. 아니 눈 어두우난 요왕님이 저기 먼 저기 저렇게 부떠시넨 질 처암 간 땡 건 전복으로, 전복이 하도 귀허니까 엇언 내려왔단 아무 것도 엇언 또 간 올라간 닷을 놓난 또 그디 간 놔젓어게. 놔전 베려보난 그때사 전복이 확인 땡언. 해양헌 거 점으로만 알안 전 전복으로 아니허연. 경헨 전복도 경 헛주만 이 우리 해녀 생활이 참말로 제주도의 문화주게. 알게 모르게 침 어명덜 옛날에 해당 아기덜 백여 살리고, 공부 시키고 침 그때 어렵게 산 어명덜이 다 늙엇주만 또 이제 사람덜은 너무 존 세월 험주. 그때는 고무옷 나곤 디가 흔 이십년 더 되실 거라. 그전엔 속곳으로 만든 거 하나만 입고 헛주만 이 고무옷 나난 이제도 우리 바다에 가는 거. 그거 입으면은 안 추우니까 손발만 좀 실렵지. 경허난 세상은 죽어진 사람들만 억울하주 너무나 좋은 세상 난. 시에서도 이제 이 고무옷도 보조해 쥔 이십스만 원짜리 팔만 원만 자체 부담하면은 보조 나왕 허고. 게난 세상이 좋아젓주게. 게난 경허단 보니까 제주도에 소라 값이 잘 가게를 안 헤게. 전이 수출할 때 침 소라 값이 밀감 못지않게 나가났주게. 겐디 요젠 키로에 사천원이며, 삼천오백원이며 경허명 나오난 소라도 잘 즈물진 못허는 생인게. 없어 없어, 시에는.

<F9, 조천읍 조천리, 82세 >

질: 멧 살에 결혼헨 마씨?

답: 결혼은 열일곱에, 열일곱에 허난 무신 살아봐샤? 옛날 시상이라 흔 오년 간은 일년에 흔 번 가나마나 시집이 뵈지, 머헌지 어떻허는 건지 모르고 살단 스물흔에 애기 낳난 우리집이 나 스무설에 해방되고이 스물흐나엔 우상우상우상 대동청년이니 뵈니 허더라고. 대동청년에 가입을 허련 헤도 우리 서방님이 간세다리라부난 일하기 실편 그땡 대동청년이 땡날 길 다끄레 허곡 그게 일이라. 노시 가입을 안 허난 반동으로 추급을 헤가는 거라이 반동으로 추급을 헤가난 나 일본에 성들 사난 일본 가불켄.(47 가) 경헨 그냥 일본 가불어세계.

질: 옛날 결혼헨 때 뭐 행 와난마씨?

답: 옛날에 결혼할 때? 부젓칩이 뜯은, 부젓칩이 뜯은 알주게 흐뎡이 생활이 녀넨 집이 뜯은 아래 뜯 요 하나흐고 위에 이불 하나흐고(29 가) 또 그건 엇튼 부자나 가난이나 다 흐는 거라. 요강, 오즘 쌀 요강, 그 요강을 흐민 부젓칩이 여유 있는 집이 뜯은 늦

요강을 하민 아주 소문이 건건하는 거라.(38 가) 아무집이 뜯은 낫요강 험저. 경 안 하면 사기요강. 지세요강, 지세단지 행 가는 사람도 서서. 지세엔 현 거는 거명현 그 흙으로 만든 거명현 단지. 그런 거 행 가는 사람도 시곡. 경혜영 옛날엔 시집가고 장계가고 시집 갈 땐.

질: 결혼할 때 어떻게 마씨?

답: 결혼식이엔 현 건 이제 ㄴ치 무신 예식혁명 결혼혜사? 옛날에사. 부젓집이 신랑네 집이 부젓집이는 흙뽕 여유잇는 집이는 새각실 가메에, 새서방이 새각시 들레 갈 때는 물 타곡이 사모관대엔 현 거 이제 새서방덜 씨는, 새서방들 입는 옷이 이서. 그 옷 입고 물 탕 강 새각시를 들양오민 방드레 직접 들어오지 아이훙곡 마당에 가멜 놓양. 내어 낱 그거 보고 올리친심이엔 현 거 예식, 지금 보면 예식이지 그계. 마당에서 서로 맞절 시겨 근에 안트레 들어오고. 그냥 그건 아주 침 백 집에 하나나 천 집에 하나이나 훙곡 경 안 한 집인 돌아오민 구들르레 그냥 막바로 그냥 마루까지 가메 들어왕 그냥 문 열양 그냥 새각시 앓져.

새각시 옛날엔게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주만은 이런 예식장에 가는 그런 무시것고 식복이 아니고 그냥 한복혜영게 이녀으로. 친정어머니가 허영 입정 보내민 밥상을 강 딱 받아나 민 시집이 강, 밥상을 딱 받아나민, 이젠 머리도이 이 머털 영하면 이디 막 크게 이제 머 현 사람들 ㄴ찌 크게 빗네대 하고.

질: 새각시 머린 어떻게여마씨?

답: 새각시 머리? 새각시 머리 그냥 쪽진 머리계, 쪽진머리 훙곡 족두리게. 족두리 씨우고 낱자 크게, 낱자훙곡, 낱자 크게 하고 족두리 씨우고 경 행 가민 밥상을 받기 전엔 그 머리를 안 클러. 꼭 그집이 강 밥상을 받아나야 머털 클르민 옷도 벗어. 옷도 벗이면 시집이서는 며느리 나시 옷을 허영 뇌두주계. 갱 그 옷을 갈아입어.(63 나) 갈아입히민 그걸로 끝혜근에 그 집이 살당 뒷날은 날이 새면은 뭔가하면 사둔열명이엔 현다 거. 지금 ㄴ뜨면 사둔 인사소개주계. 지금도 허는 집은 허지. 험 거여. 이젠 그자 예식장에서도 폐백을 허고 허는 디 지금 말로는 폐백이지. 경혜영 새각시 집에 뒷날은 돌아아정 새서 방도 오곡 새서방 아방도 오곡 경 행 오면은 새각시 집이서 대접행 보내면 그걸로 이젠 돌아가민 그집이 강 사는 거.

질: 새각시상에 맞춘 거 하영 출립니까?

답: 새각시상에는 옛날엔이 첫짜 젤 표난 건 계란, 계란 삶은 거 세 개, 그것도 부젓집 이라야 세 개지, 어떤 집인 엇인 집인 두 개도 하는 집도 싯곡 하나만은 아이 놓는. 세 개 놓곡. 그냥 보통적으로 밥훙곡 국허곡. 지금 ㄴ치 무신 반찬이 무신거 이거 저거 시냐?(9 나) 밥허곡 국허곡 짐치가 어디서? 짐치 좋아하네. 그런 것도 엇어. 계란 세 개. 장은 계란 짝어 먹으렘 장물, 장물도 옛날 시커명현 조선간장 험 방울 종지에 행, 그것이 새각시상.

국은 제기국 끌리지. 바닷고기 끌리는 집인 드물고 돼지고기. 메역 낱. 겐디 옛날에는 새각시상을 딱 오면 그 하님이 새각시 모셔 간 하님이 잇어어.(11 다) 하님이 우린 첫째

밥상 새각시가 손가락 아이 들른 때에 그 밥 뚜껑이, 가짓갱이 확 열아근에 그 무신 식산디 손가락으로 가짓갱이더레 밥 두 손가락 거러 놓고 계란 세 개 눈 거 하나 툇 놓곡 헤근에 새각시 밥상 알르레 툇 놔똥 손가락 심정 밥을 먹으렌 헤여. 난 열일곱에 시집 가도이 흥솔허민 아이고, 죽어도 ㄱ진상, 한 번 살아도 ㄱ진상, 시집갈 때 ㄱ진상 한 번, 죽어도 ㄱ진상 한 번, ㄱ진상이엔 현 말만 ㄱ진상 받을 거, ㄱ진상 받을 거 험주, 저건 뭐 험다고 가짓갱이에 저거 거러 놔도 ㄱ진상이 웨어? 나 생각으로 경헌 거라. 아무도 헐려보지 안 허여야 고진상이지 뭐. 난 안 헤어. 경헌난사 침 영 못 살암신디 몰라도. 하나님이 가난 그뎀 경 새각시가 죽으렌 허민 하나님이 죽는 시 뵈이라도 헤야지, 죽지 못허민. 그런 기회가 웨노난 가짓갱이 영 열엇긔데 말은 못 곧고. 그런 거 없다고 영 열엇단 또 더꺼블테. 더껏당 가짓갱이도이 시집이 가민 대반이엔 행 새각시 옆에 그 집에 큰시어멍이 웨나, 죽은시어멍이 웨나 그런 부모째 된 어른이 새각지 조꼳디 대반이엔 행 앓져. 앓지민 그 대반 앓은 어른이 '새애기 영 밥 먹으라 손가락 심으레이.' 그때야 밥을 먹어. 난 계란 밥도 먹어보지 안 허고 밥도 딱 쓸 두 방울씩 두 번 먹고, 계란만 하나, 게 오죽 먹고플, 이제 ㄱ뜨면 안 먹을 건디. 하실 집젠 허민 하시로 꼭 찢런 계란만 하나 먹언, 밥 두 번 거러 먹언 아이 먹언. 계란 날 보고 잘도 시건방진 며느리 헤왓젠 소문 나났져. 계란 꼭 찢런 먹으난. 계란 그거 눈 거 뿐이엔 먹은 새각시가 없어. 뿐으로 눈 건지 뵈지 그 계란 찢러 먹는 새각시가 없어. 비우가 약헨 건지, 어떠헨 건지 몰라도. **난 그게 먹고 프난 먹엇단 말이여. 계란 날보고 시건방진 메뉴리 헤왓젠.(5 나)**

경헌 새각시가 밥을 아니 먹으면은 밥 손가락을 그만 두면 그 밥 사발을 하나님이 이렇 게 들러 가지고 손가락 들렁 옛날엔 무사산디 그 새각시 갓젠 허민 창문이 확확하게 새 각시 보첸 허멍 그 동네사람들이 경 모여사. 한 손가락씩 거러주는 거라. 그디 산 사람들. 손 내물렌 허민 손에 영 받지게. 곤밥이 뵈산디 곤밥이엔.

게 옛날에사 쓸밥이야 먹어사? 보리밥, 조팍 그것만 먹기 때문에 쓸밥이난 곤밥이엔 그걸 새각시밥 흥 손가락씩 먹으렌 흥민 손덜 다 받았. **이제 ㄱ뜨민 누게 손 받느니 게.(36 가)**

이제 쓸밥을 그거 곤밥으로 경 옛날엔 엇어난, 엇이난, 아니헨 먹어. 보통 아이 먹주 게, 쓸보통 아이 먹주게. 쓸밥 먹는 사람이 어디시니? 이제난 쓸밥.

질: 이 동넨 무시거 하영 헤낫수과, 탕건 헤낫수과?

답: 탕건? 탕건 니네 아이 뵈나시카? 무사 갓 잇잖아이. 갓, 갓 그 이런 바우에 영 둘러진 거 보고는 양태, 양태엔 현 거는 갓 곧 가상하는 거고 갓 꼭대기가 잇잖아이. 그거 는 모즈라고이 그 꼭대기만 낭그로 툇 그 뿐으로 그 골을 만들지. 만들면 그거 위에서 그걸 뵈는 거라 못양 그걸 혹 뵈겨내민 그 뿐이 웨는 거라. 갓 꼭대기도 아니고 가상도 아니고 우리가 헤난 탕건이엔 것은 탕건이 어디 뵈때가 이실 건디. 이디 그냥 영 툇 맞게 영 대곡 영 허면 머 잇잖아, 멧고 드라마에 그. 이디 영 특진 거. 특정 여기 흥솔 노 프고 이딘 특진 거. 그게 탕건이주게. 것이 탕건이민 탕건 그거 뵈는 골을 낭그로 툇 그 뿐으로 만들야. 영 몽착허게 영 헤냥 이디 영 쪼작허고 요딘 영 특지곡 허게 만들민 그 식으로만 그 골에서 뵈야. 총으로. 바늘로, 바늘 ㄱ뜨 게 아니고 바늘로. 탕건 바늘이라고 귀가 스랑허지 아니흥고 동글락헌 거 옛날에 나와났져. 응 지금 바늘인디 귀만 동글

락해여. 건 총을 펴 거이기 때문에 귀가 스랑하지 안 허고 동글락헌 거. 물총. 물총도 물 질루는 사름은 이 제주 말총도 총 좋은 건 빼영 헤진다만은 대부분은 미국 물총이라야. 미국 물총이라야 총이 질기주게. 질기고 훑고, 머리털 보다는 조금 훑어. 그걸 것도 막 돈 쟁 사당, 돈 쟁 사다근에 그거 바놓에 피어근에 이게 예를 들어 바놓이면 바놓을 바 놓질듯히 영 췌지 아니히고 무사 육지사람들은 우리 탕건하는 식으로 바놓질도 바놓 췌어. 영 췌어. 영 췌영 육지사름덜 영 바놓질 허잖아. 똑 이식으로 췌근에 걸 총을 췌어 근에 영 훌훌 못주게. 못아뇌근에 것도 좀진 탕건이엔 헌 것은 줄도 좀질곡 동수를 많이 못아야. 동수, 열 도리그라 혼 동, 혼 동 허주게. 혼 동행 열 바쿠 돌아온 거 혼 동, 스무 바쿠 돌아오민 두 동, 서른 바쿠허민 석 동 허는다. 영근탕건은 줄도 늦곡 영근 탕 건은 그 줄이 멧동 허느냐민 백구십 줄도 놓곡 백삼십줄도 낱 영근 탕근 허고. 좀진탕건 은 이백오십 줄을 뇌야웨. 이백오십 줄을 낱 그걸 못이민 좀진탕건은 게난 값도 많이 가 고,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베허고 멧주 모양으로이 그 식이주게. 거난 그 좀진탕건 을 못젠 허른 오일에 혼 번씩 장이 돌아오는다 혼 장 도막에 하나 못앙 쪼끔 하루 정도 베피 안 남나. 매일 밤낮으로 헤도. 영근탕건은 두 장 오면 세 겹 못아, 두 장 도막에 두 장이민 열흘 아이가? 열흘이면 세 개를 못아, 영근탕건은. 열흘이면 두 장 도막 아니가? 두 장. 한 장이 오 일씩이라. 게난 열흘이면 영근탕건은 세개, 세개를 못고.

못는 거. 탕건 못는 거. 짜는 거지. 못아가는 게 짜가는 거지. 게난 그걸 총으로 못이 니까 못아야 것도 게민이 좀진탕건은 이백오십 줄을 뇌근에 탕건을 못는다 알통 못앙 막 물 불르멍 잡아 늘랴. 늘랴근에 우통 못앙 꼭대기까지 마무리 지지. 마무리 지민 우알통 에 알통 널비로 아홉 동을 못이면 아흔 도리. 아흔 번을 뱅뱅 혼 곱씩, 혼 곱씩 아흔 번 을 돌아오민 아홉 동. 열 번 돌아온 게 혼 동이니까. 아홉 동 우통도 녀 동을 못아야 녀 동, 마흔 도리. 경허민 예를 들어 백삼십 도리가 웨는 거라. 혼 도리, 혼 도리 허민. 그추 록 해야 꼭대기까지 마무리가 웨는 거. 경행 마무리 웨면 그것만가? 어떻게 공들게 혼는 건중 알آمد? 그 이백오십 줄 논 걸 그걸 또 따시 이백오십 줄 전부다 세어 가는 거라. 또 못아, 또 못아 낱 아래 밑에도 딱로 못고. 막 공든다게. 경 허는 걸 혼 장 또 막 장일 당허면 하나혼면 흐룻밤 흐루쭙 남주, 날이. 게민 그거는 좀진탕건은 혼 석 장도 막 보름 에 두 개 정도 나오고 영근탕건은 열흘에 세 개가 나오고. 경허민 옛날엔 그 영근탕건은 십전도 반곡, 십오전도 반곡 좀진탕건은 오십 전을 받아. 게노니까 그게 비싸지. 비싸노 난 그거 못는 사름은 막 곧 배울 땐 거 좀진탕건은 허도 못헤여. 익숙한 선생이라야 허 지. 탕건 익숙어사 허지. 그추록 경 못이민 그 노릇 저 노릇행 살단 보난 무신 그 예를 들러 배우는 시간은 어디 심광, 학교영 어디 실 말고?

질: 애기 나명 고생도 하영 헤낫지양?

답: 우리 시절엔 나는 어머님이 부모들이 이것도 참 **바당에 물때 모양으로 혼 데는 노 프고 혼 데는 야픈 데고(51 나)** 부모가 그런 애기에 고생을 헤부니까 건디 나는 아기 낱 명 많이 나보도 안헛주만 아기 낱명 고생허는 것도 안 보고 고생헤보도 안 허고 헤신디. 이 옛날에 우리 어린 때 보면이 애기들이 먼 병을 걸령 죽는가 하면 그때는 약이 없고 이런, 약이엔 헌 건 애기덜 병에는 약이엔 헌 거는 침베피 없던 모양이라. 애기가 아파도 침만 마치레 가지 약 행 먹이는 말을 우리 어린 때까지, 시집 갈 때까지 못 들어봤어. 그

때 시절엔 봄이 나면 고사리 거끄레 가거든.(42 나) 고사리 거끄레 간 보민 전부 요만씩, 요만씩헌 어층, 어층이엔 허민 애기무덤. 쩌끌락 쩌끌락헌 무덤에 애기 녹저난 구덕 강 딱 엇영 돌맹이 하나 딱 지돌황 논 것이 수천 개 봐저. 하루 앓어도 멧 개씩 봐저. 이제 야 그런 어층이 어디시니? 하나 뵤 사진이나 찍어오젠 해도 어려와.

어층, 애기 무덤보고 어층, 아긴 때 죽은 거 어층. 쟁허영 우리 어린 때도 영 보민 애기덜을 나민 아이고 아는 사람은 애기 낭 백일도 아이 쉰 거 죽어젠 험저, 두 달도 아이 쉰 거 죽어젠 험저, 사흘만이 죽어전게, 애기들이 경 잘 죽어. 뵤이 애기덜 죽는 뵤이 옛날엔 지금은 약이 좋아노난 열을 안 낭 험저 열병이라라. 영 나가 영 여간 커 오명 생각 허난 열이 그냥 확 그 어린 것이 힘도 엇인 거 열이 팍 올라노민 그냥 흑하민 그냥 줍 우쳐 부는 거라. 그걸 보고 뵤엔 허느냐민 경징이라, 경징. 경끼가 많이 있는 애기, 예를 들민 경끼엔 허면 지금 생각험 보민 이 성격이라. 성격이 좀 예민하고 관 사람이 잇고, 느릿하게 조금 뜬 사람이 잇고 하잖아. 성격이 너무 과도헌 아기는 열이 팍 오르면 흑해 영 그냥 줍 우치민 걸 죽엇젠 험 다 물어 불엄세계, 옛날은.

<F10, 표선면 하천리, 80세>

질: 옛날에 결혼할 때 어떻게 난 마씨?

답: 우리 결혼 할 때 저 이렇게 가메, 가메라고 가메. 이렇게 가메에 해서 이제 몰 우이 낡 시경 시집갓주. 이디 머리도 족두리 쓰고. 가메, 네모 영 나게 행 저 높은 사름덜 드라마에 영 들렁 땡기는 거 식으로 짜근에 몰에 영 시켜. 바쿠 엇이 그자 몰 우이 몰 하나 영 혜영 뒤에도 몰. 영행 몰 우이 이렇게 뒤에 시끄고 뒤에 몰도 고개 나오게 행 이렇게 시끄고 행 시집 갓주.

질: (가마에서) 털어지카부덴 겁나진 안협니까?

답: 털어지지 안 허여. 양착에 사름이 딱 붙잡아.(33 가) 딱 붙잡아 이렇게. 몰 이렇게 심고 또 하인이 있어. 여장 밧 살 때 요새 문세 허듯 여문 여장. 그거 저 시집 가곡 장게 가는 여장이 있어. 옛날은 문세, 그거 지영, 그거를 신랑칩이서 가져온 거 잘못 쓰민 신부를 내어주지 안허여, 옛날은. 게난 신랑칩이서 저 그 들러리 가는 사름이 똑똑허고 한 문 잘 쓰는 사름으로 뽑아서 들러리 가서 잘못 썩 바꾸허민 거기서 쓰는 사름. 어떻게 쓰라 허민 쓰는 사름만 굴려서 우시 갓어.

질: 신부집이 신랑이 가민 어떻게 협니까?

답: 그거 반양, 지영 간 거 반양. 드라마덜 함 정 땡기는 거, 그걸 받아서 문 익어봐서 합격 돼민 들어오라 허민 들어가고 안 돼민 그거 새로 쓰라 허민 쓰고.

질: 신랑상은 어떤 거 출려 줍니까?

답: 신랑상은 따로 또 그 우시 상은 따로, 친족 상 따로. (우시는) 많이 완, 훈 거자 오륙 명 오주.(38 라) 신랑칩이서도 대표로 이렇게 손님대우허는 사름도 또 멧 사름 앓곡.

옛날에도 경해도 맛 준 거, 신부상에 출린 거 꼭ㄴ치 출려. 무신 찌짐 ㄴ쁜 거. 옛날은
독다리가 최고난, 독다리, 다리만 푹푹 떼영, 다리만 푹푹 놔. 독다리가 켈 우선권. 신랑
각시신디 놓주. 지짐 허고게, 도야지 고기허고 바다래기허고, 생성 그런 거 ㄴ쁜 거. 짐
치도 올리고게 먹는 건 다 올려. 밥, 곤밥 허주게, 새서방 밥. 국도 옛날은 도새기 잡앙
허는 따문 접작빼국, 접작빼국 그것가 켈 알아주는 거난 ㄴ사근앵에 접작빼 끌려. 무수
냥, 메역 안 놔. 새서방 국이나 새각시 국이나 마찬가지로. 옛날은 그렇게 헐 게 어디 서
게, 그런 거나 베끼.

질: 새각시 들앙 새서방 집이 가민 어떻 험니까?

답: 게문 뒷날은 신부집이 갈 거주. 신랑침이 가난 신부집이 갈 땐 신랑침이서 도새기
다리 큰 거 ㅎ나 지영 가서 또 잔치 허는 거라. 친족덜 모여다 냥, 그거 썰어근앵에 잔치
허고 영 먹으민 걸로 끝.

질: 잔치 다음날 말고 당일 날 새각시 들앙 새서방 집이 가민 마당에서 사진 찍어?

답: 마당에 안 행 그자 사진 찍는 거 옛날 우리 갈 때는 사진 찍는 거 없엇어. 그자
방에 들어가. 왕 방에 들어강 보민, 옛날은 떡이, ㄴ멸떡, 들반착짜리 그런 거 테우고. 아
으덜 막 보레 오민 수제로 밥 ㅎ 수팔씩 떠근앵에 아으덜 손에 놔주민. 거 그거 생각에
거 얻어 먹으레. 경허고 떡 ㅎ나씩 테우고, ㄴ멸떡, 새각시떡.(30 다) 거 얻어 먹으레 막
가.

질: 새각시가 출령가는 건 뭐마씨?

답: 이불자리. 그땐 우리 시집갈 때 이불자리 세 채 해서. 잘 출리민. 나 해녀질 헨 물
질 잘허난에 그때 열일곱에 육지 간 물질 해연 ㄴ 스물에 시집갓주. 게난에 잘 출령 갓
주. 이불 세 채 ㅎ고 ㅎ래이불허고 요새 ㄴ치 전기제품은 그땐 나지 안 허난, 이불 세 채
행 잘 출령 갓주. 요강도 가져 갓주. 요강은 옛날 그런 요강 안 나. 저 사기 요강. 우리
집인 잇저. 우리 할망 해난 거. 우리 시어멍 해난 거 파란 거 이서. ㅎ 허는 사름은 해도
난 ㅎ 안 행 갓어. ㅎ ㅎ뎀 츠츠 이서 간 발전돼어 간 후때에. 우리땐 엇어난. ㅎ 안 허
여. 그루후제 ㅎ허고 십년 이서 가사 ㅎ 헛주. 우리 대엔 켈 잘 출린 사름이 이불 세 채.
ㅎ 채는 우리 보단 앞서. 우리 대엔 두 채가 보통이랏주. ㅎ디 난 물질헨 버스난에, 나대
로 버스난 세 채헨.(63 가) 집이서 다 날봐근에 술일날, 개날, 그날 날 빵 만드야. 저 동
네에 시집가근앵에 초불에 산 사름, 시집강 안 살앙 남뎀 죽어분 사름도 아니 허고 시집
강 잘 사는 사름덜로 ㅎ려당 새각시 옷도 만드고 이불도 만드고 ㅎ헛어. ㅎ헌디 이체는
그런 거 이서? 이체는 그런 거 엇어.

질: 이불은 어떤 거 행 간마씨?

답: 이불은 옛날은 삼색단, 양단 그런 거 베끼 엇어. 난 삼색단 요허고 저 양단 이불
허고 멩지 이불 허고 ㅎ헨 헤갓지. 육지 탕기난에 거 해왔주. 베개는 그자 보통 광목으로
만들앙 허고 그땐 수논 것도 엇엇어. 그자 광목으로 아, 수논 거 이섯저, 베갓잎, 베갓잎
에.(65 다) 그거 허곡 광목으로 가사리 부찌근에 씨와근에, 속엔 ㄴ물채. ㄴ물채 베기 ㅎ

게 놓주, 너미 하영 놓민 고개 아파. 마직허게 영 멘들민 그자 멜씩허게 너미 속차민 고개 아파.

질: 이불 세채허민 베개도 여섯 개 험니까?

답: 어떻사 헤져신지 잊어불언. 이거 어느 때라게? 이제 팔십이다. 시집 가난 거만 알주, 몰 타근에.

질: 족두리 썩 가납디가?

답: 우리 전에는 영 건제 정 가놔는디 우리 대엔 족두리가 나놔어. 건제 헤단 또 흐꿈 밭전 웨난 족두리 썩 가놔주. 족두리 썩네, 그때 빠마 헛주게, 우리 슷 빠마. 나 욱지 텡기난 난 슷빠마 해서. ㄴ는 ㄴ는 현 슷 헤근엔에 영헝 그 저 집게, 영 빨래집게 ㄴ추룩 만든 걸로 헤여네 몰안에 영영 쥼전 빠마해서, 우리. 그런 걸로 빠마헤네 족두리 썩.

질: 옷은 어떤 거 입어남마씨?

답: 옷은 그때 우리 이모가 일본 텡기난에 양단 옷을 헤퀸. 것도 이제 놔뒀주. 죽영 가민 입젠. 양단 옷 헤주난 거 입고 멡지로 만들어 놔어. 죽영 가민 입젠. 경헤네 양단으로 입언 가와주, 시집갈 때. 만들긴 만들어 놔둔디 죽영 갈 때 입는 거. 경헝 놔뒀서 지금. 시집을 때 헝 온 거. 거시기 저 우이 상감마마털 입는 저 큰 미시거 장옷, 것도 있어. 것도 물들연 만든 거. 빌령 입영, 잘 안 빌려줘. 투적헌덴. 버물민 흐꿈이라도 버물민 그건 빨 수도 엇고 허난 안 빌려줘. 안 빌려주난 거 헤야 웨여, 만들어사. 우린 만드난에 나 집 짓젠 허난 늬의 창고에 거시기 퀘 앓단 머치난에 얼룩얼룩얼룩해서 저 거시기 파란 물 들이고 짓은 빨간 물 들연 만든 거 있어. 죽영 갈 때 입젠 놔뒀주. 양단은 회색인디 멡지 치메에 안팓 놔 만들어 비엿주. 두 개 안 입진덴 허난에 멡지 안 놓고, 멡지치텐 안 놓고 그건 현디 미신 색이엔 곱으민 웨코? 분홍색도 아니고 연헌 색이라. 우알 ㄴ쁜 거. 거 이모가 일본 텡긴 때 헤다 주난에.

질: 신랑집이선 옷 안 헤 줍디가?

답: 신랑집이서 헤준 거 입언 다 헝련. 몰르크라. 그뎨 쥼 헝 허게 헝 거 인주 치메. 요새 그뎨이 옛날엔 유등 치메가 나고 비로도 치메가 나 놔주. 비로도 까만 거, 비로도 치메 나고 비로도 치텐 걸언 놔뒀서, ㄴ만이. 이름나게 헝 거 양단 저고리 호박단에 그거 헝 거. 비로도 치메허고 양단 치메허고 저 유등 치메가 유행인디 어떤 것사 헤 줘신디 몰라.

질: 평상시에는 일헝 뎨 어떤 옷을 입읍니까?

답: 그때 일이 잇엇어? 감옷, 그때 감옷, 광목도 잘 엇어서. 광목에 저 물 들영, 검은 물 들영 입고, 감 들영 입곡 그것가 쥼 최고 존 거주. 감물은 감 짜근에 감 ㄴ사근에 마깨로 ㄴ상, 던드렁 마깨로 그 다라 안네 낱, 남박, 도고리 안네 던드렁 마깨 두드리는 돌이서. 돌 그 안에 낱 그걸로 빼져 낱 이제 옷 기지 낱 막 미치는 거라. 그거 낱 미쳐 아, 힘들어. 요새는 기계로 짜근에 헝 입어도 아이고, 우리 고생허게 살안에 살기 좋젠 허난

이제 죽어볼 거. 얼큰하여. 팔십 벌써 아이고 칠십만 돼 저시민. 아이고, 이제 아이고, 팔십 다섯 살아지카? 나 오래 살아보젠 니도 싱건. 천만원 넘어 들연 니 싱그젠, 세일해도 이거, 그거 다 허젠 허난 아덜이영 딸이영 막아도 나 거 싱건. 십년 살아지카?

질: 잔치는 메칠 해냈수과?

답: 삼일 헛주. 도새기 잡는 날 하루, 가문잔치 날 하루, 원 잔칫날 하루 허난 삼일 헛주. 그때는 친족들 배편 잔치 안 허여. 신부집이 가민 친족들만 모영 그거ㄷ장 허민 나홀 잔치.

질: 도새긴 멧 마리나 잡양 잔치 해 냐수과?

답: 도새긴 질화도 족양 사당 헛주.(46 다) 혼 마리로 안 웨여. 두 마리 잡앗주. 요새는 뿔대로 해도 옛날은 꿩이를 애견 썬주게. 혼 반 두 반 늙 주도 안허고 이제는 흐뎡 허민 꿩이 먹을타 행 받아주고 막 멧대로 받아주는데 그뎡 그런 거가 옛엇어. 받아주질 안허여. 도감이 잘 안 주주게. 담배나 사다주곡 헤사 주주. 꿩이 메껴볼민 도감안티 메껴볼민 대장이주, 주인 권한 엇어, 도감이 대장.(54 다) 주인도 강 스정헤사 줘. 족으민 도감이 책임이난. 담배라도 사다 주멍 막 도렌 스정헤야 줘. 안 줘.

질: 순대도 멘들어난 마씨?

답: 순대도 이서, 수웨. 수웨 담아근에 소님덜 술안주 수웨. 믱물코루에 도새기 피 반양 그거에 뇌근에 문드대기곡 쓸 물에 컷당 쓸 담곡. 그냥 쓸, 촉쓸도 헤여도 좋주만은 그냥 쓸, 혼 방울 뇌근에 보기 좋게 농곡, 마들 농곡, 파 흐뎡 농곡, 맛있게 허젠 허민 꿩도 농곡, 경혜근에 허민 맛있어. 옛날 수웨가 맛종아. 배설에 담양 술아근에 익은 거 물르민 적꼬지로라도 꼭 쥘르민 피가 나민 선 거고 피 안 나민 익은 거.(48 다) 경혜근에 먹곡 헛주.

질: 김치에 고추가루도 난 먹어수과?

답: 경해도 어느 정돈 헨 먹엇주. 고추가루도 놓고. 옛인 집인 고추 가루 하영 안 낱 그자 아씩 낱 행 먹엇주만은 츄츄츄츄 이젠. 옛날은 그자락 경 혼전허겐 못 살앗주. 우리 클 뎡 밥 만 먹영 죽지 안 헨 정도로 살앗주. 우리 잘도 고생허게 살앗어. 감저 과당이 팔뿔 나민 감저 과당 감저 청 먹고, 정심에, 정심으로.(48 라) 제국 시대에 저 감저 빼때기, 빼때기 배급 주민 그거 곶아근에 저배기 행 먹고. 우리 잘도 고생허게 살앗어. 보리 곶아난 보리 개역, 저배기 행 먹고. 보리 곶아난 거 도새기 먹는 거, 그거 곶양, 쳇 번 근 건 말아도 막 잘 곶아근에 쓸 날 때 곤 ㄷ루 난 건 받아근에 우리 저배기 행 먹고. 보릿ㄷ루, 보릿ㄷ루 저배기도 먹고, 우리 감저 천 먹고 우리 잘도 고생허게 살앗어. 계난 이제 살기줄 때 나가난 죽어볼 거난 을큰헤여. 이제 팔십, 칠십만 돼 저시민, 아이고 억울허여.

<F11, 한경면 산양리, 84세>

질: 옛날 시집가난 말 들으레 왔수다.

답: 옛날에 시집가난 말 곶을 말이파? 아이고 옛날엔 나 열아홉에 시집간,(64 다) 스물 하나에 난. 게난양 그 아기덜 경 나노난양 즐바로 뭇 먹어젓수과?(26 나) 굶으멍 살안, 그 아기덜이영. 흔 설 뭉이로 나고 두 슬 뭉이로 나고 헤노난.(44 나) 시집이도 간 보난 뭇 엇어노난 고생혈 집이라. 이거 친정이 이디 시집은 요디 요 월강동이렌 현 딘디 이 동네라도 요 월강동. 그디 가난 동네 흔 동넵주, 흔 동네 요디. 아이고 나 옛날 살아난 말 들영 뭇 허쿠과? 아기 나난양 나민양 영 옛날 구덕 지영 밧디 강 아기 그냥 낭께기 하나 영 포따리 하나 썩와근에 이디 그늘 헤영 겹질 매당 보민 아긴 이디 벌경케 강 뭉 가족 벗곡.(35 다)

옛날엔 저 조, 조도 허고 콩도 같고 그거 허영 떡곡, 난 옛날 살아난 생각허민 경행 이젠 살단에 뜰 낭곡 그 시국 막 허난 뜰 성제 낭난 저 거세기 저디신 오라근에 가심팍에 총 탁 대어서 남편 신랑 간디 내노라 허민 경해도 저 구석에 곱아도 누게 곱앗젠은 안 곱안. “소 좃이레 가수다, 저 하르방.” 가슴팍에 “바른 말 안허민 쏘겹어, 쏘겹어.” 게도 양 이디 곱앗젠은 아이 곱아집디다게. 저 소 좃이레 가수다게 경허멍. 아이고 옛날 살아난 생각허민, 아기 두 개 난 시 개첸 또로 아덜을 하르방 군인 가불언양. 오닐은 가고 닐 뵈날 난. 아덜 난. 아이고 거 나난 이제양 난 낭명짜라 먹을 거 엇언. 옛날에 베짜는 거 알아집네까? 나가 늬의 베 강 짱, 벤 잘 짜나난게. 잘 짬젠 허멍 짜도렌 허민 가네. 옛날엔 그 보리쫄 보리 영 그레에 곤 거 흔 뵈 흐루허민 대신 흔 뵈. 대신 뵈로 흔 뵈 받안 먹으멍 그 아기 두개에 우리 아신 그 이제 소나눔 처음 난 거 업저뵈 그거 차멍 소뭇 곱음 반 먹음 반 살아났수다. 그말 들영 뭇 허쿠과? 무사경 아긴 경 하영 나짐광. 하르방은 군인 가분난 늬의 베 짜멍 그 아기덜 맥이멍 살아수게. 게난 친정어멍네 저 밖거레 간 살멍 아시가 아이덜 들양 친정어멍도 삶도 어려와도게 어멍헉니까?(49 라) 경행 그디 강 살멍 그 베 짜멍 흐루 흔 대신 흔 뵈썩 받으민 그거 헤영 그 아기덜 맥이곡 나도 먹는 체 허곡 경허당도 족양, 먹을 거. 대신 흔 뵈는 사발, 사발로 두 개 반게. 두개 반 뵈니다, 대신 흔 뵈민. 그거 허영 받으민 아기덜 시 개허곡 아신 나가 어려와부난 어멍신디 먹으멍 아기 들안. 삼 년 살안 군인 간. 아이고 나 살아난 생각 허민.

질: 옛날은 잘도 어루와낫어예? 베도 짜납디가?

답: 베는 이디영 헤여근에 이디 영 꼬리뺨 닳은 거 영 췌여근에 이 트멍 난 디로 영 두들곡 영행 착 두들곡. 미녕 짜는 거 헤영 옛날은 그 미녕 짜는 거 허민 영 허곡, 막 풀 아팍 경헤나민 막 풀 아프민 즈낙인 막 아팍 또 즈 지나민 흐뭇 젊으난 또로 흐뭇 나시민 또 강 차곡 경허멍 그거 허멍 삼 년을 경 늬으 거 허멍 그 아기덜이영 살아수게. 경행 삼 년 살안 오난 또로 소나눔 난. 이제 또로 뜰, 뜰도 요섯 개, 아덜은 시 개. 막둥이를 저 아덜 나난에 아이고 막둥이 뵈 때 아기 내려볼젠 가난. 하도 아기에 선선허난. 그 디서가 아이고 녀덜 뵈난 이번만 낭 다시랑 나지맙서. 난 보난 소나눔 난, 저거 이제. 옛말 곱아점신게.

질: 아기 백일돼민 무신거 해낫수과?

답: 아기 백일 돌아오랑? 아이고 옛날은 허지 못합니다게. 돛 돌아와도 뭇 해주지 못허여. 서사 해주주게, 밥도 굽는다 그거 돛 돌아와 뭇 해집니까? 일년 돼민 돛 돌아와도 뭇 해주지 못허여. 이젠 소뭇 상 출려낭덜 생일 돌아오민 힘니께. 농사 설런 스년이우다. 나이 해도 이 다리만 아니 아프민 영행 조침을 앓지 못합니다. 영행 앓아근에 검질 강 매명양 영행 문어앗곡 영행 문어앗곡 해가난 이디 손지 간 판 오꽃 집이 심영 오란 ‘가지뻘서, 밧디 가지 뻘서.’ 이디 곡석은 또꼬망으로 밧밧 끝아앗양 문뻘 꺼꺼불곡. 경해낫 수게게. 이제 스년 그냥 7만이 집이서 사난 게난 날7라 어디 강 볼 디도 보지 말렌 힘니다, 돈이 엇어부난. 사둔덜 하부난게 흐뭇씩이라도 봐사컬 허민. 아기덜 흐뭇씩 어떤 뻘 주민 걸로 보곡. 나냥으론 버을지 못허난 흐뭇씩 보리허곡, 콩 허곡 헐 때엔 십만 원도 허곡 오만 원도 허곡 허난 걸로 써전게, 거 설러부난 원.

질: 무슨 농사를 주로 지어남마씨? 보린 무신 보리해남마씨?

답: 옛날엔 맥주보리, 요즘에도 맥주보리. 슬오리 옛날은, 슬오리엔 현 거 갈안 먹음만 헐 풀진 안헐게. 먹을 것만 갈아낫수게. 조, 조허고 콩 허민 것도 다 먹음만 해연 풀도 못해연. 이녀 밧 엇이민 늬의 밧 빌영 허연. 콩, 옛날에 혼가지행 기자 허민 콩 풀도 못허영 먹영게. 존존현 콩, 상콩이엔 해여. 존존현거 이디 조선콩게. 그거해영 그레 곶양양 조 허면은 조 저당 죽 썩. 조에 콩 갈아당 낱 죽 썩 아기덜토 맥이곡.

질: 시집을 때 어떻게나신디 곶아줍서.

답: 옛날에 시집을 때 마썸?(12 나) 난 열아홉에 오고 하르방은 스물하나에 오난에 올 때에 저 거세기 영 허연에 그 무시거, 영 헐 그디 앓아난 이디영 이디 두 사람이 들런 오란. 도께, 도께. 도께 영 헐 들런 오라 가난 털어점직 해연 난 “아이고, 털어지켜게, 아이고게.” 허명 막 허여노난 드러 우시명덜. 경허곡 또로 옛날엔 그 물, 물 허여근에 영 앞이 메왕 도께에, 가메에 매우민 물 와들랑와들랑 들러켜가민 막 ㅁ습지게 털어지카부덴.(32 나) 그것에 탄 오란 옛날엔 어느절에 에이구. 이불 뭇을 힘니까? 이불 어느 절에. 이불 흥난 어머니 해꼬만헌 저 무신것 산디 하나 허난에양 옛날엔 것7라 하님, 하님, 하님헐 새각시 ㅁ사땡기는 것7라. 하님에 예펜 이불 요멘인헌 거 지언, 전 오란. 전 오고 난 그 앓이난, 그 도께에, 가메에, 도께에 앓이난 영 들런 오란.

질: 이불말양 케 7쁜 것도 아저웁디가?

답: 아이고 어느 절에 그거 어디 썩니까게?(64 라) 그런 거 아이고 어느 절에 요강, 수꾸락. 그거 하나뿐 허연 오난. 침 아이구 게난 어명도, 시집이도 간 보난 시어명도 아기 열 오누이. 아덜 다섯, 딸 다섯. 겨난 졸바로 먹지 못헐 시어명도. 시집이엔 헐 가민양 감저주시 사당 죽허영 혼 수꾸락씩 쥐뿔 시어명은 영 거려난 남자 거 굽어먹영 그냥 삽디다게 그냥. 아기 수정이 혼 열, 식구가 혼 열댓 개 허여노난 어떻힘니까? 아이고 우리 살아난 생각허민 무사사 경 시어명은 시어명 닳안 나도 아기 하영 난. 아이고 경해노난 양.

질: 잔칫날 무신거 먹어마씨?

답: 옛날사 보리밥게, 옛날은 보리밥 행 영 흐뎡씩 쉼, 돛케기도 서사 허주, 옛인 사름은 것도 못헤여 기냥. 우리 시집갈 땐 돛케기가, 것도 어쉽디다. **무신 옛날은 그냥 저 메역이라도 흐뎡 놓나, 느물 놓나 행 장죽이라도 행 주주.(1 라)** 옛날 어느절에 무신 결혼할 때사 뭐 옛날은 그 국 즐바로 먹곡 하간 거. 아이고 신부상 신랑상 헛자 무시거 뭐허지 안헙디다. 시집이엔 가봤자 뭐 엇어노난 주질 아니여. 시집이도 식군 한한허고 아무것도 엇어불고, 우리 어머니는 저 아덜 하나고 딸만 일곱 개 난, 우리 어머니. 계난 딸만 한한헤노난 딸까지 거 뵈 해주고 이 딸까지 거. 딸만 나노난 막 부에난 스뎡 이 딸덜, 딸덜 허멍, 경허멍 허연. 여덟 개 난, 친정어머니 여덟개 난, 딸 여덟개 난, 하난 돌아가불고. 아덜은 양계 하나 들안. 난 말젓, 시 번채. 말젓, 말젓. 옛날은 큰년, 셋년, 말젓년, 죽은년 경헤낫수게. 것도 또로 저 막둥이, 죽은거. 계민 일름 시민 일름으로 곶아가주게. 일름으로 곶아가당 말제덜은 따시 그 허영. 우리 큰성님 요든 아홉 살안 일본 싯수다. 우리 셋성은 살아시민 요든요섯인디 돌아가불고. 경허고 난 시 번채. 시 번채고 이제 문딱 돌아간 우리집이 하르방도 돌아가고 우리집이 큰아지방도 돌아가고, 죽은아지방도. 시 성제 돌아가불언. 우리집이 경 하도양 딸 시 개 죽어불고 아덜 시 개 죽어불언. 겨난 딸 두개 아덜 두 개베짜.

질: 새각시상에 맞춘 거 하영 올라와십디가?

답: 아이고 그런 거 어느 절에 **독게 탕 오랏자, 갓자 무신거 밥 흐 빨 행 주는 체뿐.(9 라)** 주는 체 허민 거 흐 적 먹어보는 체 헤영. 그냥 옛날은 독새기도 아니허고 그냥 밥 흐쓸 거렁 주민 거 먹어보는 체허곡 행 잇당. 시집인 강 보민 하도 어루왕 아기덜 하부난 즐바로 밥행 시어명도 먹도 못헙디다. 겨난 옛날 헤난 생각 허민 막 시어명도 불쌍헤여. 즐바로 먹지 못헙 돌아가난 막 불쌍헙니다게. 아기덜 하부난, 아기 경 하영 나노난 어떻헙니까? 경허난 옛날은 먹지 못헙 무시거 옛날 감저주시엔 허민 알아저? 감저주시 사당 시어머니 거 죽 썩 허민 아이고 강 시집이 강 거 먹젠 허민 아이고 막 성가서, 먹젠 허민. 영 먹는, 시어명 앞이선 먹는 체허당 시어명 옛인 땐 아이 먹고, 먹지 못헙 이레 낡. 경헤도 살아나.

질: 시집갈 때 옷은 무신 옷 입영 가낫수과?

답: **저 거세기 그냥 무신거 멩지 닳은 거 헤연 치메허고 저고리 하나 입언.(8 다/ 55 다)** 계난 시어명 멩지치메 헤원게. 멩지치메허고 저고리뿐 헤줍디다게. 겨난 그거 내불엇단 그거 저싱옷 허젠 보난 좀 쳐부난 데껴된 나 또시 헨 뵈된. 멩지 사단 헨 뵈뵈수다게. 이제 문 나이 하가난 어떻헙니까게? 그건 좀 쳐불언 데껴불언. 불 슬아불언, 옛날 건. 경허난 멩지 행 뵈된. 머리 막 이디 머리 질루면은 영 헤여근에 영 행 예정. 이디 보민 데레비에 막 영 예진 거 나옵니께. 이만씩 현 거 그추룩 예정, 예정 시집가 낫수게. 머리 예정, 이디 머리 막 질루왕 질영 허민은 뜯머리 뜯로 헤당 이디 뵈근에, 낡 영 헤여근에 그 예정, 경행 시집가낫수다. 계민 시집만 가민 그냥 머린 그냥 영 그건 앓아뵈 영영 빗영 그냥 멩것주게. 영 행 빈네 썩 이추룩 빠마허곡 하간거 어느 절에 아이고. 낭께기, 빈네 엇이민 무신 낭께기도 헤영 꼬주와. 빈네 못 사민 적꼬지 닳은 낭께기 영 코쟁이 신

거. 겨난 옛날은 것ㄴ라 빈네, 빈네 혜연 거 쩌 텡겨난. 속치메 허곡 하간거 어느 절에, 아이고. 하나 허연 입언 그냥 간. 게도 저 멧지 님은 거 뵈산디 혜연 입언 갓수다.(7 마) 결혼 허기 전이사게 기냥 그자 옛날에 영 저 미시거게. 적삼, 적삼 입영 이디 이추룩 헌 거 입엇수가? 영행 썩른썩른헌 적삼, 옛날 적삼이엔 허민 압니까? 감들이곡 헌 거. 경 적삼행 요디 영 단추 매곡. 이추룩 헌 단추 아니, 그냥 혜양헌 단추 봉가당덜. 단추 들곡 저 무스거 수납뵈엔 허느냐? 수납뵈 영 끼우는 거게. 게도 그런 것도 뵈 이서난. 이디 하나 멧 이디 적삼허민 영 짓 들앙게, 짓 들앙 짓혜여근에 요디 영 혜영 단추혜여근에 매 영 아랜 저 거세기 중이. 무신 걸로 혜영 중이 뵈들앙. 몸뵈허곡 하간거 어느 절에. 영혜영 곶 매영 곶 들앙 영 매영, 곶 들앙 매영 옷 뵈들민 중이 님은 거. 곶게 곶 매민양 양 뵈이 돌아. 이디 들곡 이디 들곡 허민 영 행 영 매민 이레 어울려 지주게. 영행 어울려 저. 이레 영 매영. 이디도 곶 들곡 이디도 곶 들곡 허민 일로 영 허민 이레 매주게. 게민 어울려저. 것ㄴ라 곶.

<F12, 한림읍 귀덕리, 76세>

질: 결혼할 때 뵈 행 먹어난 마씨?

답: 돼지 잡곡, 뵈부라허곡, 두부허곡. 그거지. 지지미허곡, 콩 두부허곡. (두부) 바다에 물 질어다가 촛물, 옛날 할망덜 ‘촛물 질어오라 두부허게.’(33 나) 두부헿 거. 경행 돛 잡곡. 두부에 돼지고기 놓곡 경험베끼, 옛날 잔치사 무슨.(55 마) (질: 잔치날 무신 국 행 먹어난마씨?) 국? 몫국, 아니 건 돛 잡는 날. 생성에 무 썰어 낳.(29 나) 새각시 국은 생성에 무썰어 낳. 생성이엔 혜, 옛날말로. 옥돔이엔 헌 말은 멧 십 년 돼긴 돼도. 생성, 생성. 뵈비, 김치, 감저 뵈부라. 계란도 혜영 찌지미 허곡, 계란 혜근에 영 찌지미덜 흐뵈허고 그냥 둥글락 허게 혜실 거라.(41 가) 나 헿 때, 감저 뵈부라, 돼지고기, 두부 그거. 두부 주장, 돼지고기 주장. 혼 집이 결혼할 때 잘 질루민 백 키로짜리, 백 키로 하나 잡으민 ‘아이고, 저 집인 백 키로 짜리 헿젠’ 허고. 보통 혼 팔십 키로, 구십 키로. 백 키로 넘어가민 막 도새기 잘 질랴첸덜 허곡. 질랴서 다 집이서 질랴 그뵈 집이서 잡곡. 돌아매영, 나무에나 어디 지등에 모가지 결령 영 돌아매영 한참 시민 죽어.(45 가) 게민 누루왕 기실랴. 검질, 아무 검질로도 허고 나무로도 허고 경행 터럭 문딱 베껴.(40 마) 경혜영 칼로 작작 밀어근에 허여뵈 썩어, 썩어근에. 배설은 그거 혜근에 막 시청, 존존헌 배설은 사시미 ㄴ치 찍영 회도 먹곡, 남은 건 저 수웨 담고. 보리썰 곶아당 돼지 피 놓곡 양념행 그 속에 담아. 막 그냥 마농도 썰어놓곡 보리썰로 혜. 문작허게 안 곶고 그냥 영 ㄴ레로 영 곶아. 영영 둘ㄴ레, 보리썰로. 보리썰로 허민 맛좋아. 이젠 지금은 밥허영 허는디, 밀 가루도 엇고.

질: 결혼할 때 어떻 헿 마씨?

답: 셋들 스무으드레 날 우리 결혼해서 음력으로. 어떻혜여 ㄴ만이 시민 신랑 들어왈첸 혜근에 영 문넛상에 혜영 함 받곡 함 반앙 문전에 절허곡 혜나른 들어왕 앗앙 밥상 출려주곡. 들어오는 건 안 봐. 우린 쵸팡에 앗아, 방 엇이난 곶팡 영. 방이 엇어부니까

옛날은 방 두 개베끼 엇이난 고팡에 쌀 놓고 항덜 농곡 헌디 신부 거기서 출려, 대부분은.(34 다) 미용산 와 낫어, 그때도. 나 결혼허젠 허난 일주일 수가 낸 오난이, 빛이 빛이 잘 몰라. 일주일 수가 낸 완 뒷녘날 가부난 겐 일년 살안 완. 첫날은 우리 추럭 탄 갖저, 추럭. 옛날 우리. 짐 시끄는 지금 추럭 닳은 거 그거 옛날 거. 그거 탄 간. 가마 탄 간 사름도 있어. 가마 탄 간 사름이 좋주, 우린 추럭 탄 간. 아니게 들러근에 형형 행 올레까지 들양왕. 봐난게, 우린 안 해도. 사름 네 사름이 동네 소서 헨 들러서. 그런 사름이 그런 때. 이불은 딱로 정 가, 그 소서들. 겐디 우린 추럭허난 추럭에 시켄.

질: 신랑침이 들어가민 어떻게 마씨?

답: 느람지 옛날 느람지허든 지금사 몰라. 신랑 들어와 가민 그 느람지 폐와. 신부 들어올 때는 몰라 폐우는 집이 신가? 신부 들어올 때 느령 꺾치 들어와. 게민 마리에 들어강 신부 구들에 가곡 신랑은 나가곡. 신부상에 특별헌 건 엇어. 독은 잡안 올려, 삶양. 독 잡양 올리고 계란 삶아 놓고 텨부라 놓고 돼지고기, 벨다른 음식이 엇엇주게, 옛날. (김치는) 꺾따, 꺾따. 배치도 존 거 집이 거 엇이민 우린 바다에 강 컷어. 바다에 존물에 소금 엇으난 흔 삼일 컷당이 거 시칭 강 걸로 김치행.(42 가) 고치가루는 기냥, 이제 꺾치 무신, 바농도 농곡게. 백김치, 아니, 고치고루 하영 안 쓰민 고치가루 어루와 노난. 이제 꺾치 막 별정케 안 해.

질: 대반은 어떤 사름이 앓이는 거우과?

답: 그 집이 친족이 앓아난 거 닳은디 대반이엔 헨 신랑신디도 상 받으민 처갓집이 켜당 하나 들어가 영 음식도 대접허고 술도 대접허고 해여. 신부상에는 그냥 우시 들러리도 강 해주는 사름도 잇곡 꺾치 들러리 간 사름, 신부영 꺾치 간 사름 해줘. 창 곶으로 델 막, 우리 주인이 오형제 막냉이난이, 성 딸이 니 성제 딸이 스뭇 일로 베리고 절로 베리고 막 곶날 딸르명 허난 우시 갖던 사름이 밥 흔 사발 헨 가네 만딱 손에 영 거러줘. 게민 막 스뭇 흔방울도 엇이 할라 먹고. 어릴 때 우린 경 안 해난. 방직이 나 열일곱에 가져신가? 우린 친정에 그추록 안 해. 부잔 아니라도 동네가 경 안 헨게. 겐디 우리 주인네 시집인 성 딸이, 성 딸. 우리 주인이 오형제에 막냉이, 딸도 엇고 허난. 조카덜이 바글바글. 게난 성 딸이 곶으로 베리곡 허든 우시 간 사름이 밥 허여근에 만딱 손바닥에 놔줘. 수까락으로 거러명. 우리 친정에 경 헨 사름 엇고. 우리 주인은 그 성 딸덜게.

질: 결혼식 뒷날은 어떻 험니까?

답: 그때 뒷녘날은 오쟁허든 시집이서 동기간덜 광목 석자 옥광목 석자, 치마 꺾슴 허나 경 켜게. 우린 엇은 집이라부난. 경 주난 거 포따리 썬 시아주방네가 사둔 만나레 오주게, 뒷녘날. 겨든 나 못 들르게 헨 시아주방이 들런 완게. 친정에 간 난 엇인 집이 가부난 옷도 곱게 안 허고 반지도 하나 안 받고 게노난 켜광에 핑 허게 데껴된 막 올언. 너무 섭섭헌 거라. 막 울어가난 우리 친정 이모가 “아이고, 경허지 말라 살아가명 헤진다, 살아가명 헤진다.” 그때 너무 섭섭해영, 섭섭해연. 나 스물 닛에. 집에서 친정에서 새 서방 스뭇 뒤희메 오렌 허난. 일주일 수가 낸 와 허연 가불엇주, 간 일년 살단 완. 끝, 것이 친정에 가든 자유 또, 이녁 시집이 가지구정 허민 가고, 흐루밤 장, 시집이 가는 사

름도, 난 육지레 가불엇주게, 뒷넉날. 판 사름덜은 왔다갔다 허멍 살 거주게. 시집이도 강 살곡, 친정에도 강 살곡, 살렘 내기 전에는. 거 혼이 엇어 건, 그 집안에 따라. 부젧집 인 빨리 살렘 살곡, 시집이서 그냥 멤챙 사는 사름도 있고. 그냥 집 빌어 주른 따로도 강 살곡, 엇이민 왔다갔다, 친정에도 왔다갔다.

질: 이불은 어떻게 만들어마씨?

답: 다 여자, 다 만들어. 날짜 반양. 옥광목 안 허곡, 혜양헌 옥광목에 양단, 우등 꺼풀, 우등이엔 현 기지가 이서. 양단 우등. 이불 꺾죽이 여러 가지지. 양단이 쥬 좋은 거지. 양단 현 채 꼭 들어가야. 우리 혈 때는 경헛어. 우리 그릇도 사기그릇 밥사발 열 개, 국사발 열개 하꼬 사과상자에 담양 하나. 그런 거 늑안티 안 떨어지게. 우리 으섯 채, 누비 이불 알룬 거 우리 하영 헛 간, 그때. 방직에 시난게 이넉냥으로 사멧게. 부모 혜준 것이 아니고 이넉냥으로 산. 보선 ㄱ뎡 거 선사로.

질: 부주는 어떻 혜낫수과?

답: 부주는 아니 그때 돈으로 아니고 광목 석자 주는 사름, 또 저고리 ㄱ슴 주는 사름,(15 다) 뒤 양단 그때 한 때라도 양단도 가짜 양단 혼 불 얻어 입엇어, 시어멧신되. 저 신서동 아무 것도 엇인 아덜 다섯 성제 폴아난 폴젠 허난 뒤 셔?(26 다) 우리 아기덜 이 머리가 좋아. 몰라 누게 님은 건지.

질: 떡은 잔치 때도 헛니까? 영장난 때만 허는 거짜?

답: 떡? (영장 난 때) 건 고적, 좁쌀로 허영 톱글랑허게 크게 거난 거 세영 혼 말에치 멧 개, 두 말에치 멧 개. 둥글랑허게 크게 좁쌀로 허영 강이 들레떡. 친헌 동기간은 한말에치 더혜. 두 뉘짜리도 싣고, 먼 쥬당은. 혼 말 짜리도 싣고, 이넉 동기간은 또 더 허는 사름도 셔. 부부, 부주, 장 난 디. 제쥬 푯낭 제쥬 치고, 경허고 밀ㄱ루로 새미ㄱ치 빵 만든 것도 싣고, 새미 인절미, 쌀로 허여. 밀ㄱ루는 빵도 톱글랑 현 것도 허주만은 보리쌀 골안 혜낫어, 옛날. 밀도 갈안 허는 집이도 신디, 보리로 산메떡 영 만들안. 기주허영 티와근에, 여름엔 경허고. 준 떡으로. 새미 인절미 잇어 좁는 거 허곡 납작허게 허고. (솔벤, 절벤) 무사 안허여? 거 혜야주. 밀영 터, 썸으로. 썸으로 텅 거 치어, 솔썸 뽀아다냥. 솔썸 뽀아당 숲아근에 영 숲앙 싣영 낫당 거 부뜨카부텐 영 영 짚앙, 짚앙 그 혼 줄 곤 떡 혜근에 새미 인절미 허젠 허민 영 석석석 허텅 짚앙 거 혼 줄 낭 또 짚곡 기추룩 허 멧 쳐 난.(33 다) 니귀반뜽 현 건 저 인절미, 또 영 좁은 거 영영영 좁은 건 새미, 경. 또시 톱글랑허게, 반들허게시리 만들영 곤떡 밀영이. 반들로 만든 거 싣고. 그자 곤떡으로 곤쌀로. 니귀반뜽현 새미, 또 거 인절미. 인절미엔 현 거 니귀반뜽현 거. 쌀로 그때 쌀로 혜낫저. 하영은 안허고. (두 개 붙인 건) 그거 서귀포레, 이디선 안 붙여. 고달 떡 토다토닥토닥 바위 허는 거. 그것도 상에 쥬 때 놔. 웃쩍, 계란 지정, 계란, 계란. 고사리 놓는 집도 싣고 안 노는 집도, 그전인 안 낫 혜난디 이제 젊은 사름덜은 놔도, 옛날은 안 놔난. 계란에 노리게 행. 구냥 뜰르진 안 혜. 우리 세젠. 귀덕린 뜰르지 안헤여. 쥬디 이젠 그런 거 다 귀긱추는 집이 엇어, 이제는. 간단허게덜만 이제는. 다 인절미, 송썸, 송썸도 혜낫어. 제사때도 허고 멧질에도 허고. 거 허는 집인 내 혜여. 것만 혜영 올리는 집이

도 짓고. 우린 간단하게. 게 대강 이젠 귀퉁추는 집이 드물어. 그전엔 귀퉁좌난디 젊은
사름덜은 간세로 허지 말젠, 멧경만 허젠 허고. 집이서 다게, ㄱ레 글명. 우리는 ㄱ레 안
골아난디 우리 우에 할머니덜 시어머니도 우리 동세네도. 우린 ㄱ레 골아보진 안 허고
우옛 어른덜 갈아준 걸로 만들만.

